정책연구

2024-02

인구위기 대응 생애주기 문화정책 방안 연구

A Study of Life-Cycle-Based Cultural Policies to Address the Population Crisis

윤지연·윤소영·조성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정책연구 2024-02

인구위기 대응 생애주기 문화정책 방안 연구

A Study of Life-cycle-Based Cultural Policies to Address the Population Crisis

윤지연·윤소영·조성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연구 책임

윤지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 연구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성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연구위원

연구 개요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2024년 기준 0.6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돌봄 인구 증가, 세대 갈등, 질병 관련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 기존의 출산 장려 혹은 재정 지원 위주의 대응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 및 관련 사회문제 해결이 어려운 한계점 존재. 이에 기존의 부처별, 기능적 정책대응에서 벗어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 대응의 모색 필요

2) 연구 목적

① 인구구조 변화의 현황 및 대응이 필요한 사회문제 분석

-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분석하고 생애주기별로 문화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영역들을 도출함

② 인구위기 대응 정책 현황, 문화정책 수요 및 사례 분석

- 저출산·고령화에 기인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의 수요, 사각지대, 문화체육관광부의 타부처 연계방안 관련 시사점을 도출

③ 인구위기 대응 관점에서 문화정책 재구조화 및 추진 방안 도출

-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에 준하여 기존 문화정책사업들을 재구조화, 인구위기 대응의 측면에서 생애주기별 추진 과제, 기존 추진사업의 개선 및 확대 방안 등을 제시함

나. 연구 범위 및 방법

- 문헌조사, 사례조사,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FGI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현재 우리 사회의 인구위기 관련한 사회문제와 그 원인 및 해결 방안을 분석, 문화정책적 수요, 방향성 및 추진 과제 등을 마련함

2. 인구위기 대응 생애주기 문화정책의 필요성

가. 인구구조의 변화와 영향

1) 저출산·고령화의 원인 및 현황

■ 대한민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과 장시간 근로가 일반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음. 정부의 노동 시간 감소 및 가족친화 정책 추진에도 젊은 세대의 결혼 및 출산 기피 현상은 심화되고, 출산율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상태임

■ 그간 결혼 적령기의 청장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짙어지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 양육 지원 부족 등이 주 원인으로 지적되어왔으나, 우리나라의 문화 특수성이 반영된 사회문화 및 인식도 중요한 원인일 수 있음

-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일하는데 가치를 많이 부여했던 우리 사회의 성장 기저에 존재하는 경쟁문화와 장시간 근로를 높게 평가하는 관행으로 인해, 치열한 일 중심사회로 진출한 여성들은 비혼과 출산 회피 경향을 보임
- 다양성이 존중받기 보다는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삶을 추구하는 우리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획일화 된 성공이나 삶의 방식을 동경하게 함. 이에 결혼 적령기의 청장년들은 어느 정도 갖춰진 조건이 되어야 결혼이 가능하고, 또 부모가 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생겨남

■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며,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전망됨.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국가로,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어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젊은 세대에 전가되고 있음

2)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겨난 돌봄 부담, 실업, 사회적 고립이나 통합, 신체 및 정신 건강 회복 등의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는 복지, 사회 및 경제 정책 분야에서 주로 경제적 지원과 제도적 개입을 통해 필수적인 기반을 마련해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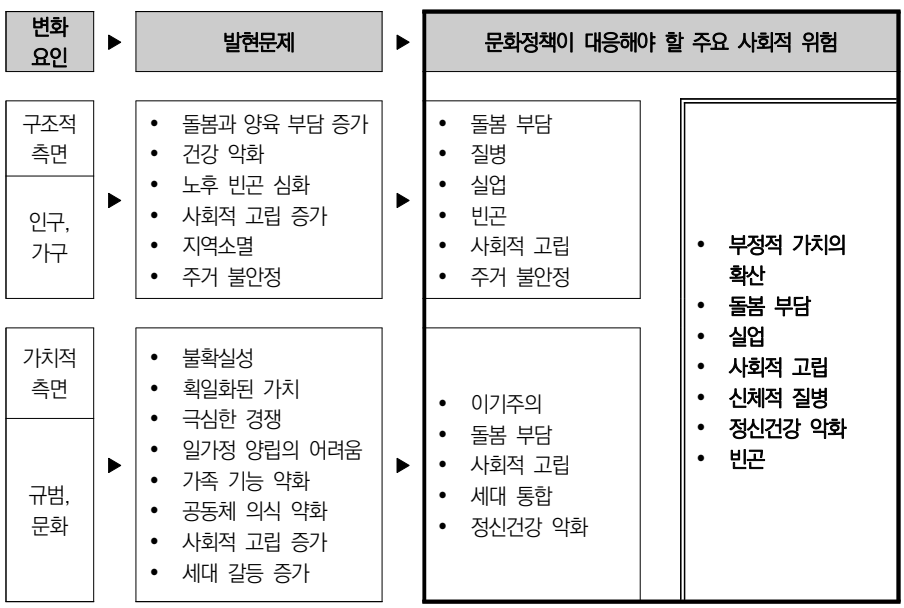
- (돌봄 및 양육 부담의 증가) 가족 기능 약화로 젊은 세대의 돌봄 및 양육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보육시설 부족 및 지역별 인프라 차이로 인해 출산과 양육의 공백이 생기며, 특히 맞벌이 부부는 돌봄 인프라 부족과 경제적 부담으로 양육을 지연하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큼

- (실업 및 빈곤 심화) 출산율 감소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며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 저하가 발생하며, 고령 인구 증가로 의료비와 노후 생활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빈곤층의 증가가 예상됨
- (사회적 고립과 세대 간 갈등) 고령층의 사회적 참여와 소속감의 기회가 상실되어 사회적 고립감이 증가하며, 특히 디지털 격차가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음. 세대 간 가치 차이와 비대면 생활방식으로 세대 간 갈등과 불통 문제가 심화됨
- (노후 생활과 건강 문제) 고령층의 건강 문제와 연금 및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은퇴 후에도 경제적 활동이 필수적임. 무엇보다 고령자의 성공적 노화를 위해 문화 활동과 여가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됨

■ 그러나 경제적 지원과 제도적 개입만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안정, 사회적 연결, 삶의 의미와 문화적 만족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그림 1]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변화에 따른 발현 문제와 사회적 위험의 도출



나. 인구위기 대응 정책 추진의 변화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제1차에서 4차까지 수립되면서 중점 추진 분야와 과제들이 변화함. 기존에는 복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중심의 경제적 지원, 출산율 제고를 위한 물리적인 사회 제도 양산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 최근 행복, 삶의 질, 가족, 돌봄 등의 키워드가 강조되면서, 국민 삶의 질 제고, 사회심리적 제약 제거 등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소프트웨어적 노력들이 강조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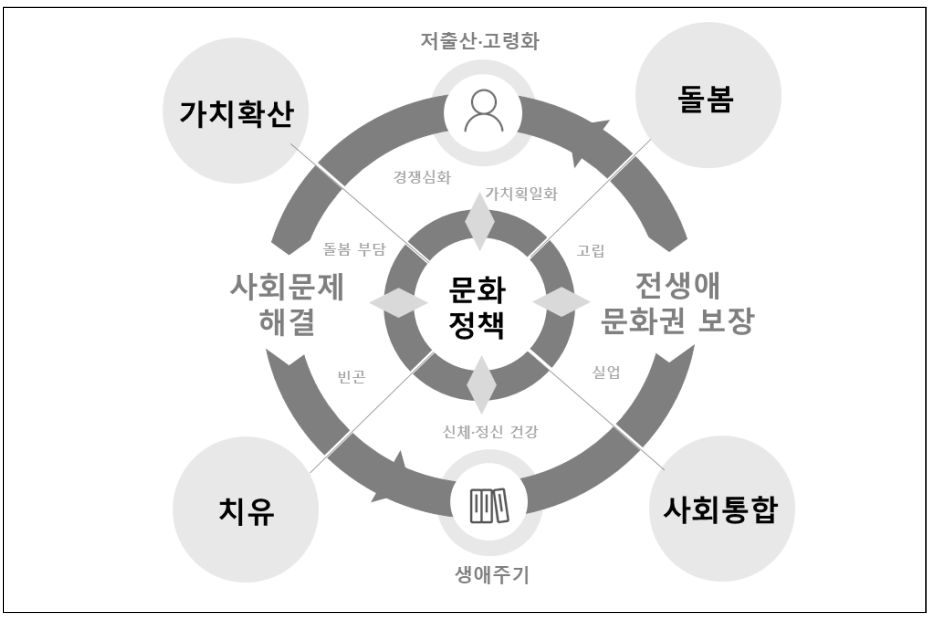
〈표 1〉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상 문화체육관광부 추진 과제 변화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	3차 기본계획	4차 기본계획
저출산분야	**저출산분야**	**저출산 대책**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 가족여가 프로그램 개발	•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아동이 행복한 사회	• 개인의 생애와 조화를 이루는 노동환경 확립
고령화분야	**고령화분야**	**고령사회 대책**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 노령기 기초건강증진 강화 • 노인여가활동 인프라 마련 • 노인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 양성	• 노인운동문화 확산 및 전문인력 확충 • 고령자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 • 문화바우처 지원 •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 고령사회의 여가기회 확대 • 고령친화형 컨텐츠 개발 • 고령친화 관광산업 육성 •	
성장동력분야	**성장동력분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 외국인 대상 문화사업 •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	•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 청년의 진로탐색 지원과 핵심인력 양성 • 청년 창업 지원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 자립생활 및 건강관리제품 서비스 활성화

다.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의 프레임워크

- 문화정책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개입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건강과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돌봄과 양육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문화정책은 전생애에 걸쳐 개인이 문화를 향유하고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
  -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외에도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과 직업 훈련을 연계하여 사회적 활동 참여 및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음
  - 문화를 통해 사람들이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공동체의 복지에 기여할 있음
- 위와 같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개개인의 문화권을 보장하여 국민의 행복을 제고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긍정가치의 확산, 돌봄, 치유, 사회통합의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함

[그림 2] 인구위기 관련 사회문제 및 문화적 대응이 필요한 영역



3. 인구위기 대응 정책 추진 현황

가. 정부 인구위기 대응 정책 추진 현황

■ 중앙의 인구위기 대응 정책은 교육, 고용·임금, 돌봄, 시민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청년과 고령층의 사회적 참여와 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주거와 건강 분야에서도 고령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세대 간 상호 협력을 촉진하는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영역에서 문화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보장영역별 문화 관련 사업

구분	사업 수*	주요사업
교육	5	초등교육 혁신을 통한 충분한 교육 제공, 생명존중·죽음교육 생애주기별 시행 모색, 미래형 교육에 부합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혁신, 성인문해교육 운영 및 디지털 역량수준 향상 · 격차 해소, 초고령사회 대비 은퇴 · 고령층 교육 제도화 추진
고용·임금	7	청년의 진로탐색 지원과 핵심인력 양성,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지원 강화, 퇴직 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기회 확대, 청년의 지역자립 지원 등
노동	1	장시간근로 해소 및 휴식권 보장
돌봄	9	아동돌봄기관의 공공성 강화, 다양하고 유연한 돌봄서비스 확충, 치매노인 및 가족 돌봄 지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적 확산 추진 등
가족공동체	5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기술 전수, 자산 공유 등 세대 간 상호협력 지원 등
건강	3	고령자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고령자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확충, 선제적 치매 예방 · 관리 강화
여가	1	신중년·고령자의 여가 기회 확대
시민참여	5	귀향 베이비부머의 안정적 정착 지원, 청년의 지역자립 지원, 미래형 교육에 부합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혁신,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활성화
삶의만족	3	신중년 노후준비서비스 강화 및 참여 확대,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선별적 지원 강화
주거	4	지역밀착형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고령자 주거모형 개발 및 제도개선 추진, (가칭)'한국판 은퇴자복합단지' 모형 개발 및 시범조성, 귀향 베이비부머의 안정적 정착 지원

주: 사업수는 보장영역간 중복사업을 포함함

나. 문화체육관광부 인구위기 대응 정책 추진 현황

- 문체부의 인구위기 대응 정책은 청년기와 중장년기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이 주를 이룸. 생애주기별로는 고령층 대상 사업은 일부 취약계층 중심으로 진행되며, 실질적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사회참여 프로그램은 부족하며, 영유아 및 고령층 돌봄 사업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은 영유아 및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 확장과 청년층과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참여 기회를 늘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문화정책을 통해 사회통합과 치유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 인구변화 대응 문화정책 추진 현황 분석 결과(생애주기×사회보장영역)

<table>
<tr><th>구분</th><th>영유아기</th><th>학령기</th><th>청년기</th><th>중장년기</th><th>노년기</th></tr>
<tr><td rowspan="4">교육</td><td colspan="2">• 어린이박물관 운영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 공연예술박물관 운영(예술피크닉)</td><td></td><td></td><td></td></tr>
<tr><td></td><td>• 종교의 사회적 통합기능 강화
• 미디어교육사업
• 첨단기술 기반산업 혁신
•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 미술향유지원</td><td></td><td></td><td>• 지역공헌활동 지원</td></tr>
<tr><td colspan="4">• 문화시설/(사회시설) 활용 인문프로그램 운영</td></tr>
<tr><td colspan="5">•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td></tr>
<tr><td rowspan="2">고용
·임금</td><td rowspan="2"></td><td rowspan="2">• 꿈나무선수육성
• 청소년대표육성</td><td>•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 산업타운 조성
• 국학진흥 청년일자리 창출
• 전통문화 창업 활성화
• 시각예술 창작육성</td><td></td><td rowspan="2">•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 국학진흥 실버일자리 창출
• 원로문예인 복지지원
• 문화가 있는 날 기획 프로그램 운영
• 차세대예술인력육성</td></tr>
<tr><td>• 콘텐츠 창작·창업 지역확산
• 지역특화콘텐츠 개발</td><td colspan="2"></td></tr>
<tr><td>노동</td><td></td><td>• 대중문화예술 진흥</td><td>• 여가친화인증제
•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td><td colspan="2"></td></tr>
<tr><td>돌봄</td><td colspan="2"></td><td>• 연결사회 지역거점</td><td></td><td>• 연결사회 지역거점</td></tr>
<tr><td>가족
공동체</td><td colspan="5">•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문화다양성 축제 및 K-WAVE 페스티벌</td></tr>
<tr><td rowspan="2">건강</td><td></td><td>•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 rowspan="2"></td></tr>
<tr><td colspan="2">• 안전한 스포츠환경 구축
•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td></tr>
</table>

구분	영유아기	학령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 노원 어린이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 국민체력인증제 운영 • 맞춤형 생활체육 활동지원 • 국립체육센터 건립 지원				
여가		• 국민관광지원	• 청년예술문화패스 지원		• 국민관광지원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 신나는 예술여행 • 문화체육관광 종합통계 개발 및 운영				
	• 문화격차해소 지방순회전 개최, •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 • 관광거점 조성 및 운영, • 통합문화이용권				
시민 참여			• 청년 문화정책 기반구축 • 대학생 기자단 운영		• 이야기할머니 활동지원 • 이야기콘텐츠 활용 확산
삶의 만족	• 국립춘천박물관 영유아체험실	• 취약계층 인문 향유 지원			• 지역공헌활동 지원 • 취약계층 인문 향유 지원
	• 문학창작육성 • 공연예술창작육성 • 기초예술 다양성증진 지원 • 어린이 아트앤 사이언스 파크				
	• 인문정신문화 활용 삶의 질 제고 지원, • 출판산업 기반조성				

주 1: 빗금친 부분은 인구변화 대응을 위해 문화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영역임

4.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의 수요 및 사례

가.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의 수요

■ 대국민 조사 결과 결혼과 출산, 건강한 고령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조성하는 것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중요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높게 나타남. 이는 문화정책이 긍정적인 가치와 문화를 확산하고, 미디어, 방송, SNS 등의 채널을 활용하여 결혼 및 출산의 긍정적 측면,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와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시사함

- 소득과 재산에서 불평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성별에 따라 양성 평등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남

- 결혼 의향이 낮으며, 여성에게서 특히 낮음. 자녀 출산 계획은 결혼 의향자 중에서도 매우 낮은 비율을 보임
- 저출산 문제 대응 문화정책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세대와 자녀 없는 부부가 주요한 정책대상이라고 응답했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미디어 캠페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남
- 고령화 대응 문화정책에서는 중장년층이 더 중요한 고려 대상으로 인식되며, 고령자 문화 향유 인프라 수요가 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미디어 캠페인에 대한 요구가 높고, 고령자의 사회적 기여 강조가 중요하다고 응답됨
- 문화정책 4대 목표 중 '문화를 통한 돌봄'과 '긍정가치 확산'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인식되었으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문화정책이 돌봄 체계와 긍정적 가치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고 응답함

나. 인구위기 대응 국내·외 사례

■ 기차확산, 돌봄, 치유, 사회통합의 문제를 문화를 통해 대응한 사업 및 서비스의 사례를 분석하여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 추진과제(안)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함

- (문화를 통한 가치확산) 사회적 인식 캠페인은 포용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정 사회적 이슈나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과 성평등한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문화를 통한 돌봄) 문화적 요소를 돌봄 서비스에 통합한 사례들이 존재함. 해당 사례들은 돌봄을 단순히 가정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공공 공간과 문화 활동을 통해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문화를 통한 치유)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정신적, 정서적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례들은 예술과 치유의 융합을 통해 참여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려는 특징이 있음
-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문화예술을 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서비스임.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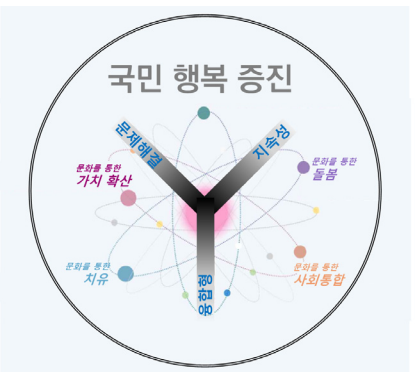
히, 세대 간 이해와 문화적 교류를 통해 고령자, 이민자, 소외 계층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포용적 사회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특징적임

5.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가.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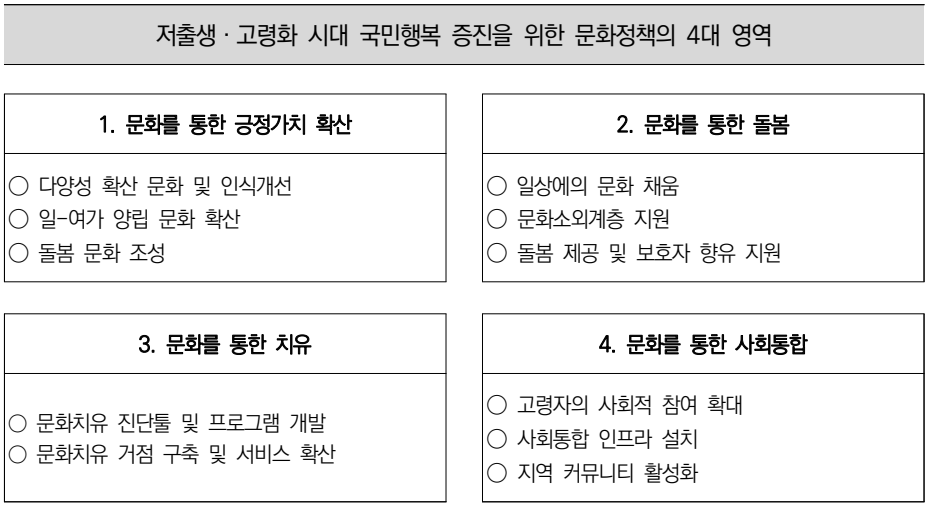
-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문화정책은 사회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전생애에 걸쳐 문화기본권을 보장하며, 융합적 접근이라는 기본 방향성을 가지고 설계되어야 함
  - (사회문제 해결) 문화정책은 단순히 국민의 여가생활을 증진시키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발전해야 함
  - (전생애 문화권 보장) 출생부터 노년까지 모든 국민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며, 특히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
  - (다양한 융합) 문화정책은 인프라, 프로그램, 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타부처와의 적극적인 연계를 시도해야 함
- 위의 방향성을 바탕으로 문화정책이 주로 추진해야할 정책 영역은 문화를 통한 가치확산, 문화를 통한 돌봄, 문화를 통한 치유,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임

[그림 3]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및 4대 영역



나.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의 추진과제

[그림 4]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의 4대 영역 및 추진과제



1) 문화를 통한 가치 확산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불평등, 획일화된 성공 기준, 물질주의 등 문제를 개선하고, 다양한 가치와 생활방식을 확산하고 이들을 인정하는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함
- 국민이 정서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지원함으로써 개인적 행복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문화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남녀노소, 취약계층 등을 불문하고 스스로를 돌보고, 타인을 돕는 것이 자연스러운 '돌봄 문화'의 확산이 중요하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돌봄에 참여하고, 생애주기에 상관없이 문화 향유가 가능한 환경 조성 필요

〈표 4〉 문화를 통한 가치확산 추진 과제(생애주기별)

생애주기	추진과제(안)
영유아기 (만0-5세)	• 다양성 교육 • 자기돌봄 교육 • 노키즈존 문화 개선
학령기 (만6-18세)	• 다양성 교육 • 자기돌봄, 약자돌봄 교육
청년기	• 다양성 교육(다양한 가치, 가족형태, SNS 디톡스 주간 등)

생애주기	추진과제(안)
(만19-34세)	• 육아의 사회화 문화 조성 • 직장 내 육아 및 여가 관련 프로그램 지원 • 돌봄 교육(자기 돌봄, 타인돌봄, 약자돌봄)
중장년기 (만35-64세)	• 육아의 사회화 문화 조성 • 직장 내 육아 및 여가 관련 프로그램 지원 • 돌봄 교육 • 문화향유 기회 제공
노년기 (만65세~)	• 육아의 사회화 문화 조성 • 돌봄 교육(자기 돌봄, 타인돌봄, 활기찬 노년, 새로운 시작 캠페인)

2) 문화를 통한 돌봄

- 지역 간, 계층 간 문화 격차를 줄이고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함
-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이유로 문화 접근이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예, 양육기 청년, 돌봄제공 청년 등)이나, 돌봄을 필요로 하지만 기존 복지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돌봄을 제공함
- 돌봄의 수혜자는 돌봄을 받는 대상뿐 아니라 돌봄을 제공하는 보호자도 포함될 수 있음

〈표 5〉 문화를 통한 돌봄 추진과제(생애주기별)

생애주기	추진과제(안)
영유아기 (만0-5세)	• 문화취약계층의 문화접근성 제고 • 영유아 돌봄기관 대상 문화예술컨텐츠 제공 • 영유아문화바우처 • 문화체육예술돌봄(안) 체계 구축
학령기 (만6-18세)	• 늘봄학교 내 문화예술교육 체계 마련 • 문화체육예술돌봄(안) 체계 구축
청년기 (만19-34세)	• 돌봄의 주체가 되는 청년(영유아 보호자, 고령자 부양 청년 등) 지원 • 문화체육예술돌봄(안) 체계 구축
중장년기 (만35-64세)	• 돌봄의 주체가 되는 청년(영유아 보호자, 고령자 부양 청년 등) 지원 • 문화체육예술돌봄(안) 체계 구축
노년기 (만65세~)	• 노인시설에 문화여가프로그램 제공 • 고령자 여가 활동 지원 • 문화체육예술돌봄(안) 체계 구축

3) 문화를 통한 치유

- 전국민이 건강한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동 속에서 발굴 및 예방하고, 정신 건강 취약자에게 정서적 안정과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문화를 통한 치유 정책은 모든 시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진단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추진되어야 하며, 그 일환으로 문화바우처의 사용처를 예술치료분야에도 적용하고,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을 문화치유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표 6〉 문화를 통한 치유 추진 과제(생애주기별)

생애주기	추진과제(안)
영유아기 (만0-5세)	• 문화예술심리치료 제공 및 지원 • 아동 병원 등에 문화예술봉사 단체 파견 및 지원 • 체육활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놀이 공간 마련
학령기 (만6-18세)	• 문화예술심리치료 제공 및 지원 • 스트레스 해소 교육 • 아동 병원 등에 문화예술봉사 단체 파견 및 지원
청년기 (만19-34세)	• 문화예술심리치료 제공 및 지원 • 고립 청년에 대한 접근 • 기업 및 직장과 연계한 청년 대상 문화치유 프로그램 제공
중장년기 (만35-64세)	• 문화예술심리치료 제공 및 지원 • 은퇴후 우울, 고립 중장년에 대한 접근 • 기업 및 직장과 연계한 청년 대상 문화치유 프로그램 제공
노년기 (만65세~)	• 문화예술심리치료 제공 및 지원 • 우울, 고립 고령자에 대한 접근 • 기업 및 직장과 연계한 청년 대상 문화치유 프로그램 제공

4)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은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통해 세대와 계층 간 이해와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중고령자의 사회적 참여 확대로 고령자의 가치와 고령자에 대한 존중 인식을 제고함
- 지역사회 내 통합 문화향유 공간을 마련해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대 간 상호작용을 촉진

■ 고령자에게는 자원봉사 및 사회공헌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삶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음

〈표 7〉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추진 과제(생애주기별)

생애주기	추진과제(안)
영유아기 (만0-5세)	• 문화예술육아 품앗이 지원 • 통합 문화향유 공간 마련
학령기 (만6-18세)	• 통합 문화향유 공간 마련
청년기 (만19-34세)	• 마을협동조합 • 대학, 직장과 연계한 청년과 고령자, 영유아 연결 프로그램 • 청년창업 내 사회통함을 위한 프로그램 권고 • 통합 문화향유 공간 마련
중장년기 (만35-64세)	• (자존감, 생계유지)선배시민, 재능기부 기회 • 지역 내 전문인력을 자원봉사 형태로 유치원, 어린이집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 – 자원봉사의 혜택을 문화바우처 형태로 지급 • 문화예술고령자 일자리 확대, 사회적 기업 등 지원 • 통합 문화향유 공간 마련
노년기 (만65세~)	• 시니어 사회공헌 활동 및 일자리 확대(이야기할머니 사업 확대) • 통합 문화향유 공간 마련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6

제2장 인구위기 대응 생애주기 문화정책의 필요성 ····· 9

제1절 인구구조의 변화와 영향 11
1. 저출산·고령화의 원인과 현황 11
2.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21

제2절 인구위기 대응 정책 추진의 특징 및 변화 27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27
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세부과제 변화 추이 30

제3절 문화정책에 대한 생애주기별 논의 34
1. 생애주기의 개념 34
2. 생애주기 문화정책의 필요성 38
3. 생애주기별 문화향유의 제약요인 40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43

제3장 인구위기 대응 국내 · 외 정책 현황 ····· 49

제1절 타부처 인구위기 대응 정책 추진 현황 51
1. 생애주기별 정책 현황 52
2. 보장영역별 정책 현황 55
3. 부처별 정책 현황 60
4. 생애주기×사회보장영역 분석틀 기반 현황 64
5. 타부처 문화 관련 사업 67

제2절 문화체육관광부 인구위기 대응 정책 추진 현황 73
1. 생애주기별 정책 현황 73
2. 보장영역별 정책현황 76
3. 생애주기×사회보장영역 분석틀 기반 현황 81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85

제4장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의 수요 및 사례 ····· 89

제1절 인구위기와 문화정책의 관계에 대한 의견 91
1. 전문가 의견 수렴 91

제2절 인구위기 대응 국내 · 외 사례 118
1. 문화를 통한 긍정가치 확산 118
2. 문화를 통한 돌봄 123
3. 문화를 통한 치유 125
4.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사례 128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34

제5장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 139

제1절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영역 141

1.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의 기본방향 141
2.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의 4대 영역 143

제2절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의 추진과제 150

1. 문화를 통한 가치 확산 150
2. 문화를 통한 돌봄 154
3. 문화를 통한 치유 158
4.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161

참고문헌 / 165

ABSTRACT / 169

부록1 설문조사지 / 171

부록2 주요 통계표 / 183

표 목차

〈표 1-1〉 인구위기 대응 정책 추진 현황 분석틀 6
〈표 1-2〉 전문가 심층 인터뷰 주요 내용 7
〈표 1-3〉 대민 설문조사 내용 7
〈표 2-1〉 시기별 인구변화에 따른 전망 19
〈표 2-2〉 제4차 저출산·고령화 시행계획 주요 추진방향 28
〈표 2-3〉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상 문화체육관광부 추진 과제 변화 31
〈표 2-4〉 2024년 저출산 5대 핵심 분야별 정책 주요 내용 33
〈표 2-5〉 본 연구에서의 생애주기 구분 및 연령 기준 37
〈표 3-1〉 인구위기 대응 정책 추진 현황 분석틀 51
〈표 3-2〉「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생애주기별 주요사업 52
〈표 3-3〉「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영유아기·학령기 대상 주요사업 53
〈표 3-4〉「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청년기·중장년기 대상 주요사업 54
〈표 3-5〉「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노년기 대상 주요사업 54
〈표 3-6〉 전생애 대상 주요사업 55
〈표 3-7〉「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보장영역별 주요사업 56
〈표 3-8〉「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교육 영역 주요사업 57
〈표 3-9〉「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고용·임금/노동 영역 주요사업 57
〈표 3-10〉「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돌봄 영역 주요사업 58
〈표 3-11〉「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가족공동체/건강 영역 주요사업 59
〈표 3-12〉「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여가/시민참여/삶의 만족/주거 영역 주요사업 60
〈표 3-13〉「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부처별 주요사업 60
〈표 3-14〉「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복지부 주요사업 62
〈표 3-15〉「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고용부/교육부 주요사업 62
〈표 3-16〉「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여가부/국토부 부처별 주요사업 63
〈표 3-17〉「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기타 부처별 주요사업 64
〈표 3-18〉「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분석 결과(생애주기×사회보장영역) 65

〈표 3-19〉「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보장영역별 문화 관련 사업 69
〈표 3-20〉「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부처별 문화 관련 사업 72
〈표 3-21〉 인구위기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내역사업 중 생애주기별 주요사업 73
〈표 3-22〉 인구위기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내역사업 중 영유아기·학령기 대상 주요사업 74
〈표 3-23〉 인구위기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내역사업 중 청년기·중장년기 대상 주요사업 74
〈표 3-24〉 인구위기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내역사업 중 노년기 대상 주요사업 75
〈표 3-25〉 인구위기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내역사업 중 전생애 대상 주요사업 76
〈표 3-26〉 인구위기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내역사업 중 보장영역별 주요사업 76
〈표 3-27〉 인구위기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내역사업 중 교육 영역 주요사업 77
〈표 3-28〉 인구위기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내역사업 중 고용·임금/노동 영역 주요사업 78
〈표 3-29〉 인구위기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내역사업 중 돌봄/가족공동체/시민참여 영역 주요사업 79
〈표 3-30〉 인구위기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내역사업 중 건강 영역 주요사업 79
〈표 3-31〉 인구위기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내역사업 중 여가 영역 주요사업 80
〈표 3-32〉 인구위기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내역사업 중 삶의 만족 영역 주요사업 80
〈표 3-33〉 인구변화 대응 문화정책 추진 현황 분석 결과(생애주기×사회보장영역) 83
〈표 4-1〉 FGI 참여 전문가 91
〈표 4-2〉 인구변화 대응 문화정책 관련 전문가 FGI 주요 질의내용 92
〈표 4-3〉 문화 돌봄, 문화 치유,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비교 96
〈표 4-4〉 조사 설계 103
〈표 4-5〉 주요 응답자 분포 103
〈표 5-1〉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의 4대 영역별 정책 개요 144
〈표 5-2〉 협의의 문화 돌봄의 정책 대상이 될 수 있는 계층(안) 147
〈표 5-3〉 문화를 통한 가치확산 추진 과제(전생애) 151
〈표 5-4〉 문화를 통한 가치확산 추진 과제(생애주기별) 153
〈표 5-5〉 문화를 통한 돌봄 추진 과제(전생애) 155
〈표 5-6〉 문화를 통한 돌봄 추진과제(생애주기별) 157
〈표 5-7〉 문화를 통한 치유 추진 과제(전생애) 159
〈표 5-8〉 문화를 통한 치유 추진 과제(생애주기별) 160
〈표 5-9〉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추진 과제(전생애) 161
〈표 5-10〉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추진 과제(생애주기별) 163
〈부표 1〉 주관적 경제 수준 185
〈부표 2〉 문화 소외계층 인식 186

〈부표 3〉 결혼 의향 187
〈부표 4〉 결혼 의향이 없는 이유 187
〈부표 5〉 결혼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1순위) 188
〈부표 6〉 자녀 출산 의향 189
〈부표 7〉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이유 189
〈부표 8〉 자녀 출산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1순위) 190
〈부표 9〉 문화정책의 저출산 문제 해결 기여도(1) 191
〈부표 10〉 문화정책의 저출산 문제 해결 기여도(2) 191
〈부표 11〉 문화정책의 고령화 문제 해결 기여도(1) 192
〈부표 12〉 문화정책의 고령화 문제 해결 기여도(2) 192
〈부표 13〉 저출생 고령화 시대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문화정책 중요성(1순위) 193
〈부표 14〉 (문화정책 필요성) 다양성존중 문화 확대 194
〈부표 15〉 (문화정책 필요성)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 195
〈부표 16〉 (문화정책 필요성) 돌봄 문화 확산 196
〈부표 17〉 (문화정책 필요성) 가족 친화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대 197
〈부표 18〉 (문화정책 필요성) 문화소외계층의 향유권 보장 198
〈부표 19〉 (문화정책 필요성) 컬쳐에듀케어의 평생교육체계 구축 199
〈부표 20〉 (문화정책 필요성) 일-여가 균형 환경 조성 200
〈부표 21〉 (문화정책 필요성) 정신건강 예방 및 지원 인프라 구축 201
〈부표 22〉 (문화정책 필요성) 문화치유 인력 양성 및 배치 202
〈부표 23〉 (문화정책 필요성) 세대 간 교류 활성화 203
〈부표 24〉 (문화정책 필요성)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확대 204
〈부표 25〉 저출생 문제 대응 문화정책 고려할 대상 205
〈부표 26〉 저출생 문제 대응 문화정책 고려할 대상(1순위) 205
〈부표 27〉 저출생 문제 대응 문화정책 효과적 방식 206
〈부표 28〉 저출생 문제 대응 문화정책 효과적 방식(1순위) 206
〈부표 29〉 고령화 문제 대응 문화정책 고려할 대상 207
〈부표 30〉 고령화 문제 대응 문화정책 고려할 대상(1순위) 207
〈부표 31〉 고령화 문제 대응 문화정책 효과적 방식 208
〈부표 32〉 고령화 문제 대응 문화정책 효과적 방식(1순위) 208
〈부표 33〉 미디어의 결혼 및 출산 의향 영향 정도(1) 209
〈부표 34〉 미디어의 결혼 및 출산 의향 영향 정도(2) 209
〈부표 35〉 미디어를 통한 저출생 문제 인식제고 캠페인 필요성(1) 210

〈부표 36〉 미디어를 통한 저출생 문제 인식제고 캠페인 필요성(2) 210
〈부표 37〉 저출생 문제 관련 인식개선 캠페인 주제 211
〈부표 38〉 저출생 문제 관련 인식개선 캠페인 주제(1순위) 211
〈부표 39〉 저출생 문제 해결위한 캠페인 필요성 항목별 응답분포 212
〈부표 40〉 (캠페인 필요성) 비교하지 않는 문화 조성 캠페인 212
〈부표 41〉 (캠페인 필요성) 자녀는 사회와 함께 키운다는 인식 확산 캠페인 213
〈부표 42〉 (캠페인 필요성) 육아의 기쁨과 보람 강조 캠페인 214
〈부표 43〉 (캠페인 필요성) 불평등 해소와 평등한 사회 조성 캠페인 215
〈부표 44〉 (캠페인 필요성) 가족의 다양성 존중 캠페인 216
〈부표 45〉 미디어를 통한 고령화 사회 인식제고 캠페인 필요성(1) 217
〈부표 46〉 미디어를 통한 고령화 사회 인식제고 캠페인 필요성(2) 217
〈부표 47〉 고령화 문제 관련 인식개선 캠페인 주제 218
〈부표 48〉 고령화 문제 관련 인식개선 캠페인 주제(1순위) 218
〈부표 49〉 고령화 문제 해결위한 캠페인 필요성 항목별 응답분포 219
〈부표 50〉 (캠페인 필요성) 세대 간 이해와 존중하는 문화 조성 캠페인 219
〈부표 51〉 (캠페인 필요성) 고령자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 강조 캠페인 220
〈부표 52〉 (캠페인 필요성) 활기찬 노년, 새로운 시작 캠페인 221
〈부표 53〉 (캠페인 필요성) 모두가 겪는 인생의 여정, 준비하는 미래 캠페인 222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수행방법 및 과정 8
[그림 2-1] OECD 주요국의 혼외 출생률 추이 15
[그림 2-2] 유형별 가구 수 변화 16
[그림 2-3]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17
[그림 2-4] 비혼 이유 조사 결과(18세 이상 성인 남녀 대상) 17
[그림 2-5]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및 노년부양비, 1960-2070년(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
[그림 2-6] 은퇴연령층(66세이상)의 중위소득 50% 이하 비중 20
[그림 2-7] 은퇴연령층(66세이상)의 중위소득 50% 이하 비중 20
[그림 2-8] 인구보너스기에서 인구오너스기로의 전환 22
[그림 2-9]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89개) 23
[그림 2-10]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29
[그림 2-11] 제4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의 정책체계도 30
[그림 2-12] 문체부-방통위 생애주기별 미디어 교육 주요 내용 35
[그림 2-13] 저출산·기본계획상 생애주기별 주요 정책과제 36
[그림 2-14] 연령분절적 사회에서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전환 38
[그림 2-15] 생애주기에 따른 여가의 수직적/수평적 연령통합 39
[그림 2-16] 생애주기별 문화향유의 제약요인 40
[그림 2-17] 성,연령,가구 구성별 여가시간 비교('23년) 42
[그림 2-18] 행복의 요소 및 증진 방안 44
[그림 2-19]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변화에 따른 발현 문제와 사회적 위험의 도출 45
[그림 2-20] 인구위기 관련 사회문제 및 문화적 대응이 필요한 영역 47
[그림 4-1] 사회 불평등 인식 항목별 응답분포 105
[그림 4-2] 주관적 경제 수준 105
[그림 4-3] 문화 소외계층 인식 106
[그림 4-4] 나는 현재 행복하다 106
[그림 4-5] 결혼 의향 107
[그림 4-6] 결혼 의향이 없는 이유 107

[그림 4-7] 자녀 출산 의향 108
[그림 4-8]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이유 108
[그림 4-9] 문화정책의 저출산 문제 해결 기여도 109
[그림 4-10] 문화정책의 고령화 문제 해결 기여도 109
[그림 4-11] 저출생 고령화 시대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문화정책 중요성 110
[그림 4-12] 저출생·고령화 시대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문화정책 필요성 항목별 응답분포 111
[그림 4-13] 저출생 문제 대응 문화정책 고려할 대상 111
[그림 4-14] 저출생 문제 대응 문화정책 효과적 방식 112
[그림 4-15] 고령화 문제 대응 문화정책 고려할 대상 112
[그림 4-16] 고령화 문제 대응 문화정책 효과적 방식 113
[그림 4-17] 미디어의 결혼 및 출산 의향 영향 정도 113
[그림 4-18] 미디어를 통한 저출생 문제 인식제고 캠페인 필요성 114
[그림 4-19] 저출생 문제 관련 인식개선 캠페인 주제 114
[그림 4-20] 저출생 문제 해결위한 캠페인 필요성 항목별 응답분포 115
[그림 4-21] 효과적 인식개선 방식/콘텐츠 워드클라우드 115
[그림 4-22] 미디어를 통한 고령화 사회 인식제고 캠페인 필요성 116
[그림 4-23] 고령화 문제 관련 인식개선 캠페인 주제 116
[그림 4-24] 고령화 문제 해결위한 캠페인 필요성 항목별 응답분포 117
[그림 4-25] 효과적 인식개선 방식/콘텐츠 117
[그림 4-26] 다양한 가치확산, 인식개선 사례 119
[그림 4-27] 일-여가 양립 문화 조성 사례 121
[그림 4-28] 돌봄문화 확산 사례 122
[그림 4-29]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향유하는 환경 조성 사례 124
[그림 4-30] 양육자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사례 125
[그림 4-31] 예술치료이론의 근간이 되는 풍요로운 삶 모델(Life Enrichment Model) 126
[그림 4-32] 문화를 통한 치유 사례 127
[그림 4-33] 세대 및 장르 통합 복합인프라 사례(핀란드 “헬싱키중앙도서관 오디”) 129
[그림 4-34] 공동체 조성 사례 130
[그림 4-35] 고령자사회적 참여 확대 사례 132
[그림 5-1]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의 방향 및 목적 도출 과정 141
[그림 5-2]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및 4대 영역 142
[그림 5-3]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의 4대 영역 및 추진과제 143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0.68명 수준으로 떨어져 세계 최저 수준이다.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 사회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등으로 인한 돌봄 인구의 증가, 노동력 부족, 사회적 고립, 세대 갈등,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새로운 도전과제를 맞이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저출산 · 고령화의 원인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기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특징적인 점은 기존의 출산 장려에 초점을 맞추었던 정책범위를 확장하여 국민 전생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을 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에는 정부가 제도적, 재정적 지원에 집중해왔으나, 이러한 개입만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을 충분히 향상시키기 어렵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빠르게 심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정책은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인구위기 특별위원회(국회)와 범부처 인구정책기획단 등을 통해 부처간 연계를 통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려는 시도가 강조되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적극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기존의 문화체육관광부 인구 변화 대응 정책은 주로 지역소멸, 청년 실업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대해서는 그 역할이 미미한 상황이다. 이제 문화정책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생애주기에서 개인과 가족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문화향유를 통해 사회 문제 해결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추진 과제들을 발굴해야 한다.

문화 분야가 사회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대안일 수 있음은 다수의 연구들을 통해 이미 강조되어왔다(정보람 외, 2022). 문화향유 정책은 국민들에게 정서적 안정, 사회적 연결, 삶의 의미와 만족 등을 제공함으로써 돌봄 부담, 실업, 사회적 고립, 건강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사회 내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전생애에 걸쳐 개인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돌보고, 지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현재는 문화향유 정책의 대상이 취약계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개인의 문화적 자본과 여가 자원을 확대하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돌봄과 치유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문화를 통해 개인 삶의 만족이 높아짐으로써 자발적으로 아이가 낳고 싶어지는 사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사회, 돌봄의 부담으로부터 해방된 사회, 은퇴 후에도 즐겁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문화정책은 전 생애에 걸쳐 개인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연구 목적

이에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와 이로 인한 주요 사회문제들을 검토하고, 전 생애주기에 걸쳐 문화향유에 제약이 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둘째, 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대응 정책과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의 수요, 사각지대, 문체부의 타부처 연계방안 관련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앞선 분석을 바탕으로 인구위기 대응 생애주기 문화정책의 방향성과 추진 영역을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방향성 및 영역에 따라 기존 사업들을 재구조화하고 및 추진과제들을 제안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외 사례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문화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가. 시공간적 범위

2024년을 기준으로 인구변화의 현황과 쟁점을 분석한다. 다만, 분석 대상 정책의 시간적 범위는 타부처의 경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이행시기인 2021년부터의 사업이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은 2024년 예산서 기준이다.

나. 내용적 범위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인구구조 변화의 현황 및 생애주기별 이슈를 살펴보고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두 번째는, 주요 중앙부처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구변화 대응 정책 사업들을 분석하여(생애주기별, 사회보장영역별 등) 대응 현황을 알아본다. 세 번째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서비스 수요 및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다. 네 번째는, 앞서 분석한 생애주기 문화정책의 필요성과 정책현황 및 수요분석을 기반으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문화정책의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한다. 마지막으로는 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과제 및 사업 등을 제안한다.

2. 연구 방법

가. 문헌 조사 및 사례분석

인구위기 변화와 쟁점 전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인구위기 대응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보고서, 정책 자료, 논문 등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현황 파악을 위해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및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 각목 명세서'와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국내외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적 대응 사례 분석을 위해 문화정책 방향성 및 목표에 맞게 유형별로 분류하고 해당 유형별로 사례를 조사하였다.

〈표 1-1〉 인구위기 대응 정책 추진 현황 분석틀

기준	구분
정책 대상	• 영유아(0-5세), 학령기(6-18세), 청년기(19-34세), 중장년기(35-64세), 노년기(65세 이상)
정책 보장 영역	• 교육, 고용 및 임금, 돌봄, 가족공동체, 건강, 여가, 시민참여, 삶의 만족
정책 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및 복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외 기타 중앙부처

주: 정책 대상의 연령은 만나이 기준임

나. 전문가 자문 및 관계자 인터뷰

사회분야 전반 및 저출산·고령화 대응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방문인터뷰를 실시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정책의 방향성, 타부처 정책 현황 및 쟁점, 문화정책적 수요, 타부처 및 정책수단 간 연계 방안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다. 또한 아동 및 고령자 관련 사업 담당자 및 참여자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화예술복지서비스 수요 및 쟁점을 도출하였다.

다. 표적집단인터뷰(FGI)

인구, 문화, 생애주기별, 보장영역별 등 관련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 등과 분과별로 그룹인터뷰를 실시하여 인구변화와 문화정책의 관계성, 문화정책의 방향성 및 목표의 타당성 등을 검토했다. 또한 분과별로 기존 정책의 성과 및 한계, 생애주기별 쟁점과 우선 추진과제, 문화적 지원 수요, 제약요인, 국내외 사례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표 1-2〉 전문가 심층 인터뷰 주요 내용

○ FGI 대상: 아동, 청년, 고령자, 복지, 돌봄, 치유, 사회통합 관련 전문가 17인
○ FGI 주요 질문 내용
1. 저출산 · 고령화 관련 현황
   - 저출산·고령화 관련 현황 및 쟁점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변화에 따른 문화향유 관련 쟁점
   - 국내외 사례
2. 저출산 · 고령화 대응 문화여가 정책
   -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의 역할과 방향성
   - 문화정책의 4대 영역 및 추진과제들의 타당성
   -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의 4대 영역별 정책사업(안) 및 사례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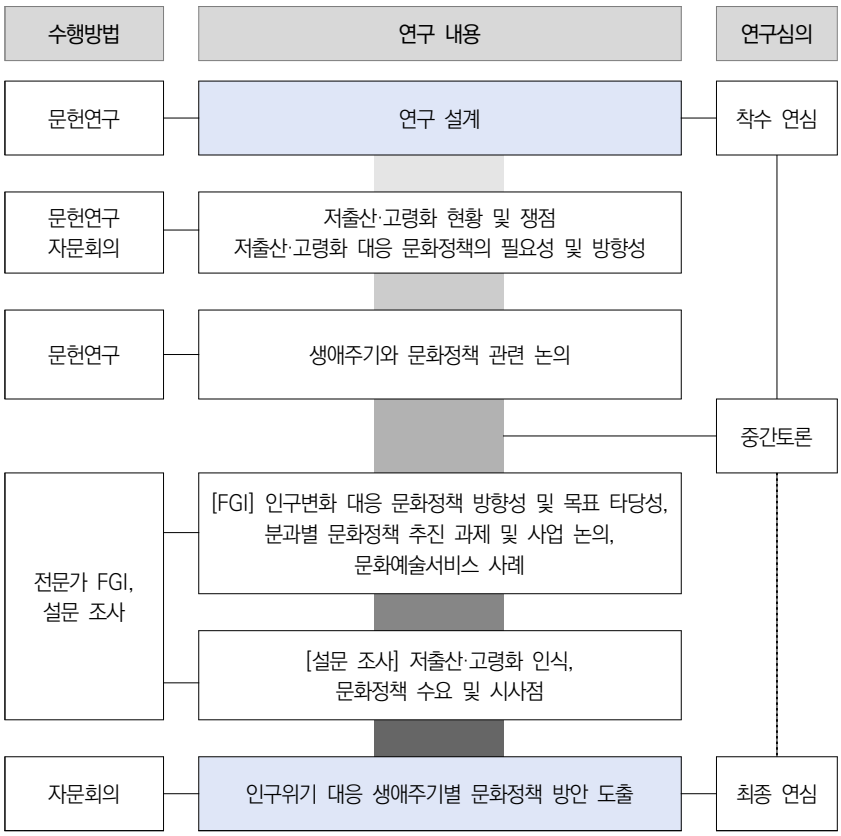
라. 대국민 설문조사

일반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생애주기별, 성별 배분 고려)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저출산·고령화 관련 사회문화적 인식 및 원인, 저출산·고령화대응 문화정책 영역 및 추진과제들의 타당도 및 필요성, 문화정책에 대한 기타 수요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표 1-3〉 대민 설문조사 내용

○ 설문 대상: 일반 국민 1,000명(성별, 연령별, 결혼여부 등 최소 쿼터 할당)
○ 주요 질문 내용: 저출산, 고령화 관련 인식, 생애주기 문화정책 정책의 타당도 및 수요 등 10-15문항
- 사회에 대한 인식
- 결혼 및 자녀 계획, 이유
-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의 효과성, 필요성, 정책 대상, 추진과제의 타당성 등
- 저출산·고령화 인식개선 방안

[그림 1-1] 연구의 수행방법 및 과정



제2장

인구위기 대응 생애주기 문화정책의 필요성

제1절 인구구조의 변화와 영향

1. 저출산·고령화의 원인과 현황

가. 원인

UN 국제기구가 정한 기준에 의하면 한국은 2024년 7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UN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7%를 넘어서면 고령화사회, 14%가 넘어서면 고령사회, 20%가 넘어서면 초고령화사회로 구분한다(이현주, 안옥희, 2023)[1]. 한국은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의 비율이 2000년 7.3%, 2017년 14.2%로 각각 고령화사회,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4년 7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 19.51%로 초고령화시회에 들어섰다. 즉 우리나라는 단 25년만에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전 세계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진행 속도를 보이는 국가이다.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전체 인구 10명 중 1명이 80세 이상인 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30%에 육박하는 나라, 그리고 전 세계 최고령 국가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고령화에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속도는 일본보다 7년이나 앞서 움직였으므로 2007년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현재 일본의 모습은 적어도 아주 빠르게 대두될 한국의 미래이다.

초고령화 사회로 인해 생겨날 변화와 이로 인한 문제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전반적 사회구조의 변화와 현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인 수요층에 맞는 생산품이 증가할 것이고, 노인 신체 활동과 이동 구조에 맞는 교통 문화의 변화, 노인 복지에 대한 지원 증가

1) 국내 학계 및 주요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UN의 기준이라 정의하고 사용하고 있는 고령화 분류임. 다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에 따른 사회분류가 인구 고령화의 속도를 확인 및 비교하는 분류지표로의 활용은 의미 있으나, UN에서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를 공식적으로 분류한 적은 없다"라고 지적한 최성재 교수(2023.07.10.)와 같이 UN의 고령화 분류가 공식적 분류기준이 아니라는 일부 의견도 존재함

등이 예상된다. 이러한 생산 인구의 증가가 필수적이고 이에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개선을 위한 출생률 제고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저출산은 인구구조의 변화, 이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감소, 생활의 질 저하 등으로 연쇄적으로 연결되며, 정책적으로는 공적 서비스 주요 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변화시키며, 65세를 넘어 80세 이상 인구의 신규 정책 수요를 발생시키므로, 기존 정책서비스의 조정이 불가피해진다. 이제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문제 앞에서 우리나라는 전방위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화정책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과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저출산과 고령화의 변화를 향해 달려온 데는 우리나라만의 사회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무엇보다 일하는 데 가치를 많이 부여했던 한국 사회 성장 기저에는 경쟁과 서열 문화가 유용하였다. 이는 그 어떤 나라들보다 눈부신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 가장 경제적 생산성이 극대화 되는 방식이 묵인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의 최상위권에 속해 있었다. 우리나라 국민의 근로시간은 2013년 연 2천 71시간에서 2023년 연 1천 874시간으로 연 200시간 가까이 감소했고, 월평균 16시간 이상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들보다는 150시간 이상 많은 상태이다(고용노동부, 2024). 2022년 기준 우리나라보다 연간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는 OECD회원국 중 콜롬비아(2천 381시간), 멕시코(2천 335시간), 코스타리카(2천242시간), 칠레(2천 26시간) 등 중남미 4개국과 이스라엘(1천 901시간) 등 5개 국 뿐으로 이 순위는 2023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연합뉴스, 2024).

이는 우리나라가 노동자들이 오래 일하고 노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문화를 갖고 있으며, 또한 노동자의 헌신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기 때문이다. 기업에서도 경제 성장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들은 생산성을 높이는 한 방법으로 노동 시간을 활용해왔다. 이러한 치열한 일중심사회 속에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게 되었고, 그러나 가정 내 역할 분담은 아직 전통적인 성별분업화에 따라 이루어지다보니, 결혼과 출산의 지연과 축소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 만혼과 저출산은 나아가 비혼과 출산 회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미혜, 2024).

우리나라 역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 · 생활 균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18.3월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

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의 개선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개정법은 기업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중에 있고, 고용노동부는 현장지원 정책과 제도보완, 여성가족부는 육아휴직 제도 등의 기업 문화 조성 및 가족친화 인증을 유도하며 새로운 가족친화 문화 또는 일-생활균형 문화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일-생활 균형이 결혼과 출생률 증가로까지 이어지는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은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국민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 생각하고 달려왔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감은 놀라운 경제성장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다. 이스터린(Richard A. Easterlin)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행복하다고 느끼는 국민의 비율은 30% 내외에 불과하며, 또한 그 비율이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하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이 증대되지 않는 이같은 현상을 경제학자들은 '이스터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이라 불렀다(이재열, 2015).

나아가 행복하지 않은 부모가 경쟁적이지 않은 사회에서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걱정 또한 저출생의 원인이 된다. 사람은 누구나 좌절을 경험하지만 학업, 취업, 집값 등 개인이 겪는 좌절이 클 때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이 어렵고 소진된 청년들이 출생을 기피한다는 것이다(조선비즈, 2023). 물론 개인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고, 개인 수준에서는 소득이나 자산과 행복감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는 연구는 많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 속에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양극화가 우리사회에 계속 부작용처럼 나타날 때, 한 나라 안에서는 행복감이 높은 사람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20대 근로자의 삶의 만족도가 낮고 경제활동이 불안한 상황은 경제적 안정이 최우선 되는 문화가 형성되고, 나아가 경쟁적인 한국의 문화는 남들만큼, 남들보다 라는 경제 수준이 도달할 때까지 경제 활동에 집중하게 한다. 결혼을 통해 가족을 꾸리기 시작하는 각자의 기준이 높아지고 연기되는 원인이 된다.

둘째, 다양성이 존중받기 보다는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이다. 과거 '결혼 적령기'라는 말이 이제는 사용되지 않는 말이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결혼하기 적당한 나이를 문화적으로 암암리에 정해놓고, 그 연령이 지나가면 노처녀, 노총각이라는 말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임을 규정하였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죄인'이 되던 과거도 우리나라에는 있었다. 다만 결혼 적령기에 대한 인식의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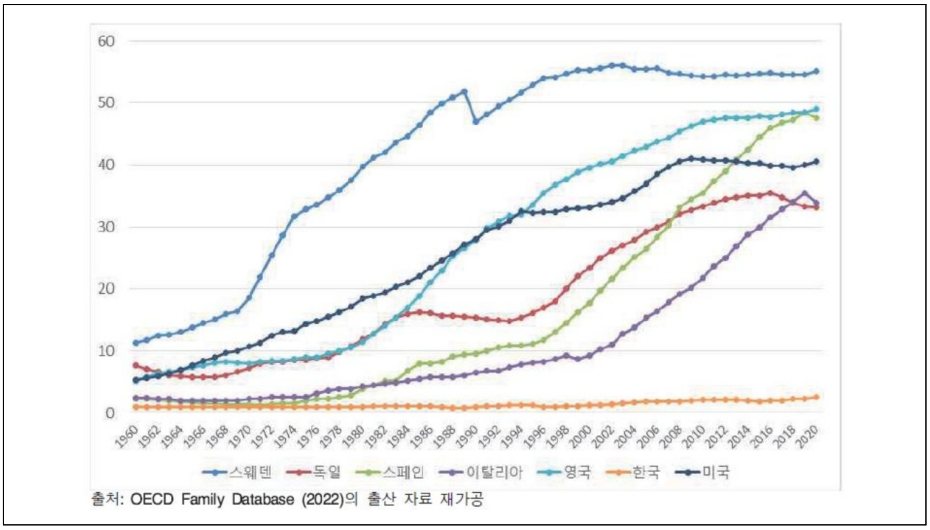
대간 차이는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회 구조적 변화와 인식 차이 변화의 속도 차이 등은 또다른 세대 간 또는 지역 간 가치 및 인식의 차이를 낳게 된다.

그러나 1990년대 결혼이민자의 증가와 함께 외국인과의 결혼과 가족생활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07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 결혼이민자가 내국인으로 정책 대상이 될 수 있었고, 이 법에서는 특히 다양한 가족 가치관의 수용, 다양성의 존중을 위한 문화 정책이 많이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많은 가치관 속에서도 특히 가족과 결부된 결혼, 출산, 이혼, 재혼, 한부모등과 관련된 인식들의 변화 속도는 느림으로 인해, 2012년부터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가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해당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8년에 비해 청소년은 수용성이 상승한 방면, 성인은 하락하여, 청소년과 성인 간의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고, 다문화 교육 활동 참여자의 수용성이 미참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2).

이제 다양성 수용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다른 가족관련 가치에도 더욱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애비 없는 자식', '처녀가 임신' 등의 용어들은 모두 한부모들을 폄하하는 말이며, 이러한 한국 문화는 미혼모들이 건강한 출산으로 양육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불법 낙태와 입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남들처럼' 이라는 획일화된 규범적인 삶과 행동에 대한 요구 기준이 많았던 우리나라에서의 정형화된 삶에서 벗어난 이들의 삶은 고단하다.

이러한 현상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벗어나 동거하는 가족의 수용성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출산은 결혼이라는 혼인 제도 안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의 동거가족에게서는 출산이나 양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혼의 전 단계로 동거를 하고 있는 응답자는 혼인신고 후 출산을 계획하는 경향을 볼 수 있지만, 결혼의 대안 등으로 동거를 하는 응답자는 출산 계획이 없는 경향이 더 우세해 동거가족에게는 출산 계획의 배제, 즉 무자녀 선택의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변수정 외, 2016). 이는 동거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높지 않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출산은 더욱 꺼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림 2-1] OECD 주요국의 혼외 출생률 추이



자료: 연합뉴스 "OECD 41.5%는 비혼출산, 한국은 2.2%..동반가족등록제 고려를" 2023.06.20

비혼 동거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전환 분위기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가족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가족 유형의 상이함으로 인해 차별받는 환경은 정책적인 대안마련을 넘어 폭넓은 교육과 매스미디어 활용, 캠페인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가족 형태의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도록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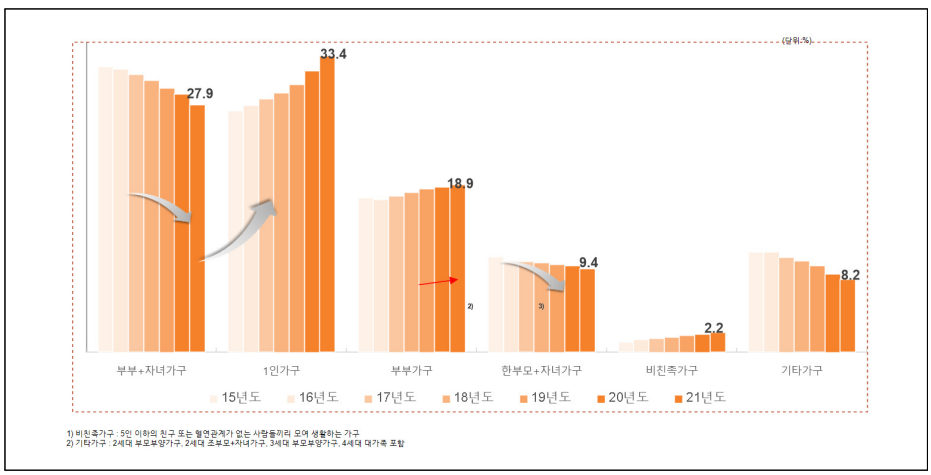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누군지도 모를 '엄마 친구 아들이나 딸'과 경쟁해왔던 우리나라, 졸업을 해도 안정적인 소득과 경제활동 진입이 '남'만큼 이루어지기 어려운 나라, 그래서 행복감이 가장 낮은 나라에서 늘어나는 나의 수명만큼 내가 안정되게 살 수 있는지도 현재 부모 세대를 보며 불안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특히 경제적 기반이 약하고, 아직 한국의 과거 가족관과 다양함이 혼재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는 아이를 낳고 길어진 노후에 대한 불안감과 변화가 빠르고 많은 한국 사회의 미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은 저출산의 또다른 원인이 된다.

한국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1위이며 OECD 국가의 평균 2배를 넘는 수치이다. 특히 20대 여성과 10대 남성의 자살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하루에 36명이 사망하는 수치이다(연합뉴스, 2021).

지금 갑자기 늘어난 수명은 현재 60대 이상 고연령층의 빈곤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빈곤 문제는 은퇴 후 소득 감소, 불충분한 공적 연금, 그리고 높은 의료비 부담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나, 너무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초고령화 사회에 미처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의 결과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고령자의 삶의 질을 저하,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그대로 젊은 세대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나아가 사람들이 결혼을 미루고 아이가 줄어들면서 생활하는 가구원수조차 감소하고 있다. 1970년 전국 평균 가구원수는 5.2명에서 1980년 4.5명, 1990년 3.7명, 2000년 3.1명 2022년 2.2명까지 낮아졌으며(통계청, 인구총조사),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구 형태는 1인가구이다. 혼자 살아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활의 안정성은 낮아지고 사회적 지지체계도 약화된다.

[그림 2-2] 유형별 가구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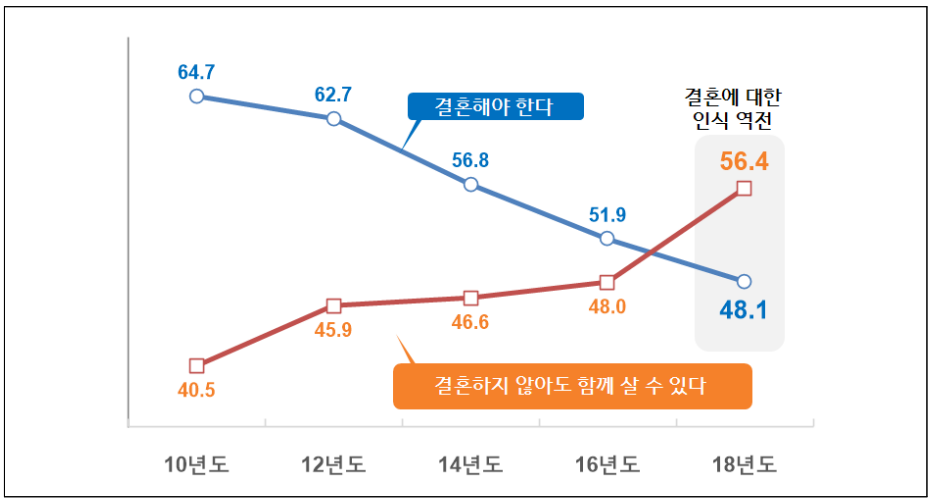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주된 가구수의 감소라는 생활 형태는 무엇보다 전통적인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더 이상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혼자 살거나 늦게 결혼하는 사회 분위기가 고착되고 있다. 30대 미혼은 1990년 남성 9.5%, 여성 4.1%에서 2020년에는 남성 50.8%, 여성 33.5%로 증가하였다. 초혼 연령 역시 2021년 남녀 모두 3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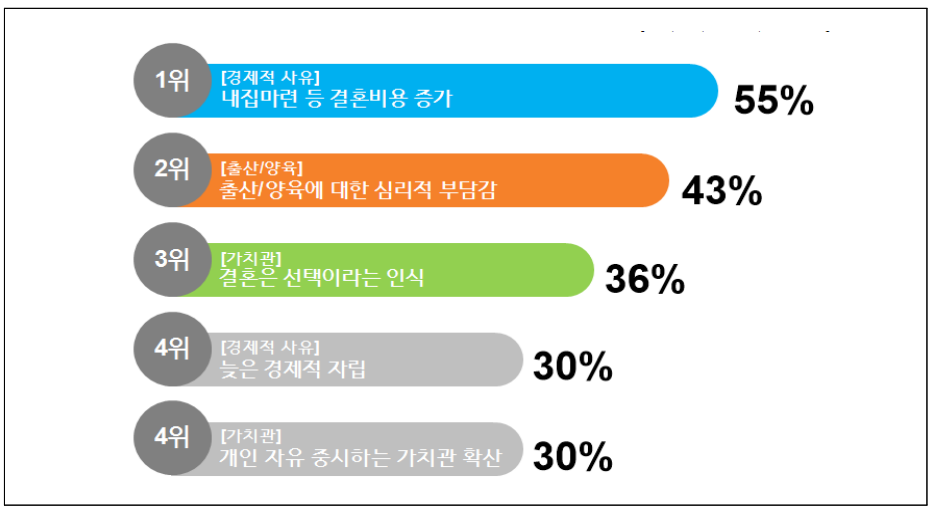
이후로 나타나, 남성은 33.4세, 여성은 31.1세이다. 통계청 사회조사결과 이제 결혼과 동거에 대한 인식도 이미 2018년에 역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렇듯 경쟁적인 사회문화, 다양성이 존중 받기보다 차별적인 대상으로 낙인되는 사회,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늘어나는 불안정성과 불안감은 만혼이거나 비혼, 동거인 경우에도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된다.

[그림 2-3]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결과(2018)

[그림 2-4] 비혼 이유 조사 결과(18세 이상 성인 남녀 대상)



자료: 한국리서치(2022). 결혼인식조사

18세 이상 성인 남녀가 생각하는 '결혼 감소 이유'는 1위가 '내 집 마련 등 경제적인 사유'로 결혼 이후에도 내 집 마련과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이 늦춰지고 있다. 어느정도 갖춰진 조건이 되어야 결혼이 가능하고, 또 부모가 될 준비가 된다고 생각하는 데 있어, 집마련 등의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는 증거이다. 또한 동거보다는 결혼 후에 출산을 기대하는 사회문화에서 출산 이후 일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으로 인한 기회비용과 심리적 부담이 또다시 출산을 늦추게 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의 경우, 첫 직장의 특성(정규직 여부, 급여, 기업체 규모)이 출산결정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어(국회예산정책처, 2019), 저출산의 원인은 개인이 생각하는 경제적 자립이 어느 수준이 이르기까지는 지연시키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높은 주거비용은 '나'의 소비 여력조차 감소시켜 더욱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할 것이다. 이는 2000년 이후 혼인한 가구 중 주거비 부담(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이 높은 가구일수록 첫출산 및 추가 출산가능성이 하락하기 때문이다(배호중, 2019).

또한, 이러한 저출산은 가족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며 가족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도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생활하는 형태'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응답자가 61.7%(변수정, 2017) 늘어날 뿐 아니라, 동거에 대한 긍정적 인식 61.2%(박복순 외, 2020)도 증가하고 있어 이 또한 출산을 미루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5년마다 조사하는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특징은 20대를 중심으로 비혼독신이나 무자녀 등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벗어나는 데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강해졌다는 것이다.(여성가족부, 2020). 20대가 무자녀나 독신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출생률의 하락을 예측하게 한다.

나아가 이제 울타리가 되어줄 가족의 수는 적어지고, 가족의 역할이 약화되면서, 급격히 진행된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길어진 노후의 자기 생활 유지를 위해 더욱더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선호하는 일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경제적 수요를 증가시킨다. 청년들이 더욱 비혼·만혼을 선택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나아가, 교육에서의 경쟁 격화는 자녀에게 들어가는 금전적·시간적·심리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이것은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하고 있다.

나. 현황

1983년부터 시작된 국내의 저출산 현상은 35년 이상 지속되어 왔으며, 초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1.3명 이하)는 2002년 이후 지속되어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동시에 기대수명 증가로 우리 사회는 2017년부터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추월하여 '25년 1천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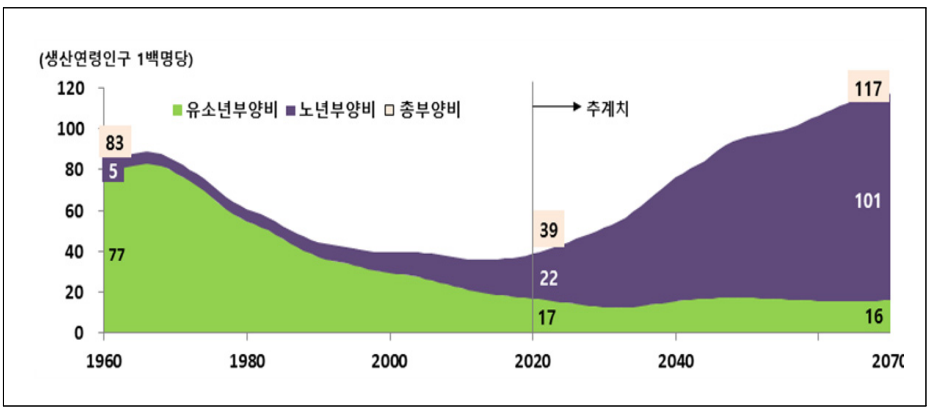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은 서서히 우리 사회에서 가시적인 모습들로 드러나고 있다. 우선 대학교를 넘어 초등학교가 줄어들 정도로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향후 개인생애주기에 따라 대학생, 군인수, 노동인력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표 2-1〉 시기별 인구변화에 따른 전망

시기	대학입학 인원	군 병력	노동시장
2020~2025	40만명→30만명대 감소	50만명대	아르바이트 등 인력 부족 시작
2026~2030	30만명대 유지	(현 제도 유지 가정시) 40만명대 유지	40만 세대 노동시장 진입 시작
2031~2035			
2036~2040	20만명대로 감소	40만명대 이하로 감소	20만 세대 노동시장 진입 시작

자료: 민보경 외(2023)

[그림 2-5]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및 노년부양비, 1960-2070년(통계청 장래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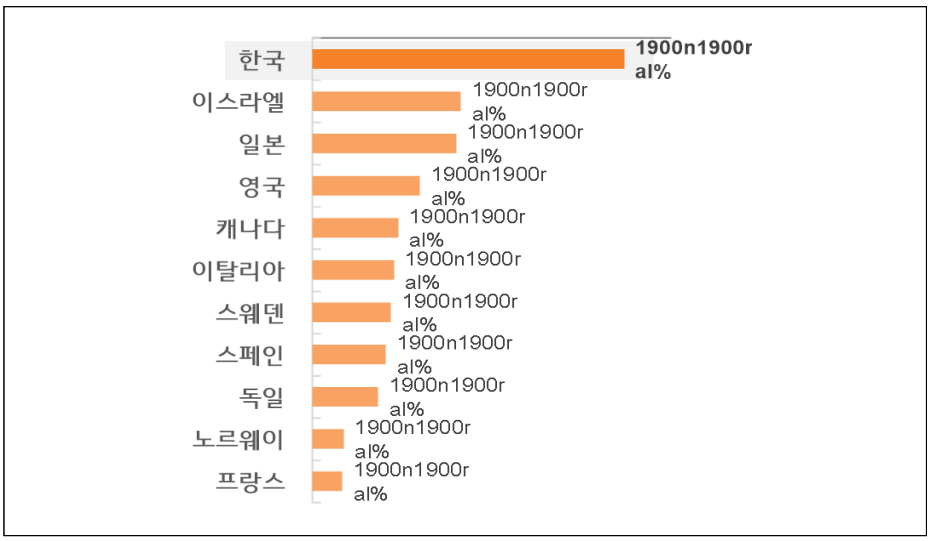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2023)

초저출산의 심화는 총인구 감소('21년~), 초고령사회 진입('25)으로 향후 10년 내 25~59세의 적극생산연령 인구는 320만명 감소하고, 65세 인구는 483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 이것은 곧 청년세대의 미래부담을 가중시

킬것이라는 우려를 낳게되며, 실제 향후 10년 동안 노인부양부담은 2배 증가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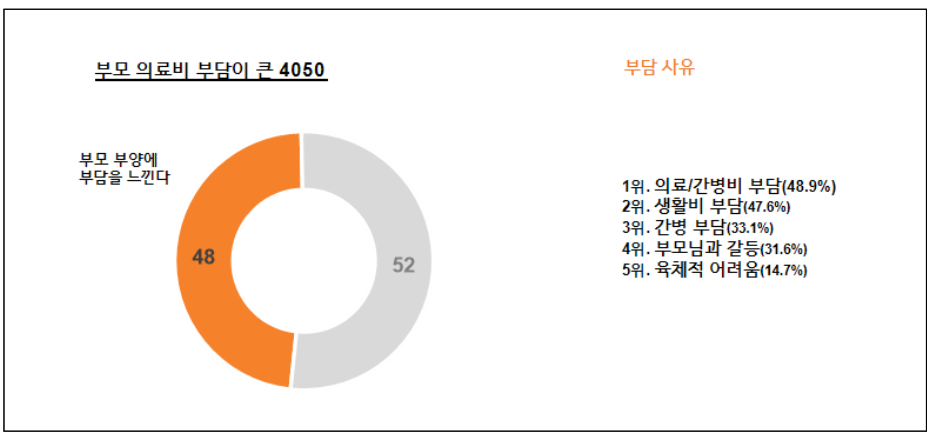
이제 곧 1천만명을 넘어설 고령인구는 갑자기 늘어난 노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문제를 유발하며, 우리나라를 OECD 국가 중 상대적 빈곤율이 매우 높은 나라에 속하게하였다. 준비되지 않은 길어진 고령시기는 노인세대의 빈곤층을 증가시키고, 이는 부모세대와 나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림 2-6] 은퇴연령층(66세이상)의 중위소득 50% 이하 비중



자료: 통계청(2018) OECD 주요 국가의 상대적 빈곤율

[그림 2-7] 은퇴연령층(66세이상)의 중위소득 50% 이하 비중



자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2017)

또한 고령시기 길어지면서 신체적·정신적 노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가 함께 부가됨에 따라 가족 내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킨다. 특히 노인성 치매환자의 증가와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 모두 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갈등과 신체적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기간 또한 길어지고 있다. 이들은 의료간병비 부담, 생활비 부담, 간병 부담을 호소한다(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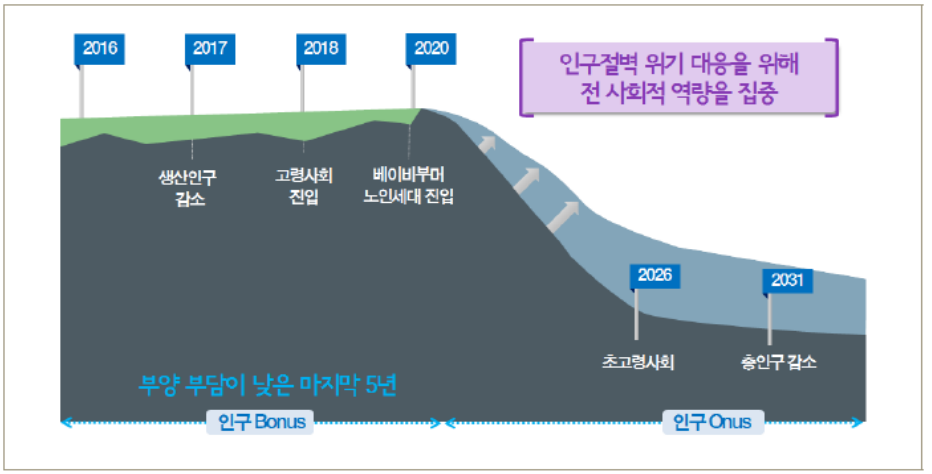
치매환자 또한 2020년도 10.3% 발생율에서 '50년도 15.9%로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때 1인당 치료비용은 2,072만원이다(보건복지부, 2021). 이는 2019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나타난 60세 이상 노인가구 연소득 4,151만원의 50%에 해당하며 일반 가구의 연소득 5,368만원의 39%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줄어든 가족수와 고령화에 의한 경제적 부담의 증가는 나아가 사회적 고립과 고독이라는 문제를 등장시키고 있다. 2021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그 이전인 2018년에 가족기능 강화로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건강가정기본법」에 1인가구가 정책대상으로 명시되기 시작하는 등 정책적 지원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2.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2005년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사회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을 강조한지 20년이 되어간다. 2016년 정부는 이미 인구절벽 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2020년까지라고 보았으나, 이제 우리는 전 세계 유래없는 저출산·고령사회로 주목받는 나라가 되었다. 혼자 사는 1인가구가 우리나라 가구의 가장 많은 가구 형태가 되었으며, 비혼과 무자녀 계획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사회에 살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간 풍부한 인적자원을 통해 성장을 이뤘던 인구보너스기가 끝나고 인구가 성장에 부담이 되는 인구오너스기에 들어섰다. 저출산의 장기화와 기대수명 증가는 사회경제적 저성장을 넘어 이제 위험요인이 되었다.

[그림 2-8] 인구보너스기에서 인구오너스기로의 전환



자료: 보건복지부(2015)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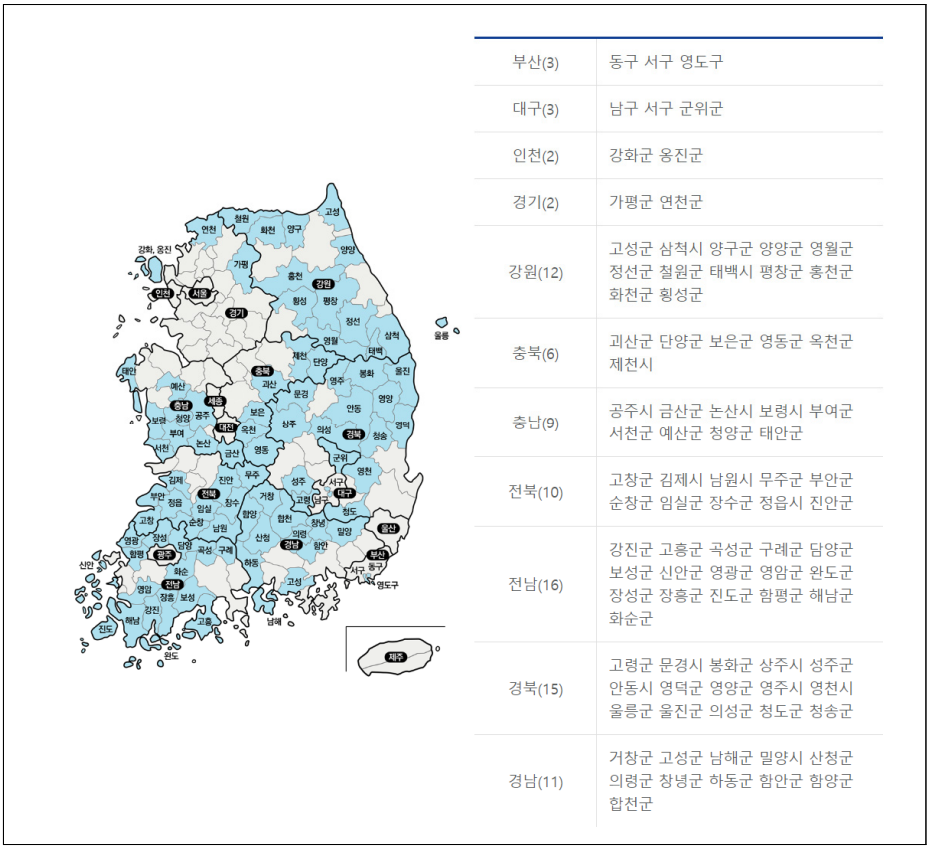
이러한 위험요인으로의 대두는 단순 저출산에 대한 인구정책만의 단편적 접근이 아닌, 국가적으로 모든 정책의 최우선 당면과제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위험 대응이라는 의미이다. 이에 기존 저출산·고령화로 다방면에서 발현되고 있는 문제에 문화정책이 지원할 수 있는 영역도 이러한 방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의해 나타나는 문제는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인구수의 감소, 그 중에서도 생산인구 또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가 문제가 된다.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의 노후 기간의 증가는 준비되지 않은 노인들의 빈곤의 장기화 문제를 발생시킨다. 나아가 노인이 많은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지역별로 고령화지수를 표시하고 있으며, 고령화지수가 높은 지역은 지역주민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이라는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지속과 전국 확대는 결국 대한민국의 소멸이라는 문제로 연결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최초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여 5년 단위로 발표하고 있다. 2021년 지정결과 89개 시군구가 지정되었다.

따라서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져온 문제는 지역소멸, 주거 불안정, 경제적 성장 둔화 등이며, 인구구조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규범과 문화는 가족 특히 결혼,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규범의 약화와 이로 인한 가족기능약화, 세대간 가치 차이에 따른 갈등과 이슈를 야기하게 된다.

[그림 2-9]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89개)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mois.go.kr)

가. 돌봄 및 양육 부담 증가

가족의 기능은 1차적으로 사회적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태어나면서 부터 가족내에서 보살핌을 받아 생존과 성장을 하며, 가족으로부터 언어와 규범을 비롯한 교육과 사회화가 시작되며, 나아가 그 나라의 문화를 계승하게 된다. 또한 세상일에서 오는 상처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가족지지 또한 가족의 중요한 기능이며, 나아가 가족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이 사회생활 인간관계의 밑거름이 된다. 그리고 사람이 일터를 떠나 휴식하고 재충전하여 다시 생산성을 발휘하게 만드는 곳도 가정임을 생각할 때 1인가구의 증가와 인구의 감소는 이러한 가족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반면, 젊은 세대에게는 돌봄과 양육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더욱이 결혼을 하여도 한명 정도의 자녀를 낳아 키우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가족 안에서만 돌봄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데 지지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린이가 태어나 자라는 지역에 보육시설의 수요가 발생해도, 지역별로 보육시설이나 학교 등의 감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부재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겨난다. 특히 보육시설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보육교사들의 축소로 영유아 아이를 돌봄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 같은 양육자들은 보육시설, 학교 등의 시설이 있는 곳으로 몰리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과 육아 결정을 연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돌봄을 위해 지불해야할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 특히 지역적으로 고령화지수가 높은 지역에서는 주변에 영유아 또래를 만나기가 어려워지며 많은 또래와의 교류보다 과거 도서 산간지역 분교에서 경험하던 소수 동년배 친구들과만 교제할 기회가 주어진다. 지역 인프라조차 영유아 보다는 주 인구 대상자인 고령층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된다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은 어려워질 것이며, 특히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양육과 돌봄의 문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나. 실업 및 빈곤의 심화

초저출산 현상은 생산 인력의 지속적 감소를 의미한다. 현재는 일부 직종에서 인력이 부족하지만, 베이비붐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면서 생산가능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며 총량적 인력부족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요 산업부문에서 노동력 고령화와 외국인 대체인력의 증가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 숙련노동자는 감소하며 노동생산성은 저하되고 결국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저하시킨다. 출산율의 하락은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로 이어진다. 이는 국가의 생산성 감소와 성장률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구매력이 높은 노동인구 감소와 구매력이 낮은 노인인구 증가는 소비와 투자를 감소시켜 내수시장은 위축시키고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또한 노후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가온 수명의 연장은 고령화의 가장 큰 문제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증가시킨다. 특히 노화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 신체적 활동 저조로 인한 주변인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고

립된 상태에 놓인 인구를 증가시킨다. 특히 노인이 비노인인구 보다 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진다(김태완, 이주미, 2020).

다. 사회적 고립과 세대 간 갈등

고령사회로의 빠른 변화에 따라, 젊은 세대 중심의 사회 속에서 고령층이 느끼는 실제적인 사회적 고립감은 점점 심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고령층의 고립과 고독은 고령자의 수명 단축과 정신 및 육체적 건강과 삶의 질을 해친다.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디지털 개입을 통하여 고령층을 사회로 개입시켜야 하고, 교통, 디지털 포용, 건축 환경 등 인프라 개선과 고령친화 지역사회 증진을 도모해야 하며, 연령주의(ageism), 불평등, 정보격차로 인한 고립감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법률 및 정책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주장(WHO, 2021)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사회적 고립감에 대한 문제는 이미 영국이나 미국, 그리고 일본에서는 정책적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대책들이 마련되어 왔다(윤소영 외, 2023).

한편, 세대간 가치 차이가 커지고 가족의 역할과 가치, 노동 문화, 혼인 문화, 여가 문화, 출산 문화 등이 변화하면서, 세대간 갈등과 소통의 어려움의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코로나 이후 사회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비대면 거래와 비대면 소통 방식은 새로운 생활방식과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예를 들어 핸드폰 사용 방법, 비대면 온라인 쇼핑, 앱이나 인터넷을 사용한 은행업무 처리나 쇼핑 방법을 익히지 못한 노인들은 활동 반경뿐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줄어들게 만들게 된다.

대한민국 미래 전망 연구(박성원 외, 2023)에 따르면, 2050년도 한국사회의 관계영역에서 주요한 요인은 '사회적 고립도'이며, 이러한 사회적 고립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사회적 관계망 여건이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 여건이 악화되어 사회적 고립도가 높아지면, 제도에 대한 신뢰도나 대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이는 시민의식과 집단간 소통과 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라. 노후 생활과 건강 문제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복지 시설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장기적 노화와 질병에 의한 지속적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노후 연금과

의료비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며 노인기가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연금수령을 기점으로 65세부터 100세가 넘어가는 넓은 연령대가 모여 있는 시기로 신체적 상태와 경제적 차이가 다양해지는 시기이다.

예를 들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고령층은 높은 교육 수준, 적극적인 정보 수용력, 자발적인 건강관리, 지속적인 사회참여 기대 등의 특징을 나타내며, 특히 여가 활동, 문화생활, 사회적 활동, 관계 유지에 대한 욕구가 크다(김신일, 2024; 백선아, 2017; 윤소영, 2016). 따라서 고령층의 노후생활은 노동시장의 은퇴나 연금 수급 시기, 건강상태가 나빠지는 시기 등을 고려해서 살펴봐야 하며, 특히 과거 생애주기에서 경험한 생활내용이 영향을 많이 준다(윤소영 외, 2023)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일 중심적인 삶을 살아온 세대로서, 일을 중단하거나 은퇴한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다(윤소영 외 2023; 윤소영, 2016). 경제활동에서 점차 은퇴를 하게 되고, 자녀가 독립하게 되며, 사회적인 관계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새로운 삶의 영역에 대한 욕구와 일치된 경험과 경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더욱이 사회보장 체계가 안정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노인들은 은퇴 후에도 계속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등 고령화는 곧 경제적인 빈곤과 새로운 삶에 대한 적응의 문제로 직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문화적 혜택을 향유하지 못하고 생애주기 전반을 지나온 고령층이 경제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문화 및 여가 활동을 통한 성공적인 노화를 바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여가 경력이 개발되지 않거나 과거 경험 없이 노후를 맞이한 고령자가 새로운 활동에 진입하거나 생활 영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누군가의 이끎과 사회적인 관심, 그리고 제도적인 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고령층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문화 활동과 여가 참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고령층의 새로운 삶의 양식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 고령자의 건강하고, 성공적이며, 최적의 노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신체적 활동과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이를 위해 가장 적절한 방법이 '문화 활동이나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것(윤소영 외, 2023; 윤소영, 2016)이다.

제2절 인구위기 대응 정책 추진의 특징 및 변화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2004년 국가적 의제로 설정된 이후,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며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추진해오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직속기구로,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총괄기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주요 기능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1차 기본계획(2006~2010)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며, 고령사회 관련해서는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유아 보육, 교육지원 확대로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노후소득보장과 요양보호를 위한 제도의 틀을 만들었다.

2차 기본계획(2011~2015)에는 국가책임보육 실현, 유아 보육, 교육지원 확대로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었다. 이 계획에는 저출산·고령사회 성공적 대응을 위해 2011~15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 2016~30 OECD평균 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효과적 대응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3차 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출산율 회복이라는 성과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만혼·비혼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금피크제 확 대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이 이루어졌다.

4차 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기존의 저출산 대응 정책목표인 출산율 향상 대신 '삶의 질 제고'라는 목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추진 중이다. 4차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는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 제공, 중장년 친화 일자리

사업 확대, 고령자 대상 의료·돌봄 자원 연계 및 공급 확대,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등이 해당된다.

〈표 2-2〉 제4차 저출산·고령화 시행계획 주요 추진방향

분야	추진 전략	주요 과제
저출산 정책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보육 확대 • 유보통합 시행, 늘봄학교 전국 확대 •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 일 육아 병행 지원 제도 이행력 강화 • 육아기 단축근로 및 유연근무 활성화 •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가족친화적 주거서비스	• 신혼부부 주거공급, 자금지원 확대 • 가구원수 고려 맞춤형 면적의 주거공급 확대
	양육비용 부담 경감	• 자녀장려금(CTC) 지급액 및 • 지급기준 개선 • 가족친화적 세법 개정안 마련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 난임지원 확대 • 세 미만 입원진료비 • 본인부담 제로화
고령사회 정책	의료-돌봄 연계 혁신	• 살던 곳에서 거주하는 통합 돌봄체계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 맞춤형 주거지 공급, 돌봄서비스 연계 강화
	고용 일자리 지원 강화	•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착수 • 중장년 친화 일자리 사업 확대
	고령친화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 고령친화 산업 생태계 조성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	• 인구 팽창기 도입된 복지시스템 점검 개혁

자료: 대한민국정부(2023)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

그러나 그간의 저출산 정책은 서비스 지원, 시간 지원, 수당 지원이라는 정책 외연은 갖췄으나 산발적인 정책 도입으로 인한 정책 체감도가 낮다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제 '개인 삶의 질 제고' 등의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표 대신 이번 정부에서는 결혼, 출산 양육을 선택하고 싶게 만드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가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정책 수요가 높은 임신·출산· 돌봄 등 아동· 가족을 직접 지원을 확대하려 한다. 또한 정책의 실수요자인 청년세대 가치관과 인식변화를 고려한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를 발굴하려 하고 있다. 즉 남녀 모두 '일'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결혼해도 경제적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출산 지연 경향이 뚜렷하고, 가능하면 부모가 직접 최대한 잘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희망'한다는 요구에 맞춘 정책 지원을 추진하려 한다.

[그림 2-10]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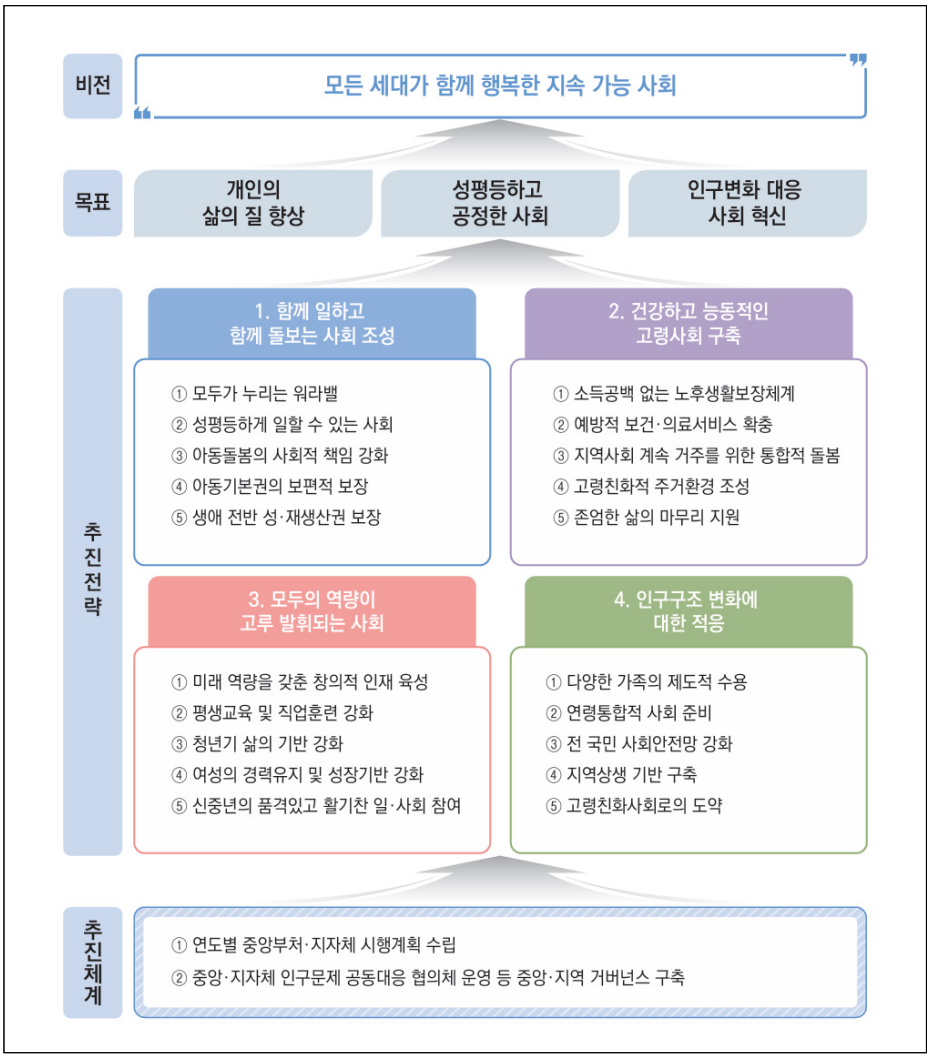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2023).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p.4.

여기에는 저출산의 주요 요인인 주거비용, 일·육아 병행, 경력단절 우려, 양육교육 비용 부담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지원, 건강 관련 대책을 우선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관련 위원회와의 협업 구조를 강화하고 문화·제도 등 사회구조 개혁을 통한 공동체 가치 회복과 가족·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全 사회적 참여와 공감대 확산을 한다.

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세부과제 변화 추이

현재 추진 중인 4차 기본계획 정책 체계는 모든 세대가 함께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아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혁신을 3대 목표로 세부 추진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2-11] 제4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의 정책체계도



자료: 대한민국정부(2023).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p.43

1차 기본계획에는 12개부 2개청, 1개위원회와 관련된 예산과 과제가 포함되었으며, 이때 문화체육관광부는 총 217개 과제수중 0.3%인 7개 시행계획 과제수를 포함시켰다. 가장 많은 과제수를 계획했던 부처는 중앙부처 전체 시행계획을 취합하여 저출산·고령회 위원회에 제출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82개과제) 였으며, 이어서 노동부(42), 여성가족부(26), 교육과학기술부(23) 순이었으며, 그 외 부처와 청은 10개 이하의 과제수가 포함되었다. 각 기본계획별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실행한 주요 과제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2-3〉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상 문화체육관광부 추진 과제 변화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	3차 기본계획	4차 기본계획
저출산분야	**저출산분야**	**저출산 대책**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 가족여가 프로그램 개발	•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아동이 행복한 사회	• 개인의 생애와 조화를 이루는 노동환경 확립
고령화분야	**고령화분야**	**고령사회 대책**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 노령기 기초건강증진 강화 • 노인여가활동 인프라 마련 • 노인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 양성	• 노인운동문화 확산 및 전문인력 확충 • 고령자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 • 문화바우처 지원 •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 고령사회의 여가기회 확대 • 고령친화형 컨텐츠 개발 • 고령친화 관광산업 육성	
성장동력분야	**성장동력분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 외국인 대상 문화사업 •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	•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 청년의 진로탐색 지원과 핵심인력 양성 • 청년 창업 지원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 자립생활 및 건강관리제품 서비스 활성화

제1차 기본계획 저출산 분야에서는 템플스테이 및 전통한옥 숙박체험시설 확충 지원 등 가족여가 개발 및 가족형 관광인프라 확충을 포함시켰었다. 고령화분야에서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및 전국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공원, 노인건강체육시설 등 다양한 운동 공간 설치 지원이 주가 되었다. 그 외 차상위계층이하 연간 5만원 한도 내 관람비용 지원, 고령친화형 문화 콘텐츠(실버세대 게임정보화 교육 실시 및 게임문화 컨퍼런스 개최 등) 실버문화프로그램을 150개 지방문화원에서 노인특성에 맞춘 운영이 계획되었다.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문화프로그램 사업 강화와 외국인 참여 TV프로그램이 운영 과제가 포함되었다. 이를 살펴보면 문화 시설, 문화비 지원, 노인 특성 맞춤 프로그램 운영이 특징이다.

그러나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보다 청년 중심 문화지도사 양성과 창업 지원 등 보다 발전적인 과제가 나타나지만, 고령사회 구축 영역에서 실행과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다. 실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에서는 개인의 생애와 조화를 이루는 노동환경 확립을 위해 장시간근로 해소 및 휴식권 보장을 지원하고 있다.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영역에 문체부의 추진 과제는 없으며,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영역에서는 청년기 삶의 기반강화를 위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의 진로탐색 지원과 핵심인력 양성과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요약해보면 저출산·고령화 기본정책에서는 출산율 증대를 위한 정책은 출산 및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육 시설 확충과 보육료 지원, 육아휴직제도 강화, 출산 장려금 지급 등이 1차때부터 실행되어 확대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고령화 대응 정책은 노인 복지시설 및 의료 서비스 확충, 노후연금제도의 보완과 확대,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으로 요약된다.

또한 1차에서 4차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기존 복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중심의 경제적 지원, 출산율 제고를 위한 물리적인 사회 제도 양산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 행복, 삶의 질, 가족, 돌봄이 강조되면서, 점차 국민 삶의 질 제고, 사회심리적 제약 제거 등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노력들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24년 저출산 5대 핵심 분야별 정책 주요 내용이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 일하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시간, 가족친화적인 주거 서비스라는 구분에서도 나타난다. 단순히 출산율 제고가 아닌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 대상 서비스의 확대로 가족 유형에 따른

아이들의 성장환경에 차이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들어가 있으며, 육아기의 일하는 부모 누구나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도록 제도가 확대되고 정비되고 있다.

〈표 2-4〉 2024년 저출산 5대 핵심 분야별 정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시간제 보육기관 확대: 1030개 반 → 2315개 반 아이돌봄 지원 가구 확대 · 현재 8만 5000명 → 11만 명 · 두 자녀 이상 가구의 본인 부담 비용 10% 추가 지원 돌봄수당 인상: 9630원 → 1만 110원(5% 인상) 정원 미달 어린이집 영아반(0~2세) 보육료 추가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 중위소득 60% → 63% 이하 ·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자녀 지원 · 월 20만 원에서 2024년 21만 원으로 지원 단가 상향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 취학 전부터 기초학습 지원: 138곳 → 168곳 · 정서·진료 상담: 113곳 → 143곳 ·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 신규 지원 · 이중언어 학습 지원 신규 제공 늘봄학교 추진: 2024년 이후 17개 시·도 지역으로 시범운영 확대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육아휴직 급여 기간 확대: 1년 → 1년 6개월 영아기 맞돌봄 특례(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일정 기간 급여 추가 지원) 확대 · 특례 적용 기간: 3개월 → 6개월 · 상한액: 최대 200만~300만 원 → 200만~450만 원 · 연령 상향: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육아기 근로 단축 확대 · 자녀 연령 확대: 8세 → 12세 · 지급액 인상: 최초 5시간 → 10시간 100% 지원 · 사용 기간 최대 24개월 → 36개월 중소기업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 확대: 5일 → 10일 '육아기 단축 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장려금 지원 사업 신설 대체인력뱅크 확대: 3곳 → 5곳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신생아 출산 가구에 특별공급 연 7만 가구 수준 공급: 공공분양 3만 가구, 임대 3만 가구, 민간 분양 1만 가구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 신설: 연 3만호 제공 신생아 특례대출 · 시중금리 대비 1~3% 낮은 금리 · 대출 이후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포인트 추가 금리인하 · 소득요건: 1억 3000만 원 이하로 확대 청약제도 개선 ·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상향: 미혼 가구의 1.4배 → 2배 · 같은 날짜에 발표되는 청약에 대해 부부 개별 신청 가능 ·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부 합산 가능 ·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신청 불가 사유에서 배제 · 민간 분양에서도 2자녀부터 다자녀 특공 신청 가능
양육비용 부담 경감	부모급여 인상(0~1세) · 0세: 70만 원 → 100만 원 · 1세: 35만 원 → 5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금액 확대 ·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아이부터 300만 원

자료: 이소영·황남희·장인수(2024). 2024년 인구정책의 전망과 과제

제3절 문화정책에 대한 생애주기별 논의

1. 생애주기의 개념

가. 생애주기 개념 및 구분

생애주기는 개인의 삶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마다 경험하는 발달과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는 일반적으로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단계는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와 함께 특정한 역할과 활동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 생애주기는 개인의 발달과 성장을 이해하는 중요한 틀로, 각 단계마다 필요로 하는 지원과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생애주기 이론의 기본은 각 생애주기별로 성취해야 하는 발달과업이 있으며, 이 발달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인간이 가족 내에서 성장하는 반면 다양한 위기관련 요인에 의해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생애주기를 근거틀로 할 때 국가는 출생 후 건강한 인간 발달과 성장을 발달단계에 따라 생애를 주기별로 나누어 지원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생애주기의 연구에서는 생애주기 단계의 적절한 구분이 중요하다. 생애주기는 학자마다 다르게 구분되어 가족을 시작시키는 결혼부터 가족이 소멸되는 사망까지 3단계에서 8단계로 다양하게 구분한다. 에릭슨은 생애주기를 8단계로 유형화하여(영아기-유아기-아동전기-아동기-청소년기-성인초기-중장년기-노년기)구분하였다(Erikson, 1963). '새로운 복지지표체계 발굴 및 정책과의 연계방안(2010)'은 생애주기를 아동·청소년기(0~24세), 성인기(25~64세), 노년기(65세 이상)의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유럽연합(EU)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정책 분석틀에서는 연령을 기준으로 0~17세, 18~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의 5단계로 구분하였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계획(2010)'에서는 태아기, 영유아기(0~6세), 아동기(7~12세), 청소년기(13~19세), 성인기(20~39세), 중·장년기(40~64세), 노년기(65세 이상)로 구분하기도

한다. 생애주기는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규범적 사건, 예를 들어 취업과 혼인 및 출산, 정년퇴직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한 발달적 사건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고, 가족내외에서 새로운 역할을 취득하거나 기존 역할을 상실함에 따른 역할변화를 기준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의 연구는, 생활주기상의 발달적 위기를 찾아 생애주기상의 변화와 관련된 위기를 지원방안을 찾고자 할 때, 생애주기를 구체적으로 아동기와 성인기의 발달과업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이때 사용된 발달과업은, 청소년의 정체감 혼돈, 대학입시, 첫 직장 적응, 결혼, 임신, 자녀결혼, 이사, 은퇴 등이었다.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서비스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영유아(만0~5세), 아동·청소년기(만6~18세),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만65세 이상) 등 생애주기에 따른 출산, 양육, 실업, 질병, 노령 등의 기본욕구를 보장하고 있다.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서도 정책대상별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아동양육 부모, 중장년, 고령자로 구분하였다. 최근 발표된 문체부-방통위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 지원을 골자로 한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에서는 생애주기별 정책대상을 영아기(만0-2세), 유아기(만3-5세), 아동·청소년기(만6-18세), 청년기(만19-34세), 중·장년기(만35-64세), 노년기(만65세 이상)의 분류와도 유사하다. 다만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비해 문체부-방통위의 생애주기는 영아기와 유아기를 분리한 6단계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2-12] 문체부-방통위 생애주기별 미디어 교육 주요 내용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 (2024.3.28)

[그림 2-13] 저출산·기본계획상 생애주기별 주요 정책과제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나. 기본법에 따른 연령 규범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기초연금법」에서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법으로, 수급대상자의 연령기준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 국민 인식에 따른 연령 규범

생애주기에 대한 국민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나타난 아동과 청년의 상한 연령기준을 근거로 국민이 생각하는 생애주기를 분류할 경우 아동은 대략 12세(초등학교 졸업), 청년은 35세까지로 구분되므로, 0~12세는 아동기, 13~19세는 청소년기, 20세~35세는 청년기로 나눌 수 있다(이윤경, 2021)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 정책 대상의 연령기준은 대부분의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문체부 생애주기별 정책 계획 등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정책에서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영유아기-학령기-청년기-중장년기-노년기’의 생애주기 구분을 활용하여 논의를 진행하며, 각 구분 영역에 해당하는 연령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2-5〉 본 연구에서의 생애주기 구분 및 연령 기준

생애주기 구분	세부 구분 및 연령 기준	비고
영유아기	영아기(만0-2세)	
	유아기(만3-5세)	
학령기	아동기·청소년기(만6-18세)	
청년기	청년기(만19-34세)	육아기 부모의 경우 두 대상에 모두 포함 가능
중장년기	중·장년기(만35-64세)	
노년기	노년기(만6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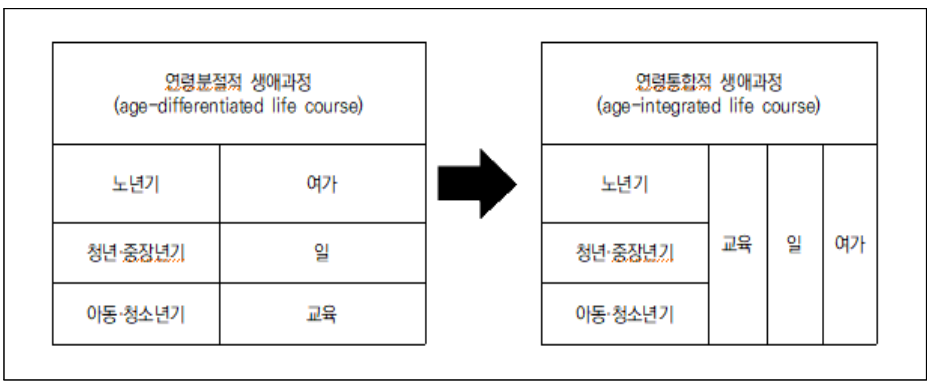
주: 기존의 기준들을 바탕으로 연구자 재설정

2. 생애주기 문화정책의 필요성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전 생애 발달에 따른 생애주기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문화와 여가는 일생을 거쳐 경험하고 사회화해야하는 활동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기부터 다양한 여가에 노출되고 긍정적 경험을 습득하여 자신만의 경력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인구구조와 기술환경의 변화로 개인이 경험하는 삶은 연령분적절 생애과정에서 연령통합적 생애과정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Riley, 1994). 즉 지금까지는 연령에 따라 생활의 중심이 아동·청소년기에는 교육, 청년·중장년기에는 일, 노년기에는 여가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점차 전생애에서 교육, 일, 여가의 중요성이 동등하며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림 2-14] 연령분절적 사회에서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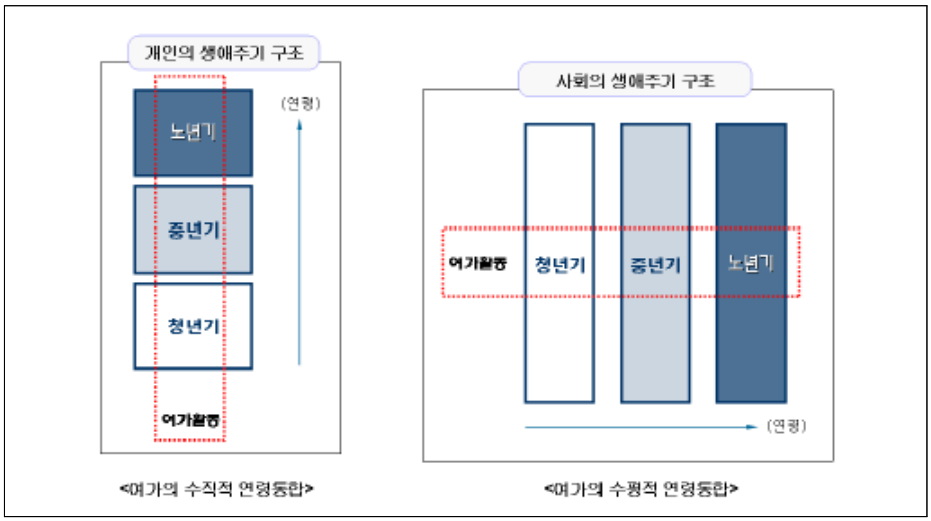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2002) 생애주기별 융합형 보장정책 모델 개발

이러한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변화는 전생애에서 여가 분야의 설계와 준비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기존에 노년기에 집중되었던 여가가 전 생애 단계에서 그 비중과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개인의 생애주기 어디에서든지 교육, 여가, 일을 선택하면서 조화롭게 삶을 설계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다만 연령통합적인 사회에서 여가의 의미는 수직적 연령통합과 수평적 연령통합이라는 생애주기적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윤소영 외, 2009). 수직적 연령통합은 개인적 측면에서 한 개인의 전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여가활동을 유지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전 생애단계에 걸쳐 계속적인 여가활동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여가의 수평적 연령통합은 사회적 측면에서 한 사회 내 다른 생애주기

의 세대들이 함께 어울려 여가를 향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생애주기의 특성에 따라 여가활동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그림 2-15] 생애주기에 따른 여가의 수직적/수평적 연령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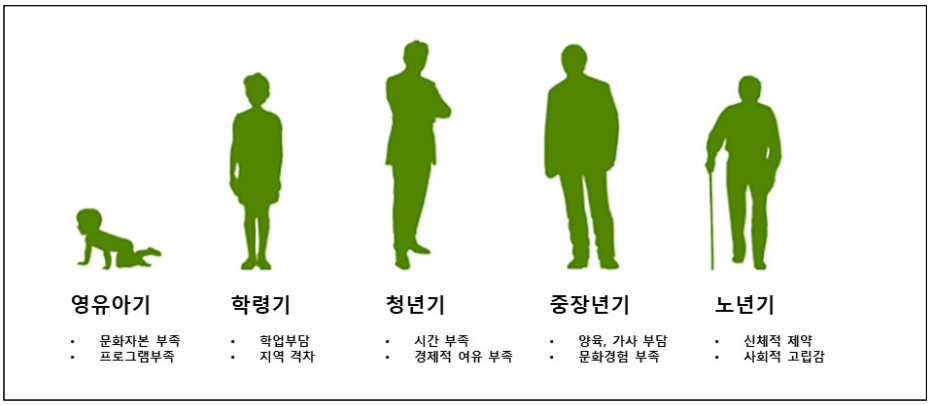
자료: 윤소영 외(2009) 생애주기별 여가활동 모형 개발

수직적 연령통합과 수평적 연령통합을 통해 한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문화와 여가활동을 유지하고, 사회 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문화정책의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생애주기별 문화향유의 제약요인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과업의 종류, 지속기간 등에 영향을 미쳐 전생애 문화향유 정도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음에서는 각 생애 단계에서 겪는 문화향유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림 2-16] 생애주기별 문화향유의 제약요인



가. 영유아기

영유아기의 문화적 참여에는 주로 부모나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저출산 사회에서는 부모들이 육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실제로도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활동이 제한된다. 경제적 부담, 관련 공간이나 환경의 부족, 그리고 접근 가능한 문화 프로그램의 부족도 주요 장애 요인이다. 따라서, 영유아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함께할 수 있는 문화정책, 부모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Penn, 2011).

나. 학령기

학령기에는 학업 부담과 경쟁적인 교육 환경이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학생들은 과도한 학습량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문화 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한데, 이러한 학업 스트레스의 해소를 위해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맥락에

서 방과 후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지역 간 문화 인프라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의 학생들은 문화 활동을 경험할 기회가 제한적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와 연계한 방과 후 문화 프로그램의 활성화, 문화 시설의 확충,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문화 체험 기회의 확대가 그간 학령기 대상 문화정책의 우선 과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윤소영 외, 2009)

다. 청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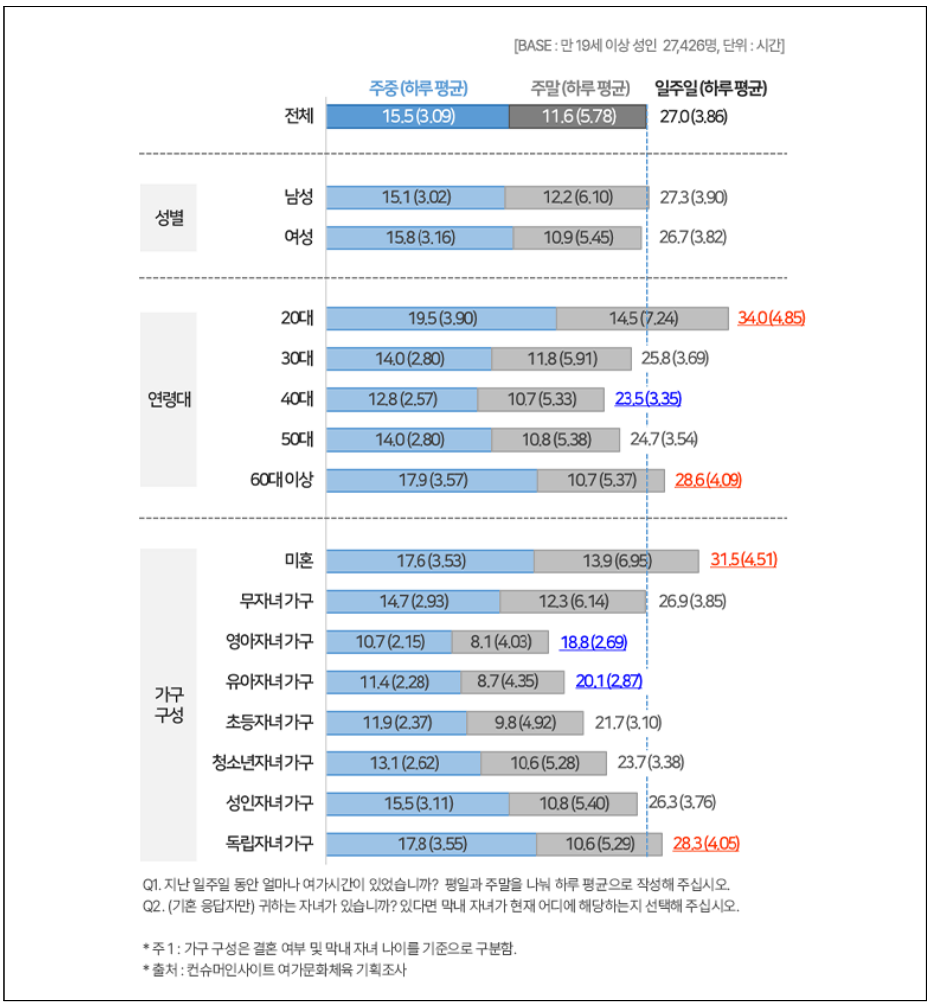
청년기에는 취업 준비와 초기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시간 부족이 문화 향유의 주요 장애 요인이다. 또한,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여 문화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그 외에도 현재 청년들을 위한 문화 바우처 제공, 직장 내 문화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접근성 높은 온라인 문화 콘텐츠 제공 등의 정책이 추진 중에 있다.

라. 중장년기

중장년기에는 업무와 가사, 자녀 교육 등의 책임으로 인해 문화 활동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하다(이승현, 김혜진, 2016). 실제로 한국인의 여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 여가시간 최빈곤층은 1~3세를 자녀를 둔 30,40대로서 20대 미혼가구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30, 40대라면 육아와 사회생활의 중추 세대임에도 현실에서는 어느 계층보다 심각한 '여가시간의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커다란 사회문제인 결혼 출산 기피의 한 원일 수도 있어, 국민 건강과 삶의 균형에 대한 지원 욕구가 가장 큰 시기이다(컨슈머인 사이트 2022, '여가문화체육 주례조사)

또한, 중장년기는 개인의 관심사 변화로 인해 새로운 문화 활동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중장년층을 위한 문화정책적 대응으로는 육아기 중장년층을 위한 문화권 보장,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새로운 문화 활동 발견 지원, 직장 내 문화 휴가 및 활동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중장년층이 균형 잡힌 문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 것이다.

[그림 2-17] 성,연령,가구 구성별 여가시간 비교('23년)



자료: 컨슈머인사이트(2022), 여가문화체육 주례 조사

마. 노년기

노년기에는 신체적 제약과 이동성의 문제로 인해 문화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고립감과 경제적 어려움도 주요 장애 요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들을 위한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접근성이 좋은 문화 시설 확충,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한 문화 바우처 및 사회적 참여를 통한 소득 제공 등이 필요하다.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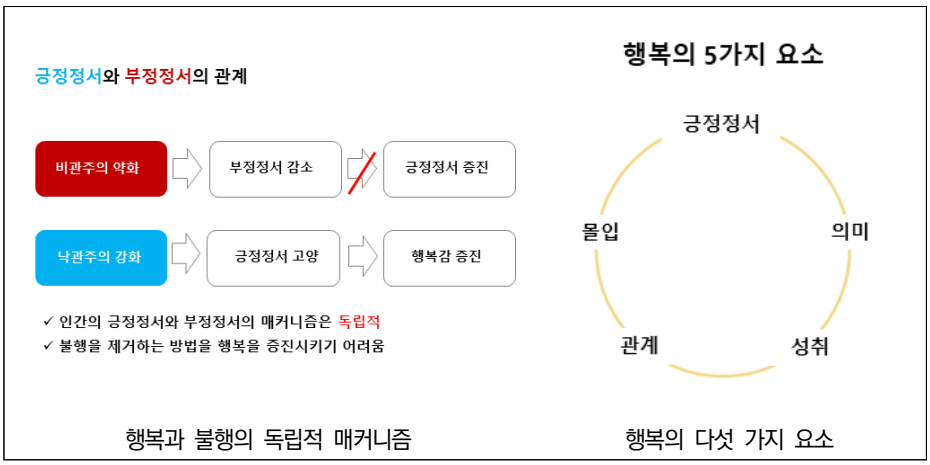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현상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개인 스스로가 우선 행복해야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자 하는 의지도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자들이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역할과 기여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 본인의 행복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제4차 저출산 · 고령화 기본계획도 그 목표를 국민 삶의 질 제고로 설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행복에 대해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심리학 분야에서는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 분야가 대두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활발하게 탐구하고 있다. 긍정심리학에서 문화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메커니즘이 단순히 불행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지점이다. 우울, 불안 등의 불행한 상태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행복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며,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긍정적 경험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Seligman, 2002). 즉, 불행을 제거하는 것은 '행복의 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행복 자체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행복은 긍정적인 요소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행복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PERMA)[2]는 긍정 정서, 몰입, 관계, 의미, 성취인데(Seligman, 2011), 이러한 요소들은 삶의 어느 영역보다 여가활동을 통해 가장 잘 얻을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이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 문화향유 정책이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2) 긍정 정서(Positive emotion)는 기쁨, 희열, 따뜻함, 자신감, 낙관성을 의미한다. 몰입(Engagement)은 어떤 활동에 빠져 시간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자발적으로 업무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Relationship) 는 타인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미(Meaning)는 자신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는 어떤 것에 소속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에 기초한다. 성취(Accomplishment)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또는 경제적 부를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취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림 2-18] 행복의 요소 및 증진 방안



행복과 불행의 독립적 매커니즘 행복의 다섯 가지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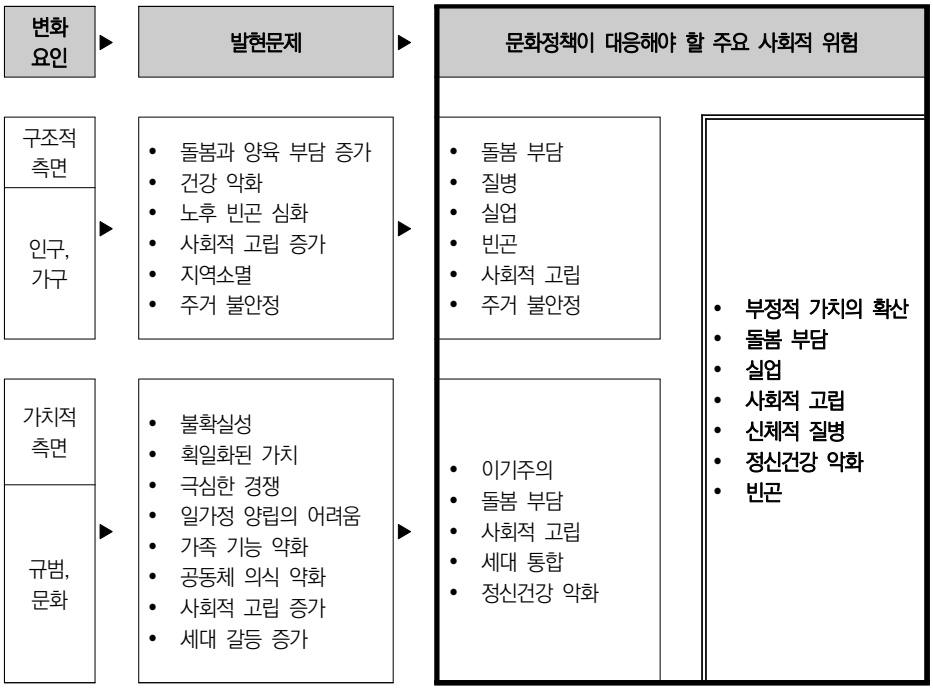
전술했듯이 국내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에서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은 중요한 목표이다. 그러나 정부의 기존 정책들은 여전히 주로 불행의 원인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둬왔다. 예를 들어, 경제적 지원, 주거 및 돌봄 문제의 해결, 육아휴직 확대 등과 같은 정책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접근은 불행의 요인을 줄이는 데 있어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행복 그 자체를 증진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행복 정서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 영역은 문화정책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문화정책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순히 불행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정책이야말로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켜,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 고령자가 활력 있는 삶을 사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 영역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문화정책의 역할을 정의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즉 문화정책을 통한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 불행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문화향유 권리를 보장하여 일상에서의 행복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불행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변화와 가치 변화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발현되는 사회적 문제와 문화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회적 위협들

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19]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변화에 따른 발현 문제와 사회적 위험의 도출



도출된 돌봄 부담, 실업, 사회적 고립이나 통합, 신체 및 정신 건강 회복 등의 사회 문제들은 기존에 복지, 사회 및 경제 정책 분야에서 주로 경제적 지원과 제도적 개입을 통해 필수적인 기반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경제적 지원과 제도적 개입만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안정, 사회적 연결, 삶의 의미와 문화적 만족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문화정책은 이러한 문제들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예술과 문화 활동이 스트레스 해소, 심리적 안정을 통해 개인의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고립 해소에 매우 효과적이며, 다양한 연령대와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소통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결과는 다수의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바 있다(양혜원 외, 2019; 양현미, 2007). 이는 문화적 접근을 통해 기존의 정책들이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개입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건강과 복지 수준

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문화정책은 사회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한다.

첫째, 돌봄과 양육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문화정책은 전생애에 걸쳐 개인이 문화를 향유하고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아동부터 고령자까지를 위한 다양한 문화 활동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개개인이 자신만의 문화자본과 여가자원을 갖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향유하고 스스로의 시간을 돌볼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반의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 부담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개인이 지역 공동체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돌보고, 가족 구성원이 아동과 고령자에 대한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완화하는데 문화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노화로 인한 만성 질환과 정신적 질병은 노년기에 접어든 인구에게 큰 부담이 된다. 젊은 세대의 스트레스와 불안감 역시 증가하고 있다. 연령과 사회적 계층을 막론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은 이러한 건강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문화여가활동과 체육활동, 예술 치료, 음악 치료 등의 프로그램은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정신적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의 문화 활동 참여는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정신적 건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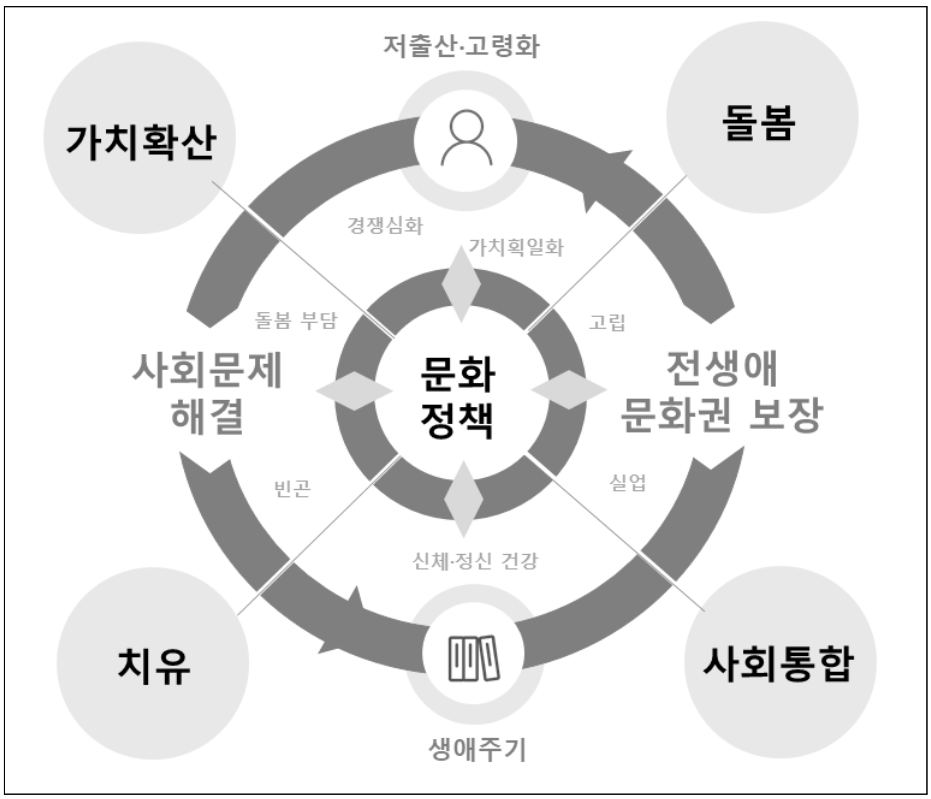
셋째, 문화정책은 실업과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고령자와 고령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과 직업 훈련을 연계하여 은퇴자들의 사회적 활동 참여 및 재취업을 돕고, 경제적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할 수 있다.

넷째,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세대간 갈등과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와 독거노인의 증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다. 세대간 소통의 부족과 가정 내 지원 체계의 약화는 사회적 고립을 더욱 악화시킨다. 반면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인들은 다양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다. 개인과 개인, 혹은 집단과 상호작용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신뢰, 상호지원,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세대 간 소통이 촉진된다. 다양한 문화 이벤트와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공동체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인구구조의 변화를 단시간에 변화시키기는 어렵더라도 문화활동을

통한 관계성 회복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을 제거하고, 개개인의 문화권을 보장하여 국민의 행복을 제고하기 위해, 본 연구는 문화정책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긍정 가치 확산, 돌봄, 치유,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5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그림 2-20] 인구위기 관련 사회문제 및 문화적 대응이 필요한 영역



제3장

인구위기 대응 국내 · 외 정책 현황

제1절 타부처 인구위기 대응 정책 추진 현황

본 절에서는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정책 및 사업 현황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우선 주요부처의 사업을 생애주기별, 보장영역별, 부처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틀(생애주기*보장영역)에 따라 분석하고, 타부처 사업 중 문화 관련 정책 사업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분석을 위한 3가지 기준은 정책 대상, 정책 보장 영역, 추진 부처를 기준으로 한다.

〈표 3-1〉 인구위기 대응 정책 추진 현황 분석틀

기준	구분
정책 대상	• 영유아(0-5세), 학령기(6-18세), 청년기(19-34세), 중장년기(35-64세), 노년기(65세 이상)
정책 보장 영역	• 교육, 고용 및 임금, 돌봄, 가족공동체, 건강, 여가, 시민참여, 삶의만족
정책 부처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기타 중앙부처

주: 정책대상의 연령은 만나이 기준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은 추진전략별로 ①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조성, ②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③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④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을 목적으로 하며, 네 개 영역에 총 17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조성 분야는 노동환경 및 아동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한다. ②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분야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한 노후보장, 노령인구 돌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③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분야는 전 생애에 걸친 인구의 경력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이 중심이 된다. ④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분야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세대 통합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사업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을 목표로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1. 생애주기별 정책 현황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에 나타난 분야별 정책과제를 생애주기별로(영유아기, 학령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전생애 대상) 구분해 살펴보면, 영유아기 대상 사업은 ①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조성에, 노년기 대상 사업은 ②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에 주로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기와 중장년기 대상 사업은 ①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조성, ③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④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의 세 개 분야에 고르게 분포해 있으며, 노동환경 개선과 경력개발 지원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한다. 청년 대상 사업 일부 및 중장년·노년층 대상 사업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사업이 청년기~중장년기 인구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학령기 인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영유아기 인구를 포함하는 건강권 보장 관련 사업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관련 사업으로 구성된다.

〈표 3-2〉「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생애주기별 주요사업

<table>
<tr><th>구분</th><th colspan="4">주요사업</th></tr>
<tr><td>영유아
(0-5세)</td><td>• 영아기 집중투자(소득 지원)
• 아동돌봄기관의 공공성 강화</td><td colspan="2" rowspan="2">• 아동중심 통계 조성
• 아동돌봄 통합적 운영기반 마련
•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td><td rowspan="5">• 평등한 성 인식 및 권리 강화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 세대 간 소통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분석 인프라 조성</td></tr>
<tr><td>학령기
(6-18세)</td><td colspan="2">• 진로교육 강화 및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td></tr>
<tr><td>청년기
(19-34세)</td><td>• 청년의 진로탐색 지원
• 청년 핵심인력 양성
• 청년 창업 지원</td><td rowspan="2">• 공정한 채용 환경 조성
•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확대
• 일하는 모두의 육아휴직 권리 확립
• 상병수당 도입 등</td><td rowspan="3">• 직업훈련 프로그램·콘텐츠 확충 및 제공방식 다양화,
• 전 국민 대상 고용 안전망 구축</td></tr>
<tr><td>중장년기
(35-64세)</td><td rowspan="2">• 연령차별금지 구제제도 개선
•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한 계속고용 지원
• 퇴직 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기회 확대</td></tr>
<tr><td>노년기
(65세 이상)</td><td>•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년기 소득보장
• 노인 건강검진 강화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제도적 기반 마련
• 지역 고령친화지표 개발 및 평가 추진</td></tr>
</table>

생애주기별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영유아기와 학령기 대상 사업은 주로 아동 돌봄 지원을 목적으로 한 소득지원 사업, 돌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조성 사업, 교육환경 개선과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인식 개선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사업은 아동 기본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고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하여 돌봄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아동가구의 소득보장을 위한 영아기 집중투자, 아동돌봄기관 공공성 강화 사업과 미래형 학교 공간혁신,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 사업 등이 있다.

〈표 3-3〉「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영유아기·학령기 대상 주요사업

구분	과제명	세부 대상	세부 내용	문화분야와의 연계
영유아 (0-5세)	영아기 집중투자	0-1세 영아	• 영아수당 도입 및 출산바우처 확대	
	아동돌봄기관의 공공성 강화	영유아	• 공보육 어린이집 설치 및 국공립 유치원 지속 확충 • 운영방식 다양화 등 기능 강화로 지역 보육수요 충족 거점기능 수행	영유아 교육과 문화프로그램 연계 가능
학령기 (6-18세)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	미성년 아동	• 입양의 공적 책임 강화, 가정형 보호 확대 • 관련제도 정비로 보호체계 내실화	
	미래형 교육에 부합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혁신	초·중·고등학교	•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그린 스마트 스쿨로 공간 전환 •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 및 친환경 제로에너지 학교 조성	사례: (인천 서흥초)학생·주민 대상 목공·도예·도시농업 등 프로그램 제공

②청년기 인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고용과 노동 분야의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청년기~노년기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력개발 지원 목적의 교육사업이 포함된다. 청년 창업 지원, 청년 지역자립 지원 등 사회초년생의 자립을 위한 청년 지원 사업 외에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노동정책, 여성의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 육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사업과 남성 돌봄권 보장 등의 사업이 이 시기에 해당한다. 이밖에 상병수당 도입, 특고 및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등 고용과 노동 관련 사업, 평생교육·직업훈련 관련 사업에 청년기 인구가 대상으로 포함된다.

③중장년기의 경우 청년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 청년기 인구와 동일한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지원 영역은 대부분 고용·노동과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사업에 집중돼 있으며, 정년퇴직자를 일컫는 '신중년' 인구의 계속적 고용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대상이 된다.

〈표 3-4〉「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청년기·중장년기 대상 주요사업

구분	과제명	세부대상	세부 내용	문화분야와의 연계
청년기 (19-34세)	청년 창업 지원	청년	• 재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멘토링 • 다양한 분야별 청년 창업지원 확대	전통문화 청년 창업 육성지원 시행 중
	청년의 지역자립 지원	지역 정착을 희망하는 지역청년 및 수도권 청년	• 지역사회활동 정도에 비례해 교육·사회진입 비용 매칭하는 지역사회활동 계좌제 도입 검토 • 지역대학 중심 산학연계 통한 청년인재 양성-취창업-지역정착 • 지역단위 창업지원 및 지역사회활동 참여확대	(지역단위 창업지원) 지역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창업지원, (지역사회활동 참여확대) 수도권 청년 지역정착고용사업 및 청년마을사업에 문화 접목 가능
중장년기 (35-64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활성화	육아기 부모	• 간접노무비 인센티브 지원 신설로 제도 확산 지원 • 가족돌봄휴가 제도 홍보 및 인식 제고	
	퇴직 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기회 확대	퇴직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개편 • 퇴직 전문인력(기술, 연구분야 등) 취업 연계, 인건비 지원 • 퇴직 전문인력DB 관리 추진	신중년 적합직무에 문화 프로그램 연계 가능

④노년기 인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소득보장 강화 사업, 보건·의료 지원, 고령인구 돌봄 인프라 지원 조성 사업이 주를 이룬다.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의 다층화, 건강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프로그램 지원과 함께 고령 친화 사회 조성을 위한 기술혁신 지원, 지역사회 인프라 확대 등 고령인구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돌봄 환경 개선 및 생활기반 조성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며, 이밖에 청장년층과 노년층 모두를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표 3-5〉「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노년기 대상 주요사업

구분	과제명	세부대상	세부 내용	문화분야와의 연계
노년기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	저소득 노인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	
	고령자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확충	독거, 취약계층 등 고위험군 노인	• 고위험군 노인 치료 및 심리지원 • 고령자 자살예방 대책 추진 • 정신건강캠페인 지속, 지역자원 연계 지원으로 사회적 교류·소통 기회 확대	사회적 교류·소통 기회 확대 위해 문화프로그램 연계 가능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적 확산 추진	지역 노인	• 통합 돌봄모델 창출(~'22년) 및 전국 확산 모델 마련('23~23년) • 지자체 중심 추진체계 구축 • 보건·건강·돌봄·문화·체육 등 서비스 통합제공하는 지역인프라 확보 추진	통합돌봄 서비스에 문화 프로그램 연계 가능

세대를 아우르는 ⑤전생애 대상 사업은 성·재생산권 보장, 다양한 가족 수용 및 연령 통합 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사회문화 조성 사업과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한 인프라 조성 사업을 골자로 한다. 이들 사업은 건강한 사회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법제를 마련하고 법령을 정비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인식 개선에 힘쓰는 한편 지역사회 연계 및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고령사회에 대비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연령통합지표 개발 및 적용,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분석 인프라 조성 등이 있다.

〈표 3-6〉 전생애 대상 주요사업

구분	과제명	세부대상	세부 내용	문화분야와의 연계
전생애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교사, 지역사회 등	• 가족다양성 교육 강화 및 홍보 • 교육콘텐츠 개발 및 캠페인 • 양성평등 정책 지원 통한 지역사회 양성평등 환경 조성	교육, 캠페인 등에 문화 프로그램 활용 가능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분석 인프라 조성	지역사회	•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모니터링 위한 지표 개발 및 정보시스템 구축 • (추진체계) 정부·지자체·연구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평가결과 활용	

2. 보장영역별 정책 현황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의 세부과제는 사회보장영역에 따라 ①교육 ②고용·임금 ③노동 ④돌봄 ⑤가족공동체 ⑥건강 ⑦여가 ⑧시민참여 ⑨삶의 만족 ⑩주거 관련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두 가지 영역에 걸친 일부 중복 사업을 포함하여 각 분야의 사업 수는 교육 영역 21개, 고용·임금 40개, 노동 14개, 돌봄 41개, 가족공동체 24개, 건강 22개, 여가 1개, 시민참여 6개, 삶의 만족 9개, 주거 14개로 나타났다. 개인의 일할 권리와 건강한 노동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고용·임금 영역과 노동 영역 사업이 총 54개로 나타났으며, 개별 영역에서는 돌봄 영역 사업이 41개로 가장 많았다.

〈표 3-7〉「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보장영역별 주요사업

구분	보장영역	사업 수*	주요사업
1	교육	21	사회수요를 반영한 대학 교육과정 운영과 취업연계, 평생교육 · 직업훈련 참여를 위한 학습비 지원, 생애주기를 고려한 대학의 평생교육기능 강화, 초등교육 혁신을 통한 충분한 교육 제공, 미래형 교육에 부합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혁신 등
2	고용 ·임금	40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경력단절 여성 대상 전문분야 및 맞춤형 재취업 지원 강화, 청년의 진로탐색 지원과 핵심인력 양성, 청년 창업 지원, 계속고용과 관련된 중장기적 제도 개편 논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년기 소득 보장 등
3	노동	14	고용상 성차별 · 성희롱 피해 구제 강화, 돌봄노동 분야 종사자 권리 보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활성화, 임신 · 출산 근로자에 대한 보호 확대 등
4	돌봄	41	아동돌봄기관의 공공성 강화,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 일하는 모두의 육아휴직 권리 확립, 남성의 돌봄권 보장, 치매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확대, 지역 돌봄의 예방적 기능 강화,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 등
5	가족 공동체	24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참여 확대, 생활·돌봄공동체 관련 법제 마련,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세대 간 소통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연령통합지표의 개발 및 적용 등
6	건강	22	방문건강관리 및 비대면 서비스 확충, 요양병원 기능 분화 및 전문화, 생애 주기에 따른 건강 지원,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 등
7	여가	1	신중년·고령자의 여가 기회 확대
8	시민 참여	6	청년의 정책결정 참여와 사회참여 확대, 청년의 지역자립 지원,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등
9	삶의 만족	9	아동의 놀이권 보장, 웰다잉 정책의 추진체계 정비, 신중년 노후준비서비스 강화 및 참여 확대,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분석 인프라 조성 등
10	주거	14	지역 고령친화지표 개발 및 평가 추진, 노인보호구역 확대 및 보행환경 개선, 청년가구 대상 공급확대 및 임차지원, 귀향 베이비부머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

주: 사업 수는 영역별 중복사업을 포함한 숫자임

사회보장영역별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교육 영역 사업은 평생교육 관련 사업과 학령기 인구 대상의 교육과정 개선과 교육 인프라 조성 사업이 주가 된다. 이 영역에서는 주로 학습을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교육과정 또는 학교 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위주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생명 존중 및 죽음 교육, 성 인식 및 권리 강화 교육 등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표 3-8〉「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교육 영역 주요사업

구분	과제명	세부대상	세부 내용	문화분야와의 연계
교육	평생교육 · 직업훈련 참여를 위한 학습비 지원	전국민, 저소득층	• 모든 국민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 제공, 직업훈련 대상 확대(특고 등) • 저소득층 학습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액 확대, 학자금 지원 확대	
	초등교육 혁신을 통한 충분한 교육 제공	초등학생	• 창의적교육, 놀이중심 체육·예술교육 등 혁신적 수업 확대 • 저학년 교실환경 개선 • 기초학력지원, 방과후 교육 및 돌봄확대 등 교육시간 확보	놀이중심 체육·예술교육, 방과후 체육·예술활동 등 문화 활동 시행 중
	초고령사회 대비 은퇴 · 고령층 교육 제도화 추진	노인	• 노인교육 강화 관련 사회적 논의진행 • 교육패키지 개발·기관발굴 추진	교육패키지에 문화프로그램 연계 가능

②고용·임금 영역은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인구 대상 사업과 청년 및 중장년기 여성을 위한 사업 등 대상별 사업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고용안전망 구축 사업, 다양한 노동을 포용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 개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 사업과 사회초년생 및 퇴직자의 안정적 사회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등이 추진된다. 생애주기에 맞춰 일자리 마련, 취창업 지원 등 공공성 강화를 통한 기반 마련 사업과 현금성 지원 사업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여성 대상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과 일터에서의 성평등 문화 조성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③노동 영역 사업은 노동의 주체인 청년기와 중장년기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육아휴직 보장, 장시간 근로 해소 등 노동자의 일 생활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들이 이 영역에 해당한다. 성희롱·성차별 피해 구제와 돌봄노동 분야 일자리 질 개선 역시 노동 분야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표 3-9〉「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고용·임금/노동 영역 주요사업

구분	과제명	세부대상	세부 내용	문화분야와의 연계
고용·임금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일하는 모든 국민	• 일하는 모든 국민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단계적 확대(예술인, 특수고용 등/가입연령 상한) • 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 산재보험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검토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지원 강화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지원 •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에 인턴지원금 및 고용유지장려금 지원	문화 관련 창업 프로그램 연계 가능

구분	과제명	세부대상	세부 내용	문화분야와의 연계
노동	고용상 성차별 · 성희롱 피해 구제 강화	임금 근로자 (여성)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제도 강화 및 제도개선 • 고용평등문화 개선 지원 및 여성 대표성 제고 • 성별 임금격차 구조 분석	
	장시간근로 해소 및 휴식권 보장	임금 근로자	•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 연차휴가 독려 및 휴가지원사업 활성화	국내여행 지원, 휴가지원사업과 문화 연계 가능

④돌봄 영역은 가장 많은 사업이 추진되는 영역으로, 크게 아동 돌봄과 노인 돌봄 관련 사업으로 분류된다. 아동 돌봄 정책 사업으로는 돌봄 서비스 인프라 조성과 아동 돌봄 및 보호 체계 마련을 통한 공공성 강화 사업이 있다. 아동 돌봄 관련 사업은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양육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육아기 부모 대상 사업도 이 영역에 해당한다. 노인 돌봄 사업의 경우 지역 돌봄 기능 확대, 돌봄 기술 개발 및 보급, 치매 노인 돌봄과 의료 서비스와 연계된 돌봄 지원 서비스 등 노인 질병 및 건강에 초점을 맞춘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역사회의 노인 돌봄을 위한 지역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다수 포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돌봄 영역 주요사업

구분	과제명	세부대상	세부 내용	문화분야와의 연계
돌봄	일하는 모두의 육아휴직 권리 확립	고용보험 적용자	•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자(예술가, 특고 등) 대상 육아휴직 권리 확대	
	남성의 돌봄권 보장	육아기 남성	• 남성의 돌봄 참여 지원 홍보 • 초보아빠 육아정보 공유 네트워크 형성	홍보 캠페인, 육아정보 공유 등에 문화프로그램 활용 가능
	지역 돌봄의 예방적 기능 강화	취약계층 노인	• 생활안전점검, 안전·안부확인, 영양교육, 보건교육 등 예방적 지역 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돌봄서비스에 문화프로그램(교육) 연계 가능

⑤가족공동체 영역에서는 아동가구의 소득보장 및 생활지원 강화, 신혼부부·아동 양육 가구·다자녀가구 주거지원 확대 등 소득 및 주거지원 사업과 함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다문화·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문화 조성 사업이 주를 이룬다.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과 세대 간 교류와 소통, 연령 통합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⑥건강 영역 사업은 영유아기·학령기·청년기 인구의 건강지원 사업과 임신·출산을 포함한 여성의 생식건강 관련 사업이 포함된다. 노년기 인구의 건강 및 의료 지원 관련 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이들 사업은 치매나 만성질환 등 질병에 대한 지원과 함께 다양한 건강·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표 3-1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가족공동체/건강 영역 주요사업

구분	과제명	세부대상	세부 내용	문화분야와의 연계
가족 공동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전국민	• 각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가족차별을 효율적으로 시정(가족다양성 모니터링, 법령, 계획, 정부사업 차별평가 및 시정) •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다문화 인식개선 공모전 등	다문화 인식개선 공모전 시행 중. 우수작 영상콘텐츠 제작, 매체 송출
	세대 간 소통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전국민	• 세대공감 아이템 발굴 및 확산	세대공감 프로그램에 문화 활용 가능
건강	방문건강관리 및 비대면 서비스 확충	거동불편 고령자	• 읍면동-보건소 연계체계 마련 • ICT 기기 활용 비대면 건강컨설팅 제공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지원	여성	• 생애주기별 생식질환 관련 정보제공 및 검진·치료 지원 • 유해물질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	

⑦여가 영역 사업은 신중년·고령자의 여가 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사업이 있다. ⑧시민참여 사업은 신중년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역연계 봉사활동, 전문성 및 숙련기술 전수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이 있다. 청년 지역자립 지원사업과 학교 공간혁신 사업도 같은 맥락으로, 일반시민의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꾀하였다.

⑨삶의 만족을 위한 사업으로는 아동의 놀이권 보장, 고령자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교통복지 및 노후 준비 서비스 강화 사업과 웰다잉 정책 관련 사업,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인프라 조성 사업이 있다. ⑩주거 영역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 사업과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 공급 사업, 은퇴자 복합단지 모형 개발 등 노년기 인구의 생활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감소 지역의 안정적인 생활권 조성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사업도 이 영역에 포함된다.

〈표 3-12〉「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여가/시민참여/삶의 만족/주거 영역 주요사업

구분	과제명	세부대상	세부 내용	문화분야와의 연계
여가	신중년·고령자의 여가 기회 확대	신중년(은퇴기), 고령자	• 고령자 맞춤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관광·여행 기회 확대 • 세대특성 고려한 여가·건강·사회참여 서비스·교육 등 프로그램 제공	고령자 맞춤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교육 포함
시민참여	청년의 정책결정 참여와 사회참여 확대	청년	•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확대로 국정 운영에 청년 대표성 제고 • 정책정보·청년 학습공간·정책상담 제공되는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운영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	퇴직 전문인력	• 기존 전문인력 풀의 시니어 컨설턴트 육성 • 퇴직 전문인력 노하우 및 경험을 AI 학습 데이터로 구축, 교육훈련 활용	문화 관련 전문기술 전수 프로그램 연계 가능
삶의 만족	신중년 노후준비서비스 강화 및 참여 확대	신중년(은퇴기)	• 신중년 노후준비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확대 제공 •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실시를 위한 생애전환기 노후준비서비스 강화	노후준비 프로그램에 문화 활용 가능(작가탄생 프로젝트, 사진에세이 아카데미 등)
주거	귀향 베이비부머의 안정적 정착 지원	신중년(은퇴기) 귀농어·귀촌인	• 농어촌·고향주택 취득인정시기 정비 등 주거이전 지원 • 귀농어·귀촌인과 주민 융화 프로그램 지원 및 취창업 지원	주민 융화프로그램에 문화 활용 가능

3. 부처별 정책 현황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에서는 총 32개의 정부 부처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가장 많은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는 복지부로, 47개의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며 타 부처 협력사업까지 포함하면 177개 사업 중 총 84개의 사업을 복지부가 담당한다.

〈표 3-13〉「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부처별 주요사업

구분	소관부처	사업 수			주요사업
		전체	단독	협력	
1	복지부	84	47	37	노인 건강검진 강화, 고령자 만성질환 관리 강화, 지역 돌봄의 예방적 기능 강화,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년기 소득보장 등
2	고용부	50	16	34	공정한 채용환경 조성, 일하는 모두의 육아휴직 권리 확립,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등

구분	소관부처	사업 수			주요사업
		전체	단독	협력	
3	교육부	33	8	25	체계적인 학습·훈련 이수체계·경력경로 설정, 평생교육·직업훈련 참여를 위한 학습비 지원, 초등교육 혁신을 통한 충분한 교육 제공,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과정 운영기반 조성 등
4	여가부	32	7	25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고용상 성차별·성희롱 피해 구제 강화, 남성의 돌봄권 보장,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등
5	국토부	13	5	8	지역밀착형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고령자 주거모형 개발 및 제도 개선 추진, 청년가구 대상 공급확대 및 임차지원, 신혼부부·아동양육가구 주거지원 확대 등
6	행안부	10	1	9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적 확산 추진, 노인보호구역 확대 및 보행환경 개선, (인구감소지역)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등
7	산업부	9	-	9	스마트 돌봄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성장 기반 조성 등
8	기재부	8	-	8	경력단절여성 고용 사업주 지원 강화, 돌봄노동 분야 종사자 권리 보호 등
9	중기부	8	1	7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지원 강화, 신중년 퇴직인력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창업·재기지원 등
10	과기부	7	-	7	과학기술 및 창업 등 유망분야 여성 진출 등
11	문체부	7	-	7	신중년·고령자의 여가 기회 확대, 청년 창업 지원, 청년의 지역자립 지원, 청년의 진로탐색 지원과 핵심인력 양성 등
12	법무부	7	-	7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통한 의사결정 지원,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 등
13	사무처	10	7	3	연령구분 기준과 개념의 재설정 방안 논의, 연령통합의 내용과 활용방안 설정, 사회적 논의를 위한 추진체계 구성 등
14	기타	-	5	-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도입, 주택연금 가입 확대 및 운영형태 다양화 등

복지부 사업은 기본계획의 4대 추진전략 중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에 고르게 포진되어 있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돌봄 영역 사업이 36개로 가장 많았고, 건강 영역의 사업이 20개(돌봄 영역 중복사업 2개 포함)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영역 사업은 12개로 나타났다. 전 생애에 걸쳐 인프라 조성, 건강 및 의료 지원, 제도 및 인식 개선 사업을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 영역 사업 15개, 돌봄 영역 사업 23개(중복사업 포함)를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복지부 단독 사업 대부분이 노년기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표 3-14〉「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복지부 주요사업

구분	과제명	세부대상	세부 내용	소관부처	비고
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년기 소득 보장	노인	•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민간형 일자리 비중 확대	복지부	
	노인 건강검진 강화	노인	• 고령자 건강검진 항목 재조정 및 적용 확대 • 노인신체기능 검진주기 확대 및 건강상담 확대 검토	복지부	
	치매노인 및 가족 돌봄 지원 확대	치매노인 가족	• 치매 가족휴가제 확대 및 치매가족 상담수가 도입 • 치매/환자돌봄 이해 및 돌봄역량 향상 위한 가족교실 운영	복지부	가족교실에 문화프로그램 도입 가능

고용부 소관의 사업은 대부분이 고용과 노동 영역에 포함되며, 추진전략 상에서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조성과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에 각각 18개, 24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생애주기별로는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인구를 모두 포괄한다. 고용부에서 단독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16개로, 육아휴직 권리 확립, 공정한 채용환경 조성,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등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및 인식 개선 사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

교육부에서는 고용부와 협력해 진로 교육 및 평생교육의 인프라 조성 사업을 수행한다. 교육부의 고용부 협력사업은 33개 중 16개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주요 사업은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한 생애경력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육부 단독 사업은 주로 학령기 인구 대상 사업에 해당하며, 교육 및 학교공간 혁신, 학교체계 개선 등의 인프라 조성과 제도개선 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복지부 협력사업으로는 아동 돌봄 및 아동 기본권 보장 관련 사업이 있다.

〈표 3-15〉「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고용부/교육부 주요사업

구분	과제명	세부대상	세부 내용	소관부처	비고
고용부	공정한 채용 환경 조성	임금 근로자	• 채용 성차별 감시체계 구축 및 채용 성차별 판단지표 마련	고용부	
교육부	체계적인 학습 · 훈련 이수체계·경력경로 설정	평생교육 수강자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분석해 자체 이수체계도 제시 • 국가역량체계 기반 분야별 학습-훈련 연계기준 바탕으로 직업훈련과정 연계	고용부, 교육부	

구분	과제명	세부대상	세부 내용	소관부처	비고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과정 운영기반 조성	초·중·고등학교	• 교육과정 개선방안 모색 및 운영 여견 마련 •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토대로 다양한 모델 확산	교육부	

여가부 사업은 가족공동체 영역 사업이 10개, 고용 및 노동 영역 사업이 12개로 나타났다. 가족공동체 영역 사업은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을 위한 제도 및 인식 개선 사업이 주가 된다. 고용과 노동 영역 사업에는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및 여성의 경력 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여성 대상 사업이 있다. 이외에도 성·재생산권 보장 사업과 아동·청소년 돌봄 및 권리보장 사업 등이 여가부 사업에 해당한다.

국토부 사업은 청년과 노년기 인구, 육아기 부모에 대한 주택지원 사업을 주로 수행한다. 국토부 사업의 대부분이 주거 영역에 해당하며, 주택지원 사업 외에도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고령자 주거모형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3-16〉「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여가부/국토부 부처별 주요사업

구분	과제명	세부대상	세부 내용	소관 부처	비고
여가부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위기 청소년	• 위기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위기청소년 조기발굴, 지원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기관 연계 및 상담·교육지원 강화	여가부 복지부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문화 프로그램 연계 가능
국토부	지역밀착형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지역사회	• 광역생활권 단위 사회서비스 공급계획 수립 추진 • 기초생활서비스 보장을 위한 소규모 생활거점 조성 • 지역별 차별화된 생활 SOC 공급	산업부 균형위 국토부 국조실 해수부	문화프로그램 및 문화시설 포함 가능

사무처에서는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와 관련하여 연령통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을 단독으로 수행한다. 이밖에도 행안부의 경우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및 체계 마련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기부의 경우 취창업 지원 사업에 주로 협력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혁신 관련 사업에 산업부가 참여하며, 청년의 진로탐색 및 자립 지원, 신중년·고령자의 여가기회 확대 사업 등에 문체부가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부처에서 관련 사업에 협력하고 있다.

〈표 3-17〉「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기타 부처별 주요사업

구분	과제명	세부대상	세부 내용	소관 부처	비고
사무처	연령구분 기준과 개념의 재설정 방안 논의	전국민	• 인구통계상 연령기준 검토 및 연령통합적 제도 개선 방안 논의		
행안부	선별적 지원 강화	인구감소 지역	• 지역공모사업 우선할당제 도입 및 가점 부여 • 청장년 유입, 공공서비스 전달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거점공간 조성, 지역활력제고 지원사업 추진	행안부 균형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활력 제고 등에 문화프로그램 활용 가능
중기부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지원 강화	경력단절 여성	• 창업역량진단, 상담, 교육 등 창업지원 • 창업지원사업 여성 참여 활성화 및 창업자금 지원 • 여성기업 전용 R&D 지원사업 및 여성기업 우대보증 프로그램 운영	여가부 중기부	문화 관련 창업 프로그램 연계 가능
산업부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성장 기반 조성	고령친화산업체	• 고령친화산업 분류체계 재정립,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표준화 로드맵 수립 • 고령친화제품 사용성 검증 및 체험 기회 재공	복지부 산업부	고령친화센터, 플랫폼 등 체험 기회 제공 시 문화 프로그램 연계 가능
문체부	청년의 진로탐색 지원과 핵심인력 양성	청년	• 신기술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 • 차세대 청년문화·예술인력 육성지원 • 한국형 갭이어 활성화 지원 확대, 구직 관련 지표개발	고용부 산업부 문체부 교육부	신진예술가 및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연계 가능

4. 생애주기×사회보장영역 분석틀 기반 현황

'생애주기별×사회보장영역' 분석틀을 기반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을 살펴보면, 청년기와 노년기 인구 대상 사업이 가장 많은 영역에 포진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수의 사업이 추진되는 생애주기는 노년기로, 교육, 고용·임금, 돌봄, 건강은 물론 시민참여, 삶의 만족, 주거, 여가 영역의 여러 사업을 통해 다양한 층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 영역에서는 평생교육의 수혜 대상이 되며, 고용·임금 영역에서는 은퇴·고령인구 증가를 대비한 노인 일자리 사업 등으로 소득을 보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연령차별금지 구제제도 등을 통해 고령층이 차별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할 기회를 확대한다. 시민참여 영역에서는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하고 봉사활동 등을

통해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노년기 인구가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건강과 돌봄 영역에서도 다양한 건강 및 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령친화사회로의 발돋움을 위해 주거 영역과 삶의 만족 영역에서 주거지원 및 인프라 확충 사업을 시행한다.

청년의 경우 사회초년생 대상 취업연계, 진로탐색, 청년창업지원 사업과 청년 건강보장 사업을 제외하고 교육, 고용·임금, 노동, 돌봄, 가족공동체, 건강 영역에서 중장년기 인구와 동일한 사업의 지원을 받는다. 해당 영역에서는 노동환경 개선과 경력개발 지원 등을 위한 육아휴직권리 확립, 장시간근로 해소 등의 사업이 시행된다. 이외에도 청년의 경우 청년대상 주거지원 사업과 지역자립 지원사업, 건강보장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장년기의 경우, 청년 또는 노년 인구와 지원대상이 중복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기와 학령기 인구의 경우 건강 영역과 가족공동체 영역, 돌봄 영역 일부에서 동일한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된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 건강 및 의료 지원,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와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 등 건강권 보장 관련 사업이 있다. 한편 학령기 인구는 교육 영역 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며, 영유아기 인구는 가족공동체 영역의 소득지원 사업(아동수당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기 대상 아동권리보장 정책 사업으로는 삶의 만족 영역의 놀이권 보장 사업이 있다. 영유아기와 학령기 모두 돌봄 영역 정책 사업을 통해 생애주기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표 3-18〉「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분석 결과(생애주기×사회보장영역)

<table>
<tr><th>구분</th><th>영유아기
(0~5세)</th><th>학령기
(6~18세)</th><th>청년기
(19~34세)</th><th>중장년기
(35~64세)</th><th>노년기
(65세 이상)</th></tr>
<tr><td rowspan="3">교육</td><td rowspan="2"></td><td rowspan="2">• 초등교육혁신을 통한 충분한 교육 제공
• 미래형 교육에 부합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혁신</td><td>• 사회수요를 반영한 대학 교육과정 운영과 취업연계</td><td></td><td>• 초고령사회 대비 은퇴·고령층 교육 제도화 추진</td></tr>
<tr><td colspan="3">• 성인문해교육 운영 및 디지털 역량수준 향상·격차 해소
• 평생교육·직업훈련 참여를 위한 학습비 지원
• 체계적인 학습·훈련 이수체계·경력경로 설정
• 직업훈련 프로그램·콘텐츠 확충 및 제공방식 다양화</td></tr>
<tr><td colspan="5">• 생명존중, 죽음교육 생애주기별 시행 모색
• 평등한 성 인식 및 권리 강화</td></tr>
<tr><td>고용
·임금</td><td></td><td></td><td>• 청년의 진로탐색 지원과 핵심인력양성
• 청년 창업 지원</td><td></td><td>•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년기 소득보장
• 고령층 차별·금융착취 방</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영유아기
(0~5세)</th><th>학령기
(6~18세)</th><th>청년기
(19~34세)</th><th>중장년기
(35~64세)</th><th>노년기
(65세 이상)</th></tr>
<tr><td></td><td></td><td></td><td colspan="2">• 공정한 채용환경 조성
• 경력단절 여성 대상 전문분야 및 맞춤형 재취업 지원 강화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및 확대를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td><td>지 및 자산 보호 방안 추진</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 신체능력 저하 등을 고려한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 연령차별금지 구제제도 개선
• 퇴직 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기회 확대</td></tr>
<tr><td>노동</td><td></td><td></td><td colspan="2">• 장시간근로 해소 및 휴식권 보장
• 일 · 생활 균형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 고용상성차별 · 성희롱피해구제강화
• 돌봄노동 분야 종사자 권리 보호</td><td></td></tr>
<tr><td rowspan="3">돌봄</td><td>• 아동돌봄기관의 공공성 강화
• 다양하고 유연한 돌봄서비스 확충</td><td>• 수요자중심 온종일돌봄 지속확충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td><td colspan="2" rowspan="2">• 일하는 모두의 육아휴직권리 확립
•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확산 및 육아휴직 사용 문화 정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활성화</td><td rowspan="2">• 치매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확대
•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적 확산 추진
•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
•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성장 기반 조성</td></tr>
<tr><td colspan="2">• 아동돌봄 통합적 운영 기반 마련
•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td><td colspan="2">• 남성의 돌봄권 보장</td></tr>
<tr><td colspan="5">•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td></tr>
<tr><td rowspan="3">가족
공동체</td><td rowspan="2">• 영아기 집중투자
• 아동수당 제도 개편 검토</td><td>• 가구별 아동지원 강화
•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td><td colspan="2"></td><td rowspan="2"></td></tr>
<tr><td></td><td colspan="2">• 신혼부부·아동양육가구 주거지원 확대
•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확대</td></tr>
<tr><td>• 아동중심 통계 조성</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참여 확대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 인구구조를 반영한 연령통합의 내용과 활용방안 설정
• 세대 간 소통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td></tr>
<tr><td rowspan="3">건강</td><td colspan="2" rowspan="2">• 아동 건강 및 의료 지원
•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td><td>• 청년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한 건강보장</td><td></td><td rowspan="2">• 노인 건강검진 강화
• 선제적 치매 예방 · 관리 강화
• 요양병원 기능 분화 및 전문화</td></tr>
<tr><td colspan="2">• 월경 건강 보장
•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td></tr>
<tr><td colspan="5">•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
•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지원</td></tr>
<tr><td>여가</td><td></td><td></td><td></td><td colspan="2">• 신중년·고령자의 여가기회 확대</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영유아기
(0~5세)</th><th>학령기
(6~18세)</th><th>청년기
(19~34세)</th><th>중장년기
(35~64세)</th><th>노년기
(65세 이상)</th></tr>
<tr><td>시민
참여</td><td></td><td>• 미래형 교육에 부합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혁신</td><td>• 청년의 지역자립 지원</td><td colspan="2">•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활성화</td></tr>
<tr><td rowspan="3">삶의
만족</td><td rowspan="2">• 아동의 놀이권 보장</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td><td>•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확대
• 스스로 인생을 정리하는 사회문화 조성</td></tr>
<tr><td colspan="2">• 신중년 노후준비서비스 강화 및 참여 확대</td></tr>
<tr><td colspan="5">• 웰다잉 정책의 추진체계 정비
•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분석 인프라 조성</td></tr>
<tr><td rowspan="2">주거</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 rowspan="2">• 청년의 주거빈곤 사각지대 해소
• 청년가구 대상 공급 확대 및 임차지원</td><td rowspan="2"></td><td>• 귀향 베이비부머의 안정적 정착 지원
•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고령자 주거모형 개발 및 제도개선 추진
• 지역 고령친화지표 개발 및 평가 추진</td></tr>
<tr><td colspan="5">• 지역밀착형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 인근 생활권 피폐화 방지
• 주택수급체계 조정</td></tr>
</table>

주 1: 빗금친 부분은 대응정책이 필요하거나, 문체부 사업 및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영역임
주2: 음영표시 된 영역은 이미 타부처에서 문화프로그램을 활용 중인 영역

5. 타부처 문화 관련 사업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사업 중 문화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거나 사업 내용상 연계가 가능한 사업은 총 38개 사업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문화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포함된 사업은 4개 사업이 있었으며, 문화를 접목할 수 있거나 문화프로그램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은 34개 사업으로 나타났다.

가. 생애주기별

먼저 38개 문화 관련 사업을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영유아기 대상 사업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돌봄기관 확충 시 영유아 교육

등 돌봄서비스와 문화프로그램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기 인구 대상 사업은 학교 또는 기관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문화를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 중인 사업으로는 초등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 제공 사업과 학교공간 혁신 사업이 있다. 초등교육 혁신 사업은 초등학교 예술·체육교육 활동 지원을 통해 학교 내에서 놀이중심 체육·예술교육을 실시한다. 미래형 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공유공간으로의 학교공간 혁신 사업에서는 학교구성원과 마을주민이 함께 목공·도예·도시농업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인천 서흥초).

이 밖에 초등학생 대상 온종일 돌봄 지원사업에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문화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기청소년, 다문화가족 자녀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프로그램을 연계한 인문/정서 함양 교육을 실시, 문화 교육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청년기의 경우, 육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한 남성 돌봄권 보장 캠페인과 육아정보 공유 등에 문화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일자리지원 및 창업지원 사업에서도 문화 연계 및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년기의 경우, 신중년 퇴직인력의 계속고용, 재취업 등에 문화 관련 창업 프로그램이나 전문기술 전수 프로그램 등을 연계할 수 있다. 퇴직자의 사회공헌 활동 및 봉사활동 활성화 사업의 경우에도 문화 관련 봉사활동, 사회서비스 활동에 연계 가능하다. 노후준비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도 글쓰기(작가탄생 프로젝트), 사진(사진에세에 아카데미), 그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를 접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년기의 경우 건강관리 프로그램, 치매환자 돌봄지원,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고령자 주거모형 개발, 여가기회 확대 등 다양한 사업에 문화프로그램 연계가 가능하다. 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예방은 물론 사회적 교류와 소통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 프로그램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를 접목시킬 수 있다. 치매노인 돌봄을 위한 가족교실이나 치매 단계별 인지훈련 콘텐츠 개발, 통합/지역돌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시에도 보건·건강·돌봄·문화·체육 등의 서비스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고령자 주거모형이나 은퇴자 복합단지 개발 시에도 고령층의 문화향유가 가능하도록 관련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보장영역별

교육영역 사업에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문화를 접목할 수 있다. 학교교육은 물론 생애말기 설계를 위한 죽음 교육, 성인 문해교육, 은퇴자 및 고령층 대상 노인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문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고용·임금 영역에서는 청년기와 중장년기,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취창업 지원에 문화 프로그램 연계가 가능하다. 문화 관련 창업이나 문화 관련 전문기술, 청년마을 사업에의 문화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 관련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 영역에서는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국내여행지원이나 휴가지원 사업에 문화프로그램 연계가 가능하다.

돌봄 영역에서는 영유아, 학령기, 노년기 인구 대상 돌봄 교육 등에 문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영유아 및 고령자 돌봄에 지역 인프라를 활용,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한 교육 및 돌봄으로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공동체 영역에서는 다문화 이해, 세대 간 소통을 위한 교육, 캠페인 및 프로그램에 문화를 적용할 수 있다. 현재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사업에서는 다문화 인식개선 공모전을 개최해 우수작을 영상콘텐츠로 제작해 송출하는 방식으로 문화를 활용 중이다.

건강 영역에서는 고령자 대상 건강증진 및 치매예방 사업에 문화를 활용할 수 있으며, 여가 영역에는 신중년·고령자의 여가 기회 확대 사업에 문화예술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시민참여 영역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초등교육이나 지역청년, 귀농·귀촌인의 지역정착 관련 사업, 주민 융화 프로그램에 문화를 연계할 수 있다. 삶의 만족 영역은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활력제고 등에 문화프로그램 활용이 가능하다. 주거 영역의 경우 문화 활용을 염두에 둔 인프라를 개발 및 구축하는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문화 활용을 생각해볼 수 있다.

〈표 3-19〉「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보장영역별 문화 관련 사업

구분	사업 수*	주요사업
교육	5	초등교육 혁신을 통한 충분한 교육 제공, 생명존중·죽음교육 생애주기별 시행 모색, 미래형 교육에 부합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혁신, 성인문해교육 운영 및 디지털 역량수준 향상 · 격차 해소, 초고령사회 대비 은퇴 · 고령층 교육 제도화 추진

구분	사업 수*	주요사업
고용·임금	7	청년의 진로탐색 지원과 핵심인력 양성,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지원 강화, 퇴직 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기회 확대, 청년의 지역자립 지원 등
노동	1	장시간근로 해소 및 휴식권 보장
돌봄	9	아동돌봄기관의 공공성 강화, 다양하고 유연한 돌봄서비스 확충, 치매노인 및 가족 돌봄 지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적 확산 추진 등
가족공동체	5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기술 전수, 자산 공유 등 세대 간 상호협력 지원 등
건강	3	고령자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고령자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확충, 선제적 치매 예방 · 관리 강화
여가	1	신중년·고령자의 여가 기회 확대
시민참여	5	귀향 베이비부머의 안정적 정착 지원, 청년의 지역자립 지원, 미래형 교육에 부합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혁신,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활성화
삶의만족	3	신중년 노후준비서비스 강화 및 참여 확대,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선별적 지원 강화
주거	4	지역밀착형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고령자 주거모형 개발 및 제도개선 추진, (가칭)'한국판 은퇴자복합단지' 모형 개발 및 시범조성, 귀향 베이비부머의 안정적 정착 지원

주: 사업수는 보장영역간 중복사업을 포함함

다. 부처별

교육부 사업은 초등학교 체육·예술교육 활성화나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에 문화 프로그램을 연결할 수 있다. 학교 교육 및 공간 개편에 문화자원 활용을 고려하고, 문해력 강화 교육, 노인 교육, 생애말기 설계 죽음 교육 등에 문화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유익한 환경에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늘봄학교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계점을 적극 모색해볼 수 있다. 늘봄학교는 정규 수업이 끝난 후부터 저녁까지 운영되며, 필요에 따라 주말이나 방학 중에도 운영될 수 있다. 운영방식은 각 학교에서 학교의 특성과 학생들의 필요에 맞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교주도형 방식과,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지역사회 연계형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인식 교육 및 다양성 보장에 관한 사업 등에 문화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가족문화 조성 사업 교육, 캠페인 등에 문

화를 활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 중심 문화행사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로 운영중으로, 특히 다문화 축제등 결혼이민자의 모국 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하는 프로그램들이 전국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도 세계인의 날을 기념한 유사한 다문화 체험의 날 행사가 열리기도 하며, 이러한 축제는 다른 나라의 음식이나 문화 체험외에도, 가요제 추석맞이 한국 문화체험등과 함께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다. 교육도 진행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과 교육을 다양한 가족의 수용성을 높이고 가족가치의 편견을 해소하고자 다누리 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서비스는 13개 언어로 제공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센터를 통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센터에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며, 부모나 보호자가 아이와 동반하여 함께 아이들이 어울릴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부모교육을 받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육아라는 부모들의 공통의 관심사를 계기로 이웃과 소통하며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435개의 공동육아나눔터가 운영중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의 아파트나 가족센터, 주민센터 등의 유휴공간을 돌봄 공간으로 조성한 것으로 민간(시설 리모델링 지원)과 협력해 시설을 확대하고, 주말이나 방학기간 이용시간 연장 등 지역별로 운영방식은 다양하다.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부모들은 이웃과 돌봄을 나누는 '돌봄품앗이' 활동을 하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고 지역사회 관계망을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이 가능하는 점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아이들과의 놀이, 체험 등 다양한 문화체험이나 참여 활동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그 외 복지부에서는 영유아 돌봄, 고령자 돌봄 사업 등을 담당한다. 신중년 노후지원 등 중고령자를 위한 사업도 복지부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돌봄 관련 사업에서 영유아 및 어린이 돌봄 교육, 신체 및 정산건강 등 고령자 건강증진 사업, 치매예방, 신중년의 노후를 위한 봉사 및 사회서비스 활동 등 노후 준비에 문화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부에서는 청년 및 신중년의 취창업 등을 지원한다. 문화 관련 취창업, 신진 예술가 지원 등에 문화를 접목할 수 있다. 신중년의 재취업을 위한 적합직무에 문화 관련 직종/직무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사업에서는 인프라 건설 관련 사업에 문화를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역밀착형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사업

에서 생활권 중심 지역계획 수립 시 문화시설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역시회,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련한 사업에 경우, 지자체 간 문화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지역 활성화에 문화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문화 연계가 가능하다. 산업부 사업 중에서는 청년 진로탐색, 퇴직인력 취업기회 확대 등 고용 관련 사업,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 산업 관련 사업에 참여 중이다. 전문기술 전수 프로그램에 문화 관련 기술을 포함하거나, 고령친화 산업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고령친화센터나 플랫폼 등에 문화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안이 있다. 사무처는 세대 간 소통, 세대 간 협력지원 사업과 같은 세대통합 관련 사업을 시행한다. 세대통합을 목적으로 한 문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20〉「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 부처별 문화 관련 사업

구분	사업 수*	주요사업
교육부	10	초등교육 혁신을 통한 충분한 교육 제공, 성인문해교육 운영 및 디지털 역량수준 향상 · 격차 해소, 초고령사회 대비 은퇴 · 고령층 교육 제도화 추진, 미래형 교육에 부합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혁신 등
여가부	8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참여 확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복지부	19	고령자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운영, 치매노인 및 가족 돌봄 지원 확대, 신중년 노후준비서비스 강화 및 참여 확대, 신중년·고령자의 여가 기회 확대 등
고용부	10	청년의 진로탐색 지원과 핵심인력 양성, 퇴직 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기회 확대,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활성화, 청년의 지역자립 지원 등
국토부	3	지역밀착형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가칭)'한국판 은퇴자복합단지' 모형 개발 및 시범조성,고령자 주거모형 개발 및 제도개선 추진
행안부	4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적 확산 추진,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활성화,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선별적 지원 강화
산업부	6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성장 기반 조성,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 퇴직 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기회 확대, 청년의 진로탐색 지원과 핵심인력 양성 등
사무처	3	기술 전수·자산 공유 등 세대 간 상호협력 지원, 세대 간 소통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청년의 지역자립 지원

주: 사업수는 보장영역간 중복사업을 포함함

제2절 문화체육관광부 인구위기 대응 정책 추진 현황

본 절에서는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서 상 내역사업 중 생애주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제4차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 내 세부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내역사업은 문체부 예산 사업설명자료 내에서 '아동', '어린이', '청소년', '청년', '노인', '어르신' 등 생애주기와 관련된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거나, 생애주기별 인구를 대상으로 하거나,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주요 문제인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대응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1,271개 내역사업 중 116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1. 생애주기별 정책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예산내역서 상 내역사업 중 생애주기와 관련된 사업을 살펴보면, 영유아기와 학령기에는 문화예술 교육사업, 청년기와 중장년기에는 문화 관련 취창업 지원과 문화예술계 종사자 지원 관련 사업, 노년기에는 취약계층 지원과 실버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이 중심이 되고 있다. 문체부 내역사업 중 생애주기별 주요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1〉 인구위기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내역사업 중 생애주기별 주요사업

<table>
<tr><th>구분</th><th colspan="4">주요사업</th></tr>
<tr><td>영유아기</td><td></td><td rowspan="2">• 어린이박물관 운영
• 신나는 예술여행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td><td rowspan="5">•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
• 국민관광지원
•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 맞춤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td></tr>
<tr><td>학령기</td><td>• 청소년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 게임활성화 생태계 조성
•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td></tr>
<tr><td>청년기</td><td>• 전통문화 창업 활성화
• 청년예술문화패스 지원</td><td rowspan="2">• 콘텐츠 창작·창업 지역확산
• 양성평등 문화정책 개발
• 여가친화인증제</td><td rowspan="3">• 디지털 도서관 운영</td></tr>
<tr><td>중장년기</td><td></td></tr>
<tr><td>노년기</td><td colspan="2">• 이야기할머니 인력양성 및 활동지원
• 정보접근권 확산지원</td></tr>
</table>

영유아기와 학령기 대상 사업으로는 문화, 스포츠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인프라 제공 사업이 다수로 나타났다. 어린이박물관 운영,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청소년의 경우 문화예술교육과 더불어 게임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 마약 예방 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사업도 다양하며, 청소년, 위기청소년 대상으로 감화 목적의 예술문화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표 3-22〉 인구위기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내역사업 중 영유아기·학령기 대상 주요사업

구분	과제명	세부대상	세부 내용
영유아기·학령기	어린이박물관 운영	어린이·가족 관람객	• 어린이박물관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신나는 예술여행	문화소외계층 어린이·아동 등	•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 • 지역 사회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기획 프로그램 제공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저소득층 유·청소년 (만5~18세)	• 월 10만원 범위 내의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학령기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초등학생	• 전문 강사를 배치하여 체육시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등을 지도하게 함 • 초등학교 학생 체육활동을 활성화와 내실 있는 체육수업으로 학생 체력 증진에 기여
	게임활성화 생태계 조성	청소년	• 청소년 대상 게임 이해하기 교육, 게임문화 가족캠프 등 건전 게임문화 확산 지원
	미술향유지원	학교 밖 청소년	• 미술주간 운영 • 공예교육 활성화(취약계층 자립형 공예교육)

청년기와 중장년기 대상 사업은 창업지원이나 신진인력양성 등의 사업으로 구성된다. 순수예술, 전통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양성 교육 등을 지원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단위 창제작 지원사업도 다양하다.

〈표 3-23〉 인구위기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내역사업 중 청년기·중장년기 대상 주요사업

구분	과제명	세부대상	세부 내용
청년기	전통문화 창업 활성화	전통문화 전공자 등 청년	• 전통문화 분야 예비창업 보육, 초기창업기업 사업화자금 및 보육·멘토링 지원 • 전통문화 전공자의 취업으로의 연계를 위해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및 창업 환경 제공
	가치 만드는 국립극장	청년 예술가	• 신진청년예술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양성 우수공연 출연

구분	과제명	세부대상	세부 내용
	청년 예술문화패스 지원	청년 (만 19세)	• 문화예술관람료 지원을 통해 청년의 직접적인 문화소비 확대 •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에 대한 간접적 지원, 시장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 도모
청년기 중장년기	콘텐츠 창작·창업 지역확산	지역 예비·초기 창업자	• 시설·장비 지원, 콘텐츠 아이디어 구체화, 교육, 창업, 창제작 지원
	콘텐츠분야 인재양성	콘텐츠 선도· 전문인력	• 콘텐츠창작자 양성, 현업인 역량강화, 산학 연계 교육 등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신기술과 문화콘텐츠를 연계한 융복합 콘텐츠 창·제작 전문인력 양성

노년기 대상 사업은 취약계층 대상 문화향유 지원 사업이나 접근성 강화 사업이 대부분으로, 문화자본의 차이를 겪는 취약계층의 향유권 지원을 바탕으로 문화격차 해소를 돕는다. 한편 실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야기할머니 인력양성 및 활동지원 사업 등 노년층의 건강한 사회활동을 위한 문화분야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표 3-24〉 인구위기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내역사업 중 노년기 대상 주요사업

구분	과제명	세부대상	세부 내용
노년기	이야기할머니 인력양성 및 활동지원	여성 노령층 (만56~74세)	• 여성 노령층 유아교육기관 파견, 유아(만3세~만5세) 대상 전통 이야기를 구연 • 세대간 전통 무릎 교육의 현대적 계승으로 어르신 사회참여 확대 및 미래세대 인성함양 도모, 전통문화 활용성 증대
	지역공헌활동 지원	취약계층	• 지역신문의 사회적 책임 부여와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무료 신문구독 지원 및 지역신문활용 교육지원
	장애인 등 문화취약계층 접근성 강화	문화 취약계층	• 장애인 및 고령층 등 문화취약계층의 박물관 접근성 강화를 위해 '(가칭)맞이공간' 조성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전생애 대상 사업으로는 생애주기별 맞춤 관광, 교육,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대체로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의 문화향유를 위한 사업이 포진해 있는데, 문화 향유권의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사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 등 생애주기에 맞춰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표 3-25〉 인구위기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내역사업 중 전생애 대상 주요사업

구분	과제명	세부대상	세부 내용
전생애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취약지역, 인구소멸지역주민	• 문화예술교육으로 인구소멸지역 활성화 및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격차에 따른 문화소외현상 완화 • 마을 전체 주민 대상 생애주기별 수요맞춤형 문화예술교육 기획·운영 지원
	국민관광지원	관광 취약계층 포함 전국민	• 계층별·생애주기별 맞춤형 관광지원 •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 향유권 제고를 위해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근로자 휴가비 등 지원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전국민	• 다양한 스포츠활동을 인센티브(포인트)로 전환 후 스포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
	맞춤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	일반국민 및 소외계층	•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2. 보장영역별 정책현황

인구구조와 관련된 문체부 내역사업을 보장영역별로 봤을 때 고용·임금 분야의 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과 삶의 만족 영역 사업 수가 각각 25개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업 수가 많은 영역은 여가 영역(24개)이었고 건강 영역이 19개로 뒤를 이었다. 타부처 사업과 달리 여가와 시민참여 영역 사업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 3-26〉 인구위기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내역사업 중 보장영역별 주요사업

구분	사업 수*	주요사업
교육	25	어린이박물관 운영,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종교의 사회적 통합기능 강화, 미디어교육사업, 미술향유지원, 저작권 교육 및 홍보,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고용·임금	35	청소년대표육성, 콘텐츠분야 인재양성, 패션디자이너 육성지원, IP 융합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국학진흥 청년일자리 창출, 전통공연예술 청년 성장동력 지원, 차세대예술인력 육성, 관광두레 조성 등
노동	6	대중문화예술진흥, 양성평등 문화정책 개발,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여가친화인증제, 문화분야 성인지 교육콘텐츠 개발
돌봄	2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연결사회 지역거점 운영
가족 공동체	3	문화다양성 축제 및 K-WAVE 페스티벌,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공연예술박물관 운영(예술피크닉)

구분	사업 수*	주요사업
건강	19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도박중독 치유 재활, 국민체력 인증제 운영,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청소년체육교류, 안전한 스포츠 환경 구축, 맞춤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 등
여가	24	문화격차해소 지방순회전 개최,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국민관광지원, 스포츠클럽육성, 통합문화이용권, 신나는 예술여행 등
시민 참여	5	청년 문화정책 기반구축, 박물관 고객서비스 강화, 대학생 기자단 운영, 이야기할머니 인력양성 및 지원활동, 이야기콘텐츠 활용확산
삶의 만족	25	문학창작육성,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 취약계층 인문 향유 지원, 장애인 등 문화취약계층 접근성 강화, 영화 향유권 강화, 정보접근권 확산지원 등

주: 사업수는 보장영역간 중복사업을 포함함

교육 영역 사업을 살펴보면,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도 시행 중이다.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사업 외에도 학생 및 청소년의 건강한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미디어교육사업, 게임문화 교육 등 학령기 인구 대상 사업도 이 영역에 포함된다.

〈표 3-27〉 인구위기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내역사업 중 교육 영역 주요사업

구분	과제명	세부대상	세부 내용
교육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발전 및 진흥 목적 •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과 전문가 및 멘토가 함께 책을 읽는 상호 활동을 통한 문화복지 확대
	종교의 사회적 통합기능 강화	청소년	• (청소년 인성교육) 이웃종교와의 교류, 생명문화나눔 활동, 인성교육 등 다문화 · 다종교 사회에서의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종교갈등 사전예방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취약계층	• 생애주기별, 문화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관심도 제고 및 문화적 격차 해소
	미디어교육사업	학생, 청소년	•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강화 및 미디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미디어교육 품질 개선 및 보급 확대

고용·임금 영역에서는 청년예술가 등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을 통해 차세대 예술가를 육성. 콘텐츠 분야의 경우 콘텐츠 창작자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기와 중장년기, 노년기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타부처 사업과 달리 고용·임금 영역에서 청소년 선수 육성과 같은 학령기 인구 대상 사업이 수행된다는 점에 특수성이 있다.

노동 영역의 대중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경우에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연습생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사업에 포함된다. 한편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발표 이래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분야 양성평등을 관련 정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표 3-28〉 인구위기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내역사업 중 고용·임금/노동 영역 주요사업

구분	과제명	세부대상	세부 내용
고용·임금	청소년대표육성	청소년 선수	• 우수선수 육성 및 국가대표 훈련 지원을 통해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여건 마련
	전통공연예술 청년 성장동력 지원	청년 예술가	• 청년예술가 단체와 청년예술가를 지원, 청년예술가의 성장 동력을 강화
	차세대예술인력 육성	신진 예술가	• 신진 예술가 성장과 예술인 직무능력 개발을 통해 차세대 예술가를 육성하기 위한 청년 창작, 네트워크, 연구 지원 및 직무교육 제공
	IP 융합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지역 콘텐츠 창작인력	• 지역의 첨단콘텐츠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창작자 유입 및 일자리·주거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인프라 및 운영시스템 구축
노동	대중문화예술 진흥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연습생	•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및 업체를 대상으로 대중문화예술인 활동 및 대중문화예술지원 인프라 운영 등 지원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연습생들의 권리 보호 체계를 증진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문화예술계 종사자	• 지속적인 문화계 현장 의견수렴 및 대국민 양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돌봄 영역과 가족공동체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해 관련 사업의 수가 적은 편이었다. 돌봄영역 사업에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방과후 에듀케어 지원과 청년·노인 취약계층 대상 심리지원 문화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가족공동체 영역에서는 문화다양성 축제 개최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정사업이 추진 중이다.

시민참여 영역에서는 청년세대 문화정책 참여를 위한 청년 문화정책 기반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노년층 대상 시민참여 영역 사업으로는 이야기할머니 인력양성 및 지원활동과 이야기콘텐츠 활용확산이 있는데, 이들 사업은 이야기 콘텐츠를 통해 고령층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활용, 확산시킴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표 3-29〉 인구위기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내역사업 중 돌봄/가족공동체/시민참여 영역 주요사업

구분	과제명	세부대상	세부 내용
돌봄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전국 초·중·고교	• 초·중·고 예술강사 지원으로 문화예술교육수행 • (돌봄 프로그램) 아동 대상 방과후 에듀케어 확대 지원
	연결사회 지역거점 운영	정서적 취약계층	• 청년·노인 등에 인문활용 심리지원·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통합 및 사회 안정에 기여
가족 공동체	문화다양성 축제 및 K-WAVE 페스티벌	이주민	• 이주민이 직접 기획·추진하는 참여형 축제 • 문화권 보장 및 내·외국인 교류의 장 제공으로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전국민	•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 인식 제고를 위해 문화다양성 교육·대국민 캠페인 추진 등 법정사업 추진
시민 참여	청년 문화정책 기반구축	청년	• 청년세대의 정책 참여 기회 및 일경험 기회 제공
	박물관고객서비스 강화	청년	• (청년멘토 활동지원) 초·중·고 학생단체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시해설 서비스 제공 및 관람질서 유지

건강 영역 사업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외에도 도박중독 치유 등 표적 타깃 대상 재활사업이 있다. 국민체력 인증제와 같은 전국민 대상 사업과 어린이·청소년 대상 스포츠 환경 구축 등의 사업이 있다.

〈표 3-30〉 인구위기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내역사업 중 건강 영역 주요사업

구분	과제명	세부대상	세부 내용
건강	도박중독 치유 재활	청소년, 중장년 (표적타깃)	• 도박문제와 관련한 상담·치유 등의 재활사업 수행을 통해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해결
	국민체력 인증제 운영	전국민	•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촉진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적·체계적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
	청소년체육교류	학생선수	• 한중일 청소년 스포츠교류를 통한 우호증진 및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학생선수들의 국제스포츠 경험 축적과 경기력 향상 도모를 통한 체육인재 양성
	안전한 스포츠 환경 구축	어린이, 장애인 등	• 스키, 수영 등 대표 위험종목 및 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제공, 안전의식 확산 캠페인 실시

여가 영역 사업은 일반시민의 문화·관광·스포츠 향유를 위한 사업으로 구성된다. 다양한 연령·계층이 전시, 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하거나 인구감소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이 수행된다.

〈표 3-31〉 인구위기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내역사업 중 여가 영역 주요사업

구분	과제명	세부대상	세부 내용
여가	문화격차해소 지방순회전 개최	수도권 외 지역주민	• 고품질 대규모 특별전시를 지방에서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의 문화격차해소
	스포츠클럽육성	지역주민	• 다양한 연령·계층의 지역주민이 원하는 종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중심의 선진형 스포츠클럽 육성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자	•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자 대상 할인혜택 제공으로 인구감소지역 관광활성화 추진
	통합문화이용권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 문화양극화 완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삶의 만족 영역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 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 및 세대의 문화향유와 정보접근을 지원한다. 예술 종다양성 확보와 예술향유자의 다변화를 목표로 사업을 수행하며,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인문·문화 향유 지원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에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과 같은 경우도 이 영역에 포함된다.

〈표 3-32〉 인구위기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내역사업 중 삶의 만족 영역 주요사업

구분	과제명	세부대상	세부 내용
삶의 만족	문학창작육성	어린이, 청소년	• 문학주간에 어린이문학주간 신규 추진 • 어린이·청소년으로 대상 확대하여 전세대에 걸친 문학 향유 문화 증대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	어린이, 청소년	• 다원예술 및 융복합, 어린이·청소년 대상 예술분야의 창작활동을 위한 제반 경비 직접 지원, 신규 향유 관객층 개발
	취약계층 인문 향유 지원	위기청소년, 중장년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소외)계층	• 위기 청소년 등 취약계층 대상/중장년층 활력 제고 및 재도약 지원을 위한 인문프로그램 운영 • 취약계층 대상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사회시설 활용 생애맞춤형 인문프로그램 운영 • 정서적 취약계층 대상 문화·인문자원 활용 문화케어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소외계층 인문향유 기회 제공

3. 생애주기×사회보장영역 분석틀 기반 현황

생애주기별×사회보장영역 분석틀 기반, 생애주기와 연관된 문화체육관광부 내역사업을 사회보장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의 보장영역에서 영유아기와 중장년기를 단독 대상으로 한 사업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영유아기 인구 단독 대상 사업은 삶의 만족 영역의 국립춘천박물관 영유아 체험실 이전 사업이 유일했으며, 중장년기 인구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의 경우 학령기 인구와 함께 아동 청소년 대상 교육, 건강, 여가, 삶의 만족 영역 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내역사업 중 특정 생애주기 인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는 학령기와 청년기 인구 대상 사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교육, 건강, 삶의 만족 영역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사업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었는데, 미술관·박물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어린이 청소년 교육, 어린이박물관 등을 운영하며 미래세대의 문화향유를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영역에서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 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건강권 보장 사업이 이루어진다. 삶의 만족 영역에서는 공연예술 등 어린이 청소년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체험의 저변을 넓혀 미래세대의 문화적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타부처와 달리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고용·임금 영역과 노동 영역에서도 학령기 인구 대상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는 청소년기부터 직업 관련 훈련을 수행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고용·임금 분야 사업에는 꿈나무선수육성, 청소년 대표육성 사업이 있다. 노동 분야는 대중문화예술 진흥 사업이 청소년기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의 경우 어린 나이에 직업활동을 시작하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연습생의 권리 보호 체계 증진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이 사업 목적에 포함되어 있다.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등 청년 및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노동환경 개선 사업도 노동 영역에 포함된다.

고용·임금 영역에서 가장 많은 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는 생애주기는 청년기로 나타났다. 청년기 인구의 경우 콘텐츠, 시각예술, 전통문화 등 분야별 인재양성 및 창업지원 사업의 대상이 된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지방 인구소멸 대응을 위해 시행되는 지역 콘텐츠산업 육성 사업 역시 청년기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밖에 청년 대상 사업으로는

여가 영역의 청년예술문화패스 지원 사업과 시민참여 영역의 청년 문화정책 기반구축, 대학생 기자단 운영 사업이 있다. 청년예술문화패스 지원사업의 경우 사회초년생의 문화예술 향유 지원을 통해 청년 인구의 문화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시민참여 영역 사업의 경우, 청년이 문화정책 결정과 정책 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청년의 사회참여를 장려한다.

노년기 인구 대상 사업으로는 소외계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삶의 만족, 돌봄 영역 사업과 실버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임금, 시민참여 영역 사업이 있다. 고용·임금 영역 사업에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국학진흥 실버일자리 창출, 청년 예술가와 실버예술가를 위한 청춘마이크·실버마이크 프로그램이 포함된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 원로문예인 복지지원 사업과 같은 연금 성격의 소득지원 사업도 시행 중이다.

시민참여 영역에서는 이야기할머니 인력양성 및 활동지원과 이야기콘텐츠 활용 확산 사업과 같이 노년층이 창작예술 활동의 적극적 주체로 활동하며 사회참여 열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삶의 만족 영역에는 노년기 인구와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접근권 확산지원 사업, 취약계층 인문향유 지원 사업이 있다. 이들 사업은 정보접근권 확산을 위해 신문구독을 지원하거나 인문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의 문화향유를 지원한다. 여가 영역의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노년기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여가지원 사업으로, 노년층의 주체적 문화예술참여를 지원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생애주기별 문화프로그램이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전생애 대상 사업으로 분류된다. 건강 영역에는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맞춤형 생활체육 활동지원 사업이 있다. 교육 영역의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취약지역의 문화소외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수요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운영을 지원한다. 여가 영역의 국민관광지원 사업은 전생애를 대상으로 계층별·생애주기별 맞춤형 관광을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관광 및 시니어관광과 같은 취약계층 대상 관광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표 3-33〉 인구변화 대응 문화정책 추진 현황 분석 결과(생애주기×사회보장영역)

<table>
<tr><th>구분</th><th>영유아기</th><th>학령기</th><th>청년기</th><th>중장년기</th><th>노년기</th></tr>
<tr><td rowspan="4">교육</td><td colspan="2">• 어린이박물관 운영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 공연예술박물관 운영(예술피크닉)</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td><td>• 종교의 사회적 통합기능 강화
• 미디어교육사업
• 첨단기술 기반산업 혁신
•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 미술향유지원</td><td></td><td></td><td>• 지역공헌활동 지원</td></tr>
<tr><td colspan="3">• 문화시설/(사회시설) 활용 인문프로그램 운영</td><td></td></tr>
<tr><td colspan="5">•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td></tr>
<tr><td rowspan="2">고용
·임금</td><td rowspan="2"></td><td rowspan="2">• 꿈나무선수육성
• 청소년대표육성</td><td>•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 국학진흥 청년일자리 창출
• 전통문화 창업 활성화
• 시각예술 창작육성</td><td rowspan="2"></td><td rowspan="2">•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 국학진흥 실버일자리 창출
• 원로문예인 복지지원
•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 차세대예술인력육성</td></tr>
<tr><td>• 콘텐츠 창작·창업 지역확산
• 지역특화콘텐츠 개발</td></tr>
<tr><td>노동</td><td></td><td>• 대중문화예술 진흥</td><td colspan="2">• 여가친화인증제
•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td><td></td></tr>
<tr><td>돌봄</td><td colspan="2"></td><td>• 연결사회 지역거점</td><td></td><td>• 연결사회 지역거점</td></tr>
<tr><td>가족
공동체</td><td colspan="5">•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문화다양성 축제 및 K-WAVE 페스티벌</td></tr>
<tr><td rowspan="3">건강</td><td></td><td>•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 rowspan="2"></td></tr>
<tr><td colspan="2">• 안전한 스포츠환경 구축
•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 노원 어린이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td></tr>
<tr><td colspan="5">• 국민체력인증제 운영
• 맞춤형 생활체육 활동지원
• 국립체육센터 건립 지원</td></tr>
<tr><td rowspan="3">여가</td><td></td><td>• 국민관광지원</td><td rowspan="2">• 청년예술문화패스 지원</td><td rowspan="2"></td><td rowspan="2">• 국민관광지원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td></tr>
<tr><td colspan="2">• 신나는 예술여행
• 문화체육관광 종합통계 개발 및 운영</td></tr>
<tr><td colspan="5">• 문화격차해소 지방순회전 개최,
•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
• 관광거점 조성 및 운영,
• 통합문화이용권</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영유아기</th><th>학령기</th><th>청년기</th><th>중장년기</th><th>노년기</th></tr>
<tr><td>시민
참여</td><td></td><td></td><td>• 청년 문화정책
기반구축
• 대학생 기자단 운영</td><td></td><td>• 이야기할머니
활동지원
• 이야기콘텐츠 활용
확산</td></tr>
<tr><td rowspan="3">삶의
만족</td><td>• 국립춘천박물관
영유아체험실</td><td>• 취약계층 인문 향유
지원</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 rowspan="2">• 지역공헌활동 지원
• 취약계층 인문 향유
지원</td></tr>
<tr><td colspan="2">• 문학창작육성
• 공연예술창작육성
• 기초예술 다양성증진 지원
• 어린이 아트앤 사이언스 파크</td></tr>
<tr><td colspan="5">• 인문정신문화 활용 삶의 질 제고 지원,
• 출판산업 기반조성</td></tr>
</table>

주 1: 빗금친 부분은 인구변화 대응을 위해 문화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영역임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인구구조 대응 관련 문체부 사업은 크게 문화향유 및 문화예술 창제작 지원 사업과 체육활동 지원사업, 관광지원 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창제작 지원 사업은 신진예술가 지원이나 지역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최초창업 지원 등 청년기와 중장년기 인구를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타부처 사업은 은퇴자 신중년 인구의 재취업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문체부의 경우 문화예술분야를 활용한 신중년 인구 재취업 관련 사업은 아직까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사업 중 신중년 재취업을 위한 적합직무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취업기회 확대 관련 사업에 문화 관련 직종/직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인구구조 대응 관련 문체부 사업 중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대부분으로, '이야기 할머니 사업'과 같이 고령층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으나 일부 사업에 그쳐 실질적인 실버 일자리 창출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이야기할머니 인력양성 사업, 이야기콘텐츠 활용확산 산업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등 고령층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이 있지만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서 고령층 사회참여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타부처 사업에서는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일반시민의 사회공헌활동을 장려하고 있는데, 문체부에서도 문화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문체부 사업 중 문화예술 향유와 관련된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사업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어린이·청소년 대상의 교육사업은 다양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에 반해 영유아기 대상 교육사업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에서 어린이·청소년 대상 다양한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부족해 육아기 부모의 부담을 덜어줄만한 문화 관련 사업의 필요성을 짐작해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문체부 사업 중에서는 돌봄영역 사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기 대상 돌봄 사업이 부재하였고 고령층 대상 돌봄사업도 부족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돌봄 사업의 확장을 고려해볼 수 있다. 교육 대상을 노년기 인구까지 확대한다면 고령층의 지식욕구를 충족시키고 더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가능케 할 것이다. 또한 타부처 사업에 비해 노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 미비하므로, 운동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나 치매 치료를 위한 인지훈련 콘텐츠 등에 문화를 접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한편 노년층 인구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위한 사업으로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긍정적 노년문화를 확산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2024년 예산이 순감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노년인구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간의 대국민 문화정책은 향유의 측면에서는 국민의 일회성 문화예술 체험 증진이나 교육, 혹은 특정 연령이나 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청년에 주로 집중해왔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인프라 조성을 추진하다보니 연령분절적이고 기능단절적인 사업들이 계획되었다. 무엇보다 문화정책을 통해 사회의 긍정문화 조성이나 및 인식 변화와 관련된 정책들은 적극적으로 실행되지 못했다. 이에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들을 긍정가치 확산, 돌봄, 치유, 사회통합의 영역으로 재구조화 하여, 해당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을 보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다양한 가치 확산을 위해서는 현재 문체부의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이 국적, 세대, 성별, 종교 등 집단 간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향후에는 다양한 성공 기준과 행복에 대한 인정 및 사례 확산을 통해 획일화된 사회적 기준과 물질주의적 가치관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 문화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가친화 인증제의 평가기준에 다양한 가치들을 포함시켜 일-여가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정책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돌봄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재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공간과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아동과 양육자가 함께 즐기거나 각각 독립적으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미비하다. 이에

국민 모두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전생애에 걸쳐 스스로의 문화향유 자본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기존 복지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에 대해 문화를 통한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문화를 통한 치유는 현재 연결사회 지역거점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주요 대상이 외로움, 고립감을 겪는 사람에 한정되어 있고, 그 역할도 지역사회에서의 대상 발굴 및 관련 시설 연계 등 소극적이다. 이에 치유 대상의 확대와 실제 심리적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세대간 이해 제고와 존중, 사회적 역할의 확대가 중요하다. 이에 고령자들의 사회적 참여와 가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체부의 일자리 사업은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다. 향후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중고령자에게도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여 이들이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고령자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보완을 통해 문화정책이 인구위기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서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의 수요 및 사례

제1절 인구위기와 문화정책의 관계에 대한 의견

1. 전문가 의견 수렴

가. 전문가 인터뷰 개요

본 연구에서는 표적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 방법을 통해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FGI는 총 4개 그룹이 진행되었고, 각 그룹당 4-5명씩 총 17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전문가들은 정책 대상별로는 아동, 고령자, 내용별로는 복지, 가족, 문화예술교육, 치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표 4-1〉 FGI 참여 전문가

분과	일시	자문 위원
1	24.06.18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류OO 교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OO 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OO 연구위원 서울연구원 윤OO 센터장
2	24.07.12	서울여성가족재단 이OO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OO 연구위원 한국육아정책연구소 유OO 연구위원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송OO 교수
3	24.07.1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OO 선임연구위원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OO 교수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유OO 교수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양OO 교수 보건사회연구원 전OO 연구위원
4	24.07.12	중원대 사회복지학과 염OO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김OO 교수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이OO 교수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이OO 교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김OO 본부장

전문가들에게 질의한 내용은 크게 1)인구위기와 관련된 사회문제 현황 2)인구위기 대응 문화여가 정책 사업 및 사례이며 주요 질의문항은 아래와 같다

〈표 4-2〉 인구변화 대응 문화정책 관련 전문가 FGI 주요 질의내용

구분	질의내용
저출산·고령화 관련 현황 및 정책	■ 저출산·고령화 관련 현황 및 쟁점 - 저출산·고령화 사회 주요 쟁점(여가, 의료, 사회 참여, 돌봄, 노인 일자리 등)은? - 쟁점 관련 범부처 대응 정책의 방향성은?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변화에 따른 문화향유 관련 쟁점 -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제약요인은? ■ 국내외 사례 - 정책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개선된 사례는?
저출산 · 고령화 대응 문화여가 정책	■ 인구위기와 문화정책의 관계 설정 ■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의 역할과 방향성 - 문화여가정책이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사회문제 영역과 추구해야할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 문화정책의 개입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 기본방향과 목표 타당성 - 저출산·고령화 대응 문화정책의 3대 기본 방향성과 4대 목표가 타당한지? - 더 추가되어야 할 방향성이나, 목표가 있다면? ■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의 4대 영역별 정책사업(안) 및 사례 제안 ① 목표 1: 문화를 통한 가치확산 - 육아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과 시설 확충 방안?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방안? ② 목표 2: 문화를 통한 돌봄 - 국민의 문화적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생애주기별 쟁점 - 영유아,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 프로그램(안) ③ 목표 3: 문화를 통한 치유(Healing) -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치료를 지원하는 문화 프로그램의 예시 - 문화 활동이 치료적 요소를 포함하여 건강 회복을 돕는 방식에 대한 방안 - 병원, 재활센터, 공공 보건 기관과의 협력하는 사례 ④ 목표 4: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성화시켜 돌봄이 자급자족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 - 커뮤니티 돌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사업 ■ 종합 질문 -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을 위한 추가적으로 고려사항 및 정책적 제언

FGI 질의내용을 토대로 전문가들의 응답을 크게 인구위기와 사회문제,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제약요인, 사회문제와 문화향유 제약 감소를 위한 생애주기별 문화정책 방안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나. 주요 결과

1) 인구위기와 사회문제

생애주기별로 나타나는 사회문제를 살펴보면, 먼저 유아동기에는 계층 및 소득 격차가 야기하는 경험의 격차를 들 수 있다. 부모의 계층과 소득은 어린이·아동이 유아동기에 겪는 경험의 차이를 유발한다. 돌봄기관에 양질의 콘텐츠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동을 대상으로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는 한편 과열된 교육열은 아동 간에도 계층 격차를 야기한다.

청소년기와 청년기에는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된다. 코로나19 이후 청년기의 의사소통 문제가 심화되고 소외된 1인 가구 청년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비대면 활동의 증가는 편의성을 향상시켰으나, 부작용으로 전화를 받기 어려워하는 콜 포비아나 사람을 상대하기 어려워하는 청년들, 고립되어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청소년과 청년이 증가하는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결혼 이후 확대가족 문화를 강요하는 우리 사회 가족문화도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결혼 후 시부모를 모시는 확대가족 문화에 여성뿐만 아니라 젊은 남성들도 반발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건강가족기본계획 4차에서는 가족 안에서도 개인의 사생활을 지키는 방향을 추구하며, 가족 안에서의 개인 가치 다양성 존중을 중요한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민주적인 부모 자녀 관계, 세대 관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장년기과 노년기에도 고립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된다. 거동이 불편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거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가 많은 고령화 지역의 지역소멸현상도 인구위기로 인한 주요 사회문제로 나타난다. 저출산·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소멸 위기를 맞은 지역은 인프라가 매우 적고 소비시설도 점차 사라진다. 이로 인해 인구소멸지역 노인들의 생활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군 중심에 위치한 복지관까지의 접근성도 떨어져 보완재와 대체제도 충분치 않다.

인구위기가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인구위기의 원인이 되는 사회문제가 끼친 영향의 결과이기도 하다. 전 생애에 걸쳐 세대 간 갈등을 비롯한 경쟁 및 사회비교, 지역·계층·젠더 격차 등 격차 문제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야기한다.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의 가치를 폄훼하는 돌봄에 대한 인식 문제 역시 저출산·고령화 문

제 해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2)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제약요인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유아동기에는 지역격차, 소득격차 등 격차에 의한 제약요인이 발생한다. 문화향유 경험을 위한 동반자가 없는 경우도 제약요인이 된다. 맞벌이, 한부모, 빈곤가구 및 농어촌 지역 아이들의 문화 접근성은 매우 낮으며, 빈곤아동의 경우 여행경험이나 박물관, 미술관 방문 경험이 없어 문화생활에 대한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청소년기에는 놀 권리를 보장해줄 놀이공간의 부족이 문화향유 제약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학업이나 교육격차, 학업성취도 차이에 집중된 유아동기 및 청소년기 정책 역시 제약요인으로 나타난다. 지역이나 소득격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격차는 청소년기 이후에도 성인 문해력이나 의사소통 기술 등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필요가 있다.

청년기와 중장년기에는 여가시간을 가질 수 없는 긴 노동시간 문제가 문화향유의 제약요인으로 나타났다. 아이가 있는 육아기 청년 및 중장년 인구의 경우에는 돌봄의 어려움이 문화향유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지금의 교육제도는 한 사람의 보호자가 아동을 전담하여 보육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 맞벌이, 한부모 가정 육아기 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된다.

노년기에는 여가 레퍼토리 부족, 건강 및 소득 부족, 부족한 문화 접근성의 문제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경로당 등의 기관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농촌형, 도농형 경로당은 문화 프로그램이 미흡해 어르신들의 경우 여가와의 연계 고리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전 세대에 오픈된 인프라가 없어 노인들이 향유할 문화시설이 부족한 것 또한 문제가 된다. 농어촌뿐만 아니라 부족한 문화시설이나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로 인해서도 문화 향유 접근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 일상문화 영역에서 노인들이 고립되어가고 있다. 인구소멸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더라도 단발성 교육에 그치며, 면, 리 단위의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해 교육이 필요한 노인들에게까지 대상이 확장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노년기 인구뿐만 아니라 전 생애를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도 사업 참여 단체의 역량과

커리큘럼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정책적 맥락에서 문체부만의 고유성, 핵심가치, 철학을 분명히 하고 지향점을 설정해야 하는데, 하향식 전달체계로 사업을 진행하여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군부대나 교정시설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교육의 경우에도 법무부나 국방부 차원의 지속적 교육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업 종료와 함께 교육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인구위기 대응과 문화정책의 관계 및 정책 영역

인구위기와 문화정책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행복의 매커니즘을 설명하고, 기존의 불행, 불편의 원인을 제거하는데 집중했던 정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긍정정서와 일상에서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 국민의 문화향유를 보장한다는 접근은 시의적절하다. 또한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 증진을 목표로 문화정책을 통한 인구위기 관련 사회문제의 해결과 전생애에 걸친 문화향유권 보장의 큰 두 축을 설정한 것은 타당하다. 하위에 문화정책 추진영역으로 가치확산, 돌봄, 치유, 사회통합을 설정했는데, 문화정책에서 인식개선과 가치확산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며, 네 가지 영역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목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4가지 영역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문화를 통한 돌봄과 문화예술교육 간 개념의 명확화가 필요할 수 있다. 두 개념은 각기 다른 정책대상과 목적, 지속성 등에 차이가 존재한다. 문화예술교육은 '일반인과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특정 예술에 대한 이론적 학습과 체험을 통해 개인의 문화예술적 감수성, 친숙성 및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타인과 소통하는 인적 자본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23; 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4).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대상은 일반인, 아동·청소년(초등학생 이상) 및 특정 시설에 입소하는 취약·소외계층이며, 목적은 문화예술 체험 및 관련 역량 강화라고 할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4). 실제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일반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회적 이벤트성 교육 프로그램들이 주로 포진되어 있다. 제2차 문화예술교육에 '아동 대상 문화예술교육 돌봄 프로그램 확대'로 돌봄의 영역을 고려하고 있으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초등학생 대상으로 학교 안팎의 활동 지원, 아동 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학교 예술활동 지원 등 체험기회의 확대와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문화를 통한 돌봄의 개념은 일상 생활의 통합적 부분으로 자리 잡아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통해 정책대상을 장기적,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를 통한 돌봄의 효과는 정책대상자의 자립과 보호자 부담을 완화시키고,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제고일 것이다. 즉 문화예술교육과는 달리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문화예술체육활동이며, 이를 위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문화를 통한 돌봄 사업은 타부처 및 지역과 협력하여 생활권 내 거점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내 전문인력 운용 및 문화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그 안에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표 4-3〉 문화 돌봄, 문화 치유,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비교

	문화예술교육	문화 돌봄	문화 치유
목적	• 교육 및 체험을 통한 문화적 역량 및 창의성 함양	•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돌봄 제공	• 정신적 건강의 예방 및 회복
대상	• 일반인 및 학생	• 돌봄이 필요한 특정 계층	• 일반인
접근 방식	• 강사 파견 위주로 진행 • 일회적 또는 단속적 프로그램 운영	• 일정한 장소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 돌봄 전문인력 개입	• 문화활동 속 자연스러운 진단 및 치유 진행 • 거점에서 집중적이고 개별적인 건강 문제에 초점을 맞춰

주: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연구자 작성

4) 생애주기별 문화정책 방안

① 유아동기(0-6세)

우선 맞벌이, 한부모, 빈곤가구, 농어촌 지역 아이들의 낮은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선생님을 파견해 체육활동, 놀이, 미술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부모가구의 특성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격차를 해소할 사업을 구상해야 하며,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인프라 부족 지역에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과 같은 기관과 놀이터 등의 놀이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과 보낼 시간이 부족한 맞벌이, 한부모 가족의 경우 공공시설에 야간 또는 주말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보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존 사례로는 맞벌이가

구가 퇴근 후 아이들과 함께 미술관을 활보할 수 있도록 민간 미술관과 기업이 연계해 아이들의 부모와 함께 문화를 누릴 시간을 마련해주는 등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한편 돌봄기관의 영유아 대상 콘텐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특별활동으로 수행하는 문화프로그램을 문체부에서 정규교육으로 맡아 관리하거나, 시장에 맡겨진 문화센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공공에서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강사의 자격을 관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문체부에서 활용 가능한 문화재단 등 지역인프라를 거점화하는 방식으로 돌봄기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남양주의 한 아파트단지는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한 공동육아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설계하여 출산율을 반등시켰다. 이와 같은 공동육아 시스템을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공공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돌봄 서비스도 활용을 검토해볼만한 예시가 된다. 거점형으로 운영하는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육아기 부모가 지역 방문 시 잠깐 아이를 맡기고 면접을 보는 등 용무를 해결할 수 있게 하여 돌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다.

문화를 통한 치유 영역에서는 아동 전문병원으로 파견하는 형태의 문화 프로그램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일상문화 영역에서 문화를 통해 인식을 개선하는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영역의 대응 방안으로는 지역에서의 돌봄문화 확산과 노키즈존 문화 개선 등이 있다. 돌봄을 보호자 한 사람의 몫이 아닌 사회의 몫으로 보고 함께 키우는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노키즈존 문화를 개선하여 유아동 및 보호자가 겪는 생활 속 불편과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② 아동청소년기(7-18세)

아동청소년의 문화향유권 및 놀이권 보장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먼저 교육과 돌봄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에듀케어'로서 정규교육과정 내에 문화 교육을 포함시켜 모든 아동 청소년이 학교 내에서 의무적,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정규교육 안에 학교 단위의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단계별(학년별)로 나아가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문화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 아이들도 공교육 체계 내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과정까지 수준별, 단계별로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사교육 없이도 최소한의 수준으로 피아노, 줄넘기 등의 활동을 경험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최소기준'의 개념에서 사교육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학교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확장하면서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청소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여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는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

한편 아동기에 대한 집중 문화 투자를 통해 문화교육과 문화역량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접 동반하지 않아도 박물관·미술관에서 대절버스를 직접 운영하여 안전한 이동수단을 확보, 학교 차원에서 기관과 협력해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인솔을 담당하는 체험학습을 정규 프로그램화 하는 등의 방식으로 아이들의 문화체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놀이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아이들의 놀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 역시 정책적 고려사항에 포함된다. 특히 아동의 예술경험 영역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사 수급을 확충하고 놀이 및 예술 체험 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플리즈 터치 뮤지엄과 같이 아이들이 미술관 안에서 작품을 만지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다양한 방식의 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놀이공간 마련, 비만 예방을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방식의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측면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국가차원의 예술치료프로그램 지원을 제안할 수 있다.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고가의 비용이 필요한 치료 프로그램과의 접점을 마련하여 예술치료프로그램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건강한 방식의 스트레스 해소방안을 경험하고,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확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문화체험활동 사례와 같이 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의 돌봄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의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아동센터에서 고학년 아이들이 저학년 아이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며 돌봄의 경험을 쌓는 사례나, 제천 간디학교에서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이 더 어린 영유아를 돌보는 활동을 체험하는 사례를 예시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문화체험활동은 청소년의 사회성을 기르고 공동체 연대 경험을 통해 가족문화 지형을 통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청소년기 자기돌봄 역량 강화를 위해 스스로 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문화체험을 진로교육과 연계하는 등 자아 탐색의 기회로도 활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③ 청년기(19-34세)

돌봄의 주체가 되는 청년 대상 지원 정책을 들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봄을 담당하는 청년 대상 가족 부양 케어를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육아기 청년을 대상으로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주말 문화 프로그램 등 문화 향유의 기회를 열어주는 방식도 가능하다.

고립된 청년의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기업이나 직장, 지역과 연계한 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만들어 청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향유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재미와 활력을 느끼고 공간과 장소가 주는 의미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병리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문화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라이프 인리치먼트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장소가 갖는 의미를 활용하여 문화예술이 병리적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며, 문화예술이 초대장이 되어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는 안전한 플레이그라운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례로 뉴욕의 '뮤지엄 마일스'는 뮤지엄 걷기에 참여하면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대표적 시설이다.

청년기의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영역 정책은 관련 사례를 벤치마킹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대학에서 시도 중인 '노인과 함께하는 세대공감' 프로그램은 지자체에서 연구비를 지급하고 대학생들이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을 만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학생 대상으로 진행한 인구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동화책을 제작하고, 이를 시 어린이집 연합회나 시청과 연계해 어린이집과 도서관에 배포하는 사업도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문화제공자 역할을 하면서 아동과 청년세대를 연결하는 사회통합의 기능을 한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가치다양성을 강조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시도해볼 수 있다. 자존감을 잃고 고립된 청년들이 사회적 성공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점을 벗어날 수 있도록 가치다양성을 확립하여 개개인의 삶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④ 중장년기(35-64세)

육아기 부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가능하다. 영국은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육아기 부모의 교통비를 할인해 주거나, 미술관·박물관 입장료를 감면해주는 등의 혜택을 통해 아동을 동반한 육아기 부모의 문화생활을 장려해야 한다. 서울시는 엄마아빠 VIP존, 고척스카이돔 VIP존이나 공원 수변공간 등을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모든 양육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육아친화적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양육자가 쉼과 여가를 함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시 환경 인프라를 조성하여 모두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젊은 부모들 간 커뮤니티를 형성해 1명의 양육자가 다른 가정의 아이들을 인솔하여 문화시설을 방문하는 품앗이 문화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역할을 학교에서 대신하여 육아기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다만 학교에 인솔 담당 교사를 배치하여 방과 후 돌봄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육아기 부모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한편 중장년층의 빈곤 및 고립 문제를 해결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행복카드 등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바우처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여 자기돌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중장년의 직업교육, 생애설계 등을 지원하는 50플러스센터와 결합,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고립문제, 돌봄, 문화향유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중장년층이 즐기는 문화여가 수준이 준전문가 이상의 수준이 됐을 때 사회적으로 환원하도록 하는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문화예술을 통해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예술건강지표를 활용한 정신건강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신건강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진단 결과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추천하는 콘텐츠나 정보가 연결되어야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복지관에 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해 하고 싶은 여가활동을 즐기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파생되는 커뮤니티 관련 플랫폼은 비즈니스 모델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중장년층이 전문가를 활용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중장년기 및 노년기 인구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가치다양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고 타인에게 간섭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교육에 담는 한편, 문화취약계층인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성별 문화격차를

해소할 교육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부부, 가족을 한몸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에서 벗어나 개인 단위로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이들은 부모가 길러야 한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통해 일하는 부모가 죄책감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여가친화적 여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아버지교실 등 맞벌이 부부를 위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개설, 기업 차원의 여가친화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은퇴한 귀농인구와 같은 지역 내 전문인력을 자원봉사 형태로 유치원, 어린이집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귀농인구가 미술교사였다면 유치원 아이들의 미술지도를 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은퇴한 신중년 인구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면서 농어촌 아동들의 낮은 문화접근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이야기할머니 사업 대상을 중장년기 인구까지 확대해 세대통합적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제안해볼 수 있다.

⑤ 노년기(65세 이상)

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 사업 중 의료·요양·돌봄 부문에서 문체부에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아직 어떤 영역에 문체부의 역할이 필요한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우선 예방과 관리 측면에서 체육 관련자가 참여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고학력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지금의 노인들보다 여가를 적극적으로 즐길 의향과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이므로, 이에 맞춰 노인복지관의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발전해야할 필요가 있다. 일방향적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이 아닌 노인의 수요를 반영한 데이케어 프로그램을 설계 및 구축해야 한다.

대학에서는 교육부의 예산지원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활세계대응이라는 주제로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문체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문화 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들이 복지관에서 연극을 연습하여 공연을 다니기도 한다. 대학과 연계해 인구구조와 인구문제 해결 관련 주제로 시나리오를 작성해 한국어문학과와 함께하는 연극제, 심리학과와 함께하는 심리극 등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 콘텐츠도 등장하고 있다. 노년기 제2의 인생을 위해서도 교육과 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대학 과정 내에 에듀컬쳐케어를 포함하여 노인들이 대학에서 교육과 돌봄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문화를 통한 치유 영역에서는 치매 안심센터를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고령층이 선배시민으로서 구체적으로 사회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지관 등에서 선배시민을 활용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노인들이 함께 모여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들어 작은 마을 단위에 파견하거나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선진지 관광 견학 등 자기발전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 대상 문화예술 동아리에 음악이나 성악을 전공한 후 은퇴한 60대 선생님을 두고 배우도록 하는 방법도 효과가 있다. 도시에서 귀촌하는 사람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기타, 사진 등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괴산군의 예를 들 수 있다. 시니어 사회공헌활동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다.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므로,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만드는 등 세대 특징과 수요를 반영한 노년층의 주체적 기여 방안을 탐색해야 한다. 일자리사업에 등록해 일하면 문화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도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2. 대국민 의견조사 및 결과 분석

가. 조사 개요

본 조사는 '인구위기 대응 생애주기별 문화정책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저출산·고령화 관련 사회적 인식, 문화정책 수요, 문화정책 방안 등의 의견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국민의 사회심리적 태도와 인식을 조사했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저출산 ·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정책의 영역의 필요성을 점검했다. 정책대안의 실효성과 적절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문화정책 사업의 기획과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조사 설계 및 응답자 특성

1) 조사 설계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에 기반한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의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유효응답자 수는 1,000명이다. 조사의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전체 국민을 모집단으로 가정하고 지역별/성별/연령대별로 주민등록상의 인구분포를 참조하여 3way 할당표집(quota sampling)하였으며, 조사의 목적을 감안하여 혼인여부, 자녀유무 등의 조건을 설정한 Booster Sample(20~49세까지의 연령대별 기혼자/미혼자, 영유아 자녀 보유자 등의 최소 규모 확보)을 적용하여 표본을 구성하였다.

〈표 4-4〉 조사 설계

구분	내 용
조사대상	만 19세 이상 전국 남녀 (Booster Sample : 혼인 여부 및 자녀 유무 고려)
표본크기	총 1,000명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3.1%P)
표본추출방법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기반한 할당표집 (2024년 행정안전부 등록 기준 지역/성/연령별 분포 참조)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에 기반한 설문조사(Web Survey)
조사기간	2024년 7월 31일 ~ 8월 6일(주말 포함 총 7일간 실시)

〈표 4-5〉 주요 응답자 분포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사례수(n)	비율(%)
		1000	100.0
지역	서울	189	18.9
	인천/경기	331	33.1
	충청권	106	10.6
	호남권	93	9.3
	경상권	241	24.1
	강원/제주	40	4.0
성별	남성	507	50.7
	여성	493	49.3
연령	20대	165	16.5
	30대	178	17.8

구분		사례 수	
		사례수(n)	비율(%)
	40대	211	21.1
	50대	236	23.6
	60세 이상	210	21.0
결혼상태	미혼	296	29.6
	배우자 있음	633	63.3
	배우자 없음	71	7.1
결혼의향	예	132	36.0
	아니오	235	64.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25	88.8
	자녀 없음	79	11.2
자녀의 수	1명	229	36.6
	2명	346	55.4
	3명 이상	50	8.0
가족형태 (복수응답)	동거인 없음	129	12.9
	배우자	610	61.0
	미취학아동(0-만5세)	94	9.4
	취학 자녀(만6세-만18세)	200	20.0
	성인 자녀(만19세 이상)	248	24.8
	부모님	227	22.7
	기타	22	2.2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0	4.0
	100만원~300만원 미만	157	15.7
	300만원~500만원 미만	298	29.8
	500만원~700만원 미만	232	23.2
	700만원 이상	273	27.3
교육 수준	고졸 이하	186	18.6
	대학 이상	814	81.4
주관적 경제 수준	하층	295	29.5
	중간	481	48.1
	상층	224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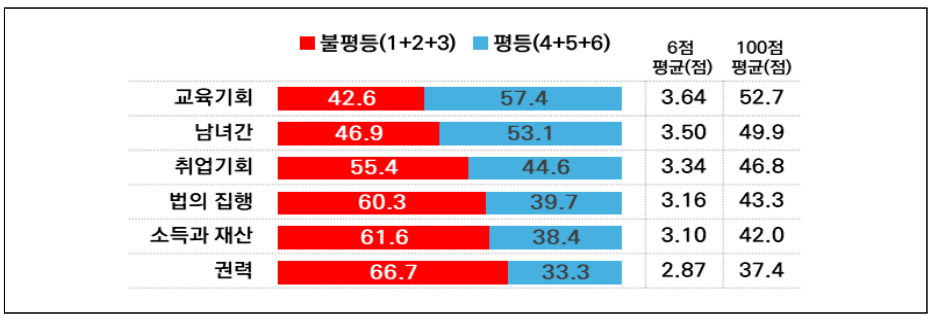
나. 주요 결과

가. 사회에 대한 인식

1) 사회 불평등 인식

사회 불평등과 관련된 6개 요인들을 제시한 후 각각 6점 기준으로 평등정도를 응답하게 한 결과,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기회' 57.4%, '남녀간' 53.1%, '취업기회' 44.6%, '법의 집행' 39.7%, '소득과 재산' 38.4%, '권력' 33.3%의 순으로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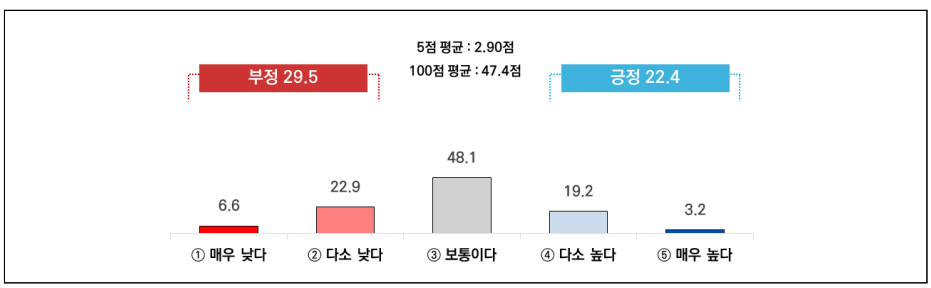
[그림 4-1] 사회 불평등 인식 항목별 응답분포



2) 주관적 경제 수준

자신이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높다'라는 긍정응답의 합계는 22.4%(매우 3.2% + 다소 19.2%), '보통'은 48.1%, '낮다'라는 부정응답의 합계는 29.5%(다소 22.9% + 매우 6.6%)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응답분포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47.4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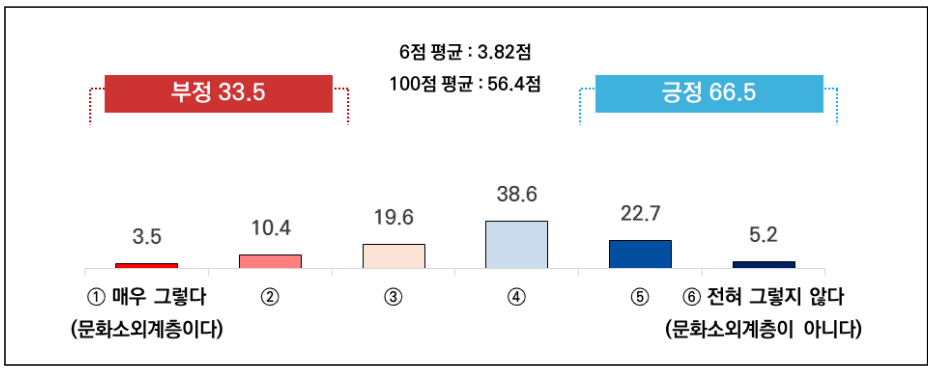
[그림 4-2] 주관적 경제 수준



3) 문화 소외계층 인식[3)]

자신이 문화소외계층[4)]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그렇지 않다'는 긍정응답의 합계는 66.5%, '그렇다'는 부정응답의 합계는 33.5%로 각각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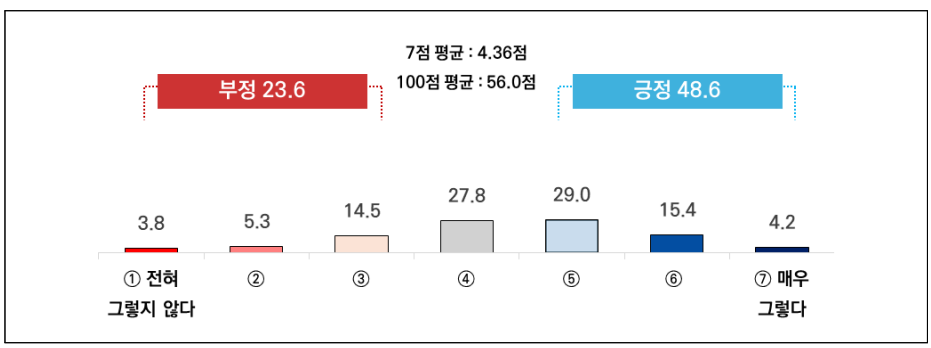
[그림 4-3] 문화 소외계층 인식



4) 행복수준

'나는 현재 행복하다'라는 응답은 48.6%으로 100점으로 환산 시 평균 56점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나는 현재 행복하다



3) 문화 소외계층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을 "긍정", 문화 소외계층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부정"으로 표기하였다.
4)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양한 이유(사회경제적, 지리적, 신체적 또는 정신적, 연령, 시간제약 등의 요인)로 인해 문화적 활동에 참여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의미" 함을 문항 앞에 명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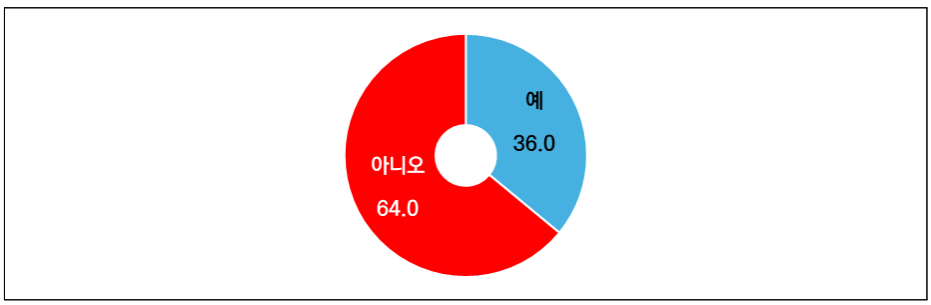
나. 결혼 및 자녀 계획

1) 결혼 의향

① 결혼 의향

현재 결혼하지 않았거나 배우자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n=367)을 대상으로 결혼 의향을 질문한 결과, '예(있다)'는 응답이 36.0%, '아니오(없다)'는 응답이 64.0%로 각각 나타났다. 특징적인 점은 연령에 따라 결혼 의향에 차이가 났는데, 타 연령대와 달리 20대의 경우 '결혼을 하겠다'는 응답 비율(53.8%)이 더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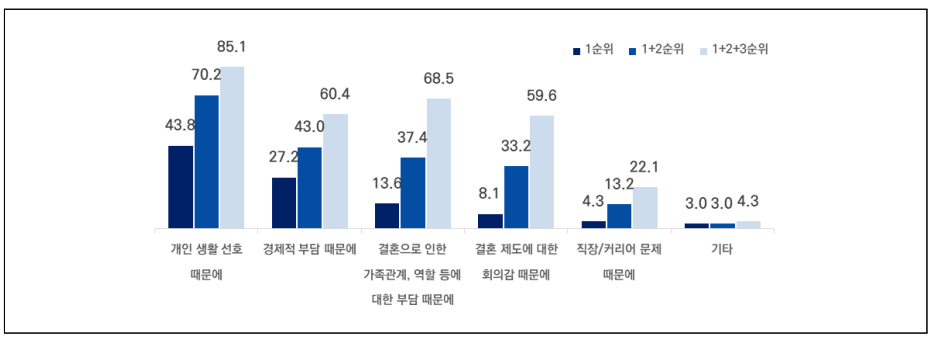
[그림 4-5] 결혼 의향



② 결혼 의향이 없는 이유

결혼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n=235) 이유로는 '개인 생활 선호 때문에' 43.8%, '경제적 부담 때문에' 27.2%, '결혼으로 인한 가족관계, 역할 등에 대한 부담 때문에' 13.6%, '결혼 제도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8.1%, '직장/커리어 문제 때문에' 4.3%, 기타 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1순위 응답 기준)

[그림 4-6] 결혼 의향이 없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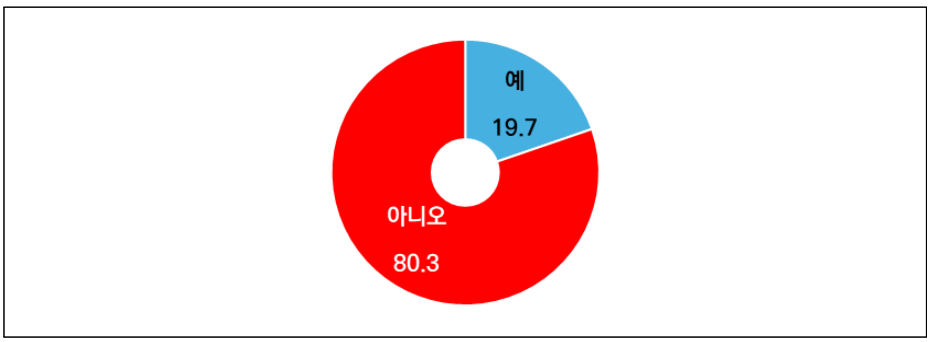


2) 자녀 출산 의향

① 자녀 출산 의향

현재 결혼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n=235)를 대상으로 앞으로의 자녀 출산 의향을 질문한 결과, '예(있다)'는 응답이 19.7%, '아니오(없다)'는 응답이 80.3%로 각각 나타났다.

[그림 4-7] 자녀 출산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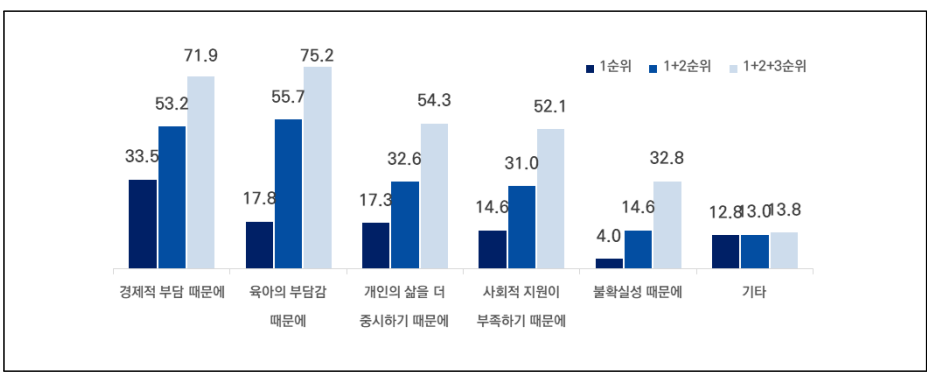


②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이유

자녀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n=803)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라는 응답이 33.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육아의 부담감 때문에' 17.8%, '개인 삶이 더 중요해서' 17.3%,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4.6%, '불확실성 때문에' 4.0%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그 외 기타 응답이 12.8%로 나타났다.(1순위 응답 기준)

한편 기타 응답으로는 '나이가 많아서', '이미 자녀가 있어서', '임신이 불가능해서' 등이 주로 언급되었다.

[그림 4-8]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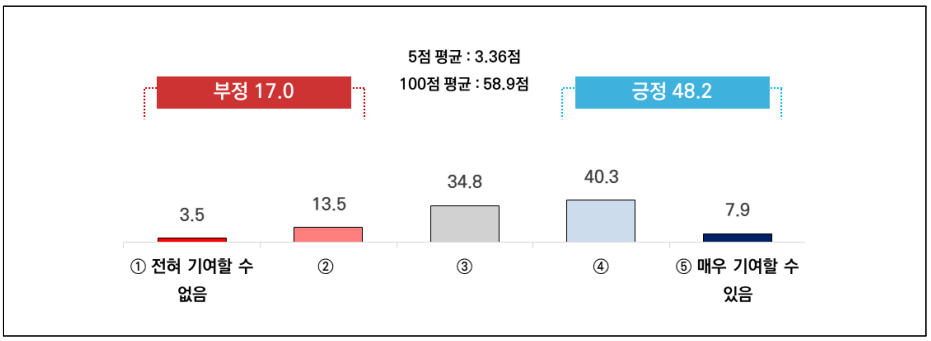


다.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

1) 문화정책의 저출산 문제 해결 기여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화정책이 기여할 수 있다는 응답이 48.2%(긍정응답 4+5점 합계), 기여할 수 없다는 응답이 17.0%(부정응답 1+2점의 합계), 보통이라는 응답은 34.8%로 각각 나타났다. 이를 100점 기준 평점으로 환산할 경우 58.9점이었다. 특징적인 점은 다른 집단과 달리 '미혼'의 경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화정책이 기여할 수 있다는 응답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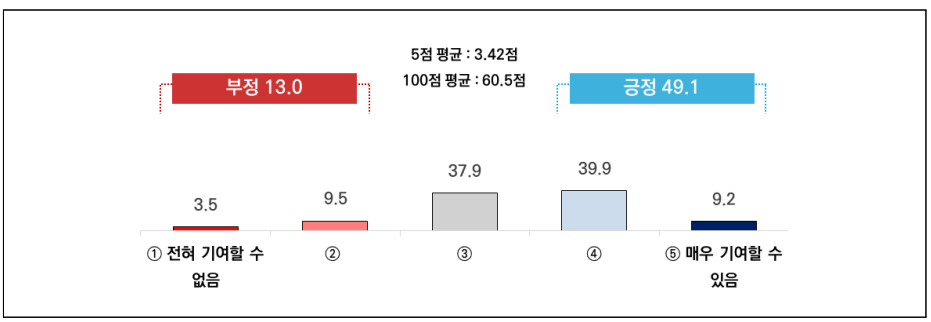
[그림 4-9] 문화정책의 저출산 문제 해결 기여도



2) 문화정책의 고령화 문제 해결 기여도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화정책이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49.1%(긍정응답 4+5점 합계), 기여할 수 없다는 응답이 13.0%(부정응답 1+2점의 합계), 보통이라는 응답은 37.9%로 각각 나타났다. 이를 100점 기준 평점으로 환산할 경우 60.5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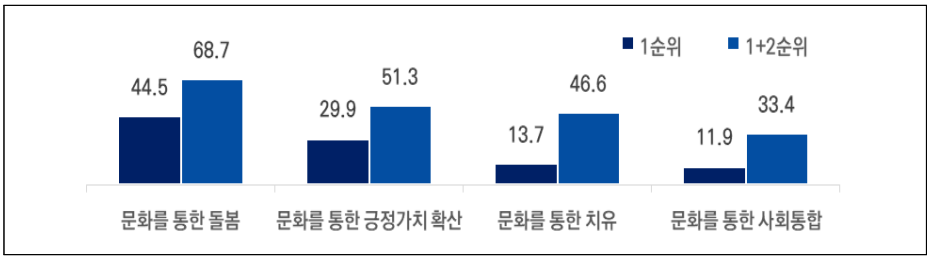
[그림 4-10] 문화정책의 고령화 문제 해결 기여도



3) 저출생 · 고령화 시대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문화정책 중요성

저출생 고령화 시대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문화정책 4대 분야의 중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문화를 통한 돌봄' 44.5%, '문화를 통한 긍정가치 확산' 29.9%, '문화를 통한 치유' 13.7%,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11.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문화를 통한 긍정가치 확산 정책의 중요성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점을 통해, 문화정책이 추구해야할 방향성이 국민들의 인식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긍정적 가치의 확대라는 장기적 목표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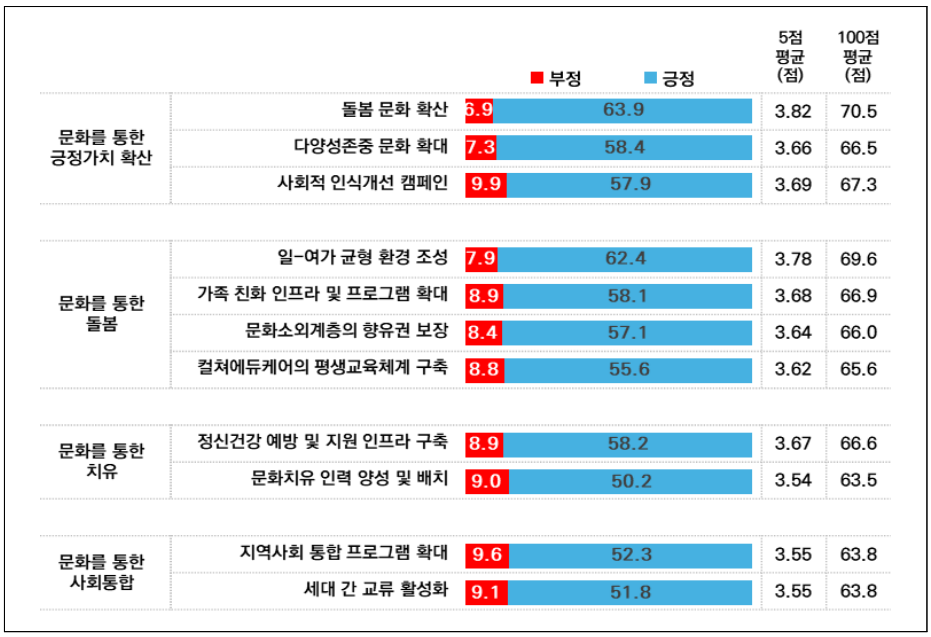
[그림 4-11] 저출생 고령화 시대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문화정책 중요성



4) 저출생 · 고령화 시대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문화정책 필요성

4대 분야별 문화정책 과제 11개에 대해 각각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는 긍정응답의 합계(매우 필요+조금 필요) 비율은 〈문화를 통한 긍정가치 확산〉의 3개 항목에서는 '돌봄 문화 확산' 63.9%, '다양성존중 문화 확대' 58.4%,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 57.9%의 순으로, 〈문화를 통한 돌봄〉의 4개 항목에서는 '일-여가 균형 환경 조성' 62.4%, '가족 친화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대' 58.1%, '문화소외계층의 향유권 보장' 57.1%순으로, 〈문화를 통한 치유〉의 2개 항목에서는 '정신건강 예방 및 지원 인프라 구축' 58.2%, '문화치유 인력 양성 및 배치' 50.2%의 순으로,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의 2개 항목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확대' 52.3%, '세대 간 교류 활성화' 51.8%의 순으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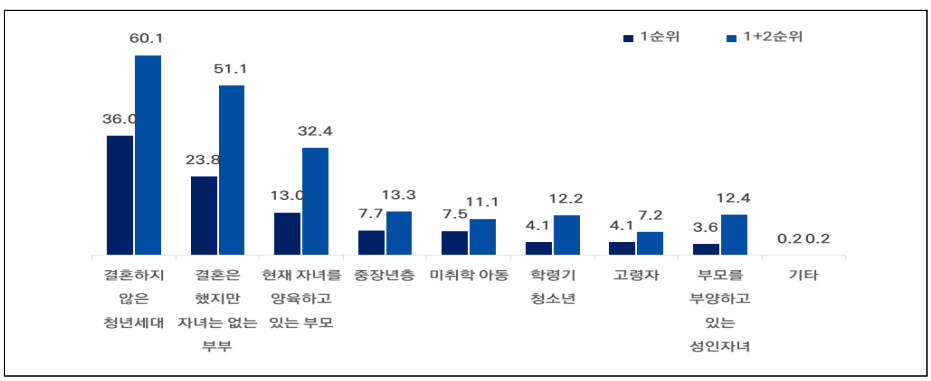
[그림 4-12] 저출생·고령화 시대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문화정책 필요성 항목별 응답분포



5) 저출생 문제 대응 문화정책 고려할 대상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대상을 질문한 결과, '결혼하지 않은 청년세대' 36.0%, '결혼은 했지만 자녀는 없는 부부' 23.8%,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13.0%, '중장년층' 7.7%, '미취학 아동' 7.5%, '학령기 청소년' 4.1%, '고령자' 4.1%,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성인자녀' 3.6%, '기타' 0.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1순위 응답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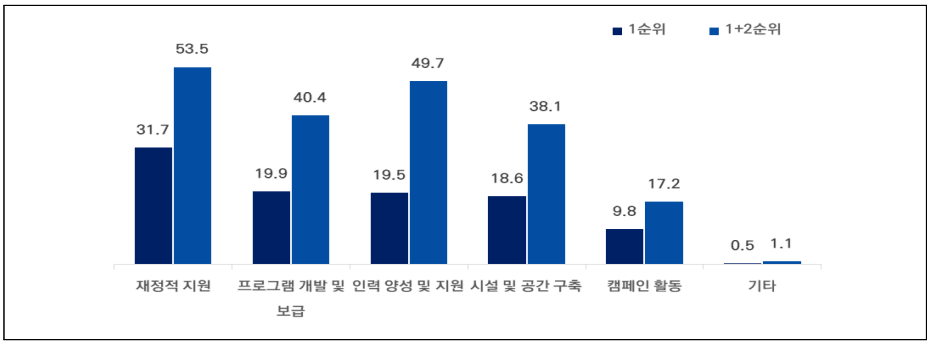
[그림 4-13] 저출생 문제 대응 문화정책 고려할 대상



6) 저출생 문제 대응 문화정책 효과적 방식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정책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방식을 질문한 결과, '재정적 지원' 31.7%,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9.9%, '인력 양성 및 지원' 19.5%, '시설 및 공간 구축' 18.6%, '캠페인 활동' 9.8%, '기타' 0.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순위 응답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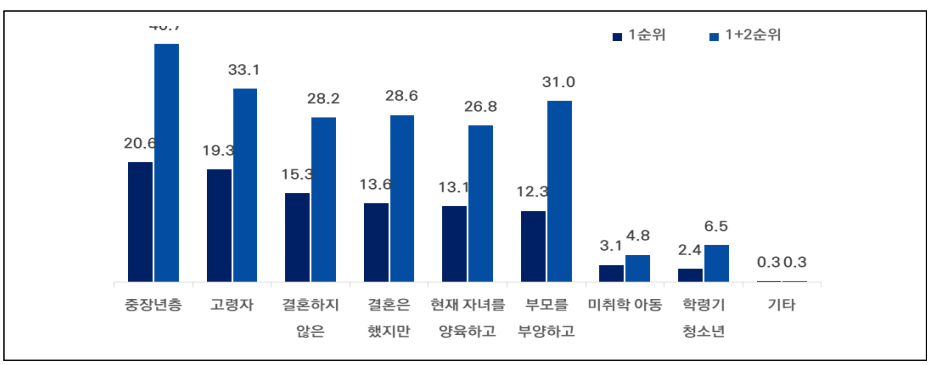
[그림 4-14] 저출생 문제 대응 문화정책 효과적 방식



7) 고령화 문제 대응 문화정책 고려할 대상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대상을 질문한 결과, '중장년층' 20.6%, '고령자' 19.3%, '결혼하지 않은 청년세대' 15.3%, '결혼은 했지만 자녀는 없는 부부' 13.6%,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13.1%,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성인 자녀' 12.3%, '미취학 아동' 3.1%, '학령기 청소년' 2.4%, '기타' 0.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순위 응답 기준) 특징적인 점은 고령자보다 중장년층이 고령화 문제의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으로 응답되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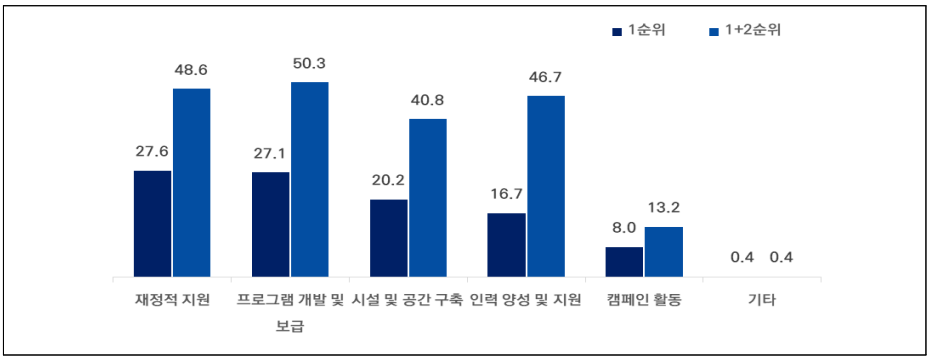
[그림 4-15] 고령화 문제 대응 문화정책 고려할 대상



8) 고령화 문제 대응 문화정책 효과적 방식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정책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방식을 질문한 결과, '재정적 지원' 27.6%,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7.1%, '시설 및 공간 구축' 20.2%, '인력 양성 및 지원' 16.7%, '캠페인 활동' 8.0%, '기타' 0.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순위 응답 기준)

[그림 4-16] 고령화 문제 대응 문화정책 효과적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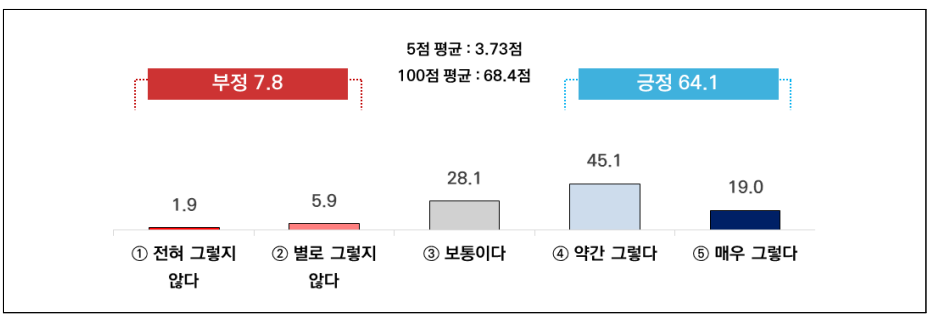


라. 저출산·고령화 인식개선 방안

1) 미디어의 결혼 및 출산 의향 영향 정도

방송, SNS 등 미디어가 결혼 및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64.1%(매우 19.0% + 약간 45.1%),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8%(전혀 1.9% + 별로 5.9%)였고, 보통이라는 응답은 28.1%로 나타났다. 이를 100점 기준의 평점으로 환산할 경우 68.4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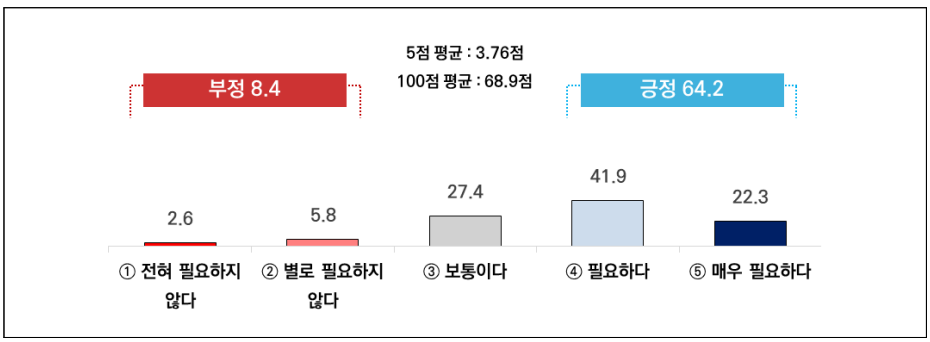
[그림 4-17] 미디어의 결혼 및 출산 의향 영향 정도



2) 미디어를 통한 저출생 문제 인식제고 캠페인 필요성

결혼 및 출산을 주제로 한 방송, SNS 컨텐츠 등 미디어를 통한 인식제고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4.2%(매우 22.3% + 약간 41.9%),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8.4%(전혀 2.6% + 별로 5.8%)였고, 보통이라는 응답은 27.4%로 나타났다. 이를 100점 기준의 평점으로 환산할 경우 68.9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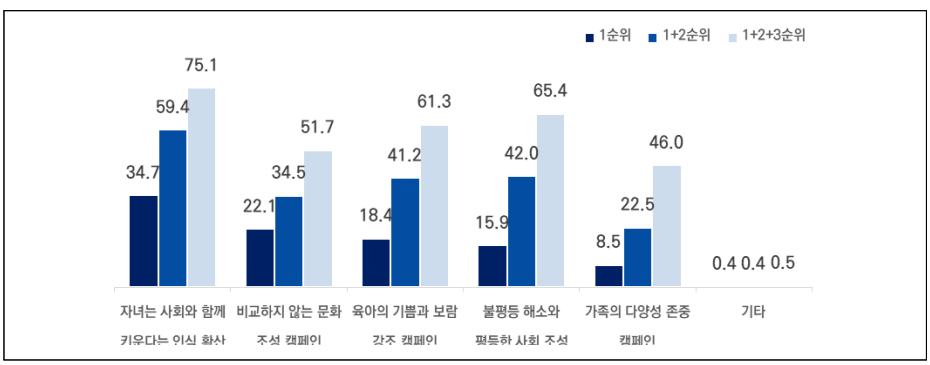
[그림 4-18] 미디어를 통한 저출생 문제 인식제고 캠페인 필요성



3) 저출생 문제 관련 인식개선 캠페인 주제

저출생 문제 관련하여 어떤 주제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자녀는 사회와 함께 키운다는 인식 확산 캠페인' 34.7%, '비교하지 않는 문화 조성 캠페인' 22.1%, '육아의 기쁨과 보람 강조 캠페인' 18.4%, '불평등 해소와 평등한 사회 조성 캠페인' 15.9%, '가족의 다양성 존중 캠페인' 8.5%, '기타' 0.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순위 응답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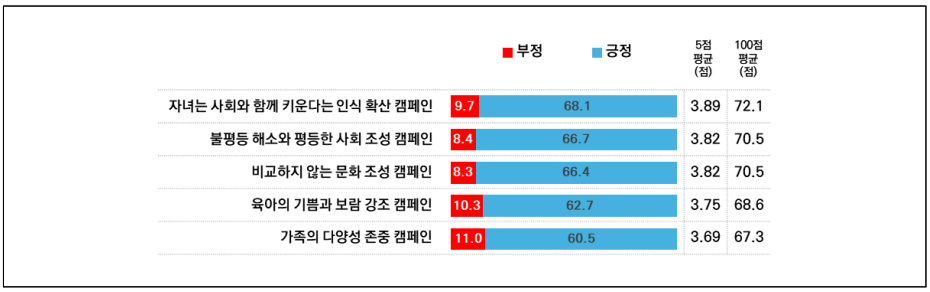
[그림 4-19] 저출생 문제 관련 인식개선 캠페인 주제



4) 저출생 문제 해결위한 캠페인 필요성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별로 각각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는지를 평가하게 한 결과, '필요하다'는 긍정응답의 합계(매우 필요 + 약간 필요) 비율은 '자녀는 사회와 함께 키운다는 인식 확산 캠페인' 68.1%, '불평등 해소와 평등한 사회 조성 캠페인' 66.7%, '비교하지 않는 문화 조성 캠페인' 66.4%, '육아의 기쁨과 보람 강조 캠페인' 62.7%, '가족의 다양성 존중 캠페인' 60.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20] 저출생 문제 해결위한 캠페인 필요성 항목별 응답분포



5) 저출생 문제 관련 효과적 인식개선 방식/콘텐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대해 인식개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이나 콘텐츠에 대해 개방형으로 응답하게 한 결과, 유튜브, SNS, 방송, 광고 등이 특히 많이 언급되었다.

[그림 4-21] 효과적 인식개선 방식/콘텐츠 워드클라우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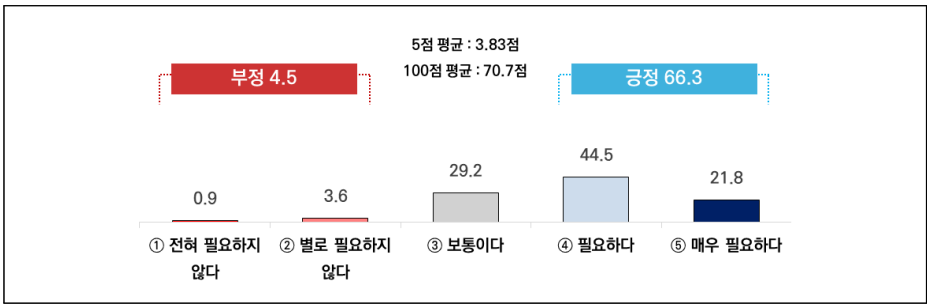
주: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일정한 길이 이내의 응답을 토대로 자주 언급된 단어의 횟수를 기준으로 워드클라우드 방식을 적용하여 제작하였음

6) 미디어를 통한 고령화 사회 인식제고 캠페인 필요성

고령화 사회 대응과 고령자를 주제로 한 방송, SNS 컨텐츠 등 미디어를 통한 인식제고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6.3%(매우 21.8% + 약간 44.5%),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5%(전혀 0.9% + 별로 3.6%)였고, 보통이라는 응답은 29.2%로 나타났다.

이를 100점 기준의 평점으로 환산할 경우 70.7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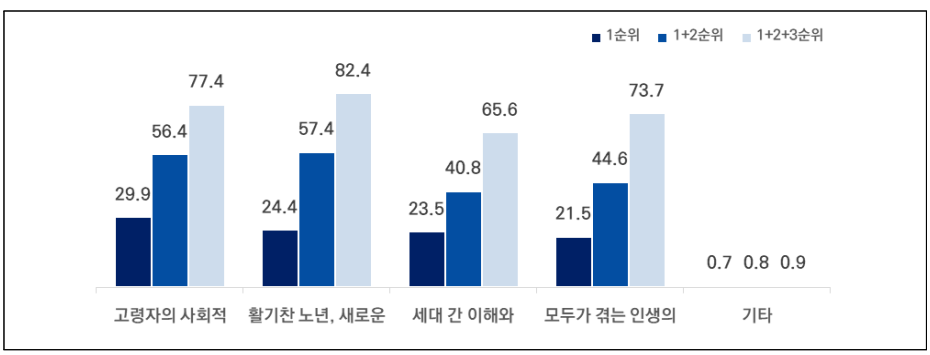
[그림 4-22] 미디어를 통한 고령화 사회 인식제고 캠페인 필요성



7) 고령화 문제 관련 인식개선 캠페인 주제

고령화 문제 관련하여 어떤 주제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고령자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 강조 캠페인' 29.9%, '활기찬 노년, 새로운 시작 캠페인' 24.4%, '세대 간 이해와 존중하는 문화 조성 캠페인' 23.5%, '모두가 겪는 인생의 여정, 준비하는 미래 캠페인' 21.5%, '기타' 0.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순위 응답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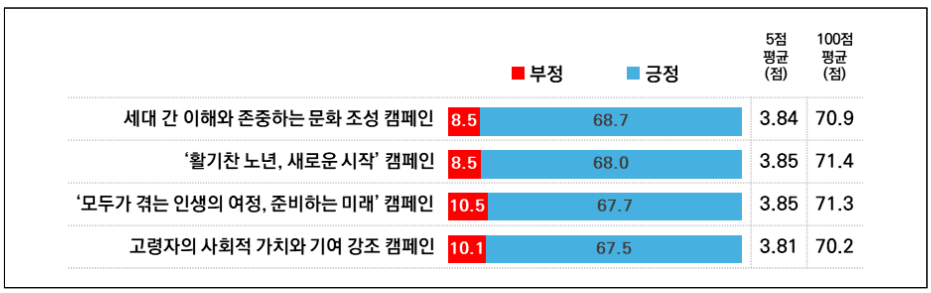
[그림 4-23] 고령화 문제 관련 인식개선 캠페인 주제



8) 고령화 문제 해결위한 캠페인 필요성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별로 각각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는지를 평가하게 한 결과, '필요하다'는 긍정응답의 합계(매우 필요 + 약간 필요) 비율은 '세대 간 이해와 존중하는 문화 조성 캠페인' 68.7%, '활기찬 노년, 새로운 시작 캠페인' 68.0%, '모두가 겪는 인생의 여정, 준비하는 미래 캠페인' 67.7%, '고령자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 강조 캠페인' 67.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24] 고령화 문제 해결위한 캠페인 필요성 항목별 응답분포



5) 고령화 문제 관련 효과적 인식개선 방식/콘텐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대해 인식개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이나 콘텐츠에 대해 개방형으로 응답하게 한 결과, 유튜브, SNS, 방송, 공익광고 등이 특히 많이 언급되었다.

[그림 4-25] 효과적 인식개선 방식/콘텐츠

주: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일정한 길이 이내의 응답을 토대로 자주 언급된 단어의 횟수를 기준으로 워드클라우드 방식을 적용하여 제작하였음

제2절 인구위기 대응 국내·외 사례

본 절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캠페인, 환경조성 및 문화서비스 사례들을 살펴본다. 국내·외 공공 및 민간에서 추진되고 있는 서비스들을 주제별, 접근 방식별로 유형화하여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 사업에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1. 문화를 통한 긍정가치 확산

가. 다양한 가치확산 및 인식 개선 사례

1) Dove의 "Real Beauty" 캠페인

Dove의 "Real Beauty" 캠페인은 전통적인 미의 기준을 넘어 다양한 체형, 나이, 인종을 포용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여성과 소녀들의 자기 인식과 자존감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캠페인은 전 세계적으로 140개국 이상에서 3,500만 명 이상의 여성과 소녀들에게 다가갔으며, 자기 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10년 동안 연속적인 매출 성장을 이끌었으며, 유니레버의 가장 큰 브랜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Kramer et al., 2021)

2) 영국의 "Action for Happiness"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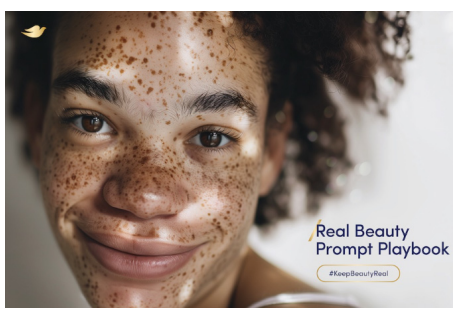
영국에서 시작된 "Action for Happiness" 캠페인은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캠페인은 개인의 성공보다는 사회적 연대와 상생을 강조하며, 획일적인 성공 기준을 지양하는 메시지를 전파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여러 연구에서 캠페인이 사회적 행복과 공동

체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3) 덴마크의 "Hygge" 문화 확산

‘행복’의 나라로 유명한 덴마크는 OECD가 조사한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에서 38개국 중 3위를 차지하고, 2016년 UN에서 발표한 ‘세계행복 보고서’에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행복의 이유로 덴마크의 "Hygge" 문화를 꼽는다. 사전적인 의미로 "Hygge"는 웰빙이라는 뜻이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지는 소박한 삶의 행복’을 뜻한다. 물질적 성공보다는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확산시켰다. 휘게문화의 큰 특징은 일상의 소소하고 작은 기쁨, 모두가 같은 위치에서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 가장 휘게한 순간은 무엇을 갖는 것이 아닌 누군가와 함께 있을때로 느낀다는 점이다. 이러한 휘게 문화로 인해 덴마크 사회에서는 협력과 안정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고, 다양한 연구에서도 "Hygge"가 개인의 행복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한때 국내에 욜로 문화 등이 유행했던것과 이러한 작고 소소한 행복, 보통의 성공을 가치있게 여기는 문화들이 확산되어야 한다.

[그림 4-26] 다양한 가치확산, 인식개선 사례



Dove Real Beauty 캠페인

덴마크 Hygge 문화

자료1: https://www.prweek.com/article/1868574/doves-campaign-real-beauty-revolutionized-marketing
자료2: https://hsad.co.kr/2318

나. 일-가족-여가 양립 문화 조성 사례

1) 영국 “Kids go free” 캠페인

영국은 아이를 동반한 부모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Kids go free" 캠페인을 운영한다. 이 캠페인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부모들에게 교통비 할인, 미술관 및 박물관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들과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문화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아이와 함께 하는 것이 즐겁고, 개인에게 혜택이 될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만든다.

2) 서울시 “엄마아빠 VIP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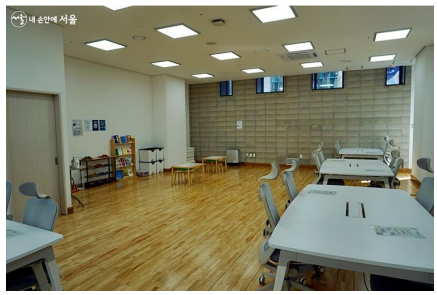
서울시는 공원과 수변공간 등 성인들도 여가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장소들을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엄마아빠 VIP존"을 마련했다. 해당 공간들은 모든 양육자가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고척스카이돔 VIP존의 경우, 부모들이 야구 경기를 관람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제공하여, 가족 간의 여가 활동을 촉진한다.

3) 스페이스살림 “아동동반 공유사무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는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살림은 국내 최초로 아동동반 공유사무실을 도입한 사례이다. 이 공유사무실은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 공간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와 부모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공간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부모들이 육아와 업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자영업자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그림 4-27] 일-여가 양립 문화 조성 사례

영국 “Kids go free” 캠페인



스페이스살림-아동 동반 공유사무실

자료1: 영국 버스여행 웹페이지
자료2: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다. 돌봄문화 확산

1) 스웨덴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캠페인

라떼파파의 나라로 유명한 스웨덴은 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직제도에서 남성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이끌어 낸 ‘부모보험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다. 이후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돌봄에 참여하는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함께 돌보는 사회'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캠페인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아버지의 역할이 단순히 경제적 부양자에 그치지 않고, 돌봄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특히 역도 선수 레나르트 달그렌이 아기를 안고 있는 포스터는 육아가 남성성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남성이야말로 ‘진정한 남자’라는 새로운 남성성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2) 영국 ”영유아 대상 노인돌봄 교육“

영국의 Institute on Aging 센터에서는 유아들이 요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노인들과 상호작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은 노인들과 노래를 부르고, 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단순한 대화를 나누는 등의 활동을 통해 노인들에게 정서적 지원과 인지 자극을 제공한다. 동시에 아이들은 타인을 돌보는 가치와 사회적, 정서적 기술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아이들에게도

중요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한다.

2) 제천 간디어린이학교 "아동 대상 자립심, 타인 돌봄 교육"

제천 간디어린이학교는 월요일에 학교로 오고 금요일에 집으로 가는 주말통학형 대안학교이다. 어린이학교의 교육목표는 아이들이 자연속에서 자유롭게 자라고, 자기가 할 일은 스스로 할 줄 알고, 살아가는 데 쓸모있는 것을 배우며, 함께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년초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함께 등하교 할 수 있는 선배나 또래 관계를 만들어주고, 함께 다닐 또래나 선배가 없는 지역의 경우는 버스 타는 곳까지 교사나 선배 언니, 오빠가 동행해 준다. 기숙사에서는 자기물건을 챙기거나 몸을 씻는 일 등 자기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방청소와 화장실청소도 서로 돌아가면서 한다. 즉 아동이 스스로를 돌보고 다른 아동을 돌보는 것을 익힌다. 예전에 대가족이 모여 살면서 형이나 언니들이 동생을 배려하고 동생들이 언니들을 존중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웠던 것을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다.

[그림 4-28] 돌봄문화 확산 사례

스웨덴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캠페인

제천 간디어린이학교

자료 1: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feature_story/article/201804090600065
자료 2: 제천간디어린이학교 홈페이지

2. 문화를 통한 돌봄

가. 아이와 부모 함께 향유하는 환경 조성 사례

1) 프랑스 "특별한 장소의 평범한 놀이터"

프랑스는 주요 랜드마크와 관광지에 평범한 놀이터를 설치하여,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에펠탑, 몽마르트, 루브르 박물관 앞 튈르리 정원에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놀이터는 부모가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면서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가족 단위의 여가 시간을 더욱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이러한 시설은 세대와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곧 '가족단위'나 '사회적 이웃단위' 등으로 확장될 수 있다.

2) 복합쇼핑몰 내 아이돌봄 서비스 "째깍섬"

째깍섬은 국내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플랫폼으로,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아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째깍섬은 주로 민간복합문화시설 내에 위치하여 같은 공간에서 부모는 쇼핑이나 본인의 개인적 활동을 하는동안, 아이는 놀이를 할 수 있는 모두의 향유 공간이 된다. 보호자들의 째깍섬을 선호하는 이유는 단순히 공간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선생님의 인솔하에 아동을 전적으로 돌봐준다는점, 그리고 단순한 돌봄을 넘어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춘 다양한 교육 및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돌봄 시간을 즐겁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3) 관광지 내 아이돌봄 서비스 "클럽메드"

클럽 메드는 전 세계 여러 휴양지에서 가족 여행객을 위한 키즈클럽과 키즈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들은 부모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연령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부모는 안심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그림 4-29]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향유하는 환경 조성 사례

째깍섬 프로그램 클럽메드 키즈클럽

자료 1: 째깍섬 홈페이지
자료 2: 클럽메드 홈페이지

나. 양육자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돌봄 서비스

1) 프랑스 "104 cent Quatre Paris: la maison des Petits"

프랑스 파리시에 위치한 대표적인 문화시설인 "104 Cent Quatre Paris"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와 부모를 위한 문화놀이 공간 및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공간은 육아기 맞벌이 부부와 그들의 자녀들이 함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부모들이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자녀들이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을 제공한다. 부모들은 안심하고 자신의 문화생활에 몰두할 수 있고, 자녀들은 재미있고 교육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 세종문화회관 "서울엄마아빠 VIP존"

공연 시작 30분 전부터 운영하는 서울엄마아빠 VIP존 2호 '라바키즈 아이들세상'은 세종문화회관 중앙 계단 위 서비스프라자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일 공연 입장권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동안 시설물 보수·개선을 통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과 놀이 기구는 물론, 시청각 미디어와 도서, 수유실 등을 갖췄다. 공연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공연 종료 시간에 맞춰 아이들 퇴실 준비를 해준다. 엄마아빠가 공연의 VIP가 되도록 동반하는 영유아 자녀를 돌봐주는 전문 보육 교사가 상주

하며, 이야기책이나 바람개비 만들기, 구연동화를 들으면서 아이들 역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3) 예술의 전당 아이돌봄서비스 "키즈라운지"

오페라 하우스 2층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키즈라운지'에서는 공연 관람객 중 자녀 나이가 36개월~초등학교 입학 전이면 이용할 수 있다. 단, 미술 전시 관람객은 해당되지 않으며 공연 관람객도 티켓과 함께 신분증 확인 후 입장 가능하다. 부모가 공연을 관람하는 동안 아이들은 전문 보육 교사의 지도 아래 테마 ZONE, 도서 ZONE, 시청각ZONE, 병원놀이 ZONE에서 놀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잔다. 보호자 입장이 제한되는 대신 키즈라운지 한쪽 벽면에 설치된 유리 창문을 통해 아이가 잘 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30] 양육자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사례

세종문화회관-서울엄마아빠 VIP존

예술의전당-1101 키즈라운지

자료 1: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자료 2: 예술의전당 홈페이지

3. 문화를 통한 치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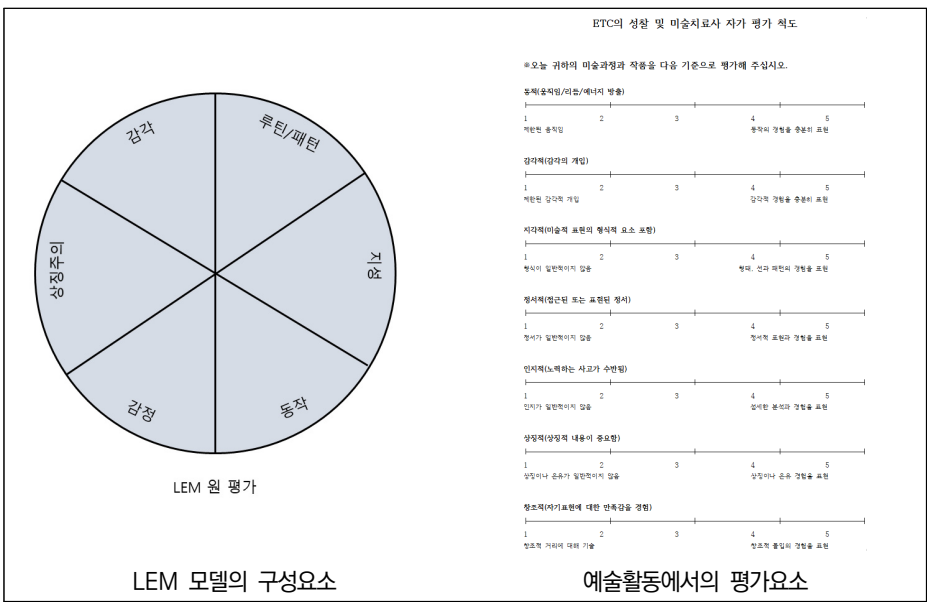
가. 문화예술을 통한 진단 및 치유 사례

1) 예술치료에 적용되는 "Life Enrichment Mode(LEM)"

국내외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심리치료 서비스는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예술치료가 PTSD, 우울증 등 정서적 회복에 유효하다는 연구 결과들은 다수 존재한다.

그 중 LEM(Life Enrichment Model)은 예술치료 분야에서 활용되는 이론적 프레임워크로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요소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모델이다. LEM 모델에 따르면 개인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는 7가지 영역(신체적 움직임, 감각, 인지, 정서, 지각, 상징, 창조)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예술치료 분야에서는 해당 모델을 접목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중 개인의 영역 간 균형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심리 상태 변화를 분석, 예술활동을 통해 부족하거나 필요한 영역을 보완해주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

[그림 4-31] 예술치료이론의 근간이 되는 풍요로운 삶 모델(Life Enrichment Model)



자료: 임성윤(2022)

2)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치유프로그램"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을 통한 복지와 치유를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산림치유프로그램"은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숲의 치유력을 활용해 스트레스 해소, 심리적 안정, 면역력 강화 등을 도모, 다양한 대상층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개인의 건강 상태, 심리적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맞춤형 치유를 제공한다. 예를 들

어, 고령자를 위한 치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우울증 치료를 위한 정서적 안정 프로그램 등이 있다. 활동은 산책, 명상, 숲속 요가, 자연물 활용 예술치료 등을 제공한다. 산림치유지도사와 같은 전문 인력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산림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문화예술 자원봉사 단체 "EnoB(이노비)"

이노비(EnoB)는 "변화를 이끄는 아름다운 다리(Innovative Bridge)"라는 뜻으로, 2006년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설립된 예술, 교육 전문 비영리단체(NGO)이다. 강태욱 대표 이하 각 고유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던 콜럼비아, NYU, 줄리아드 출신의 젊은 전문가 및 뉴욕의 전문 음악인들이 주축이 되어 이노비를 설립하였다. 평소 음악회에 자유롭게 갈 수 없었던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과 소아병동 환자들을 위한 무료 음악회를 열어주는 것으로 첫 봉사 사업을 시작했다. 2012년부터 봉사지역을 확대하여 서울에 지부를 설립하고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 입원환자, 노인,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공연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동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림 4-32] 문화를 통한 치유 사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치유프로그램"

이노비 자원봉사 연주자

자료 1: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자료 2: 이노비 홈페이지

나. 문화예술치유 전문인력 양성 사례

1) 무용교육프로그램 강사 양성 사업 “우아댄스 강사양성 워크숍”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무용을 활용하여 인지장애 환우를 위한 Dance for Dementia 강사양성 프로그램을 국내에 소개하고 인지전문 무용수와 기관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통한 인지장애 환우들의 삶의 질 개선과 예방을 위하여 무용예술인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의 내용은 강사양성, 강사양성 워크숍 진행, 워크숍을 통해 양성된 강사를 전국 치매안심센터에 파견하는 사업 등이다. 그러나 현재 강사양성만 진행될 뿐 활발하게 강사 파견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4.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사례

가. 세대 · 장르 통합 복합인프라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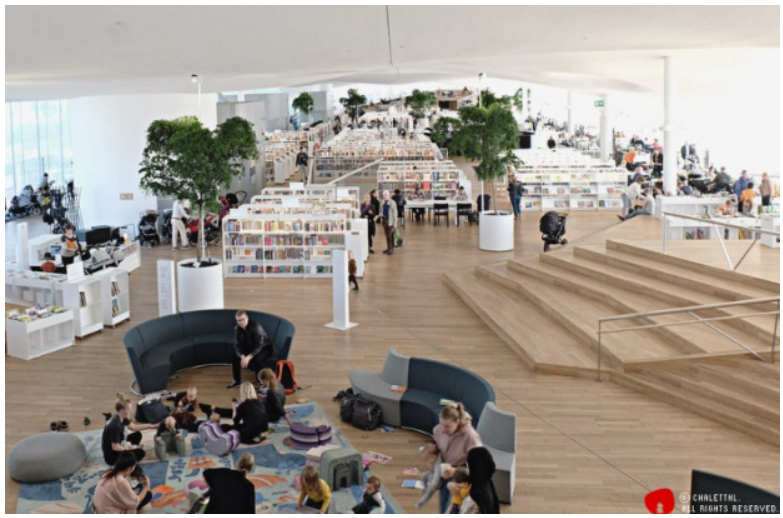
1) 핀란드 “헬싱키중앙도서관 오디(Oodi Library)”

오디 도서관은 사회통합을 위한 공간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모임을 위한 도서관, 시민의 거실’ 등 특별한 별칭으로 불린다., 다양한 기능과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공간이다. 연령, 성별, 국적, 사회적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이 공간은, 핀란드 사회 내에서 소외된 사람들까지 포함한 모든 이들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 도서관은 단순한 책 대출 이상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1층은 카페, 레스토랑, 전시 공간, 그리고 가족을 위한 도서관 구역을 포함한다. 2층은 창의적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스튜디오, 게임룸, 메이커스페이스, 워크숍 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활동이 이루지며, 3층은 조용한 독서와 사색을 위한 공간으로, 도서관의 주요 서적 컬렉션이 위치하며, 고요한 독서 구역과 어린이 공간이 있다.

오디도서관의 주요 특징은 연령통합적, 장르 복합적 공간으로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라는 점이다. 또한 방문객들은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수요에 따라 음악을 녹음하거나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스튜디오, 3D 프린팅을 이용한 창작 활동, 영화 상영, 다양한 워크숍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장르 제공은 다양한 관심사와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만나

고 교류할 수 있게 한다.

[그림 4-33] 세대 및 장르 통합 복합인프라 사례(핀란드 “헬싱키중앙도서관 오디”)



자료: 헬싱키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s://oodihelsinki.fi/

2) 일본 “지역케어프라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복지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 프라자는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지역케어프라자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이는 단순한 돌봄 서비스를 넘어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지역 사회와의 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프라자에서는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술 활동, 워크숍, 그리고 문화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이들이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이어가며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이 시설은 세대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세대 간의 이해와 상호 존중을 강화하며, 지역 사회 내에서의 연대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나. 공동체 조성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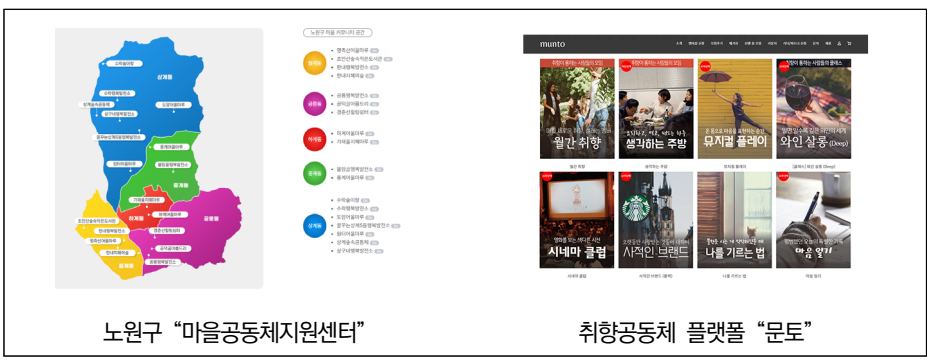
1) 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노원구에서는 주민 스스로 이웃 관계망을 형성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가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주도형 사업들을 공모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커뮤니티 공간은 18개소로 주민공동체가 자유롭게 활동하고 모일 수 있는 거점이 되는 장소이며 주민들을 위하여 인문, 예술,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 취향공동체 플랫폼 “문토”

‘문토’는 다양한 취향에 따라 격주로 오프라인 소셜 모임을 구성하는 플랫폼이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더해, 재택근무와 유연근무가 일상화 되었고, 코로나19를 거치는 동안 일상에서 겪는 ‘관계의 결핍’과 개인이 겪는 외로움의 크기가 커졌다. ‘마이싸이더(mysider·나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라는 신조어가 대변하듯 요즘 청년들에게는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가 중요하다. 인맥의 부재에 갈증을 느낀 MZ세대는 자신의 취향을 투영할 수 있는 모임과 그 모임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플랫폼을 통해 찾기 시작했다. 의무감과 소속감을 부담스러워하는 세대의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 취향에 따라 모임을 꾸릴 수 있는 관심사 기반 커뮤니티가 인기를 끈 것이다. 문토에는. 함께 모여 생각을 나누거나 활동을 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인기다. 인기 카테고리는 문화예술(24%)과 운동·액티비티(20%), 푸드·드링크(20%) 순이다.

[그림 4-34] 공동체 조성 사례



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취향공동체 플랫폼 “문토”

자료1: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2: 문토 홈페이지

다. 고령자 사회적 참여 확대 사례

1) 일본 고령자 여가 일자리 “장난감 닥터”

일본 장난감 병원협회는‘장난감 닥터(장난감 고쳐주는 노인들)’들에 의해 조직된 자원봉사 단체로 회원은 현재 1,407명이고, 일본 전국의 631곳의 “장난감 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다. 취미로 장난감이나 기기들을 고치던 노인들이 모여 일자리가 된 사례이다. 장난감 닥터의 연령은 60대 전반이 중심으로 현역 최고령은 80대이며, 협회에서는 장난감 닥터 양성강좌를 열어 해당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2) 고령자 멘토 프로그램 “선배시민”

선배시민협회에서 운영하는 선배시민 사업은 고령자들이 사회의 선배로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고령자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고령자들이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멘토링 활동을 통해 세대 간의 이해와 협력을 촉진한다. 또한 고령자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자신의 역할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고령자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하며,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고령자 사회 참여 기회 제공 프로그램 “주문을 잊은 음식점”

KBS에서 2022년 방영한 ‘주문을 잊은 음식점‘은 경증 치매 환자들이 식당을 운영하는 도전하는 모습을 담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치매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 10% 이상이 치매에 걸리고, 65세가 되기 전 치매에 걸리는 초로기 치매 환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사회상을 반영한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경증 치매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치매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볼수 있다고 소개하며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일깨웠다. 또한 치매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인식이 여전히 닫혀있는 국내 상황에서 그 인식을 바꾸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림 4-35] 고령자사회적 참여 확대 사례

장난감 수리 중인 시니어

선배시민협회

자료1: digital.asahi.com
자료2: 선배시민협회 홈페이지 https://xn--lg3btdx1n11b.kr/

라. 세대간 연계 사례

1) 세대간 연계 사업 “가천대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

가천대는 교육부 예산지원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활세계 대응’이라는 주제로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복지 관련이었던 기존 주제에서 확장시켜 한국어문학과나 스마트시티학과, 심리학과, 행정학과 등에서 관련 교과목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새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인구구조와 인구문제 해결 관련 주제로 시나리오를 작성해 한국어문학과와 함께하는 연극제, 심리학과와 함께하는 심리극 등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 콘텐츠를 기획한다.

2) 지역 공동돌봄 커뮤니티 “마을공동체 성미산 마을”

서울시 마포구외 위치한 성미산 마을은 우리나라 최초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1994년에 만들어진 마을로서, 공동육아과 공동생활형태 사례이다. 성미산 마을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직접 만든 동아리가 여러 형태로 운영될 뿐 아니라 성미산 마을 자체가 하나의 탐방 코스가 되어 마을 안내자와 함께 주요 시설을 둘러보게도 한다. 성미산 마을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나가 공동육아가 가능한 초등학교를 대안학교로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각족 커뮤니티를 만들고 공동체 마을로 확대되고 있다. 성미산마을에서의 교육은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지향하며 돌봄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마을답게 '전래놀이 한마당', '전래학교' 등을 운영하며 방과후 교실로 운영하고 '풀잎새방과후'와 '도토리방과후'는 지역의 열린 공부방으로 운영되어 성미산마을을 교육을 매게로 한 돌봄 공동체 마을로 성장시켜 가고 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마을예술창작소 공간릴라, 동네책방 개똥이네 놀이터, 성미산문화협동 조합등 육아공동체를 넘어 문화로 소통하는 문화공동체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 조사 결과

가. 사회적 인식

국민들 중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으며, 특히 소득과 재산(38.4%), 권력(33.3%)에서는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교육 기회(57.4%)나 남녀 간 평등(53.1%)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양성 평등 환경 관련하여 여성은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더 많았고, 남성은 평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더 많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자신의 주관적 경제 수준에 대해서는 '보통(48.1%,)이거나 낮다(29.5%)라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자신을 문화 소외계층이라고 인식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의 33.5%가 문화소외계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20대와 30대에서는 낮은 비율로 나타났지만, 60세 이상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특히 높았다.

나. 결혼 및 출산 의향

현재 결혼하지 않았거나 배우자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n=367)을 대상으로 결혼 의향을 질문한 결과, 결혼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36.0%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특징적인 점은 남성(23.9%)보다 여성(15.4%)의 결혼 의향이 더 낮았고, 연령에 따라서는 20대에서만 '결혼을 하겠다'는 응답 비율(53.8%)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결혼할 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 '개인 생활을 선호하기 때문에' 70.2%, '결혼으로 인한 가족관계, 역할 등에 대한 부담 때문에' 66.0%, '경제적 부담 때문에' 59.1%, '결혼 제도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51.9%, '직장/커리어 문제 때문에' 29.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혼 의향이 있는 사람들 중 자녀 출산을 계획하는 사람은 19.7%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자녀를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육아의 부담감(75.2%)과 경제적 부담(71.9%)이 가장 큰 이유로 응답되었다.

다. 저출산 대응 문화정책 방안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대상은 '결혼하지 않은 청년세대' 36.0%, '결혼은 했지만 자녀는 없는 부부' 23.8%,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13.0% 순으로 응답되었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문화적 접근도 필요하다는 응답(48.2%)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정책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방식으로는 '재정적 지원' 31.7%,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9.9%, '인력 양성 및 지원' 19.5% 으로 나타났다. 방송과 SNS 등의 미디어가 결혼 및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64.1%에 달하고, 결혼 및 출산을 주제로 한 방송, SNS 컨텐츠 등 미디어를 통한 인식제고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의견(64.2%)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는 '자녀는 사회와 함께 키운다는 인식 확산 캠페인' 34.7%, '비교하지 않는 문화 조성 캠페인' 22.1%, '육아의 기쁨과 보람 강조 캠페인' 18.4%, '불평등 해소와 평등한 사회 조성 캠페인' 15.9%, '가족의 다양성 존중 캠페인' 8.5%, 등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고령화 대응 문화정책 방안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화정책이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49.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문화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대상은 '중장년층' 20.6%, '고령자' 19.3%, '결혼하지 않은 청년세대' 15.3% 순으로 나타났는데 고령자보다 중장년층을 고령화 문제의 더 중요한 고려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점은 특징적이다.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정책에서 효과가 높은 방식으로는 '재정적 지원' 27.6%,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7.1%, '시설 및 공간 구축' 20.2%, 으로 응답되어 고령자 문화 향유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저출산 문제 관련보다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령화 사회 대응과 고령자를 주제로 한 방송, SNS 컨텐츠 등 미디어를 통한 인식제고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6.3%로 높게 나타났고, 인식개선이 필요한 주제로는 '고령자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 강조 캠페인' 29.9%, '활기찬 노년, 새로운 시작 캠페인' 24.4%, '세대 간 이해와 존중하는 문화 조성 캠페인' 23.5% 등이었다. 인식개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이나 콘텐츠는 저출산 정책과 유사하게 유튜브, SNS, 방송 등이 응답되었지만, 공익광고라는 응답 비율도 높게 나온 점이 특징적이다.

마. 문화정책 4대 목표의 중요도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문화정책 4대 목표에 대해 질문한 결과, '문화를 통한 돌봄' 44.5%, '문화를 통한 긍정가치 확산' 29.9%, '문화를 통한 치유' 13.7%,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11.9% 순으로 중요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각 목표 내 추진 과제들의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에서는 '(가치확산 영역)돌봄 문화 확산' 63.9%, '(돌봄 영역)일-여가 균형 환경 조성' 62.4%, '(가치확산 영역)다양성존중 문화 확대' 58.4%,'(돌봄 영역)가족 친화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대' 순으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문화정책이 추구해야할 방향성이 국민들의 인식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긍정적 가치의 확대와 같은 장기적 목표와 문화향유 체계 내 돌봄 체계 정립이라는 우선적 목표를 함께 추구해야 함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2. 사례 분석 결과

많은 사회적 인식 캠페인은 포용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특정 사회적 이슈나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과 성평등한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국내에서도 포용적이고 다양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문화정책이 사회적 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인식 변화 및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문화를 통한 돌봄 사례들은 문화적 요소를 돌봄 서비스에 통합한 사례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세대 간 교류를 중심으로,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돌봄을 단순히 가정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공공 공간과 문화 활동을 통해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아동, 노인,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특징이 있다.

문화를 통한 치유 사례들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정신적, 정서적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예술과 치유의 융합을 통해 참여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필요에 맞는 치유 방법을 제공하며, 장애인, 노인, 환자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서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사례들은 단순히 질병 치료를 넘어서,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전반적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있다.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사례들은 공공 공간과 문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모든 세대와 계층을 포용하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 사례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세대 간 이해와 문화적 교류를 통해 고령자, 이민자, 소외 계층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포용적 사회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특징적이다.

3. 시사점

대국민 조사 결과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조성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중요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문화정책이 미디어, 방송, SNS 등의 채널을 활용하여 결혼 및 출산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콘텐츠와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자녀는 사회와 함께 키운다'는 인식 확산과 같은 돌봄을 가정 내 문제로만 인식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돌봄의 사회화 '캠페인을 통해 가족과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단순한 인식 변화와 출산 장려 캠페인만으로는 인구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 아동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인프라, 프로그램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례에서와 같이 일과 여가의 균형을 맞추고, 가족 친화적인 인프라와 아동과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 결과, 60세 이상의 응답자 중 많은 비율이 자신을 문화 소외계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고령자들이 문화 활동에 접근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과 지원책이 필요하다. 문화정책은 모든 연령대와 사회 계층이 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세대 간의 이해와 존중을 강조하는 문화 캠페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세대 간의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고, 고령자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콘텐츠 제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고령자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문화정책의 주요 과제로 판단된다.

제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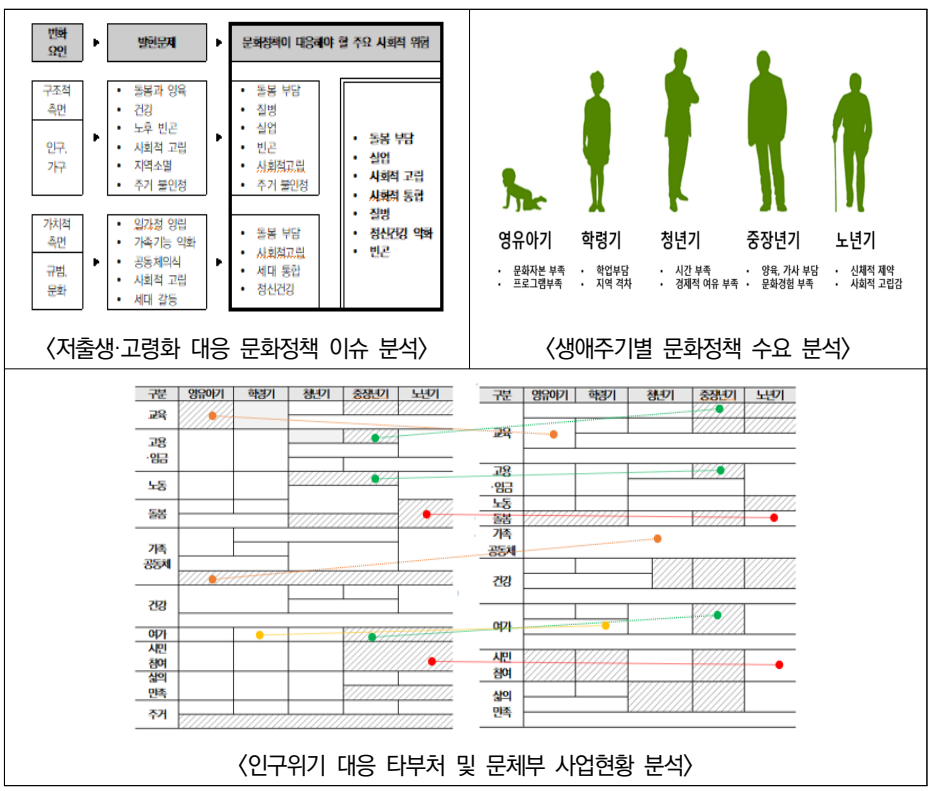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1절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영역

1.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의 기본방향

본 절에서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문화정책이 대응해야하는 사회적 문제들과, 전생애에 문화향유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정책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향후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성과 주요 영역을 설정해 보고자 한다.

[그림 5-1]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의 방향 및 목적 도출 과정



〈저출생·고령화 대응 문화정책 이슈 분석〉

〈생애주기별 문화정책 수요 분석〉

〈인구위기 대응 타부처 및 문체부 사업현황 분석〉

[그림 5-2]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및 4대 영역

가. 사회문제의 실질적인 해결

문화정책은 이제 단순히 국민 삶의 부차적 영역을 다루는 것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 사회보장체제의 약화, 돌봄인구의 감소, 은퇴자의 생계유지, 사회적 취약계층의 증가, 사회적 고립,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문화적 접근을 통해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

나. 국민 전생애 문화기본권 보장

개인의 문화권은 전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정책에서는 기존에 사회에서 정의내리고 있는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 뿐 아니라, '문화소외계층(예, 육아기 부부, 중년남성)'을 발굴 및 지원하여, 모든 연령과 계층이 문화적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문화 향유에 제약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야한다. 또한 문화와 여가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경험해야하는 만큼 생애초기부터 고령층까지 수요에 기반한 문화 프로그램과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 전반의 문화 참여를 증진시키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다. 융합적 접근

문화정책은 다양한 정책수단들 간의 융합, 타부처와의 적극적인 연계를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융합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문화와 복지의 통합적 접근은 노인 돌봄, 건강 증진, 지역사회 활성화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문화와 복지의 융합을 통해 노인 돌봄과 건강 증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

2.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의 4대 영역

전술한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인 사회문제해결, 지속성, 융합적 접근을 고려하여 문화정책이 다뤄야 할 4대 영역을 문화를 통한 긍정가치 확산, 문화를 통한 돌봄, 문화를 통한 치유,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으로 설정하고, 하위에 전생애 걸친 주요 추진과제들을 제시하였다.

[그림 5-3]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의 4대 영역 및 추진과제

저출생 · 고령화 시대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문화정책 4대 영역

1. 문화를 통한 긍정가치 확산	2. 문화를 통한 돌봄
○ 다양성 확산 문화 및 인식개선 ○ 일-여가 양립 문화 확산 ○ 돌봄 문화 조성	○ 일상에의 문화 채움 ○ 문화소외계층 지원 ○ 돌봄 제공 및 보호자 향유 지원
3. 문화를 통한 치유	**4.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 문화치유 진단툴 및 프로그램 개발 ○ 문화치유 거점 구축 및 서비스 확산	○ 고령자의 사회적 참여 확대 ○ 사회통합 인프라 설치 ○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문화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전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문화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이 행복해서 아이가 낳고 싶어지는 사회, 청소년들이 극심한 경쟁으로 인해 고립되고 우울하지 않은 사회, 고령자들이 활기찬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문화정책은 문화예술체육을 통해 긍정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문화소외계층과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을 지원해야 한다. 우리 사회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정신건강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문화예술적 접근을 통한 치유를 제공하고,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연령, 계층, 세대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표 5-1〉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의 4대 영역별 정책 개요

구분	문화를 통한 가치확산	문화를 통한 돌봄	문화를 통한 치유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목적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긍정 문화 확산	문화권의 보장 돌봄 수요 충족	심리적 문제의 진단, 예방 및 치유	다양한 계층 간 소통 및 연대 강화
방식	장기적, 지속적, 간접	지속적, 고정적	상시적, 개방적	일상적, 지속적
대상	모든 국민	모든 국민	모든 국민	모든 국민
-핵심	-	문화소외계층, 돌봄 복지 사각지대 대상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대상	-

가. 문화를 통한 가치 확산

문화를 통한 가치확산 영역에서는 기존에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사회에 대한 불평등 인식, 물질만능주의, 획일화된 성공을 추구하는 문화, SNS 및 미디어를 통한 사회비교, 다양한 생활방식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 등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치, 가족, 취향 등을 존중하는 다양성 존중 문화, 일-가족-여가가 균형을 이루는 사회, 스스로를 돌보고 타인을 돌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를 만들려는 돌봄 문화 확산 노력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즉 문화를 통한 긍정가치의 확산은 문화정책의 역할이 단순히 문화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양산하는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더 다양한 가치관을 갖고, 정서적으로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며 더불어 이러한 개인적 행복이 사회 전반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은 장기적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효과도 미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확산되어야 할 긍정적 가치로는 사회적 공정성, 가정의 소중함, 다양한 성공의 기준, 생활방식, 양성평등 인식, 다양한 가족형태 및 취향의 존중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서는 출산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즉, 개인이 행복해서 아이를 낳고 싶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디어와 장기적 관점의 문화조성 노력을 통해 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불공정 인식과 불확실성을 불식시켜야 한다. 또한 일과 가정, 여가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육아친화적인 환경, 어느 생애주기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이 행복해지고, '아이와 함께하는 것이 즐겁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한편 결혼과 출산 기피,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돌봄'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돌봄에 대한 가치를 재정립하고 '돌봄문화'을 조성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돌봄문화'란 자기 스스로를 돌볼 줄 알고, 타인과 약자를 돌보는 것이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문화를 의미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세대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일상적으로 모두가 조금씩 돌봄에 기여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돌봄의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다. 젠더롤에 기반한 것이 아닌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돌보는 것의 가치를 확산하는 것, 즉 아이가 인지적 약자인 고령자를 돌볼 수 있고, 고령자가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를 돌보고, 남성이 일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사회구성원의 돌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스스로를 돌보는 자기돌봄부터 타인 돌봄, 약자 돌봄의 영역까지 모두 포괄한다. 문화향유의 영역은 자기돌봄 역량을 높이는 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스스로 여가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은 결국 전생애에 걸쳐 쌓은 문화자본의 영향을 받으며, 개인이 최소한의 문화자본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은 문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나. 문화를 통한 돌봄

문화를 통한 돌봄은 광의의 개념으로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 향유에 있어 지역 간, 계층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이는 기존 복지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아닌 '문화소외계층'이라는 대상을 설정하고 해당 대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함을 의미한다. '문화소외계층'은 일반적으로 자의가 아닌 사회적, 경제적, 또는 지리적 이유로 인해 문화적 활동이나 자원에 접근할 기회가 제한된 사람들을 의미한다. 문화적 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은 다양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문제와 관련된 문화 제약요인들에 주목하기 때문에, 문화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아동, 돌봄의 부담으로 인해 문화를 향유할 수 없는 청년, 고립된 중년 남성 등을 문화소외계층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문화를 통한 돌봄 정책은 문화소외계층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제약요인을 감경시켜주는 전략으로 추진한다.

한편 협의의 문화 돌봄이란 돌봄을 필요로 하지만 기존 복지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라고 설정할 수 있다. 돌봄(Care)이라는 용어는 영어권 국가에서 1980년 즈음부터 사회보장이나 복지 영역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육아, 고령자 돌봄, 장애인 돌봄 등 포괄적 용어로 사용되어 왔지만 정책영역, 학문 분야, 나라마다 돌봄의 정의가 다르고, 심지어 돌봄에 대해 조작적 정의를 내리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우에노지즈코, 2024). 본 연구에서는 '문화를 통한 돌봄'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간행한 〈돌봄노동〉에서 쓰고 우에노지즈코가 〈돌봄의 사회학〉에서 인용한 '돌봄'의 정의를 사용한다. 해당 정의에 따르면 돌봄의 대상은 성인과 아이를 포함해 장애인 돌봄, 육아를 모두 아우르고, 내용적으로는 신체와 정서(돌봄과 배려) 양쪽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본문에 따르면 "가장 타당한 돌봄이란 의존적 존재인 성인 또는 아이의 신체적, 정서적인 요구를 그것이 수행되는 규범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상에서 충족시키는 것에 관여된 행위와 관계(Daly 2001: 37)"를 의미한다.

해당 개념을 바탕으로 협의의 문화를 통한 돌봄(이하 '문화돌봄')을 개념화하면 '일상에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의 신체적, 정서적 요구를 문화·예술·체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주는 것과 관여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문화돌봄의 대상은 연령이나 소득에 의해 구분된 특정 계층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할 수 없어서 신체적, 정서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다. 즉, 의존적 존재로서의 아이(영·유아), 자립할 수

없는 고령자, 병리학적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유사 증상을 보이는 성인 등 기존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등을 포괄한다. 또한 이들을 돌보는 것은 보호자에게는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데, 돌봄 서비스의 제공으로 보호자들에게 제한적 자유를 선사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으므로 문화를 통한 돌봄 정책의 수혜자는 프로그램 참여 당사자 뿐 아니라 보호자까지도 포괄할 수 있다.

〈표 5-2〉 협의의 문화 돌봄의 정책 대상이 될 수 있는 계층(안)

생애주기별	정책 대상이 될 수 있는 계층
영유아	•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학령기	• 부모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
청년기	• 성인 지적 장애인 – 기존의 복지서비스로는 충족되지 않는 문화적·사회적 욕구를 가지므로, 보다 포괄적인 돌봄과 함께 문화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중장년기	• 독거 중장년층 – 신체적으로는 아직 건강하지만, 정서적·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활동 및 돌봄 필요
노년기	• 초기 치매 환자 및 경도인지장애자 (MCI) – 기존의 데이케어센터나 치매센터가 아닌, 보다 수요자 중심적이고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함 • 은퇴 후 적응이 어려운 고령자 – 은퇴 이후 사회적 역할 상실과 함께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고령자에게는 복지서비스보다는 문화적 참여를 통해 삶의 의미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돌봄 필요

다. 문화를 통한 치유

문화를 통한 치유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의 악화를 예방하고,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 우울감 등 심리적인 문제들의 잠재적 대상자를 발굴하여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자의 발굴을 위한 다양한 방식과 프로그램(진단 척도, 예술치료 등)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치료가 아닌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문상담이나 예술치료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풍요로운 삶 모델(Life Enrichment Model, 이하 LEM)"과 같은 접근법을 취할 수 있다. LEM은 예술치료 분야에서 활용되는 이론적 프레임워크 중 하나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예술적 접근을 통합하는 모델이다(임성윤, 2022). 이 모델은 예술치료가 단순히 질병이나 장애를 치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활동을 통해서 참여자

의 전반적인 삶의 영역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술치료에서는 이 모델을 사용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LEM'은 문화예술을 통한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다. 이 모델은 개인의 건강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예술적 접근을 통합함으로써, 문화예술 활동을 단순한 여가나 오락을 넘어 치유와 회복의 도구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문화정책은 모든 시민이 문화예술을 통한 치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즉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정신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개인의 상태와 필요에 맞춘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며,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LEM'은 문화를 통한 치유를 위한 정책에 다각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지역문화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치유사업의 진단과 프로그램을 체계화 하고, 확대하는데 근간이 되는 틀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LEM의 7가지 영역을 기반으로 하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치유 진단 척도(안)를 구축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과정 속에서 전문가들이 척도를 기반으로 진단하고, 보완해주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안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문화를 통한 치유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진단툴의 개발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표준화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전문 인력의 양성을 통해 문화치유의 시스템 구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문화치유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전적 지원 보조할 수 있다.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고가의 비용이 필요한 치료 프로그램과의 접점을 마련하고 비용을 지원하여 예술치료프로그램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그 일환으로 문화바우처의 사용처의 분류[5]에 문화 '돌봄'이나 '치유' 분야를 신규로 생성하고, 문화예술치료 기관에서도 문화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에 안전하고 누구나 올수 있는 문화치유의 플랫폼의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진단, 컨설팅, 치료 등 일련의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담당하는 전문가를 길러내는 사업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5) 현재 문화바우처의 구분은 문화, 관광, 체육으로 구성되며, 하위 분류는 도서, 음악, 영화, TV 등 관련 용품이나 서비스 기준으로 설계되어있다.

라.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문화적 혜택을 누리며,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통해 계층 간 이해를 도모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세대 간, 계층 간의 배척을 줄이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 전략은 생애주기별로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사회적 포용성과 연대감을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고령자의 사회적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적 그룹의 형성과 연결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의 정책 모델은 연령 및 수요 통합적 문화향유 공간을 중심으로 각 생애주기에 맞춘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지역사회 내에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 문화향유 공간을 마련한다. 이 공간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교육, 놀이,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되며, 각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그리고 세대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세대 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킨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내의 연대감을 강화한다. 특히 사회적 역할 축소로 인해 설 자리가 없어진 고령자들에게 자원봉사 및 사회공헌 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활동이 경제적 보상으로 주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령자의 지속가능한 삶을 지원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제2절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의 추진과제

본 절에서는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의 영역별 주요 추진과제와 해당 추진과제들이 각 생애주기별로는 어떤 지점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되어야 하는지 생애주기별 추진과제들을 제안한다. 생애주기별 추진과제들을 제안하나,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은 궁극적으로는 연령, 계층을 모두 포괄하는 대상통합적, 장르복합적 정책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는 종래에 논의되어 온 수요자 중심 문화정책으로의 방향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정책의 수요자를 연령이나 소득계층, 장르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복지가 무엇인가'라는 돌봄, 치유 등 사회문제와 관련된 수요에 따라 구분해야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기존 문화예술교육정책이 연령에 따라 학생, 고령자, 혹은 특정 시설에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다면, 향후에는 그 대상이 아동이든, 성인이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문화예술체육을 통해 돌봄을 제공해야할 것이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아야 한다.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 청년, 고령자가 같은 이슈를 가지고 모여서 그것을 극복하고 서로 돕고, 문화예술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과 고령자가 취약계층에게 돌봄과 치유를 제공하면서 계층간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는 사회통합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1. 문화를 통한 가치 확산

가. 추진 과제

1) (旣)다양성사업 확대

기존 문체부에서 추진 중인 문화다양성 사업에 다양한 가치와 기준 등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불평등 인식, 과도한 경쟁심리, 획일화된 가치관 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미디어와 SNS를 통해 다양한 가치, 가족형태, 취향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성공, 활기찬 고령자에 대한 긍정 사례 등을 자연스럽게 노출하여 개인들이 다양한 가치 실현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노력이 될 수 있다.

2) 일-가족-여가 균형 문화 조성

양육자를 존중하고 양육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삶의 질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양육자가 보다 자유롭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고,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즉 아이와 함께 문화시설에 가는 것의 목적이 단순히 아이 돌봄이나 교육이 아니라 본인의 여가를 즐기는 것이 되어야하는 것이다. 또한 직장 내 육아 및 여가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일, 육아, 개인의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조성한다.

3) 돌봄 문화 조성

성역할에 기반하지 않은 돌봄 문화의 조성과, 모든 사회구성원의 돌봄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문화정책은 개인이 전생애에 걸쳐 문화자본을 축적하고, 여가를 통해 자기돌봄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 또한 전통적 가족 내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타인에 대한 돌봄을 문화 프로그램 내에서 다양한 세대와 계층과 협력하며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표 5-3〉 문화를 통한 가치확산 추진 과제(전생애)

○ 다양성존중 문화 및 인식개선 ○ 일-여가 양립 문화 확산 ○ 돌봄 문화 조성

나. 생애주기별 추진 과제

유아동기는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속에서 다양한 가치, 가족, 다양한 부모 형태에 대해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보육과정 내 포함시키고, 생애 초기부터 스스로의 일은 스스로 한다는 자립과 자기 돌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외출하고 향유하고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키즈존 문화 개선 및 아동친화적인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돌봄을 보호자 한 사람의 몫이 아닌 사회의 몫으로 보고 함께 키우는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노키즈존 문화를 개선하여 유아동 및 보호자가 겪는 생활 속 불편과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청소년기에는 스스로의 일은 스스로 한다는 독립적인 태도와 자기돌봄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등을 통해 돌봄문화를 확산하고, 문화체험을 진로교육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자아 탐색의 기회로도 활용해볼 수 있다.

청년기에는 가치다양성을 강조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도해볼 수 있다. 자존감을 잃고 고립된 청년들이 사회적 성공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점을 벗어날 수 있도록 가치 다양성을 확립하여 개개인의 삶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일-여가 양립, 가족친화 문화 조성을 위해 아이들과 보낼 시간이 부족한 맞벌이, 한부모 가족의 경우 공공시설에 야간 또는 주말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개발, 아이들이 함께 보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장년기 및 노년기에는 그동안 본인이 생활해 온 방식과 인식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포용적 인식을 갖을 수 있도록 가치다양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고 타인에게 간섭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교육에 담는 한편, 문화취약계층인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여가경험을 제공해야한다. 개인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부부, 가족을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에서 벗어나 개인 단위로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돌보는 것에 대한 가치와 기술을 교육해야 하고, 특히 고령자의 경우 활력 있는 고령자들, 다시 시작한 고령자들, 혼자서도 잘 즐기는 고령자 등에 대한 사례들을 통해 귀감을 삼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아이들은 부모가 길러야 한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통해 일하는 부모가 죄책감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여가

친화적 여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아버지교실 등 맞벌이 부부를 위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개설, 기업 차원의 여가친화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5-4〉 문화를 통한 가치확산 추진 과제(생애주기별)

생애주기	추진과제(안)
영유아기 (만0-5세)	• 다양성 교육 • 자기돌봄 교육 • 노키즈존 문화 개선
학령기 (만6-18세)	• 다양성 교육 • 자기돌봄, 약자돌봄 교육
청년기 (만19-34세)	• 다양성 교육(다양한 가치, 가족형태, SNS 디톡스 주간 등) • 육아의 사회화 문화 조성 • 직장 내 육아 및 여가 관련 프로그램 지원 • 돌봄 교육(자기 돌봄, 타인돌봄, 약자돌봄)
중장년기 (만35-64세)	• 육아의 사회화 문화 조성 • 직장 내 육아 및 여가 관련 프로그램 지원 • 돌봄 교육 • 문화향유 기회 제공
노년기 (만65세~)	• 육아의 사회화 문화 조성 • 돌봄 교육(자기 돌봄, 타인돌봄, 활기찬 노년, 새로운 시작 캠페인)

다. 추진 사업(안)

1) 육아친화환경 조성 사업

육아친화환경 조성사업은 '프랑스의 특별한 장소 평범한 놀이터들'과 같이 누구나 선호할만한 도심 속 랜드마크(예. 공원, 관광지 등)에 놀이터와 같은 '키즈프렌들리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아이만을 위한 교육, 놀이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아이와 보호자가 같은 공간에서 서로의 취향에 맞게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맞벌이 부부도 아이와 함께 미술관, 박물관 등을 평일 저녁에 방문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운영시간의 연장을 추진할 수 있다.

2) 돌봄문화 확산 사업

학교, 직장, 지역사회에서 자기관리와 타인을 돌보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워크샵,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스트레스 관리, 여가 교육, 심리적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스웨덴의 '함께 돌보는 문화' 캠페인과 같이 SNS , TV, 라디오 등을 통해 모두가 참여하는 돌봄 문화를 홍보하는 캠페인도 병행한다.

2. 문화를 통한 돌봄

가. 추진 과제

1) 일상에의 문화 채움

모든 생애주기별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제약요인들을 밝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한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과 시설을 제공하고, 지역과 계층에 무관하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보장한다. 특히,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여, 각 생애 단계에서 문화적 경험이 쌓일 수 있도록 '평생문화돌봄'을 지원한다.

2) 문화소외계층 지원

기존 복지정책에서 설정하는 소외계층의 개념에서 벗어나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를 지원한다. 부모의 계층적, 경험적 제약으로 인해 문화향유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영유아, 시간적 제약과 돌봄부담으로 인한 양육기 부모, 문화체험경험이 전무하여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고립된 중년남성 등을 대상으로 배제 없이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와 같은 정책적 배려와 문화바우처, 인프라 등의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3) 돌봄 수요자 및 보호자에 대한 문화향유 지원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통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그들이 안정적이고 존엄성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돌봄

제공자들이 신체적, 정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자유로운 시간, 교육, 관련 커뮤니티, 심리적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표 5-5〉 문화를 통한 돌봄 추진 과제(전생애)

○ 일상에의 문화 채움 ○ 문화소외계층 지원 ○ 돌봄 제공 및 보호자 향유 지원

나. 생애주기별 추진 과제

유아동기는 우선 맞벌이, 한부모, 빈곤가구, 농어촌 지역 아이들의 낮은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선생님을 파견해 체육활동, 놀이, 미술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부모가구의 특성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격차를 해소할 사업을 구상해야 하며,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인프라 부족 지역에 놀이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현재 6세부터 적용하고 있는 문화바우처를 영유아까지도 확대하여, 영유아의 놀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돌봄기관의 영유아 대상 콘텐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특별활동으로 수행하는 문화프로그램을 문체부에서 정규교육으로 맡아 관리하거나, 시장에 맡겨진 문화센터에 대한 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된다. 공공에서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강사의 자격을 관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문체부에서 활용 가능한 문화재단 등 지역인프라를 거점화하는 방식으로 돌봄기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학령기에는 최소한의 문화향유권 및 놀이권 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최근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교육부의 늘봄사업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강사를 적극 지원한다. 늘봄학교 및 방과 후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공공 문화예술체육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정규교육 시스템 내에 문화예술교육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규교육 안에 학교 단위의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단계별(학년별)로 나아가는 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소외계층의 아동청소년들이 공교육 체계 내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과정까지 수준

별, 단계별로 문화예술체육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사교육 없이도 최소한의 수준으로 피아노, 줄넘기 등의 활동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최소기준'의 개념에서 사교육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확장하면서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학교 밖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여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는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 보호자가 직접 동반하지 않아도 박물관·미술관에서 송영을 운영하고 학교 차원에서 기관과 협력해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인솔을 담당하는 체험학습을 정규 프로그램화 하는 등의 방식으로 아이들의 문화체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청장년기에는 돌봄의 주체가 되는 대상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봄을 담당하는 청년 대상 가족 부양 케어를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육아기 청년을 대상으로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주말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육아기 아동 보호자의 문화향유 기회 보장을 위해 기존 문화시설내 일시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중장년기 대상으로는 우선 육아기 부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가능하다. 육아친화적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프랑스 랜드마크들에 있는 놀이터처럼 양육자가 쉼과 여가를 함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시 환경 인프라를 조성하여 모두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중년층의 고립 문제를 해결을 위해 통합적 문화인프라에 중장년이 방문하고 싶게 만들 수 있는 컨텐츠와 수요에 맞춘 공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최근 고학력, 경제력이 있는 중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지금의 노인들보다 여가를 적극적으로 즐길 의향과 다양한 수요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고령자 돌봄시설의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발전해야할 필요가 있다. 일방향적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이 아닌 다양한 고령자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설계 및 구축해야 한다. 노년기 제2의 인생을 위해서도 교육과 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대학 과정 내에 고령자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포함하여, 대학에서 교육과 돌봄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이는 기존에 인구소멸로 인한 대학의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표 5-6〉 문화를 통한 돌봄 추진과제(생애주기별)

생애주기	추진과제(안)
영유아기 (만0-5세)	• 문화취약계층의 문화접근성 제고 • 영유아 돌봄기관 대상 문화예술컨텐츠 제공 • 영유아문화바우처 • 문화체육예술돌봄(안) 체계 구축
학령기 (만6-18세)	• 늘봄학교 내 문화예술교육 체계 마련 • 문화체육예술돌봄(안) 체계 구축
청년기 (만19-34세)	• 돌봄의 주체가 되는 청년(영유아 보호자, 고령자 부양 청년 등) 지원 • 문화체육예술돌봄(안) 체계 구축
중장년기 (만35-64세)	• 돌봄의 주체가 되는 청년(영유아 보호자, 고령자 부양 청년 등) 지원 • 문화체육예술돌봄(안) 체계 구축
노년기 (만65세~)	• 노인시설에 문화여가프로그램 제공 • 고령자 여가 활동 지원 • 문화체육예술돌봄(안) 체계 구축

다. 추진 사업(안)

1) 문화시설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문화시설 내 돌봄 서비스 제공 사업은 아동 양육자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세종문화회관의 아이돌봄공간인 아이들세상'처럼 공공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에 돌봄 공간을 마련하고 전문 보육 및 문화예술전문인력이 상주하게 한다. 보호자가 문화여가활동을 즐길 때 아동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문화적 소양을 쌓을 수 있다. 기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 문화기반시설 중 일부 거점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다.

2) 문화예술체육돌봄 체계 구축

문화예술체육돌봄은 공공 거점형 시설에 '문화예술체육돌봄센터(안)'를 설치하고,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업의 대상은 기존 문화예술교육의 대상이 아닌 영유아, 보호자로부터의 자립이 어려운 고령자 중 기존 복지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이다. 문화예술체육돌봄은 돌봄이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1)지정된 공간 2)전문 돌봄인력 3)정기적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초기

에는 초로기 치매 고령자[6] 등의 특정 대상에 한정하여 정기적 문화예술체육돌봄 거점들을 마련하는 시범사업들을 추진해 볼 수 있다. 또한 지역확대를 위해서는 타부처 지역거점시설들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 문화를 통한 치유

가. 추진 과제

1) 문화치유 진단툴 및 프로그램 개발

병리적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예방과 치유가 필요한 대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아동 청소년, 고립 은둔 청년, 은퇴 후 중년층, 신체적 건강 회복이 필요한 고령자 등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검진 및 심리 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학교, 직장, 지역사회에서의 문화예술치유모델을 활용한 스트레스 관리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문화치유의 개념화 및 효과성에 대한 기초 연구들이 추진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향유활동 속에서 정신건강의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 이를 바탕으로 한 문화치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문화치유 거점 구축 및 서비스 확산

문화치유를 위한 거점을 구축하여,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술 치료, 음악, 미술, 문학 등의 문화 활동을 통해 심리적 치유를 돕는 역할을 한다. 거점은 누구라도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상시적, 지속적 공간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문화예술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한편 특정 시설(아동 병원, 데이케어센터 등)에 상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방문하여 문화예술 치

6) 초로기 치매는 45세에서 65세, 즉 65세 이전에 발명하는 치매를 의미한다. 초로기 치매의 경우 인지기능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저하가 나타나지만, 기존에 70-90세의 고령자가 방문하는 데이케어센터나 경로당에 방문하기에는 심리적 거부감이 상당하다.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이재홍 교수는 노년기 치매에 비해 초로기 치메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좌절감이 더 크다고 지적한다(메디컬타임즈, 2019.6.26.)

료를 지원하는 전문인력 및 봉사단체 등을 지원한다.

〈표 5-7〉 문화를 통한 치유 추진 과제(전생애)

○ 문화치유 진단툴 및 프로그램 개발 ○ 문화치유 거점 구축 및 서비스 확산

나. 생애주기별 추진 과제

아동 및 청소년기 관련해서는 최근 ADHD,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고립 청소년, 미디어 중독 등 정신건강의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린 시절부터 건강한 방식의 스트레스 해소법과 다양한 문화 및 체육 활동의 방식을 체화하여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성인으로의 성장을 도와야 한다.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고가의 비용이 필요한 치료 프로그램과의 접점을 마련하여 예술치료프로그램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기존에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심리치료 거점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치유 프로그램을 보급 및 활성화 할 수 있다. 이노비 사례와 같이 아동전문병원이나 병동에 문화예술전문 봉사단체를 파견하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청년기의 경우 고립 및 우울 청년에 대한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기업이나 직장, 지역과 연계한 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만들어 청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향유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재미와 활력을 느끼고 공간과 장소가 주는 의미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등을 추진한다.

중장년기 및 고령자 대상으로는 문화예술을 통해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가안)문화예술건강지표를 활용한 정신건강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신건강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진단 결과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추천하는 콘텐츠나 정보가 연결되어야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중장년의 경우 은퇴 후 상실감 및 우울감을 경험하는 문화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진단결과에 따라 수요에 맞는 문화예술활동 및 동아리를 매칭시키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표 5-8〉 문화를 통한 치유 추진 과제(생애주기별)

생애주기	추진과제(안)
영유아기 (만0-5세)	• 문화예술심리치료 제공 및 지원 • 아동 병원 등에 문화예술봉사 단체 파견 및 지원 • 체육활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놀이 공간 마련
학령기 (만6-18세)	• 문화예술심리치료 제공 및 지원 • 스트레스 해소 교육 • 아동 병원 등에 문화예술봉사 단체 파견 및 지원
청년기 (만19-34세)	• 문화예술심리치료 제공 및 지원 • 고립 청년에 대한 접근 • 기업 및 직장과 연계한 청년 대상 문화치유 프로그램 제공
중장년기 (만35-64세)	• 문화예술심리치료 제공 및 지원 • 은퇴후 우울, 고립 중장년에 대한 접근 • 기업 및 직장과 연계한 청년 대상 문화치유 프로그램 제공
노년기 (만65세~)	• 문화예술심리치료 제공 및 지원 • 우울, 고립 고령자에 대한 접근 • 기업 및 직장과 연계한 청년 대상 문화치유 프로그램 제공

다. 추진 사업(안)

1) 旣 연결사회 지역거점 사업 확대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증상을 진단하고 기관과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중이다. 해당 사업의 취지를 유지하되 정책대상을 외로움, 고립감에 한정하지 말고 학업이니 취업 스트레스를 받는 청년, 은퇴후 상실감을 느끼는 중년, 자녀 독립 후 우울감을 느끼는 장년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단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치료에서 활용하는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치유 지원까지 하는 사업 범위의 확대도 필요하다.

2) 문화예술치유 전문인력 양성 및 봉사단체 지원

전문무용수지원센터재단의 무용치료교육강사 양성 프로그램처럼 예술 치료사, 심리상담사 등 문화예술 치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존 문화예술교육강사 체계를 활용하여 관리한다. 또한 문화예술자원봉사단체 이노비(Enob)처럼 지역사회에서 치유와 봉사를 제공하는 문화예술인 및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한다.

4.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가. 추진 과제

1) 고령자의 사회적 참여 및 가치 제고

고령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문화예술봉사활동을 통해 고령자들이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고령자의 역할과 가치를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2) 통합적 모임이 가능한 인프라 조성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통합적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어린이 시설, 고령자 시설 등 특정 연령을 타겟팅하는 것이 아닌 전 세대에게 열려있는 다목적 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세대별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세대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한다.

〈표 5-9〉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추진 과제(전생애)

○ 고령자의 사회적 참여 확대 ○ 사회통합 인프라 설치 ○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나. 생애주기별 추진 과제

영유아의 경우 문화예술활동과 체험을 위해 보호자의 동반은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젊은 부모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해 1인의 보호자가 다른 가정의 아이들을 인솔하여 문화시설을 방문하거나, 전문 해설사를 고용해 투어를 하는 품앗이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이 같은 역할을 대신하여 육아기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및 청소년 시기 문화향유의 가장 큰 제한점이라고 하면, 놀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유아동을 위한 놀이터는 있고, 청장년을 위한 민간 시설이 있고, 고령자를 위한 노인복지시설이 있지만, 10대 이상 청소년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놀고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전무하다. 청소년들은 온라인 인간관계를 맺고, 오프라인에서는 후미진 놀이터, 피씨방 등을 전전한다. 이에 청소년들도 자유롭게 드나들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비록 그것이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개방된 공간에서, 본인들의 관심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청년기에는 기존 사례를 벤치마킹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 시도중인 '노인과 함께하는 세대공감' 프로그램은 지자체에서 연구비를 지급하고 대학생들이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을 만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대학생들이 인구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동화책을 제작하고, 이를 시 어린이집 연합회나 시청과 연계해 어린이집과 도서관에 배포하는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문화제공자 역할을 하면서 아동과 고령 세대를 이해하고, 매개하는 사회통합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중고령자의 경우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즐거움과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노인들이 함께 모여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들어 작은 마을 단위에 파견하거나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선진지 관광 견학 등 자기발전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자 사회공헌활동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다.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만드는 등 세대 특징과 수요를 반영한 노년층의 주체적 기여 방안을 탐색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참여할 경우 문화바우처를 지급하여 문화향유와 공헌의 선순환이 지속되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은퇴한 귀농인구와 같은 지역 내 전문인력을 자원봉사 형태로 유치원, 어린이집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귀농인구가 미술교사였다면 유치원 아이들의 미술지도를 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은퇴한 신중년 인구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면서 농어촌 아동들의 낮은 문화접근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이야기할머니 사업을 중년까지 확대해 세대간 만남의 장을 확대하는 것도 제안해볼 수 있다. 중고령자 대상 사업은 중장년의 직업교육, 생애설계 등을 지원하는 50플러스센터와 협력하고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 가능하다.

〈표 5-10〉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추진 과제(생애주기별)

생애주기	추진과제(안)
영유아기 (만0-5세)	• 문화예술육아 품앗이 지원 • 통합 문화향유 공간 마련
학령기 (만6-18세)	• 통합 문화향유 공간 마련
청년기 (만19-34세)	• 마을협동조합 • 대학, 직장과 연계한 청년과 고령자, 영유아 연결 프로그램 • 청년창업 내 사회통함을 위한 프로그램 권고 • 통합 문화향유 공간 마련
중장년기 (만35-64세)	• (자존감, 생계유지)선배시민, 재능기부 기회 • 지역 내 전문인력을 자원봉사 형태로 유치원, 어린이집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 - 자원봉사의 혜택을 문화바우처 형태로 지급 • 문화예술고령자 일자리 확대, 사회적 기업 등 지원 • 통합 문화향유 공간 마련
노년기 (만65세~)	• 시니어 사회공헌 활동 및 일자리 확대(이야기할머니 사업 확대) • 통합 문화향유 공간 마련

다. 추진 사업(안)

1) (旣)문화예술일자리 사업 확대

기존의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청년대상 문화예술 일자리 사업의 정책대상을 중고령자에게까지 확대한다. 또한 기존에 이야기할머니사업과 같은 고령자 문화예술자원봉사 활동 지원 사업에서 정책대상, 역할 및 진입 영역 등을 확대하고, 무상 봉사활동이 아닌 현물이나 문화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사회 참여를 하고, 고령자 빈곤 문제의 해결에도 일조할 수 있다.

2) 세대 · 장르 통합 복합문화공간 조성

다양한 세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 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 도서관이나 교육관, 창작거점 등 특정 시설 이상의 기능을 하여, 문화적 활동, 사회적 모임, 학습 및 창작 등 어떤 활동을 위해서라도 활용될 수 있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접근할 수 있는 공간, 즉 도시 내 다양한 레벨과 만나는 '시설이 아닌 장소'로서의

공공 공간이 되는 것이다. 즉 개인들은 독서, 예술활동, 창작활동, 커뮤니티 이벤트 등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해당 공간은 핀란드 헬싱키 중앙도서관 오디처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거실처럼 열린 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고미혜(2024.3.3.), 근로시간 10년새 연 200시간 줄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과 격차,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2024), 「고용노동통계」
- 교육부(2002), 「생애주기별 융합형 보장정책 모델 개발」
- 국회예산정책처(2019), 「청년층 취업과 저출산 관계」
- 김신일(2024), 고령사회 노인문화정책의 변화 고찰 및 과제, 「예술경영연구」, 71
- 김태완, 이주미(2020). 노인빈곤 원인에 대한 고찰, 「보건사회연구」, 40(2)
- 대한민국정부(2023),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
- 대한민국정부(2023),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 문화체육관광부(2023), 「2024년 예산 및 기금 각목 명세서」
- 문화체육관광부(2023), 「2024년 예산 사업설명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3), 「제2차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2023~2027)」
- 문화체육관광부(2024), 「문화예술교육분야 사회서비스제도 도입 연구」
- 민보경·김은아·김태경·유희수·이상직·이선화·정훈·허종호·최지선·이종혁(2022a), 「데이터로 보는 미래사회 리포트」, 국회미래연구원
- 민보경·이채정·이상직·조해인·정훈·김은아(2021), 「미래사회 대응지표 체계 및 모니터링 방안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민보경·이채정·이선화·이상직·허종호·탁현우박소정(2022b), 「정부의 미래대응 정책 모니터링」, 국회미래연구원
- 박복순·박선영·김정혜·정다은·성정숙(2020),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Ⅷ):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
- 박상준(2019, 6. 26), 초로기 치매 7만명 시대…노인성 치매보다 진행속도 더 빨라, 「메디컬타임즈」

- 박성원, 김태경, 박상훈, 박현석, 여영준, 유희수, 이상직, 정혜윤, 차정미, 김유빈, 조만석(2022),「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박시내, 박준오, 류광현(2013),「인구센서스 생애주기 분석」, 통계청
- 박용주(2021. 09. 28), 한국 자살률 OECD 1위...20대 여성 10대 남성 크게 늘어,「연합뉴스」
- 방송통신위원회(2024),「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
- 배호중(2019), 주거비 부담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2000년 이후 혼인 가구를 중심으로,「사회복지연구」, 60(1), 35-70
- 백선아(2017),「50+ 세대 문화예술교육 활동 증진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변수정(2017), 비혼 동거 인구의 경험 및 가치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 Issue & Focus」, 332호 pp.1-8
- 변수정, 김혜영, 백승흠, 오정아, 기재량(2016),「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15),「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보건복지부(2020),「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보건복지부(2021),「대한민국 치매현황」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2017),「부모 의료비 관련 실태조사」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0),「새로운 복지지표체계 발굴 및 정책과의 연계방안」, 보건복지부
- 서울특별시(2022),「서울엄마아빠 VIP존 가이드라인」
- 양현미(2007),「문화의 사회적 가치-행복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양혜원, 김현경, 윤지연(2019),「예술의 가치와 영향 연구: 국내외 담론과 주요 연구결과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여성가족부(2022),「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 여성가족부(2023),「2022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 우에노지즈코(2025),「돌봄의 사회학」, 오월의봄
- 윤소영(2016),「고령화 시대 문화의 역할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윤소영, 김윤경(2023),「고령층 문화누림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윤소영, 윤주(2009),「생애주기별 여가활동 모형 개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상민, 박동열(2023),「저출산, 프랑스는 어떻게 극복했나, 고북이
- 이소영·황남희·장인수(2024),「2024년 인구정책의 전망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경(2021),「생애주기의 연령기준과 연령규범에 대한 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재열(2015), 사회의 질, 경쟁, 그리고 행복,「아시아리뷰」, 4(2)
- 이현주, 안옥희(2023), 한국형 고령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35(1), 199-202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2023).「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 정보람, 윤소영, 노영순(2022),「사회문제와 문화예술정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보람, 윤소영, 이성우(2022),「문화예술기반 사회적 치유 정책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의당(2016),「문화예술의 정의로운 전환 공약집(20대 총선 문화예술공약)」
- 정의당(2018.5.11),「지방선거 문화 공약 발표(보도자료)」
- 조선비즈(2023.7.28),「심리학자가 분석한 2030이 아이 안 낳는 '진짜' 이유」
- 주프랑스대사관(2017),「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 최성재(2023.7.10), UN이 했다는 사회분류와 연령 분류는 사실이 아니다,「백세시대」
- 최중보(2023).「복지국가의 재정변화에 따른 수요맞춤형 복지정책 발전방안 연구」
- 컨슈머인사이트(2022),「여가문화체육 주례조사」
- 통계청(2019),「가계동향조사」
- 통계청(2022),「사회조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23),「마음에도 스프링이 있다면,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10년의 기록」
- Daly, Mary, ed.(2001), *Care Work: The Quest For Security,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Erikson, E. H.(1963), *Childhood and Society, (Rev. ed.)*, New York: W Norton
- Kramer, M. R., Sidibe, M. & Veda, G.(2021), *Dove and Real Beauty: Building a Brand with Purpose, Dove and Real Beauty: Building a Brand with Purpose - Case - Faculty & Research,* Harvard Business School
- Lisa E. Hinz(2022), 예술심리상담사를 위한 ETC 자기돌봄, 임성윤 역, 학지사
- Penn, M.(2011), *Flourish: A Visionary New Understanding of Happiness and*

Well-being. New York: Free Press.

- Riley, M. W.(1994), *Aging and society: Past, present, and future trends,* The Gerontologist, 34(4), 436-446.
- Seligman, M. E. P.(2002),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Free Press.
- Seligman, M. E. P.(2011), *Flourish: A Visionary New Understanding of Happiness and Well-being.* New York: Free Press.
- Steve Barrett(2024.4.11), Dove's Campaign for Real Beauty revolutionized marketing, *PRWeek*
- WHO(2021),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Evidence and gap map on digital interventions to reduce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in older adults*

웹사이트

- 문토: https://www.munto.kr/
- 째깍섬: https://www.tictocisland.com/tictoc_island/tictoc_about.php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feature_story/article/201804090600065
- 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https://www.nowonmaeul.com/
- 서울사랑: https://love.seoul.go.kr/articles/9182
- 서울특별시: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4046
- 선배시민협회: https://xn--lg3btdx1n11b.kr/
- 영국 버스여행: https://www.northeast-ca.gov.uk/bus
- 예술의전당: http://www.1101.co.kr/
- 이노비: http://www.enob.org/seoul/news/mediahighlights.php
- 제천간디어린이학교: http://gandhichild.org/eproject/
- 클럽메드: https://www.clubmed.co.kr/s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https://www.fowi.or.kr/user/main/main.do
- 헬싱키중앙도서관: https://oodihelsinki.fi/

ABSTRACT

A Study of Life-cycle-Based Cultural Policies to Address the Population Crisis

Yoon, Ji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cultural policies to address the challenges of low birth rates and an aging population and to discuss appropriate policy measures. Specifically, first, the study examined the current demographic changes and the resulting major social issues, and analyzed the factors that constrain cultural enjoyment across the entire life cycle. Second, the study systematically analyzed the population-related policies and projects being promo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drawing implications related to policy demand, blind spots, and inter-ministerial cooperation strategies. Third, based on the previous analysis, the study identified the main areas of focus for life-cycle cultural policies to respond to the population crisis, setting them as the promotion of positive values, care, healing, and social integration. Finally, in accordance with the identified directions and objectives, existing projects were restructured, and new initiatives were proposed. Throughout this process, policy implications were derived from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and effective cultural policy alternatives were suggested.

Keywords

Population crisis, Low birth rate, Aging population, Cultural policy

부록1

설문조사지

「인구위기 대응 생애주기별 문화정책 방안 연구」 대국민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 문화를 통한 전 국민의 행복 증진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본 정책연구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을 통해 얻어진 모든 정보는 통계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art 1 응답자 특성

SQ1. 연령: 만 (　　)세

SQ2.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③ 기타(*기타는 설문에서 제외)

SQ3. 결혼상태

① 미혼　☞ ① 응답자는 SQ5로 이동
② 배우자 있음　☞ ②③ 응답자는 SQ4로 이동
③ 배우자 없음(사별, 이혼, 기타 등)

SQ4. (미혼 제외) 자녀 유무

① 자녀 있음　☞ ① 응답자는 SQ4-1로 이동
② 자녀 없음　☞ ② 응답자는 SQ5로 이동

SQ4-1. (자녀 있는 경우) 귀하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이상

SQ4-2. (자녀 명수에 따라) 자녀 나이 중 해당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미취학아동(0-만 5세)　② 취학 자녀(만6세-만18세)　③ 성인 자녀(만19세 이상)

SQ5. 귀하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동거인 없음　② 배우자
③ 미취학아동(0-만 5세)　④ 취학 자녀(만6세-만18세)
⑤ 성인 자녀(만19세 이상)　⑥ 부모님
⑦ 기타

SQ5-1. 귀댁에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습니까?

① 있음　☞ ① 응답자는 SQ5-2로 이동
② 없음　☞ ② 응답자는 SQ6로 이동

SQ5-2. 귀댁에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① 부모님 ② 배우자
③ 미취학아동(0-만 5세) ④ 취학 자녀(만6세-만18세)
⑤ 성인 자녀(만19세 이상) ⑥ 기타

SQ6. 거주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도 ⑩ 강원도
⑪ 충청도 ⑫ 전라도 ⑬ 경상도 ⑭ 제주도

Part 2 사회에 대한 인식

Q1. 다음 각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표시해 주세요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		매우 동의한다
1. 나는 종종 사랑하는 이들(애인, 가족 등)의 행동과 타인의 행동을 비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는 항상 나의 행동을 타인의 행동과 비교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내가 일을 잘했는지 알고자 할 때, 다른 사람이 한 것 과 내가 한 것을 비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사회성 있게 행동(예 : 대인관계, 인기도)하고 있는지 타인과 비교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나는 다른 사람과 나의 행동을 비교해보는 타입이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나는 종종 내가 인생에서 달성한 것과 다른 사람들이 달성한 것을 비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나는 종종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얻기 위해 타인과 이야기하길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나는 종종 누군가 나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지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나는 항상 나와 상황(입장)이 비슷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지 알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무언가를 배우려고 할 때, 이에 대한 타인의 생각을 알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나는 절대 나의 상황을 남들과 비교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Q2. 우리 사회에서 다음 사항들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 표시해 주세요.

구분	매우 불평등하다 ←			→		매우 평등하다
교육기회	①	②	③	④	⑤	⑥
취업기회	①	②	③	④	⑤	⑥
법의 집행	①	②	③	④	⑤	⑥
소득과 재산	①	②	③	④	⑤	⑥
권력	①	②	③	④	⑤	⑥
남녀간	①	②	③	④	⑤	⑥

Q3. 자신이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다	다소 낮다	보통이다	다소 높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Q4. 귀하는 자신이 <u>문화소외계층</u>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양한 이유(사회경제적, 지리적, 신체적 또는 정신적, 연령, 시간제약 등의 요인)로 인해 문화적 활동에 참여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매우 그렇다 (문화소외계층이다) ←			→	전혀 그렇지 않다 (문화소외계층이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Q5. 귀하께서는 현재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행					행복
①	②	③	④	⑤	⑦

Part 3 결혼 및 자녀 계획

Q1. 결혼 의향이 있으십니까? (→ SQ3. 결혼상태에서 ① 미혼, ③ 배우자 없음(사별, 이혼, 기타 등)만 응답)

① 예 ☞ ① 응답자는 Q2로 이동

② 아니오 ☞ ② 응답자는 Q1-1로 이동

Q1-1. (② 아니오 응답자만) 결혼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3순위까지 선택 후 모든 지문에 대해 동의정도 표시)

결혼 의향이 없는 이유	Q1-1. 1-3순위 응답	Q1-2. 동의 정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경제적 부담 - 결혼 준비와 이후 생활에 드는 비용 부담		①	②	③	④	⑤
개인 생활 선호 - 개인의 자유와 독립적인 생활이 만족스럽기 때문		①	②	③	④	⑤
결혼 제도에 대한 회의감 -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회의감		①	②	③	④	⑤
직장/커리어 문제 - 경력단절 우려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결혼으로 인한 가족관계, 역할 등에 대한 부담 - 결혼으로 인한 새로운 관계, 역할, 가사 등에 대한 부담		①	②	③	④	⑤
기타(적을 것:)		①	②	③	④	⑤

Q2. 향후 자녀 출산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② 응답자는 Q2-1로 이동

Q2-1. (② 아니오 응답자만) 자녀 출산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1-3순위까지 선택 후, 모든 지문에 대해 동의정도 표시)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이유	Q2-1. 1-3순위 응답	Q2-2. 동의 정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경제적 부담 -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드는 비용 부담		①	②	③	④	⑤
육아의 부담감 - 육아의 책임과 수고로움,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두려움		①	②	③	④	⑤
개인의 삶을 더 중시 - 개인의 자유와 여가, 삶의 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사회적 지원 부족 - 육아 지원 정책이나 사회적 지원의 부족		①	②	③	④	⑤
불확실성 - 본인의 향후 진로나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기타(적을 것:)		①	②	③	④	⑤

Part 4 인구위기 대응 문화정책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결혼 · 출산 기피, 돌봄, 정신건강 문제 등)을 해결하고,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해 문화정책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Q1. 저출산 문제를(결혼 · 출산 기피, 아이돌봄, 정신건강, 사회통합 등) 해결하는데 문화정책이 얼마나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기여할 수 없음 ←			→	매우 기여할 수 있음
①	②	③	④	⑤

Q2. 고령화 문제를(돌봄, 정신건강, 고립감 등) 해결하는데 문화정책이 얼마나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기여할 수 없음 ←			→	매우 기여할 수 있음
①	②	③	④	⑤

Q3. 다음은 '저출생 · 고령화 시대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문화정책'의 4대 분야 및 과제(안)입니다. 아래의 4대 분야 중 어느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저출생 · 고령화 시대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문화정책

1. 문화를 통한 긍정가치 확산
- 다양성존중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
- 돌봄 문화 확산

2. 문화를 통한 돌봄
- 가족 친화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대
- 문화소외계층의 향유권 보장
- 컬쳐에듀케어의 평생교육 체계 구축
- 일-여가 균형 환경 조성

3. 문화를 통한 치유
- 정신건강 예방 및 지원 인프라 구축
- 문화치유 인력 양성 및 배치

4.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 세대 간 교류 활성화
-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확대

① 문화를 통한 긍정가치 확산
② 문화를 통한 돌봄
③ 문화를 통한 치유
④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Q4. 다음의 '4대 분야별 문화정책 과제'에 대해 각각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출생 · 고령화 대응 4대 핵심분야		주요 과제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조금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문화를 통한 긍정가치 확산	△ 다양성존중 문화 확대 - 다양한 가족 형태, 성공의 기준, 세대별 사고방식을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①	②	③	④	⑤
		△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 - 불평등 인식, 과도한 경쟁심리, 양육에 대한 부담 등을 완화하는 캠페인	①	②	③	④	⑤
		△ 돌봄 문화 확산 - 전생애를 대상으로 자기 돌봄, 타인 돌봄, 약자 돌봄 교육 및 문화 확산	①	②	③	④	⑤
2	문화를 통한 돌봄	△ 가족 친화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대 - 자녀가 있는 부모, 돌봄청년 등이 제약없이 문화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①	②	③	④	⑤
		△ 문화소외계층의 향유권 보장 - 지역, 소득, 연령 등 모든 계층이 쉽게 문화예술 활동과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①	②	③	④	⑤
		△ '컬쳐에듀케어'의 평생교육체계 구축 - 영유아부터 고령자까지 문화예술 현장에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 마련	①	②	③	④	⑤
		△ 일-여가 균형 환경 조성 - 일-여가 균형 지원(직장 내 돌봄, 문화향유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	①	②	③	④	⑤
3	문화를 통한 치유	△ 정신건강 예방 및 지원 인프라 구축 - 근접 문화시설을 활용한 정신건강 진단 및 치료 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⑤
		△ 문화치유 인력 양성 및 배치 - 예술치료사 등과 같은 전문인력 관리 및 배치	①	②	③	④	⑤
4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 세대 간 교류 활성화 -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문화 프로그램 지원	①	②	③	④	⑤
		△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확대 -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 활동을 통해 사회적 연대 강화	①	②	③	④	⑤

Q5. 귀하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① 미취학 아동 ② 학령기 청소년
③ 결혼하지 않은 청년세대 ④ 결혼은 했지만 자녀는 없는 부부
⑤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⑥ 중장년층
⑦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성인자녀 ⑧ 고령자
⑨ 기타 (적을 것: _____)

Q6. 귀하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정책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방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① 캠페인 활동 (예. 국민 인식 및 가치관 변화 캠페인)
② 시설 및 공간 구축 (예.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을 활용한 돌봄, 치료 인프라 구축)
③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예: 예술과 문화를 통한 자녀 교육 및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④ 인력 양성 및 지원 (예: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돌봄, 교육이 가능한 전문가 양성 및 매칭)
⑤ 재정적 지원 (예. 육아와 관련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비 지원)
⑥ 기타 (적을 것: _____)

Q7. 귀하는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① 미취학 아동 ② 학령기 청소년
③ 결혼하지 않은 청년세대 ④ 결혼은 했지만 자녀는 없는 부부
⑤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⑥ 중장년층
⑦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성인자녀 ⑧ 고령자
⑨ 기타 (적을 것: _____)

Q8. 귀하는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정책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방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① 캠페인 활동 (예. 국민 인식 및 가치관 변화 캠페인)
② 시설 및 공간 구축 (예.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을 활용한 돌봄, 치료 인프라 구축)
③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예: 예술과 문화를 통한 고령자 돌봄 및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④ 인력 양성 및 지원 (예: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돌봄, 교육이 가능한 전문가 양성 및 매칭)
⑤ 재정적 지원 (예. 여가활동 관련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용 지원)
⑥ 기타 (적을 것: _____)

Q9.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한다면, 어떤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제안 부탁드립니다.

Part 5 저출생 · 고령화 인식개선 방안

Q1. 귀하께서는 방송, SNS 등 미디어가 결혼 및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Q2. 결혼 및 출산을 주제로 한 방송, SNS 컨텐츠 등 미디어를 통한 인식제고 캠페인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Q2-1. 그렇다면 저출생 문제 관련하여 어떤 주제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캠페인 주제	Q2-1. 1-3순위 응답	Q2-2. 동의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비교하지 않는 문화 조성 - 타인과 비교하는 문화가 아닌, 개인의 고유한 가치와 기준이 인정받는 문화 조성, 1등이 아니어도 된다는 인식 제고, 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삶의 방식 소개 등		①	②	③	④	⑤
자녀는 사회와 함께 키운다는 인식 확산 - 자녀 양육의 부담을 엄마 또는 부모에게만 지우지 않고, 사회 전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메세지 강조 등		①	②	③	④	⑤
육아의 기쁨과 보람 강조 - 육아가 힘들다는 인식을 낮추고, 육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경험과 기쁨을 부각시키는 캠페인 등		①	②	③	④	⑤
불평등 해소와 평등한 사회 조성 -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 등		①	②	③	④	⑤
가족의 다양성 존중 - 다양한 가족 형태와 그 가치들을 존중하며,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 등		①	②	③	④	⑤
기타 (구체적으로 응답)		①	②	③	④	⑤

Q2-3. (Q2-1에서 응답한 3개 주제에 대해서만) 응답하신 주제에 대해 인식개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이나 콘텐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Q3. 고령화 사회 대응과 고령자를 주제로 한 방송, SNS 컨텐츠 등 미디어를 통한 인식제고 캠페인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Q3-1. 그렇다면 고령화 문제 관련하여 어떤 주제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캠페인 주제	Q3-1. 1-3순위 응답	Q3-2. 동의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세대 간 이해와 존중하는 문화 조성 - 세대 간 교류와 소통을 촉진하고, 다양한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 조성 등		①	②	③	④	⑤
고령자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 강조 - 고령자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방식과 그 가치를 조명하여(예. 선배시민), 고령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 등		①	②	③	④	⑤
'활기찬 노년, 새로운 시작' 캠페인 - 고령자의 활기찬 삶과 다양한 활동을 강조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고, 일할수 있다는 메시지 강조		①	②	③	④	⑤
모두를 위한 나이듦 - 고령화는 모든 사람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강조하고, 이를 준비하는 사회적 지원, 개인적 준비의 중요성 강조		①	②	③	④	⑤
기타 (구체적으로 응답)		①	②	③	④	⑤

Q4. (Q3-1에서 응답한 3개 주제에 대해서만) 응답하신 주제에 대해 인식개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이나 콘텐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Part 6 응답자 배경 문항

DQ1. 귀하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③ 자영업자
④ 가족종사자
⑤ 기타(적을 것: _____)

DQ2. 월평균 소득(지난 1년 동안 세금 공제 전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DQ2-1 본인 소득: / DQ2-2 가구 소득:)

① 소득없음
② 월평균 100만원 미만
③ 월평균 100만원 ~ 200만원 미만
④ 월평균 200만원 ~ 300만원 미만
⑤ 월평균 300만원 ~ 400만원 미만
⑥ 월평균 400만원 ~ 500만원 미만
⑦ 월평균 500만원 ~ 600만원 미만
⑧ 월평균 600만원 ~ 700만원 미만
⑨ 월평균 700만원 ~ 800만원 미만
⑩ 월평균 800만원 ~ 900만원 미만
⑪ 월평균 900만원 ~ 1,000만원 미만
⑬ 월평균 1,000만원 이상

DQ3. 귀하의 교육 수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및 졸업
④ 대학원 재학 또는 수료(졸업)

긴 시간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2

주요 통계표

〈부표 1〉 주관적 경제 수준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부정(1+2)	보통(3)	긍정(4+5)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000	29.5	48.1	22.4	2.90	47.4
성별	남성	507	29.8	46.0	24.3	2.91	47.6
	여성	493	29.2	50.3	20.5	2.88	47.1
연령	20대	165	26.1	44.2	29.7	3.02	50.5
	30대	178	23.6	46.1	30.3	3.08	52.1
	40대	211	27.5	48.8	23.7	2.95	48.7
	50대	236	35.2	47.9	16.9	2.75	43.8
	60세 이상	210	32.9	52.4	14.8	2.75	43.7
결혼상태	미혼	296	39.9	42.2	17.9	2.70	42.6
	배우자 있음	633	24.0	51.0	25.0	3.00	50.0
	배우자 없음	71	35.2	46.5	18.3	2.75	43.7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25	26.1	50.7	23.2	2.96	48.9
	자녀 없음	79	17.7	49.4	32.9	3.14	53.5
가족형태	동거인 없음	129	38.8	38.0	23.3	2.74	43.6
	배우자	610	24.6	51.1	24.3	2.99	49.7
	미취학아동	94	16.0	45.7	38.3	3.29	57.2
	취학 자녀	200	21.0	50.0	29.0	3.11	52.8
	성인 자녀	248	30.2	53.2	16.5	2.81	45.3
	부모님	227	37.4	44.9	17.6	2.74	43.5
	기타	22	54.5	45.5	0.0	2.41	35.2
돌봄가족 여부	있음	248	24.2	43.1	32.7	3.12	52.9
	없음	752	31.3	49.7	19.0	2.82	45.5
사회 불평등 인식	불평등	617	39.2	50.9	9.9	2.63	40.8
	평등	383	13.8	43.6	42.6	3.32	57.9
문화 소외계층 인식	비동의	335	57.3	37.9	4.8	2.32	33.0
	동의	665	15.5	53.2	31.3	3.18	54.6

〈부표 2〉 문화 소외계층 인식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부정(1+2+3)	긍정(4+5+6)	6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000	33.5	66.5	3.82	56.4
성별	남성	507	32.5	67.5	3.81	56.2
	여성	493	34.5	65.5	3.83	56.7
연령	20대	165	29.7	70.3	3.91	58.2
	30대	178	25.8	74.2	3.98	59.7
	40대	211	30.3	69.7	3.90	58.0
	50대	236	36.9	63.1	3.70	54.0
	60세 이상	210	42.4	57.6	3.68	53.5
결혼상태	미혼	296	38.2	61.8	3.69	53.7
	배우자 있음	633	29.5	70.5	3.92	58.5
	배우자 없음	71	49.3	50.7	3.49	49.9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25	32.3	67.7	3.87	57.4
	자녀 없음	79	25.3	74.7	3.96	59.2
가족형태	동거인 없음	129	39.5	60.5	3.67	53.3
	배우자	610	30.2	69.8	3.91	58.2
	미취학아동	94	24.5	75.5	3.96	59.1
	취학 자녀	200	24.0	76.0	4.04	60.8
	성인 자녀	248	37.1	62.9	3.76	55.2
	부모님	227	38.3	61.7	3.69	53.8
	기타	22	22.7	77.3	3.86	57.3
돌봄가족 여부	있음	248	27.0	73.0	3.96	59.1
	없음	752	35.6	64.4	3.78	55.6
사회 불평등 인식	불평등	617	42.5	57.5	3.64	52.7
	평등	383	19.1	80.9	4.12	62.5
문화 소외계층 인식	비동의	335	100.0	0.0	2.48	29.6
	동의	665	0.0	100.0	4.50	70.0

〈부표 3〉 결혼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367	36.0	64.0
성별	남성	183	44.8	55.2
	여성	184	27.2	72.8
연령	20대	130	53.8	46.2
	30대	70	37.1	62.9
	40대	80	26.3	73.8
	50대	51	27.5	72.5
	60세 이상	36	2.8	97.2
결혼상태	미혼	296	40.5	59.5
	배우자 없음	71	16.9	83.1
자녀 유무	자녀 있음	48	16.7	83.3
	자녀 없음	23	17.4	82.6
가족형태	동거인 없음	125	27.2	72.8
	미취학아동	1	0.0	100.0
	취학 자녀	4	0.0	100.0
	성인 자녀	22	9.1	90.9
	부모님	206	45.6	54.4
	기타	19	31.6	68.4
돌봄가족 여부	있음	74	51.4	48.6
	없음	293	32.1	67.9
사회 불평등 인식	불평등	239	31.0	69.0
	평등	128	45.3	54.7
문화 소외계층 인식	비동의	148	31.8	68.2
	동의	219	38.8	61.2

〈부표 4〉 결혼 의향이 없는 이유

(단위: %)

구분	개인 생활 선호 때문에	결혼으로 인한 가족관계, 역할 등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 제도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직장/커리어 문제 때문에	기타
1순위	43.8	13.6	27.2	8.1	4.3	3.0
1+2순위	70.2	37.4	43.0	33.2	13.2	3.0
1+2+3순위	85.1	68.5	60.4	59.6	22.1	4.3

〈부표 5〉 결혼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개인 생활 선호 때문에	결혼 제도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직장/ 커리어 문제 때문에	결혼으로 인한 가족 관계, 역할 등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타
전체		235	27.2	43.8	8.1	4.3	13.6	3.0
성별	남성	101	41.6	31.7	9.9	3.0	12.9	1.0
	여성	134	16.4	53.0	6.7	5.2	14.2	4.5
연령	20대	60	33.3	35.0	10.0	5.0	13.3	3.3
	30대	44	25.0	45.5	11.4	6.8	9.1	2.3
	40대	59	37.3	40.7	5.1	1.7	11.9	3.4
	50대	37	24.3	51.4	2.7	8.1	10.8	2.7
	60세 이상	35	5.7	54.3	11.4	0.0	25.7	2.9
결혼상태	미혼	176	33.0	41.5	6.8	3.4	12.5	2.8
	배우자 없음	59	10.2	50.8	11.9	6.8	16.9	3.4
자녀 유무	자녀 있음	40	12.5	50.0	5.0	5.0	22.5	5.0
	자녀 없음	19	5.3	52.6	26.3	10.5	5.3	0.0
가족형태	동거인 없음	91	22.0	44.0	8.8	3.3	20.9	1.1
	미취학아동	1	0.0	100.0	0.0	0.0	0.0	0.0
	취학 자녀	4	0.0	50.0	0.0	25.0	0.0	25.0
	성인 자녀	20	5.0	75.0	10.0	0.0	10.0	0.0
	부모님	112	37.5	36.6	8.9	5.4	7.1	4.5
	기타	13	7.7	61.5	0.0	0.0	23.1	7.7
돌봄가족 여부	있음	36	38.9	30.6	2.8	5.6	19.4	2.8
	없음	199	25.1	46.2	9.0	4.0	12.6	3.0
사회 불평등 인식	불평등	165	27.9	41.8	7.9	3.0	15.8	3.6
	평등	70	25.7	48.6	8.6	7.1	8.6	1.4
문화 소외계층 인식	비동의	101	33.7	37.6	7.9	4.0	12.9	4.0
	동의	134	22.4	48.5	8.2	4.5	14.2	2.2

〈부표 6〉 자녀 출산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1000	19.7	80.3
성별	남성	507	23.9	76.1
	여성	493	15.4	84.6
연령	20대	165	47.9	52.1
	30대	178	42.1	57.9
	40대	211	17.1	82.9
	50대	236	3.0	97.0
	60세 이상	210	0.0	100.0
결혼상태	미혼	296	32.8	67.2
	배우자 있음	633	15.3	84.7
	배우자 없음	71	4.2	95.8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25	12.0	88.0
	자녀 없음	79	31.6	68.4
가족형태	동거인 없음	129	21.7	78.3
	배우자	610	15.1	84.9
	미취학아동	94	46.8	53.2
	취학 자녀	200	17.5	82.5
	성인 자녀	248	1.2	98.8
	부모님	227	34.4	65.6
	기타	22	22.7	77.3
돌봄가족 여부	있음	248	32.7	67.3
	없음	752	15.4	84.6
사회 불평등 인식	불평등	617	14.6	85.4
	평등	383	27.9	72.1
문화 소외계층 인식	비동의	335	13.7	86.3
	동의	665	22.7	77.3

〈부표 7〉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이유

(단위: %)

구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육아의 부담감 때문에	개인의 삶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기타
1순위	33.5	17.8	17.3	14.6	4.0	12.8
1+2순위	53.2	55.7	32.6	31.0	14.6	13.0
1+2+3순위	71.9	75.2	54.3	52.1	32.8	13.8

〈부표 8〉 자녀 출산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1순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육아의 부담감 때문에	개인의 삶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기타
전체		803	33.5	17.8	17.3	4.0	14.6	12.8
성별	남성	386	38.9	17.9	14.0	4.1	15.5	9.6
	여성	417	28.5	17.7	20.4	3.8	13.7	15.8
연령	20대	86	40.7	26.7	23.3	2.3	4.7	2.3
	30대	103	45.6	24.3	17.5	2.9	8.7	1.0
	40대	175	38.3	17.7	20.6	5.1	12.0	6.3
	50대	229	33.2	17.5	12.2	2.2	17.0	17.9
	60세 이상	210	21.0	11.4	17.6	6.2	21.0	22.9
결혼상태	미혼	199	34.2	19.1	26.1	3.0	13.1	4.5
	배우자 없음	536	34.5	17.9	11.8	4.7	14.6	16.6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8	23.5	13.2	35.3	1.5	19.1	7.4
	자녀 없음	550	34.2	16.5	13.3	4.4	15.5	16.2
가족형태	동거인 없음	54	24.1	25.9	25.9	3.7	11.1	9.3
	미취학아동	101	27.7	19.8	28.7	4.0	15.8	4.0
	취학 자녀	518	34.7	17.8	11.8	4.6	14.3	16.8
	성인 자녀	50	62.0	22.0	8.0	4.0	2.0	2.0
	부모님	165	47.9	19.4	10.9	4.8	8.5	8.5
	기타	245	26.1	15.5	16.7	3.3	20.4	18.0
돌봄가족 여부	있음	149	38.9	16.1	26.2	1.3	12.1	5.4
	없음	17	5.9	5.9	23.5	5.9	29.4	29.4
사회 불평등 인식	불평등	167	45.5	25.1	11.4	3.0	8.4	6.6
	평등	636	30.3	15.9	18.9	4.2	16.2	14.5
문화 소외계층 인식	비동의	527	34.5	14.8	17.6	3.6	15.6	13.9
	동의	276	31.5	23.6	16.7	4.7	12.7	10.9

〈부표 9〉 문화정책의 저출산 문제 해결 기여도(1)

(단위: %, 점)

전혀 기여할 수 없음		↔		매우 기여할 수 있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3.5	13.5	34.8	40.3	7.9	3.36	58.9

〈부표 10〉 문화정책의 저출산 문제 해결 기여도(2)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부정(1+2)	보통(3)	긍정(4+5)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000	17.0	34.8	48.2	3.36	58.9
성별	남성	507	16.2	35.7	48.1	3.38	59.5
	여성	493	17.8	33.9	48.3	3.33	58.3
연령	20대	165	13.3	38.8	47.9	3.40	60.0
	30대	178	19.1	34.3	46.6	3.32	58.0
	40대	211	19.9	34.6	45.5	3.29	57.2
	50대	236	16.1	31.8	52.1	3.41	60.2
	60세 이상	210	16.2	35.7	48.1	3.36	59.0
결혼상태	미혼	296	20.3	42.9	36.8	3.17	54.2
	배우자 있음	633	15.5	31.4	53.1	3.44	61.0
	배우자 없음	71	16.9	31.0	52.1	3.39	59.9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25	15.4	31.5	53.1	3.44	61.0
	자녀 없음	79	17.7	30.4	51.9	3.39	59.8
가족형태	동거인 없음	129	22.5	40.3	37.2	3.15	53.7
	배우자	610	15.6	31.1	53.3	3.44	61.0
	미취학아동	94	11.7	25.5	62.8	3.66	66.5
	취학 자녀	200	17.0	31.0	52.0	3.40	59.9
	성인 자녀	248	14.9	33.1	52.0	3.40	59.9
	부모님	227	17.2	40.5	42.3	3.27	56.7
	기타	22	31.8	31.8	36.4	3.00	50.0
돌봄가족 여부	있음	248	14.5	30.2	55.2	3.50	62.5
	없음	752	17.8	36.3	45.9	3.31	57.7
사회 불평등 인식	불평등	617	22.7	37.1	40.2	3.19	54.9
	평등	383	7.8	31.1	61.1	3.62	65.4
문화 소외계층 인식	비동의	335	22.1	45.1	32.8	3.10	52.5
	동의	665	14.4	29.6	55.9	3.49	62.1

〈부표 11〉 문화정책의 고령화 문제 해결 기여도(1)

(단위: %, 점)

전혀 기여할 수 없음		↔		매우 기여할 수 있음	5점 평균	100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3.5	9.5	37.9	39.9	9.2	3.42	60.5

〈부표 12〉 문화정책의 고령화 문제 해결 기여도(2)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부정(1+2)	보통(3)	긍정(4+5)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000	13.0	37.9	49.1	3.42	60.5
성별	남성	507	13.8	37.7	48.5	3.40	60.0
	여성	493	12.2	38.1	49.7	3.44	60.9
연령	20대	165	12.7	42.4	44.8	3.36	58.9
	30대	178	11.8	38.8	49.4	3.41	60.3
	40대	211	16.1	38.4	45.5	3.33	58.3
	50대	236	12.7	32.6	54.7	3.52	63.0
	60세 이상	210	11.4	39.0	49.5	3.44	61.1
결혼상태	미혼	296	15.2	40.2	44.6	3.33	58.4
	배우자 있음	633	12.5	36.0	51.5	3.45	61.4
	배우자 없음	71	8.5	45.1	46.5	3.44	60.9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25	11.8	35.7	52.5	3.47	61.8
	자녀 없음	79	13.9	46.8	39.2	3.30	57.6
가족형태	동거인 없음	129	17.1	40.3	42.6	3.27	56.8
	배우자	610	12.6	35.6	51.8	3.46	61.4
	미취학아동	94	9.6	41.5	48.9	3.47	61.7
	취학 자녀	200	14.5	37.5	48.0	3.37	59.3
	성인 자녀	248	11.3	36.3	52.4	3.48	62.0
	부모님	227	11.9	42.7	45.4	3.41	60.1
	기타	22	13.6	40.9	45.5	3.36	59.1
돌봄가족 여부	있음	248	11.3	33.1	55.6	3.54	63.6
	없음	752	13.6	39.5	46.9	3.38	59.4
사회 불평등 인식	불평등	617	17.2	37.0	45.9	3.33	58.3
	평등	383	6.3	39.4	54.3	3.56	64.0
문화 소외계층 인식	비동의	335	17.3	43.6	39.1	3.23	55.8
	동의	665	10.8	35.0	54.1	3.51	62.8

〈부표 13〉 저출생 고령화 시대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문화정책 중요성(1순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문화를 통한 긍정가치 확산	문화를 통한 돌봄	문화를 통한 치유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전체		1000	29.9	44.5	13.7	11.9
성별	남성	507	29.8	43.8	13.6	12.8
	여성	493	30.0	45.2	13.8	11.0
연령	20대	165	26.1	42.4	17.6	13.9
	30대	178	25.3	51.1	13.5	10.1
	40대	211	28.0	49.8	14.2	8.1
	50대	236	31.4	41.5	14.4	12.7
	60세 이상	210	37.1	38.6	9.5	14.8
결혼상태	미혼	296	27.4	41.6	19.3	11.8
	배우자 있음	633	30.6	46.4	11.2	11.7
	배우자 없음	71	33.8	39.4	12.7	14.1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25	32.0	45.1	11.5	11.4
	자녀 없음	79	22.8	50.6	10.1	16.5
가족형태	동거인 없음	129	30.2	38.8	14.7	16.3
	배우자	610	31.3	46.1	11.1	11.5
	미취학아동	94	31.9	52.1	8.5	7.4
	취학 자녀	200	30.0	48.5	13.0	8.5
	성인 자녀	248	31.5	44.0	12.5	12.1
	부모님	227	25.1	44.1	19.8	11.0
	기타	22	18.2	59.1	13.6	9.1
돌봄가족 여부	있음	248	33.9	47.2	12.5	6.5
	없음	752	28.6	43.6	14.1	13.7
사회 불평등 인식	불평등	617	28.0	43.1	14.4	14.4
	평등	383	32.9	46.7	12.5	7.8
문화 소외계층 인식	비동의	335	29.0	41.2	15.8	14.0
	동의	665	30.4	46.2	12.6	10.8

〈부표 14〉 (문화정책 필요성) 다양성존중 문화 확대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부정(1+2)	보통(3)	긍정(4+5)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000	7.3	34.3	58.4	3.66	66.5
성별	남성	507	8.7	34.9	56.4	3.62	65.6
	여성	493	5.9	33.7	60.4	3.70	67.4
연령	20대	165	9.1	36.4	54.5	3.59	64.8
	30대	178	7.9	38.8	53.4	3.53	63.3
	40대	211	4.3	32.2	63.5	3.80	69.9
	50대	236	8.1	30.5	61.4	3.69	67.3
	60세 이상	210	7.6	35.2	57.1	3.65	66.2
결혼상태	미혼	296	8.1	41.6	50.3	3.58	64.4
	배우자 있음	633	6.5	31.0	62.6	3.70	67.6
	배우자 없음	71	11.3	33.8	54.9	3.62	65.5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25	6.2	31.7	62.1	3.71	67.8
	자녀 없음	79	12.7	27.8	59.5	3.56	63.9
가족형태	동거인 없음	129	10.9	42.6	46.5	3.49	62.2
	배우자	610	6.6	30.8	62.6	3.70	67.5
	미취학아동	94	3.2	36.2	60.6	3.68	67.0
	취학 자녀	200	6.5	28.5	65.0	3.75	68.8
	성인 자녀	248	4.4	33.5	62.1	3.75	68.9
	부모님	227	8.4	38.3	53.3	3.63	65.7
	기타	22	4.5	36.4	59.1	3.68	67.0
돌봄가족 여부	있음	248	6.0	27.4	66.5	3.73	68.2
	없음	752	7.7	36.6	55.7	3.64	65.9
사회 불평등 인식	불평등	617	8.6	33.5	57.9	3.66	66.5
	평등	383	5.2	35.5	59.3	3.66	66.5
문화 소외계층 인식	비동의	335	10.1	39.1	50.7	3.53	63.3
	동의	665	5.9	31.9	62.3	3.72	68.1

〈부표 15〉 (문화정책 필요성)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부정(1+2)	보통(3)	긍정(4+5)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000	9.9	32.2	57.9	3.69	67.3
성별	남성	507	11.6	32.9	55.4	3.63	65.7
	여성	493	8.1	31.4	60.4	3.75	68.9
연령	20대	165	12.7	33.9	53.3	3.60	65.0
	30대	178	10.1	39.3	50.6	3.56	64.0
	40대	211	9.5	32.2	58.3	3.75	68.8
	50대	236	9.3	30.9	59.7	3.70	67.6
	60세 이상	210	8.6	26.2	65.2	3.80	69.9
결혼상태	미혼	296	9.8	34.1	56.1	3.68	67.0
	배우자 있음	633	9.3	31.3	59.4	3.71	67.8
	배우자 없음	71	15.5	32.4	52.1	3.56	64.1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25	9.3	30.7	60.0	3.72	68.1
	자녀 없음	79	15.2	36.7	48.1	3.48	62.0
가족형태	동거인 없음	129	15.5	27.1	57.4	3.64	65.9
	배우자	610	8.7	31.5	59.8	3.72	68.1
	미취학아동	94	11.7	35.1	53.2	3.66	66.5
	취학 자녀	200	10.5	39.5	50.0	3.57	64.3
	성인 자녀	248	7.3	28.6	64.1	3.80	70.1
	부모님	227	9.3	36.1	54.6	3.65	66.3
	기타	22	0.0	31.8	68.2	4.09	77.3
돌봄가족 여부	있음	248	8.9	33.9	57.3	3.68	66.9
	없음	752	10.2	31.6	58.1	3.70	67.4
사회 불평등 인식	불평등	617	9.2	30.1	60.6	3.76	69.0
	평등	383	11.0	35.5	53.5	3.58	64.4
문화 소외계층 인식	비동의	335	14.3	27.2	58.5	3.66	66.5
	동의	665	7.7	34.7	57.6	3.71	67.7

〈부표 16〉 (문화정책 필요성) 돌봄 문화 확산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부정(1+2)	보통(3)	긍정(4+5)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000	6.9	29.2	63.9	3.82	70.5
성별	남성	507	7.7	29.4	62.9	3.77	69.3
	여성	493	6.1	29.0	64.9	3.87	71.7
연령	20대	165	5.5	30.3	64.2	3.83	70.8
	30대	178	10.1	34.8	55.1	3.65	66.3
	40대	211	7.1	28.4	64.5	3.80	70.0
	50대	236	6.8	26.3	66.9	3.90	72.5
	60세 이상	210	5.2	27.6	67.1	3.88	71.9
결혼상태	미혼	296	6.1	34.8	59.1	3.76	69.1
	배우자 있음	633	7.0	26.7	66.4	3.85	71.3
	배우자 없음	71	9.9	28.2	62.0	3.75	68.7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25	7.2	26.7	66.1	3.85	71.3
	자녀 없음	79	7.6	27.8	64.6	3.76	69.0
가족형태	동거인 없음	129	7.8	32.6	59.7	3.72	68.0
	배우자	610	7.0	26.4	66.6	3.86	71.4
	미취학아동	94	6.4	31.9	61.7	3.79	69.7
	취학 자녀	200	8.5	26.5	65.0	3.81	70.1
	성인 자녀	248	6.9	25.8	67.3	3.86	71.6
	부모님	227	6.2	35.2	58.6	3.76	69.1
	기타	22	0.0	27.3	72.7	4.05	76.1
돌봄가족 여부	있음	248	7.3	30.6	62.1	3.82	70.6
	없음	752	6.8	28.7	64.5	3.82	70.4
사회 불평등 인식	불평등	617	6.5	27.4	66.1	3.87	71.8
	평등	383	7.6	32.1	60.3	3.73	68.3
문화 소외계층 인식	비동의	335	8.4	32.2	59.4	3.74	68.6
	동의	665	6.2	27.7	66.2	3.86	71.4

〈부표 17〉 (문화정책 필요성) 가족 친화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대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부정(1+2)	보통(3)	긍정(4+5)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000	8.9	33.0	58.1	3.68	66.9
성별	남성	507	9.9	32.9	57.2	3.63	65.8
	여성	493	7.9	33.1	59.0	3.72	68.0
연령	20대	165	13.9	35.8	50.3	3.55	63.8
	30대	178	6.7	34.8	58.4	3.72	68.1
	40대	211	9.5	33.6	56.9	3.67	66.8
	50대	236	8.5	29.2	62.3	3.73	68.2
	60세 이상	210	6.7	32.9	60.5	3.67	66.8
결혼상태	미혼	296	9.5	40.5	50.0	3.57	64.4
	배우자 있음	633	8.4	29.1	62.6	3.74	68.4
	배우자 없음	71	11.3	36.6	52.1	3.55	63.7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25	8.6	29.1	62.2	3.72	67.9
	자녀 없음	79	8.9	35.4	55.7	3.72	68.0
가족형태	동거인 없음	129	15.5	33.3	51.2	3.49	62.2
	배우자	610	8.0	29.0	63.0	3.75	68.6
	미취학아동	94	8.5	22.3	69.1	3.86	71.5
	취학 자녀	200	9.5	30.5	60.0	3.72	68.0
	성인 자녀	248	6.0	30.6	63.3	3.73	68.1
	부모님	227	7.0	43.2	49.8	3.62	65.5
	기타	22	4.5	31.8	63.6	3.82	70.5
돌봄가족 여부	있음	248	8.1	27.8	64.1	3.80	70.0
	없음	752	9.2	34.7	56.1	3.63	65.9
사회 불평등 인식	불평등	617	7.5	32.4	60.1	3.73	68.2
	평등	383	11.2	33.9	54.8	3.59	64.8
문화 소외계층 인식	비동의	335	11.3	34.0	54.6	3.59	64.8
	동의	665	7.7	32.5	59.8	3.72	67.9

〈부표 18〉 (문화정책 필요성) 문화소외계층의 향유권 보장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부정(1+2)	보통(3)	긍정(4+5)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000	8.4	34.5	57.1	3.64	66.0
성별	남성	507	10.5	35.9	53.6	3.58	64.4
	여성	493	6.3	33.1	60.6	3.71	67.6
연령	20대	165	7.9	30.9	61.2	3.70	67.6
	30대	178	9.6	39.9	50.6	3.53	63.3
	40대	211	10.0	31.8	58.3	3.67	66.8
	50대	236	6.4	31.8	61.9	3.72	68.0
	60세 이상	210	8.6	38.6	52.9	3.56	64.0
결혼상태	미혼	296	8.8	35.8	55.4	3.63	65.7
	배우자 있음	633	7.7	34.9	57.3	3.65	66.2
	배우자 없음	71	12.7	25.4	62.0	3.65	66.2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25	8.0	33.4	58.6	3.66	66.4
	자녀 없음	79	10.1	38.0	51.9	3.56	63.9
가족형태	동거인 없음	129	10.1	33.3	56.6	3.60	64.9
	배우자	610	7.5	35.2	57.2	3.65	66.2
	미취학아동	94	6.4	34.0	59.6	3.71	67.8
	취학 자녀	200	7.5	35.0	57.5	3.64	66.0
	성인 자녀	248	6.9	33.5	59.7	3.70	67.4
	부모님	227	9.7	36.1	54.2	3.61	65.3
	기타	22	0.0	18.2	81.8	4.05	76.1
돌봄가족 여부	있음	248	6.9	30.6	62.5	3.75	68.8
	없음	752	8.9	35.8	55.3	3.61	65.1
사회 불평등 인식	불평등	617	8.9	35.3	55.8	3.63	65.8
	평등	383	7.6	33.2	59.3	3.66	66.4
문화 소외계층 인식	비동의	335	9.6	37.0	53.4	3.59	64.7
	동의	665	7.8	33.2	58.9	3.67	66.7

〈부표 19〉 (문화정책 필요성) 컬쳐에듀케어의 평생교육체계 구축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부정(1+2)	보통(3)	긍정(4+5)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000	8.8	35.6	55.6	3.62	65.6
성별	남성	507	9.9	36.7	53.5	3.56	64.0
	여성	493	7.7	34.5	57.8	3.69	67.2
연령	20대	165	8.5	38.8	52.7	3.63	65.8
	30대	178	10.1	35.4	54.5	3.60	65.0
	40대	211	10.9	34.1	55.0	3.61	65.2
	50대	236	5.1	36.4	58.5	3.68	66.9
	60세 이상	210	10.0	33.8	56.2	3.59	64.6
결혼상태	미혼	296	9.1	41.6	49.3	3.57	64.4
	배우자 있음	633	8.5	34.0	57.5	3.63	65.8
	배우자 없음	71	9.9	25.4	64.8	3.73	68.3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25	8.3	33.8	57.9	3.65	66.2
	자녀 없음	79	11.4	27.8	60.8	3.58	64.6
가족형태	동거인 없음	129	13.2	31.8	55.0	3.58	64.5
	배우자	610	8.2	33.8	58.0	3.64	66.1
	미취학아동	94	9.6	36.2	54.3	3.60	64.9
	취학 자녀	200	6.5	35.0	58.5	3.69	67.1
	성인 자녀	248	7.7	33.1	59.3	3.65	66.3
	부모님	227	7.9	43.2	48.9	3.58	64.4
	기타	22	4.5	31.8	63.6	3.77	69.3
돌봄가족 여부	있음	248	7.3	37.1	55.6	3.66	66.5
	없음	752	9.3	35.1	55.6	3.61	65.2
사회 불평등 인식	불평등	617	9.6	33.9	56.6	3.64	65.9
	평등	383	7.6	38.4	54.0	3.60	64.9
문화 소외계층 인식	비동의	335	10.1	34.6	55.2	3.58	64.5
	동의	665	8.1	36.1	55.8	3.64	66.1

〈부표 20〉 (문화정책 필요성) 일-여가 균형 환경 조성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부정(1+2)	보통(3)	긍정(4+5)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000	7.9	29.7	62.4	3.78	69.6
성별	남성	507	9.5	30.2	60.4	3.73	68.1
	여성	493	6.3	29.2	64.5	3.84	71.0
연령	20대	165	10.9	33.3	55.8	3.66	66.5
	30대	178	9.6	27.0	63.5	3.77	69.2
	40대	211	9.5	31.3	59.2	3.73	68.2
	50대	236	7.6	26.7	65.7	3.85	71.2
	60세 이상	210	2.9	31.0	66.2	3.87	71.7
결혼상태	미혼	296	9.5	31.4	59.1	3.73	68.2
	배우자 있음	633	7.3	28.4	64.3	3.82	70.4
	배우자 없음	71	7.0	33.8	59.2	3.70	67.6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25	6.7	28.0	65.3	3.83	70.7
	자녀 없음	79	11.4	36.7	51.9	3.61	65.2
가족형태	동거인 없음	129	14.0	33.3	52.7	3.57	64.3
	배우자	610	6.9	29.0	64.1	3.82	70.5
	미취학아동	94	7.4	27.7	64.9	3.83	70.7
	취학 자녀	200	8.0	30.0	62.0	3.74	68.4
	성인 자녀	248	6.0	27.0	66.9	3.87	71.7
	부모님	227	8.4	29.5	62.1	3.78	69.4
	기타	22	0.0	18.2	81.8	4.27	81.8
돌봄가족 여부	있음	248	7.3	27.0	65.7	3.83	70.8
	없음	752	8.1	30.6	61.3	3.77	69.1
사회 불평등 인식	불평등	617	7.8	27.9	64.3	3.84	70.9
	평등	383	8.1	32.6	59.3	3.69	67.4
문화 소외계층 인식	비동의	335	7.5	33.4	59.1	3.73	68.3
	동의	665	8.1	27.8	64.1	3.81	70.2

〈부표 21〉 (문화정책 필요성) 정신건강 예방 및 지원 인프라 구축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부정(1+2)	보통(3)	긍정(4+5)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000	8.9	32.9	58.2	3.67	66.6
성별	남성	507	10.3	35.9	53.8	3.56	64.1
	여성	493	7.5	29.8	62.7	3.77	69.2
연령	20대	165	11.5	33.3	55.2	3.58	64.5
	30대	178	8.4	33.1	58.4	3.69	67.1
	40대	211	10.0	37.0	53.1	3.62	65.4
	50대	236	8.1	30.5	61.4	3.69	67.3
	60세 이상	210	7.1	31.0	61.9	3.73	68.3
결혼상태	미혼	296	9.8	35.8	54.4	3.61	65.2
	배우자 있음	633	8.5	31.8	59.7	3.69	67.2
	배우자 없음	71	8.5	31.0	60.6	3.69	67.3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25	8.2	31.8	60.0	3.69	67.3
	자녀 없음	79	11.4	30.4	58.2	3.66	66.5
가족형태	동거인 없음	129	11.6	38.0	50.4	3.53	63.2
	배우자	610	8.0	31.8	60.2	3.70	67.4
	미취학아동	94	10.6	30.9	58.5	3.68	67.0
	취학 자녀	200	8.0	36.0	56.0	3.64	65.9
	성인 자녀	248	6.9	33.5	59.7	3.69	67.3
	부모님	227	8.8	34.8	56.4	3.65	66.2
	기타	22	4.5	22.7	72.7	3.95	73.9
돌봄가족 여부	있음	248	7.7	33.1	59.3	3.70	67.5
	없음	752	9.3	32.8	57.8	3.65	66.3
사회 불평등 인식	불평등	617	8.8	31.3	60.0	3.71	67.7
	평등	383	9.1	35.5	55.4	3.60	64.9
문화 소외계층 인식	비동의	335	10.7	32.5	56.7	3.63	65.7
	동의	665	8.0	33.1	58.9	3.68	67.1

〈부표 22〉 (문화정책 필요성) 문화치유 인력 양성 및 배치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부정(1+2)	보통(3)	긍정(4+5)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000	9.0	40.8	50.2	3.54	63.5
성별	남성	507	10.5	44.4	45.2	3.44	60.9
	여성	493	7.5	37.1	55.4	3.64	66.0
연령	20대	165	9.7	42.4	47.9	3.51	62.7
	30대	178	8.4	37.6	53.9	3.56	63.9
	40대	211	6.2	40.3	53.6	3.62	65.5
	50대	236	11.0	41.9	47.0	3.49	62.2
	60세 이상	210	9.5	41.4	49.0	3.52	63.0
결혼상태	미혼	296	9.8	45.9	44.3	3.45	61.2
	배우자 있음	633	8.8	37.9	53.2	3.58	64.4
	배우자 없음	71	7.0	45.1	47.9	3.58	64.4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25	8.5	37.9	53.6	3.59	64.8
	자녀 없음	79	10.1	44.3	45.6	3.43	60.8
가족형태	동거인 없음	129	10.9	48.1	41.1	3.36	58.9
	배우자	610	8.4	37.5	54.1	3.59	64.8
	미취학아동	94	6.4	31.9	61.7	3.73	68.4
	취학 자녀	200	8.0	36.5	55.5	3.61	65.1
	성인 자녀	248	7.7	42.3	50.0	3.59	64.7
	부모님	227	9.3	44.9	45.8	3.49	62.3
	기타	22	0.0	40.9	59.1	3.77	69.3
돌봄가족 여부	있음	248	7.7	33.5	58.9	3.67	66.7
	없음	752	9.4	43.2	47.3	3.49	62.4
사회 불평등 인식	불평등	617	10.4	42.0	47.6	3.50	62.5
	평등	383	6.8	38.9	54.3	3.60	65.0
문화 소외계층 인식	비동의	335	12.5	44.5	43.0	3.41	60.3
	동의	665	7.2	38.9	53.8	3.60	65.0

〈부표 23〉 (문화정책 필요성) 세대 간 교류 활성화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부정(1+2)	보통(3)	긍정(4+5)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000	9.1	39.1	51.8	3.55	63.8
성별	남성	507	9.9	37.9	52.3	3.52	63.1
	여성	493	8.3	40.4	51.3	3.58	64.5
연령	20대	165	10.3	41.2	48.5	3.50	62.4
	30대	178	9.0	41.0	50.0	3.52	63.1
	40대	211	7.6	44.5	47.9	3.53	63.2
	50대	236	11.9	34.7	53.4	3.54	63.6
	60세 이상	210	6.7	35.2	58.1	3.65	66.3
결혼상태	미혼	296	8.8	46.6	44.6	3.46	61.6
	배우자 있음	633	8.5	36.7	54.8	3.59	64.8
	배우자 없음	71	15.5	29.6	54.9	3.55	63.7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25	8.5	35.5	56.0	3.62	65.4
	자녀 없음	79	15.2	39.2	45.6	3.35	58.9
가족형태	동거인 없음	129	13.2	44.2	42.6	3.34	58.5
	배우자	610	8.9	36.9	54.3	3.58	64.5
	미취학아동	94	8.5	36.2	55.3	3.62	65.4
	취학 자녀	200	9.0	39.0	52.0	3.57	64.1
	성인 자녀	248	9.3	33.5	57.3	3.60	65.1
	부모님	227	8.8	44.1	47.1	3.53	63.2
	기타	22	4.5	54.5	40.9	3.55	63.6
돌봄가족 여부	있음	248	7.7	41.9	50.4	3.58	64.4
	없음	752	9.6	38.2	52.3	3.54	63.6
사회 불평등 인식	불평등	617	9.1	41.3	49.6	3.53	63.3
	평등	383	9.1	35.5	55.4	3.58	64.5
문화 소외계층 인식	비동의	335	10.4	41.2	48.4	3.46	61.5
	동의	665	8.4	38.0	53.5	3.60	64.9

〈부표 24〉 (문화정책 필요성)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확대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부정(1+2)	보통(3)	긍정(4+5)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000	9.6	38.1	52.3	3.55	63.8
성별	남성	507	11.6	39.6	48.7	3.46	61.6
	여성	493	7.5	36.5	56.0	3.64	66.0
연령	20대	165	12.1	41.8	46.1	3.43	60.8
	30대	178	11.2	36.0	52.8	3.54	63.5
	40대	211	9.0	40.8	50.2	3.55	63.7
	50대	236	8.1	36.0	55.9	3.58	64.6
	60세 이상	210	8.6	36.7	54.8	3.61	65.4
결혼상태	미혼	296	12.2	43.9	43.9	3.43	60.7
	배우자 있음	633	8.2	36.7	55.1	3.59	64.7
	배우자 없음	71	11.3	26.8	62.0	3.70	67.6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25	7.4	36.8	55.8	3.62	65.5
	자녀 없음	79	17.7	26.6	55.7	3.44	61.1
가족형태	동거인 없음	129	14.7	39.5	45.7	3.39	59.7
	배우자	610	8.0	36.6	55.4	3.60	64.9
	미취학아동	94	4.3	41.5	54.3	3.63	65.7
	취학 자녀	200	7.5	40.5	52.0	3.58	64.5
	성인 자녀	248	7.7	39.1	53.2	3.57	64.3
	부모님	227	12.3	43.2	44.5	3.44	61.1
	기타	22	4.5	36.4	59.1	3.73	68.2
돌봄가족 여부	있음	248	9.3	33.1	57.7	3.62	65.5
	없음	752	9.7	39.8	50.5	3.53	63.2
사회 불평등 인식	불평등	617	9.4	38.1	52.5	3.56	64.1
	평등	383	9.9	38.1	52.0	3.53	63.2
문화 소외계층 인식	비동의	335	12.5	37.0	50.4	3.50	62.5
	동의	665	8.1	38.6	53.2	3.58	64.4

〈부표 25〉 저출생 문제 대응 문화정책 고려할 대상

(단위: %)

구분	결혼하지 않은 청년세대	결혼은 했지만 자녀는 없는 부부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중장년층	미취학 아동	학령기 청소년	고령자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성인자녀	기타
1순위	36.0	23.8	13.0	7.7	7.5	4.1	4.1	3.6	0.2
1+2순위	60.1	51.1	32.4	13.3	11.1	12.2	7.2	12.4	0.2

〈부표 26〉 저출생 문제 대응 문화정책 고려할 대상(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미취학 아동	학령기 청소년	결혼 하지 않은 청년 세대	결혼은 했지만 자녀는 없는 부부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중장년층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성인 자녀	고령자	기타
전체		1000	7.5	4.1	36.0	23.8	13.0	7.7	3.6	4.1	0.2
성별	남성	507	7.7	4.5	37.5	21.7	11.6	9.3	3.2	4.3	0.2
	여성	493	7.3	3.7	34.5	26.0	14.4	6.1	4.1	3.9	0.2
연령	20대	165	7.9	1.2	38.8	19.4	10.3	12.7	4.2	4.8	0.6
	30대	178	9.0	4.5	23.0	23.6	15.2	12.4	3.4	9.0	0.0
	40대	211	8.1	4.3	37.4	18.5	19.4	7.6	2.8	1.9	0.0
	50대	236	6.8	6.8	34.3	30.1	11.0	4.7	4.2	1.7	0.4
	60세 이상	210	6.2	2.9	45.2	25.7	9.0	3.3	3.3	4.3	0.0
결혼상태	미혼	296	8.1	4.1	38.5	18.9	11.8	8.4	4.4	5.4	0.3
	배우자 있음	633	7.1	3.6	35.9	26.1	14.4	6.8	2.8	3.2	0.2
	배우자 없음	71	8.5	8.5	26.8	23.9	5.6	12.7	7.0	7.0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25	7.2	4.5	36.0	25.6	14.4	6.4	3.0	2.7	0.2
	자녀 없음	79	7.6	1.3	26.6	27.8	6.3	15.2	5.1	10.1	0.0
가족형태	동거인 없음	129	8.5	4.7	35.7	22.5	9.3	7.0	1.6	9.3	1.6
	배우자	610	7.0	3.8	36.4	26.1	14.4	6.4	3.0	3.0	0.0
	미취학아동	94	12.8	3.2	19.1	24.5	21.3	13.8	1.1	4.3	0.0
	취학 자녀	200	7.0	4.5	33.5	20.5	21.5	8.0	3.0	2.0	0.0
	성인 자녀	248	7.3	4.4	41.9	24.6	10.9	5.2	3.6	2.0	0.0
	부모님	227	8.4	3.5	37.0	18.9	11.9	10.6	5.7	4.0	0.0
	기타	22	0.0	0.0	36.4	27.3	22.7	4.5	4.5	4.5	0.0
돌봄가족 여부	있음	248	10.9	5.2	30.2	23.0	12.1	11.7	2.8	4.0	0.0
	없음	752	6.4	3.7	37.9	24.1	13.3	6.4	3.9	4.1	0.3
사회 불평등 인식	불평등	617	7.1	4.1	38.6	25.1	14.4	4.4	3.6	2.6	0.2
	평등	383	8.1	4.2	31.9	21.7	10.7	13.1	3.7	6.5	0.3
문화 소외계층 인식	비동의	335	8.4	6.9	40.9	20.0	13.1	4.5	3.0	3.0	0.3
	동의	665	7.1	2.7	33.5	25.7	12.9	9.3	3.9	4.7	0.2

〈부표 27〉 저출생 문제 대응 문화정책 효과적 방식

(단위: %)

구분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인력 양성 및 지원	시설 및 공간 구축	캠페인 활동	기타
1순위	31.7	19.9	19.5	18.6	9.8	0.5
1+2순위	53.5	40.4	49.7	38.1	17.2	1.1

〈부표 28〉 저출생 문제 대응 문화정책 효과적 방식(1순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캠페인 활동	시설 및 공간 구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인력 양성 및 지원	재정적 지원	기타
전체		1000	9.8	18.6	19.9	19.5	31.7	0.5
성별	남성	507	9.3	20.5	18.5	19.1	32.1	0.4
	여성	493	10.3	16.6	21.3	19.9	31.2	0.6
연령	20대	165	6.1	23.6	24.2	18.8	26.1	1.2
	30대	178	11.8	23.6	20.2	19.7	24.7	0.0
	40대	211	10.9	14.7	22.3	19.0	32.7	0.5
	50대	236	12.3	16.1	19.9	18.2	33.1	0.4
	60세 이상	210	7.1	17.1	13.8	21.9	39.5	0.5
결혼상태	미혼	296	10.8	19.6	19.3	19.6	29.1	1.7
	배우자 있음	633	10.1	18.8	19.7	19.0	32.4	0.0
	배우자 없음	71	2.8	12.7	23.9	23.9	36.6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25	9.6	18.6	20.5	19.4	32.0	0.0
	자녀 없음	79	7.6	15.2	17.7	20.3	39.2	0.0
가족형태	동거인 없음	129	12.4	18.6	23.3	18.6	25.6	1.6
	배우자	610	10.0	19.2	19.2	19.2	32.5	0.0
	미취학아동	94	14.9	24.5	26.6	13.8	20.2	0.0
	취학 자녀	200	10.0	21.0	22.5	19.0	27.5	0.0
	성인 자녀	248	8.1	14.9	19.8	23.0	34.3	0.0
	부모님	227	8.4	18.5	17.6	21.6	33.0	0.9
	기타	22	0.0	13.6	22.7	18.2	40.9	4.5
돌봄가족 여부	있음	248	11.7	22.2	24.2	18.1	23.8	0.0
	없음	752	9.2	17.4	18.5	19.9	34.3	0.7
사회 불평등 인식	불평등	617	9.9	14.6	15.6	18.6	40.5	0.8
	평등	383	9.7	25.1	26.9	20.9	17.5	0.0
문화 소외계층 인식	비동의	335	11.3	17.9	14.9	17.9	36.4	1.5
	동의	665	9.0	18.9	22.4	20.3	29.3	0.0

〈부표 29〉 고령화 문제 대응 문화정책 고려할 대상

(단위: %)

구분	중장년층	고령자	결혼하지 않은 청년세대	결혼은 했지만 자녀는 없는 부부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성인 자녀	미취학 아동	학령기 청소년	기타
1순위	20.6	19.3	15.3	13.6	13.1	12.3	3.1	2.4	0.3
1+2순위	40.7	33.1	28.2	28.6	26.8	31.0	4.8	6.5	0.3

〈부표 30〉 고령화 문제 대응 문화정책 고려할 대상(1순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미취학 아동	학령기 청소년	결혼 하지 않은 청년 세대	결혼은 했지만 자녀는 없는 부부	현재 자녀를 양육 하고 있는 부모	중장년 층	부모를 부양 하고 있는 성인 자녀	고령자	기타
전체		1000	3.1	2.4	15.3	13.6	13.1	20.6	12.3	19.3	0.3
성별	남성	507	3.7	2.4	17.6	15.4	12.2	18.5	10.8	18.9	0.4
	여성	493	2.4	2.4	13.0	11.8	14.0	22.7	13.8	19.7	0.2
연령	20대	165	4.8	0.0	18.2	13.3	13.3	25.5	9.1	14.5	1.2
	30대	178	5.6	3.9	14.0	18.0	19.1	20.8	9.6	9.0	0.0
	40대	211	1.9	4.3	14.2	11.4	15.2	14.7	12.8	25.6	0.0
	50대	236	2.1	3.0	14.4	12.7	10.6	21.2	17.8	17.8	0.4
	60세 이상	210	1.9	0.5	16.2	13.3	8.6	21.9	10.5	27.1	0.0
결혼상태	미혼	296	4.4	2.0	15.5	10.8	12.2	19.6	13.9	20.9	0.7
	배우자 있음	633	2.5	2.5	15.6	15.5	14.2	20.1	12.2	17.2	0.2
	배우자 없음	71	2.8	2.8	11.3	8.5	7.0	29.6	7.0	31.0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25	2.2	2.9	14.9	14.9	13.1	21.0	11.7	19.2	0.2
	자녀 없음	79	5.1	0.0	17.7	13.9	16.5	21.5	11.4	13.9	0.0
가족형태	동거인 없음	129	3.9	2.3	16.3	12.4	11.6	17.8	8.5	25.6	1.6
	배우자	610	2.6	2.6	15.7	15.2	14.4	19.7	12.0	17.7	0.0
	미취학아동	94	4.3	6.4	12.8	19.1	25.5	18.1	5.3	8.5	0.0
	취학 자녀	200	2.0	5.0	16.0	15.5	17.0	18.0	11.5	15.0	0.0
	성인 자녀	248	1.6	2.0	14.5	13.3	8.5	23.0	16.9	20.2	0.0
	부모님	227	4.4	1.3	14.1	11.0	11.9	20.7	15.4	20.7	0.4
	기타	22	0.0	4.5	18.2	0.0	9.1	31.8	13.6	22.7	0.0
돌봄가족 여부	있음	248	4.4	3.6	16.1	17.7	19.4	16.5	8.1	14.1	0.0
	없음	752	2.7	2.0	15.0	12.2	11.0	21.9	13.7	21.0	0.4
사회 불평등 인식	불평등	617	2.8	1.6	15.1	10.5	12.0	20.4	13.1	24.3	0.2
	평등	383	3.7	3.7	15.7	18.5	14.9	20.9	11.0	11.2	0.5
문화 소외계층 인식	비동의	335	3.0	3.0	18.5	9.9	11.6	17.0	14.3	22.1	0.6
	동의	665	3.2	2.1	13.7	15.5	13.8	22.4	11.3	17.9	0.2

〈부표 31〉 고령화 문제 대응 문화정책 효과적 방식

(단위: %)

구분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시설 및 공간 구축	인력 양성 및 지원	캠페인 활동	기타
1순위	27.6	27.1	20.2	16.7	8.0	0.4
1+2순위	48.6	50.3	40.8	46.7	13.2	0.4

〈부표 32〉 고령화 문제 대응 문화정책 효과적 방식(1순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캠페인 활동	시설 및 공간 구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인력 양성 및 지원	재정적 지원	기타
전체		1000	8.0	20.2	27.1	16.7	27.6	0.4
성별	남성	507	8.3	23.3	25.0	16.6	26.2	0.6
	여성	493	7.7	17.0	29.2	16.8	29.0	0.2
연령	20대	165	9.1	24.8	29.7	18.8	16.4	1.2
	30대	178	6.7	22.5	31.5	17.4	21.3	0.6
	40대	211	7.1	17.5	27.5	19.4	28.4	0.0
	50대	236	8.5	22.0	21.2	14.0	33.9	0.4
	60세 이상	210	8.6	15.2	27.6	14.8	33.8	0.0
결혼상태	미혼	296	8.8	21.3	25.7	16.6	27.0	0.7
	배우자 있음	633	8.2	20.5	27.6	15.6	27.6	0.3
	배우자 없음	71	2.8	12.7	28.2	26.8	29.6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25	7.8	20.8	27.2	15.5	28.3	0.3
	자녀 없음	79	6.3	11.4	31.6	26.6	24.1	0.0
가족형태	동거인 없음	129	7.0	22.5	26.4	17.1	25.6	1.6
	배우자	610	8.4	20.7	27.4	15.4	28.0	0.2
	미취학아동	94	12.8	23.4	33.0	17.0	12.8	1.1
	취학 자녀	200	7.5	22.0	28.5	16.0	26.0	0.0
	성인 자녀	248	6.9	18.1	27.4	15.3	32.3	0.0
	부모님	227	8.4	17.2	26.4	20.3	27.3	0.4
	기타	22	4.5	18.2	22.7	4.5	50.0	0.0
돌봄가족 여부	있음	248	9.7	22.2	29.0	18.1	21.0	0.0
	없음	752	7.4	19.5	26.5	16.2	29.8	0.5
사회 불평등 인식	불평등	617	6.8	17.0	22.4	17.2	36.1	0.5
	평등	383	9.9	25.3	34.7	15.9	13.8	0.3
문화 소외계층 인식	비동의	335	8.7	18.2	21.8	19.1	31.3	0.9
	동의	665	7.7	21.2	29.8	15.5	25.7	0.2

〈부표 33〉 미디어의 결혼 및 출산 의향 영향 정도(1)

(단위: %, 점)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별로 그렇지 않다 ②	보통이다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1.9	5.9	28.1	45.1	19.0	3.73	68.4

〈부표 34〉 미디어의 결혼 및 출산 의향 영향 정도(2)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부정(1+2)	보통(3)	긍정(4+5)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000	7.8	28.1	64.1	3.73	68.4
성별	남성	507	7.5	28.4	64.1	3.74	68.5
	여성	493	8.1	27.8	64.1	3.73	68.2
연령	20대	165	5.5	29.7	64.8	3.78	69.5
	30대	178	7.9	31.5	60.7	3.71	67.8
	40대	211	12.3	25.6	62.1	3.62	65.5
	50대	236	5.5	29.7	64.8	3.76	69.1
	60세 이상	210	7.6	24.8	67.6	3.80	69.9
결혼상태	미혼	296	11.5	32.4	56.1	3.60	65.0
	배우자 있음	633	6.5	25.4	68.1	3.80	70.1
	배우자 없음	71	4.2	33.8	62.0	3.68	66.9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25	6.4	25.3	68.3	3.80	70.0
	자녀 없음	79	5.1	34.2	60.8	3.72	68.0
가족형태	동거인 없음	129	10.1	32.6	57.4	3.61	65.3
	배우자	610	6.7	24.1	69.2	3.81	70.3
	미취학아동	94	6.4	20.2	73.4	3.84	71.0
	취학 자녀	200	5.5	22.5	72.0	3.84	70.9
	성인 자녀	248	6.5	27.0	66.5	3.79	69.7
	부모님	227	8.8	33.5	57.7	3.64	66.1
	기타	22	18.2	31.8	50.0	3.36	59.1
돌봄가족 여부	있음	248	6.5	26.2	67.3	3.73	68.3
	없음	752	8.2	28.7	63.0	3.73	68.4
사회 불평등 인식	불평등	617	9.9	27.2	62.9	3.72	68.0
	평등	383	4.4	29.5	66.1	3.75	68.9
문화 소외계층 인식	비동의	335	12.2	28.4	59.4	3.63	65.7
	동의	665	5.6	28.0	66.5	3.79	69.7

〈부표 35〉 미디어를 통한 저출생 문제 인식제고 캠페인 필요성(1)

(단위: %, 점)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①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②	보통이다 ③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2.6	5.8	27.4	41.9	22.3	3.76	68.9

〈부표 36〉 미디어를 통한 저출생 문제 인식제고 캠페인 필요성(2)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부정(1+2)	보통(3)	긍정(4+5)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000	8.4	27.4	64.2	3.76	68.9
성별	남성	507	8.3	28.0	63.7	3.76	68.9
	여성	493	8.5	26.8	64.7	3.75	68.8
연령	20대	165	10.9	37.0	52.1	3.56	63.9
	30대	178	12.4	29.2	58.4	3.58	64.6
	40대	211	10.0	25.1	64.9	3.72	67.9
	50대	236	5.9	25.4	68.6	3.84	71.0
	60세 이상	210	4.3	22.9	72.9	4.00	75.0
결혼상태	미혼	296	15.2	35.8	49.0	3.45	61.2
	배우자 있음	633	5.5	23.4	71.1	3.90	72.4
	배우자 없음	71	5.6	28.2	66.2	3.77	69.4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25	5.0	22.4	72.6	3.92	73.0
	자녀 없음	79	10.1	35.4	54.4	3.59	64.9
가족형태	동거인 없음	129	10.1	38.0	51.9	3.58	64.5
	배우자	610	5.6	23.4	71.0	3.90	72.4
	미취학아동	94	5.3	25.5	69.1	3.85	71.3
	취학 자녀	200	6.5	24.5	69.0	3.83	70.6
	성인 자녀	248	3.2	23.0	73.8	3.94	73.6
	부모님	227	15.0	34.4	50.7	3.47	61.8
	기타	22	13.6	36.4	50.0	3.45	61.4
돌봄가족 여부	있음	248	6.5	22.2	71.4	3.87	71.7
	없음	752	9.0	29.1	61.8	3.72	68.0
사회 불평등 인식	불평등	617	10.5	25.4	64.0	3.75	68.7
	평등	383	5.0	30.5	64.5	3.77	69.1
문화 소외계층 인식	비동의	335	11.0	27.2	61.8	3.70	67.5
	동의	665	7.1	27.5	65.4	3.78	69.6

〈부표 37〉 저출생 문제 관련 인식개선 캠페인 주제

(단위: %)

구분	자녀는 사회와 함께 키운다는 인식 확산 캠페인	비교하지 않는 문화 조성 캠페인	육아의 기쁨과 보람 강조 캠페인	불평등 해소와 평등한 사회 조성 캠페인	가족의 다양성 존중 캠페인	기타
1순위	34.7	22.1	18.4	15.9	8.5	0.4
1+2순위	59.4	34.5	41.2	42.0	22.5	0.4
1+2+3순위	75.1	51.7	61.3	65.4	46.0	0.5

〈부표 38〉 저출생 문제 관련 인식개선 캠페인 주제(1순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비교하지 않는 문화 조성 캠페인	자녀는 사회와 함께 키운다는 인식 확산 캠페인	육아의 기쁨과 보람 강조 캠페인	불평등 해소와 평등한 사회 조성 캠페인	가족의 다양성 존중 캠페인	기타
전체		1000	22.1	34.7	18.4	15.9	8.5	0.4
성별	남성	507	23.1	34.1	18.5	15.0	8.7	0.6
	여성	493	21.1	35.3	18.3	16.8	8.3	0.2
연령	20대	165	34.5	27.9	17.0	17.6	2.4	0.6
	30대	178	27.5	32.6	18.0	15.2	5.6	1.1
	40대	211	20.9	38.9	14.2	16.1	10.0	0.0
	50대	236	15.7	38.1	21.2	14.4	10.2	0.4
	60세 이상	210	16.2	33.8	21.0	16.7	12.4	0.0
결혼상태	미혼	296	30.7	27.4	14.9	17.9	8.1	1.0
	배우자 있음	633	18.8	38.4	19.6	15.0	8.1	0.2
	배우자 없음	71	15.5	32.4	22.5	15.5	14.1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25	18.1	38.7	19.8	14.6	8.6	0.2
	자녀 없음	79	21.5	30.4	20.3	19.0	8.9	0.0
가족형태	동거인 없음	129	25.6	32.6	15.5	18.6	6.2	1.6
	배우자	610	18.7	38.4	19.3	15.1	8.4	0.2
	미취학아동	94	31.9	34.0	14.9	16.0	2.1	1.1
	취학 자녀	200	22.0	39.5	17.0	13.0	8.0	0.5
	성인 자녀	248	14.1	37.9	20.6	16.1	11.3	0.0
	부모님	227	30.4	25.6	18.5	15.9	9.3	0.4
	기타	22	27.3	27.3	13.6	22.7	9.1	0.0
돌봄가족 여부	있음	248	23.8	37.1	18.5	14.5	6.0	0.0
	없음	752	21.5	33.9	18.4	16.4	9.3	0.5
사회 불평등 인식	불평등	617	20.7	33.9	14.6	20.1	10.0	0.6
	평등	383	24.3	36.0	24.5	9.1	6.0	0.0
문화 소외계층 인식	비동의	335	23.3	31.0	15.2	19.1	10.1	1.2
	동의	665	21.5	36.5	20.0	14.3	7.7	0.0

〈부표 39〉 저출생 문제 해결위한 캠페인 필요성 항목별 응답분포

(단위: 명, %, 점)

항목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①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②	보통이다 ③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⑤	5점 평균(점)	100점 평균(점)
자녀는 사회와 함께 키운다는 인식 확산 캠페인	1.9	7.8	22.2	36.1	32.0	3.89	72.1
불평등 해소와 평등한 사회 조성 캠페인	2.2	6.2	24.9	40.7	26.0	3.82	70.5
비교하지 않는 문화 조성 캠페인	2.9	5.4	25.3	39.6	26.8	3.82	70.5
육아의 기쁨과 보람 강조 캠페인	3.5	6.8	27.0	37.1	25.6	3.75	68.6
가족의 다양성 존중 캠페인	2.7	8.3	28.5	38.1	22.4	3.69	67.3

〈부표 40〉 (캠페인 필요성) 비교하지 않는 문화 조성 캠페인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부정(1+2)	보통(3)	긍정(4+5)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000	8.3	25.3	66.4	3.82	70.5
성별	남성	507	10.3	25.4	64.3	3.75	68.8
	여성	493	6.3	25.2	68.6	3.89	72.2
연령	20대	165	13.9	24.8	61.2	3.67	66.8
	30대	178	11.2	23.0	65.7	3.78	69.5
	40대	211	6.2	24.6	69.2	3.90	72.5
	50대	236	7.6	27.5	64.8	3.78	69.5
	60세 이상	210	4.3	25.7	70.0	3.93	73.3
결혼상태	미혼	296	9.1	29.7	61.1	3.77	69.3
	배우자 있음	633	7.4	23.1	69.5	3.86	71.6
	배우자 없음	71	12.7	26.8	60.6	3.63	65.8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25	6.9	22.9	70.2	3.88	71.9
	자녀 없음	79	16.5	27.8	55.7	3.57	64.2
가족형태	동거인 없음	129	14.7	27.9	57.4	3.57	64.3
	배우자	610	6.9	23.4	69.7	3.87	71.8
	미취학아동	94	10.6	19.1	70.2	3.85	71.3
	취학 자녀	200	6.5	24.0	69.5	3.86	71.4
	성인 자녀	248	5.2	24.2	70.6	3.89	72.3
	부모님	227	8.8	28.2	63.0	3.81	70.3
	기타	22	4.5	18.2	77.3	4.05	76.1
돌봄가족 여부	있음	248	10.1	21.4	68.5	3.80	70.0
	없음	752	7.7	26.6	65.7	3.83	70.7
사회 불평등 인식	불평등	617	7.9	24.8	67.3	3.86	71.5
	평등	383	8.9	26.1	65.0	3.76	68.9
문화 소외계층 인식	비동의	335	9.0	29.0	62.1	3.76	69.0
	동의	665	8.0	23.5	68.6	3.85	71.3

〈부표 41〉 (캠페인 필요성) 자녀는 사회와 함께 키운다는 인식 확산 캠페인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부정(1+2)	보통(3)	긍정(4+5)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000	9.7	22.2	68.1	3.89	72.1
성별	남성	507	10.1	24.9	65.1	3.81	70.3
	여성	493	9.3	19.5	71.2	3.96	74.0
연령	20대	165	12.7	24.8	62.4	3.76	69.1
	30대	178	14.0	30.9	55.1	3.61	65.3
	40대	211	9.0	20.4	70.6	3.91	72.6
	50대	236	8.5	19.5	72.0	3.97	74.2
	60세 이상	210	5.7	17.6	76.7	4.10	77.5
결혼상태	미혼	296	10.1	24.0	65.9	3.82	70.4
	배우자 있음	633	9.5	21.2	69.4	3.92	73.0
	배우자 없음	71	9.9	23.9	66.2	3.86	71.5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25	9.1	20.5	70.4	3.93	73.4
	자녀 없음	79	12.7	29.1	58.2	3.75	68.7
가족형태	동거인 없음	129	13.2	22.5	64.3	3.81	70.2
	배우자	610	9.0	21.0	70.0	3.94	73.4
	미취학아동	94	16.0	25.5	58.5	3.65	66.2
	취학 자녀	200	12.5	24.0	63.5	3.75	68.6
	성인 자녀	248	5.6	17.7	76.6	4.07	76.7
	부모님	227	9.3	26.9	63.9	3.80	70.0
	기타	22	0.0	9.1	90.9	4.23	80.7
돌봄가족 여부	있음	248	12.1	27.4	60.5	3.77	69.3
	없음	752	8.9	20.5	70.6	3.92	73.1
사회 불평등 인식	불평등	617	9.7	17.8	72.4	3.96	74.0
	평등	383	9.7	29.2	61.1	3.77	69.1
문화 소외계층 인식	비동의	335	11.9	21.8	66.3	3.84	70.9
	동의	665	8.6	22.4	69.0	3.91	72.7

〈부표 42〉 (캠페인 필요성) 육아의 기쁨과 보람 강조 캠페인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부정(1+2)	보통(3)	긍정(4+5)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000	10.3	27.0	62.7	3.75	68.6
성별	남성	507	9.5	28.6	61.9	3.74	68.6
	여성	493	11.2	25.4	63.5	3.75	68.7
연령	20대	165	17.6	30.3	52.1	3.48	62.0
	30대	178	11.2	30.9	57.9	3.65	66.3
	40대	211	11.8	28.9	59.2	3.69	67.2
	50대	236	6.8	26.3	66.9	3.84	71.0
	60세 이상	210	6.2	20.0	73.8	3.99	74.6
결혼상태	미혼	296	14.5	31.1	54.4	3.53	63.3
	배우자 있음	633	8.1	24.3	67.6	3.87	71.7
	배우자 없음	71	12.7	33.8	53.5	3.54	63.4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25	8.0	24.6	67.4	3.86	71.5
	자녀 없음	79	12.7	30.4	57.0	3.62	65.5
가족형태	동거인 없음	129	14.7	28.7	56.6	3.60	65.1
	배우자	610	7.9	24.8	67.4	3.87	71.7
	미취학아동	94	13.8	22.3	63.8	3.74	68.6
	취학 자녀	200	11.5	26.5	62.0	3.75	68.6
	성인 자녀	248	6.0	21.8	72.2	3.90	72.5
	부모님	227	13.7	32.2	54.2	3.54	63.4
	기타	22	18.2	22.7	59.1	3.59	64.8
돌봄가족 여부	있음	248	9.7	27.0	63.3	3.81	70.2
	없음	752	10.5	27.0	62.5	3.72	68.1
사회 불평등 인식	불평등	617	11.7	25.8	62.6	3.73	68.2
	평등	383	8.1	29.0	62.9	3.77	69.3
문화 소외계층 인식	비동의	335	12.8	29.9	57.3	3.61	65.2
	동의	665	9.0	25.6	65.4	3.81	70.3

〈부표 43〉 (캠페인 필요성) 불평등 해소와 평등한 사회 조성 캠페인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부정(1+2)	보통(3)	긍정(4+5)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000	8.4	24.9	66.7	3.82	70.5
성별	남성	507	8.9	26.0	65.1	3.77	69.2
	여성	493	7.9	23.7	68.4	3.87	71.9
연령	20대	165	12.1	29.7	58.2	3.68	67.0
	30대	178	11.2	29.8	59.0	3.64	66.0
	40대	211	7.1	24.6	68.2	3.84	71.0
	50대	236	7.2	22.5	70.3	3.88	72.0
	60세 이상	210	5.7	20.0	74.3	4.00	75.0
결혼상태	미혼	296	7.8	29.1	63.2	3.79	69.7
	배우자 있음	633	8.7	22.7	68.6	3.83	70.9
	배우자 없음	71	8.5	26.8	64.8	3.85	71.1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25	8.0	22.1	69.9	3.86	71.6
	자녀 없음	79	13.9	31.6	54.4	3.61	65.2
가족형태	동거인 없음	129	9.3	25.6	65.1	3.80	70.0
	배우자	610	7.9	23.3	68.9	3.85	71.1
	미취학아동	94	16.0	22.3	61.7	3.63	65.7
	취학 자녀	200	7.5	24.0	68.5	3.78	69.5
	성인 자녀	248	3.6	23.8	72.6	3.98	74.6
	부모님	227	10.1	29.5	60.4	3.71	67.8
	기타	22	4.5	9.1	86.4	4.14	78.4
돌봄가족 여부	있음	248	11.3	28.2	60.5	3.66	66.5
	없음	752	7.4	23.8	68.8	3.87	71.8
사회 불평등 인식	불평등	617	6.6	20.6	72.8	3.97	74.1
	평등	383	11.2	31.9	56.9	3.59	64.7
문화 소외계층 인식	비동의	335	7.8	26.0	66.3	3.87	71.6
	동의	665	8.7	24.4	66.9	3.80	70.0

〈부표 44〉 (캠페인 필요성) 가족의 다양성 존중 캠페인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부정(1+2)	보통(3)	긍정(4+5)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000	11.0	28.5	60.5	3.69	67.3
성별	남성	507	11.6	30.0	58.4	3.64	66.1
	여성	493	10.3	27.0	62.7	3.74	68.6
연령	20대	165	7.9	32.7	59.4	3.67	66.8
	30대	178	16.3	38.2	45.5	3.42	60.5
	40대	211	11.4	26.1	62.6	3.75	68.8
	50대	236	12.7	28.0	59.3	3.64	66.1
	60세 이상	210	6.7	20.0	73.3	3.93	73.2
결혼상태	미혼	296	10.8	33.1	56.1	3.63	65.6
	배우자 있음	633	11.1	26.1	62.9	3.73	68.3
	배우자 없음	71	11.3	31.0	57.7	3.61	65.1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25	10.4	25.9	63.7	3.75	68.7
	자녀 없음	79	16.5	31.6	51.9	3.51	62.7
가족형태	동거인 없음	129	15.5	30.2	54.3	3.55	63.8
	배우자	610	11.0	26.1	63.0	3.74	68.4
	미취학아동	94	16.0	33.0	51.1	3.53	63.3
	취학 자녀	200	13.0	27.0	60.0	3.62	65.5
	성인 자녀	248	8.5	25.4	66.1	3.81	70.4
	부모님	227	10.1	33.0	56.8	3.62	65.5
	기타	22	4.5	27.3	68.2	3.91	72.7
돌봄가족 여부	있음	248	12.9	27.4	59.7	3.67	66.7
	없음	752	10.4	28.9	60.8	3.70	67.5
사회 불평등 인식	불평등	617	9.7	26.4	63.9	3.76	69.1
	평등	383	13.1	31.9	55.1	3.57	64.4
문화 소외계층 인식	비동의	335	9.9	29.0	61.2	3.71	67.8
	동의	665	11.6	28.3	60.2	3.68	67.1

〈부표 45〉 미디어를 통한 고령화 사회 인식제고 캠페인 필요성(1)

(단위: %, 점)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①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②	보통이다 ③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0.9	3.6	29.2	44.5	21.8	3.83	70.7

〈부표 46〉 미디어를 통한 고령화 사회 인식제고 캠페인 필요성(2)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부정(1+2)	보통(3)	긍정(4+5)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000	4.5	29.2	66.3	3.83	70.7
성별	남성	507	5.3	31.6	63.1	3.78	69.6
	여성	493	3.7	26.8	69.6	3.87	71.8
연령	20대	165	4.8	38.8	56.4	3.63	65.8
	30대	178	7.3	32.0	60.7	3.65	66.2
	40대	211	4.3	28.9	66.8	3.83	70.9
	50대	236	3.0	26.7	70.3	3.92	72.9
	60세 이상	210	3.8	22.4	73.8	4.03	75.7
결혼상태	미혼	296	6.1	38.5	55.4	3.64	66.0
	배우자 있음	633	4.1	23.9	72.0	3.90	72.6
	배우자 없음	71	1.4	38.0	60.6	3.92	72.9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25	3.5	22.7	73.8	3.95	73.8
	자녀 없음	79	6.3	45.6	48.1	3.54	63.6
가족형태	동거인 없음	129	8.5	37.2	54.3	3.63	65.7
	배우자	610	4.3	22.8	73.0	3.91	72.9
	미취학아동	94	7.4	22.3	70.2	3.77	69.1
	취학 자녀	200	2.0	22.5	75.5	3.92	72.9
	성인 자녀	248	3.6	22.2	74.2	3.98	74.5
	부모님	227	3.5	39.6	56.8	3.70	67.6
	기타	22	4.5	31.8	63.6	3.77	69.3
돌봄가족 여부	있음	248	3.6	24.6	71.8	3.89	72.3
	없음	752	4.8	30.7	64.5	3.81	70.1
사회 불평등 인식	불평등	617	6.0	30.1	63.9	3.80	70.1
	평등	383	2.1	27.7	70.2	3.87	71.7
문화 소외계층 인식	비동의	335	6.6	35.2	58.2	3.71	67.8
	동의	665	3.5	26.2	70.4	3.88	72.1

〈부표 47〉 고령화 문제 관련 인식개선 캠페인 주제

(단위: %)

구분	고령자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 강조 캠페인	활기찬 노년, 새로운 시작 캠페인	세대 간 이해와 존중하는 문화 조성 캠페인	모두가 겪는 인생의 여정, 준비하는 미래 캠페인	기타
1순위	29.9	24.4	23.5	21.5	0.7
1+2순위	56.4	57.4	40.8	44.6	0.8
1+2+3순위	77.4	82.4	65.6	73.7	0.9

〈부표 48〉 고령화 문제 관련 인식개선 캠페인 주제(1순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세대 간 이해와 존중하는 문화 조성 캠페인	고령자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 강조 캠페인	활기찬 노년, 새로운 시작 캠페인	모두가 겪는 인생의 여정, 준비하는 미래 캠페인	기타
전체		1000	23.5	29.9	24.4	21.5	0.7
성별	남성	507	21.7	33.3	22.7	21.3	1.0
	여성	493	25.4	26.4	26.2	21.7	0.4
연령	20대	165	19.4	32.1	26.7	20.0	1.8
	30대	178	28.7	29.8	24.2	16.9	0.6
	40대	211	25.6	28.9	24.6	20.4	0.5
	50대	236	20.8	32.6	21.2	24.6	0.8
	60세 이상	210	23.3	26.2	26.2	24.3	0.0
결혼상태	미혼	296	25.7	27.4	24.0	20.9	2.0
	배우자 있음	633	23.4	31.1	24.2	21.2	0.2
	배우자 없음	71	15.5	29.6	28.2	26.8	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25	23.2	31.7	24.0	21.0	0.2
	자녀 없음	79	17.7	25.3	29.1	27.8	0.0
가족형태	동거인 없음	129	21.7	26.4	31.0	18.6	2.3
	배우자	610	23.3	31.6	23.8	21.1	0.2
	미취학아동	94	26.6	34.0	19.1	19.1	1.1
	취학 자녀	200	25.0	32.0	24.0	19.0	0.0
	성인 자녀	248	22.2	28.6	24.2	25.0	0.0
	부모님	227	26.9	27.8	21.6	22.5	1.3
	기타	22	22.7	27.3	22.7	27.3	0.0
돌봄가족 여부	있음	248	24.2	35.1	22.2	18.5	0.0
	없음	752	23.3	28.2	25.1	22.5	0.9
사회 불평등 인식	불평등	617	24.8	24.0	22.2	28.0	1.0
	평등	383	21.4	39.4	27.9	11.0	0.3
문화 소외계층 인식	비동의	335	23.9	26.3	22.4	25.4	2.1
	동의	665	23.3	31.7	25.4	19.5	0.0

〈부표 49〉 고령화 문제 해결위한 캠페인 필요성 항목별 응답분포

(단위: 명, %, 점)

항목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①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②	보통이다 ③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⑤	5점 평균(점)	100점 평균(점)
세대 간 이해와 존중하는 문화 조성 캠페인	3.2	5.3	22.8	42.2	26.5	3.84	70.9
활기찬 노년, 새로운 시작 캠페인	2.6	5.9	23.5	39.5	28.5	3.85	71.4
모두가 겪는 인생의 여정, 준비하는 미래 캠페인	3.0	7.5	21.8	36.6	31.1	3.85	71.3
고령자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 강조 캠페인	2.4	7.7	22.4	41.9	25.6	3.81	70.2

〈부표 50〉 (캠페인 필요성) 세대 간 이해와 존중하는 문화 조성 캠페인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부정(1+2)	보통(3)	긍정(4+5)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000	8.5	22.8	68.7	3.84	70.9
성별	남성	507	9.3	25.0	65.7	3.78	69.4
	여성	493	7.7	20.5	71.8	3.90	72.4
연령	20대	165	13.9	25.5	60.6	3.64	65.9
	30대	178	12.4	23.0	64.6	3.69	67.1
	40대	211	5.7	19.9	74.4	3.98	74.4
	50대	236	6.8	25.4	67.8	3.82	70.6
	60세 이상	210	5.7	20.5	73.8	3.99	74.8
결혼상태	미혼	296	9.1	26.4	64.5	3.77	69.3
	배우자 있음	633	7.7	20.7	71.6	3.88	72.0
	배우자 없음	71	12.7	26.8	60.6	3.70	67.6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25	6.9	21.1	72.0	3.90	72.5
	자녀 없음	79	19.0	22.8	58.2	3.54	63.6
가족형태	동거인 없음	129	17.8	20.2	62.0	3.59	64.7
	배우자	610	7.5	20.5	72.0	3.88	72.1
	미취학아동	94	9.6	23.4	67.0	3.83	70.7
	취학 자녀	200	7.0	22.5	70.5	3.84	70.9
	성인 자녀	248	5.6	19.8	74.6	3.98	74.4
	부모님	227	7.0	28.6	64.3	3.82	70.6
	기타	22	9.1	22.7	68.2	3.82	70.5
돌봄가족 여부	있음	248	8.1	23.0	69.0	3.85	71.2
	없음	752	8.6	22.7	68.6	3.83	70.8
사회 불평등 인식	불평등	617	7.6	20.1	72.3	3.91	72.7
	평등	383	9.9	27.2	62.9	3.72	67.9
문화 소외계층 인식	비동의	335	7.5	26.0	66.6	3.80	70.0
	동의	665	9.0	21.2	69.8	3.85	71.3

〈부표 51〉 (캠페인 필요성) 고령자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 강조 캠페인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부정(1+2)	보통(3)	긍정(4+5)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000	10.1	22.4	67.5	3.81	70.2
성별	남성	507	10.5	23.3	66.3	3.77	69.1
	여성	493	9.7	21.5	68.8	3.85	71.2
연령	20대	165	14.5	29.7	55.8	3.59	64.8
	30대	178	12.9	21.3	65.7	3.75	68.7
	40대	211	10.4	21.3	68.2	3.82	70.4
	50대	236	9.3	21.2	69.5	3.80	70.0
	60세 이상	210	4.8	20.0	75.2	4.02	75.5
결혼상태	미혼	296	10.8	25.0	64.2	3.74	68.4
	배우자 있음	633	9.0	21.5	69.5	3.86	71.5
	배우자 없음	71	16.9	19.7	63.4	3.62	65.5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25	8.3	21.4	70.2	3.88	71.9
	자녀 없음	79	21.5	20.3	58.2	3.51	62.7
가족형태	동거인 없음	129	17.1	20.2	62.8	3.63	65.7
	배우자	610	8.7	21.3	70.0	3.87	71.8
	미취학아동	94	10.6	26.6	62.8	3.79	69.7
	취학 자녀	200	12.5	21.5	66.0	3.76	68.9
	성인 자녀	248	6.0	24.2	69.8	3.87	71.7
	부모님	227	10.6	26.0	63.4	3.72	68.0
	기타	22	9.1	31.8	59.1	3.68	67.0
돌봄가족 여부	있음	248	8.9	21.8	69.4	3.88	71.9
	없음	752	10.5	22.6	66.9	3.78	69.6
사회 불평등 인식	불평등	617	9.1	23.5	67.4	3.82	70.5
	평등	383	11.7	20.6	67.6	3.79	69.6
문화 소외계층 인식	비동의	335	8.1	28.4	63.6	3.78	69.4
	동의	665	11.1	19.4	69.5	3.82	70.5

〈부표 52〉 (캠페인 필요성) 활기찬 노년, 새로운 시작 캠페인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부정(1+2)	보통(3)	긍정(4+5)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000	8.5	23.5	68.0	3.85	71.4
성별	남성	507	8.7	26.4	64.9	3.77	69.3
	여성	493	8.3	20.5	71.2	3.94	73.5
연령	20대	165	12.7	27.9	59.4	3.67	66.8
	30대	178	10.1	26.4	63.5	3.74	68.4
	40대	211	8.1	25.1	66.8	3.83	70.7
	50대	236	8.9	21.6	69.5	3.88	71.9
	60세 이상	210	3.8	18.1	78.1	4.10	77.4
결혼상태	미혼	296	10.5	27.7	61.8	3.73	68.3
	배우자 있음	633	7.4	22.0	70.6	3.91	72.7
	배우자 없음	71	9.9	19.7	70.4	3.89	72.2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25	7.4	21.9	70.7	3.92	73.1
	자녀 없음	79	10.1	20.3	69.6	3.76	69.0
가족형태	동거인 없음	129	12.4	27.1	60.5	3.68	67.1
	배우자	610	7.2	21.6	71.1	3.91	72.9
	미취학아동	94	6.4	30.9	62.8	3.78	69.4
	취학 자녀	200	7.0	26.0	67.0	3.83	70.8
	성인 자녀	248	6.0	17.3	76.6	4.02	75.5
	부모님	227	10.1	28.2	61.7	3.74	68.4
	기타	22	4.5	22.7	72.7	3.95	73.9
돌봄가족 여부	있음	248	9.3	27.0	63.7	3.84	71.1
	없음	752	8.2	22.3	69.4	3.86	71.4
사회 불평등 인식	불평등	617	6.8	21.7	71.5	3.93	73.3
	평등	383	11.2	26.4	62.4	3.73	68.1
문화 소외계층 인식	비동의	335	7.2	25.1	67.8	3.87	71.8
	동의	665	9.2	22.7	68.1	3.85	71.1

〈부표 53〉 (캠페인 필요성) 모두가 겪는 인생의 여정, 준비하는 미래 캠페인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부정(1+2)	보통(3)	긍정(4+5)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000	10.5	21.8	67.7	3.85	71.3
성별	남성	507	11.2	24.3	64.5	3.76	68.9
	여성	493	9.7	19.3	71.0	3.95	73.8
연령	20대	165	12.7	27.9	59.4	3.67	66.7
	30대	178	15.2	19.7	65.2	3.72	68.0
	40대	211	9.5	23.2	67.3	3.85	71.2
	50대	236	10.2	19.9	69.9	3.92	72.9
	60세 이상	210	6.2	19.5	74.3	4.05	76.2
결혼상태	미혼	296	10.1	25.0	64.9	3.79	69.7
	배우자 있음	633	10.6	20.7	68.7	3.88	72.1
	배우자 없음	71	11.3	18.3	70.4	3.86	71.5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25	10.6	20.2	69.3	3.89	72.3
	자녀 없음	79	11.4	22.8	65.8	3.80	69.9
가족형태	동거인 없음	129	15.5	21.7	62.8	3.69	67.2
	배우자	610	10.7	20.3	69.0	3.89	72.1
	미취학아동	94	17.0	20.2	62.8	3.71	67.8
	취학 자녀	200	12.5	20.5	67.0	3.76	68.9
	성인 자녀	248	6.5	20.2	73.4	4.00	75.1
	부모님	227	7.9	26.0	66.1	3.82	70.6
	기타	22	4.5	13.6	81.8	4.00	75.0
돌봄가족 여부	있음	248	10.1	23.0	66.9	3.86	71.5
	없음	752	10.6	21.4	68.0	3.85	71.3
사회 불평등 인식	불평등	617	8.4	18.0	73.6	3.99	74.8
	평등	383	13.8	27.9	58.2	3.63	65.8
문화 소외계층 인식	비동의	335	9.0	23.6	67.5	3.88	72.0
	동의	665	11.3	20.9	67.8	3.84	71.0

집필 내역

연구 책임

윤지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제1장, 제2장 일부, 제3장. 제4장, 제5장, 연구총괄

공동 연구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2장 제4절 일부, 제5장 제2절 일부

조성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연구위원: 제2장 제1절~제2절 일부, 제4장 제2절 일부

연구 참여

김은진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박사과정

인구위기 대응 생애주기 문화정책 방안 연구

발 행 인 김 세 원

발 행 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 쇄 일 2024년 10월 23일

발 행 일 2024년 10월 23일

인 쇄 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 S B N 979-11-7198-019-2 93300

DO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4.e12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윤지연·윤소영·조성은(2024), 인구위기 대응 생애주기 문화정책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4.e12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www.kcti.re.kr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93300
9 791171 980192
ISBN 979-11-7198-019-2